

학술세미나 을묘왜변과 지역사회의 대응, 역사문화자원화

주관·주최 **Jeju** 제주특별자치도 **JRI** 제주연구원

후원  **한리일보**
제주의 대표신문

2022. 9. 22.(목) 13:00

제주아스타호텔



인사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한상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 을묘왜변은 제주 유일의 승전사이자, 강한 제주인들이 만들어낸 빛나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제주 을묘왜변에서 승리했던 제주 선조들의 활약은 그동안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학술세미나는 건공장군 김성조와 치마돌격대 등 제주 을묘왜변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재조명하고 학술적 가치를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 열리는 행사로, 그 의미가 무척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뜻깊은 자리를 함께 준비해주시고 지난해부터 제주 을묘왜변에 관한 연구와 역사문화 자원화 방안에 대해 아낌없는 제언을 해 주고 계신 제주연구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랜 세월 척박한 환경을 옥토로 만들어온 제주인들의 강인한 정신은 을묘왜변을 비롯한 투쟁의 역사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제의 억압에 굴하지 않고 무오 법정사 항일항쟁, 조천만세운동, 해녀항일운동 등을 펼쳤고, 6·25 전쟁에 맞서 수많은 청년들이 자원입대해 승전보를 전해주었습니다.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제주의 수많은 역사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밝혀 내며 주체적이고 당당하게 맞섰던 제주인의 용기와 기상을 바르게 기억하고 계승해야 합니다.

제주도정은 선조들이 일군 자랑스럽고 강인한 제주를 가슴에 품고서 빛나는 제주, 대한민국을 이끄는 상위 1%의 자부심 넘치는 제주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제주의 역사적 가치가 돋보일 수 있도록 뜻깊은 자리가 많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인사말



제주연구원장 직무대행
이성용

안녕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 직무대행 이성용입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을묘왜변과 지역사회의 대응, 역사문화자원화”를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조선 최대 국란인 임진왜란이 발발한 지 4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임진왜란이 발발 하기 이전인 1555년 을묘년 명종 시기에는 제주와 전라남도 영암에서 왜변이 있었습니다. 이때 김수문 제주목사와 민·관으로 구성된 군사들은 3일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승전보를 올렸습니다. 이 사건은 제주 유일의 승전사입니다. 특히 자강능력이 부족하였던 제주지역에서 민·관 협력으로 을묘왜변의 승전사를 이끈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까지 이 을묘왜변과 관련 인물들에 대하여서는 잘 조명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제주와 호남지역의 연구자들이 모여 을묘왜변에 대한 지역사회 및 지역민들의 대응과 지역 인물들을 살펴보고, 미래 세대에게까지 계승할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화를 논의하는 학술세미나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주을묘왜변의 승리사는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역사적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그동안 제주의 역사 이야기는 피해의 역사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제주 섬에서 일어난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도 승리의 역사는 존재하였고, 이 승리의 역사는 지역사회의 번영과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주연구원은 2021년 작년부터 제주을묘왜변 및 치마돌격대에 대한 연구와 그에 대한 역사문화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제주사회에서 제주을묘왜변의 승전사와 치마돌격대 등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길 기

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는 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학계, 언론계, 관련 문중 등이 뜻을 모아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은 데 있습니다. 제주사회의 여러 영역들이 이렇게 한데 뜻을 모아 준 데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발표와 토론을 위해 자리해주신 전문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축사



한라일보 대표이사
김전일

470여년 전 1555년 을묘년 명종 시기에 제주와 영암지역에서 왜변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두고 ‘을묘왜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을묘왜변이 일어나기 전 명종 즉위년(1445년)부터 명종 9년(1554년)까지 제주에는 4차례 왜구 침입이 있었고, 영호남 지역에서도 왜구는 들끓었습니다.

을묘왜변 초기 조선은 왜구나 왜구의 군사력에 대한 정보 파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연패를 거듭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주에서의 승전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역차원에서의 왜변과 승전은 제대로 조명될 기회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제주을묘왜변은 제주 유일의 승전(勝戰) 역사이며, 제주 사람들의 도전 정신과 용기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사람 건공장군 김성조를 비롯하여 치마돌격대의 활약에 대하여 재조명하는 일은 지역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였던 제주사람들의 주체성과 의지를 볼 수 있는 중요 사례입니다.

그간 이런 역사적 사건에 대한 조명이나 학술적 접근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도민들에게는 잊혀진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라일보도 그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제주을묘왜변의 의미와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 당시 활동하였던 인물 및 역사문화자원화 방안 등을 조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계기로 민관이 결사항전으로 나서 물리친 제주 역사상 유일의 승전사에 대하여 도민사회에 알려지고, 제주사회의 공동체 기억으로 확산되길 기원합니다.

2022년 9월 22일

프로그램

시간	행사	내용
12:50~13:00	등록	
13:00~13:15	개회	국민의례/ 내빈소개/ 인사말/축사
13:15~13:45 (30분)	<기조발표>	“잊혀진 제주의 첫 승전사...”, 제주을묘왜변 재조명과 역사성” 강만생(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장)
13:45~13:50 (5분)	휴식	단상정리
13:50~15:20 (90분)	<주제1> 을묘왜변과 영암의 대응	좌 장 : 김병인(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발표1 : 을묘왜변과 영암 달량 전투 김덕진(광주교육대학교 교수) 발표2 : 영암지역 양달사 장군과 창우대의 의병활동 노기욱(호남의병연구소 소장) 발표3 : 왜구침입로로 본 을묘왜변 정현창(전남대학교 문화유산연구소 연구원) 토론1 : 안종경(목포대학교 호남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원) 토론2 : 김용철(전남이순신연구소 연구원) 토론3 : 이영현(영암학회장)
15:20~15:30 (10분)	휴식	-
15:30~17:00 (90분)	<주제2> 을묘왜변과 제주의 대응	좌 장 : 문영택(사단법인 질토래비 이사장) 발표4 : ‘제주’을묘왜변의 재조명과 역사적 의의 홍기표(前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겸임교수) 발표5 : ‘제주’을묘왜변과 역사인물 김석운(제주대학교 강사) 발표6 : 조선전기 왜구와 제주의 방어체계 오수정(제주여성가족연구원 경영지원실장) 토론4 : 윤성익(경희대학교 강사) 토론5 : 김익수(제주불교신문 대기자) 토론6 : 강문규(前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소장)
17:00~17:10 (10분)	휴식	-
17:10~18:10 (60분)	<주제3> 역사문화자원의 문화원형 및 콘텐츠 발굴	좌 장 : 문순덕(제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발표7 : 영암읍성의 원형 추정과 문화유산 활용방안 성대철(재단법인 전남문화재연구원 건축문화재연구소장) 발표8 : 제주을묘왜변의 역사문화자원화 현혜경(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토론7 : 송태갑(영암군립하정옹미술관 관장) 토론8 : 김형훈(미디어제주 편집국장)
18:10~18:20	마무리	이후 만찬



학술세미나 **을묘왜변과 지역사회의 대응, 역사문화자원화**

〈기조발표〉

잇혀진 제주의 첫 승전사: 제주을묘왜변 재조명과 역사자원화	1
강만생(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장)	

〈주제1〉

을묘왜변과 영암의 대응

좌 장 : 김병인(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발표1 : 을묘왜변과 영암 달량 전투	9
김덕진(광주교육대학교 교수)	
발표2 : 영암지역 양달사 장군과 창우대의 의병활동	21
노기욱(호남의병연구소 소장)	
발표3 : 왜구침입로로 본 을묘왜변	40
정현창(전남대학교 문화유산연구소 연구원)	
토론1 : 안종경(목포대학교 호남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원)	67
토론2 : 김용철(전남이순신연구소 연구원)	69
토론3 : 이영현(영암학회장)	71

〈주제2〉

을묘왜변과 제주의 대응

좌 장 : 문영택(사단법인 질토래비 이사장)

발표4 : ‘제주’을묘왜변의 재조명과 역사적 의의	77
-----------------------------------	----

홍기표(前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겸임교수)

발표5 : ‘제주’을묘왜변과 역사인물	107
----------------------------	-----

김석윤(제주대학교 강사)

발표6 : 조선전기 왜구와 제주의 방어체계	118
-------------------------------	-----

오수정(제주여성가족연구원 경영지원실장)

토론4 : 윤성익(경희대학교 강사)	130
---------------------------	-----

토론5 : 김익수(제주불교신문 대기자)	135
-----------------------------	-----

토론6 : 강문규(前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소장)	139
----------------------------------	-----

〈주제3〉

역사문화자원의 문화원형 및 콘텐츠 발굴

좌 장 : 문순덕(제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발표7 : 영암읍성의 원형 추정과 문화유산 활용방안	145
------------------------------------	-----

성대철(재단법인 전남문화재연구원 건축문화재연구소장)

발표8 : 제주을묘왜변의 역사문화자원화	173
-----------------------------	-----

현혜경(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토론7 : 송태갑(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관장)	191
--------------------------------	-----

토론8 : 김형훈(미디어제주 편집국장)	194
-----------------------------	-----

잊혀진 제주의 첫 승전사 : 제주을묘왜변 재조명과 역사자원화

기조발표

강만생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장

1. 들어가며

- ▶ ‘아름답고 슬픈 섬’ - 수십만 년간 자연의 힘이 빚어낸 지극히 아름다운 섬이지만 지배권력의 전횡에 의한 한(恨)과 고통 속에서 질곡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슬픈 섬.
- ▶ 준비된 임진왜란 발발 37년 전 1555년(明宗 10년) 5월 일본 고토(五島)열도근거의 왜구 1000여 명이 화북포 침입하자 군사력 열세 극복, 군관민 합동 격퇴 작전 → 제주 최초의 勝戰史
- ▶ 16세기 제주도는 以南 6道와 차별 대우 → 행정구역상 전라도에 소속이었지만 변방 취급. 척박한 자연환경에 경작지 부족 등 곤궁하고 궁핍한 생활 → 각종 세와 부역 부담을 견디지 못한 도민들 상당수가 流亡.
- ▶ 여말선초 이래 빈번한 왜구 침략은 경제적 침탈 외에 도민의 생명까지 위협. 점차 중국으로 가는 길목인 제주를 점령, 거점 삼고자 의도적 침입.
- ▶ 도민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시킬 역사적 사건임에도 당당한 승전의 역사로 평가받지 못함. 도민들조차 인식 부족과 유적지 관리 미비 등 테마역사교육공간 활용 어려움.
- ▶ 기억의 소멸은 존재의 소멸로 이어진다. 역사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 위한 연구성과 축적과 과학적 기법 활용한 역사자원화방안 모색 절실.

2. 16세기 제주의 사회경제적 상황

- ▶ 16세기 조선사회 점차 쇠퇴의 기미. 지배층의 편당, 정치의 기강 해이, 세제 문란 등 폐단으로 민심이 이반 됨. 위정자들도 이런 폐단 인지할 정도.
- ▶ 15세기 이래 계속된 전국적 가뭄과 흉수, 흉년, 황재(蝗災), 전염병 발생 → 농민들 근거지 잃고 돌아다니고, 일부 도적 때로 변신 등 국가재정의 근간인 농촌 갈수록 황폐화. 三倉 貯置米 중종 대 230만석, 임진왜란 직전 50만석.
- ▶ 조선 전기 1470년(성종 원년) 이후 1624년(인조 2년)까지 150여 년간 제주인들 국가·관리·토호들의 가혹한 수탈, 세·부역의 과중한 부담, 잦은 왜구 침략에 따른 피해에다 식량난까지 겹쳐 견디지 못해 전라·경상도 해안지역으로 몰래 출륙 사례 빈번 : 제주 3읍 인구 급격한 감소.
- ▶ 전복 미역 말 굴 등 특산물의 과중한 진상과 공산물품 외에 과외로 부과되는 공상품 부담에 따른 도민 도망현상 원천 봉쇄하고 안정적 징수 위해 200년간 출륙금지령 <1629년(인조 7년)~1825년(순조25년)>
- ▶ 제주는 생활용수인 용천수 얻기 위해 해안가 인근 촌락 발달. 부패가 극심했던 시기 조선 어촌의 단면이지만 대체로 토착 향리층, 관리들의 착취와 탐학에 최소한의 삶의 기초도 확보하지 못한 채 어려운 삶을 이어갔던 어촌민.

3. 왜구의 침공·약탈에 대한 인식

- ▶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동아시아 중심에 위치 주변의 다양한 문화와 문화를 연결해주는 중간고리 역할. 이 과정에서 중국, 일본은 물론 서양문화 유입되거나 주변 지역 정보를 중앙에 제공.
- ▶ 초기 왜구는 제주의 연근해 마을과 주성을 대상으로 자주 침입, 방화·약탈·인명 살상을 일삼는 해적의 무리. 점차 무력화 세력화한 왜구들 우마와 식량 약탈, 땀값·음료수 확보, 공물운반선 약탈 등 자행.
- ▶ 제주지역 關防시설 대대적 정비 등 왜구 침략에 선제적 대비 : 1510년 목사 張琳이 성

축조, 병선 보수, 활·화약 추가 지급, 군량미 확보, 군비보강 등 왜구침공에 대비, 중앙정부에 건의.

- ▶ 湖南援兵制 시행-1512년(중종 7년) 왜구의 침공에 군사적 대비. 제주방어 위해 전라도에서 병력을 차출하여 임진왜란 전까지 매년 500명 파견.
- ▶ 16세기 이후 왜구는 대규모 선박과 인원을 갖춘 武裝선단(후기왜구) → 약탈과 납치 외에 밀무역 병행. 인적 구성도 명나라人 70%, 30%가 日人.

4. 을묘왜변의 역사적 배경과 전개 과정

가) 역사적 배경

- ▶ 잦은 왜구 침략 방어를 위한 관방시설 확충과 병력 증원 배치 등 대비책 수립, 역부족 상당한 한계 드러냄. 왜구는 제주의 방어체계가 빈약·허술한데다 백성 보호 의지가 부족한 조선 정부의 행태 간파.
- ▶ 1510년 삼포왜란 이후 세견선(歲遣船) 감축에 왜구 불만 고조. 계속된 일본의 세견선 완화 조치 요구에도 조선 정부가 묵살 또는 불응. 1544년 사랑진왜변 발발에 왜구의 합법적 조선 왕래 금지. 대마도주 사죄와 통교재개 간청에 1547년 정미약조 → 통교 허용했으나 되레 통제 강화됨.
- ▶ 일본 국내 정세도 왜구의 을묘왜변 촉발 부추김. 16세기 일본 전국시대로 호족 간 치열한 세력다툼에 무로마치막부(室町幕府)의 지방세력 통제력 약화. 왜구는 생활물자 부족 해결 등 생존과 경제적 실익 챙기려 조선과 명나라 해안지역 공략에 적극적.
- ▶ 왜구가 조선·明 해안지역을 손쉽게 범접한 배경엔 개인화기 발달도 한몫. 16세기 중반 이후 포르투갈 등에서 들어온 신식 화학무기 화승총, 조총 무장, 성능 매우 우수 전투력 증강. 조선과 명의 화기는 개인용 총통(銃筒).
- ▶ 왜변의 중심이 明人 王直과 왜인이 결합-중국서 활동했던 ‘후기왜구’의 전형적 유형. 종래의 왜구, 왜변, 왜란과는 사건 중심세력이나 성격이 전혀 다름.

나)을묘왜변의 전개

<1차 을묘왜변>

- ▶ 1555년 5월 11일(음) 대마도와 북규수 근거지의 왜구 5~7천여 명이 70여 척 선박을 이용하여 들이닥쳐 전라도 여러 군현을 유린. 조선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왜구침입 사건. 왜구 격퇴·수습차 출동한 전라병마절도사 元積과 장흥부사 韓蘊 피살. 전라도순찰사 李浚慶을 대장하는 토벌군은 왜구를 완전 격멸시키지 못했으나 군관민과 의병 노력으로 1차 왜변 진압 성공.

<2차 을묘왜변>

- ▶ 퇴각하던 왜구 중 1천여 명이 60여 척에 분승, 방향을 바꿔 6월 27일 제주도 화북포 거쳐 제주성에 침입, 주민살상과 양곡과 재물 약탈에 민심 동요.
- ▶ 제주목사 김수문(金秀文)이 지휘하는 民軍官이 제주성을 경계로 왜구와 3일간 대치 후 격돌. 定虜衛 金直孫, 甲士 金成祖, 甲士 李希俊, 保人 文時鳳 4명의 馳馬(치마)돌격대가 주력을 공격, 격퇴에 결정적 수훈. 또한 正兵 金夢根이 적장을 사살하자 퇴각하는 왜구 추격, 상당수 참획(斬獲).
- ▶ 4인 치마돌격대 → 결사항전의 각오로 자원 참여. 말 타고 적진으로 돌진하고서 개인 전술로 승리를 일궈냄. 김수문 목사와 재종간(再從間)인 김직손 제외 한량인 의병들이 자원해서 격퇴전 참가.

5.제주을묘왜변 재인식과 역사 자원화

가)역사적 재평가

- ▶ 이전에 있었는지 모르나 이제는 없는 게 제주에는 많다. 난리를 많이 치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졌는지 모른다. 실제로 오랜 역사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에는 아무런 흔적도 나타내지 않는 역사적 사건이 허다하다. 특히 승전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도민

의 금지-자부심을 도모하기 위한 과제 해결.

- ▶ 제주도를 본거지 삼고자 했던 왜구의 꿈 좌절 : 임진왜란 이전 최대 병력으로 조선의 남해안을 침공, 곳곳을 휘젓고 다니며 기세를 떨친 왜구. 관군과 의병에 쫓긴 왜구는 2차로 단순 약탈대상지 아닌 일본 고토열도와 큐수, 명나라를 잇는 중심인 제주도를 국제적 활동의 본거지로 삼고자 계획적 침략.
- ▶ 강력한 군사력의 왜구 침략에 관군의 대응체계가 제때 작동하지 않아 초기에 불리한 상황. 제주 목사가 지휘하는 관군에 의병의 자발적 참여로 군관민협력부대가 막강 왜구를 격퇴하는 이변으로 승전의 역사 연출. 하지만 승전의 기록은 아직도 다 채워지지 않은 채 ‘여백의 페이지’로 남겨짐.
- ▶ 비변사 상설화 → 1510년 삼포왜란 이후 왜구와 여진 등의 외침이 있을 때 수습책으로 정토군(征討軍) 편성 때 임시로 설치·운영됐던 비변사를 상설화. 을묘왜변 이후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고, 임진왜란 이후 국난 수습과 타개 위한 군정, 민정, 외교, 재정에 관한 모든 국가사무처리하는 막강 권력기관.
- ▶ 제주지역 방어체제 강화를 위해 축성, 봉수, 연대 등 관방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

나)역사자원화 방안

- ▶ 진리를 발견하는 것보다 잘못을 인식하는 편이 훨씬 쉬운 일. 잘못은 표면에 드러나기 때문에 쉽게 발견. 하지만 진리는 깊은 곳에 숨어 있어서 아무나 찾아낼 수 없는 일. 숨겨진 진리를 어렵사리 찾아내어 대중화 작업 추진.
- ▶ VR(가상현실)을 이용 다양한 콘텐츠로 꾸며진 가상현실공간 ‘제주을묘왜변’ 재현. 자료발굴을 통한 고증 외에 구전 등도 함께 발굴하여 왜변의 전개 과정을 역사적 사실에 근거 재구성과 동시에 역사적 재평가 준거 틀 마련.
- ▶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역사교육과 역사체험 공간을 제공. 청소년들이 가상현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치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에 필요한 아이디어 제공토록. 또한 회원제 운영으로 청소년 비용 부담을 최소화, 역사교육장 활용 극대화.

- ▶ 왜구의 침략과 만행의 실태와 민관군 합동군사력의 왜구 격퇴 과정에 대한 본격 연구용역 추진 → 연구성과를 근간으로 역사대중화 작업.
- ▶ 중요 전적지와 유적지 등 사적지에 표지석 안내판 설치 등 역사복원화 추진 나아가 역사공원조성까지.
- ▶ 역사의 현장에 참여했던 인물들을 대상의 인물사 연구 통해 사건의 진실을 재구성.

〈주제1〉

을묘왜변과 영암의 대응

좌 장 : 김병인(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발표1 : 을묘왜변과 영암 달랑 전투

김덕진(광주교육대학교 교수)

발표2 : 영암지역 양달사 장군과 창우대의 의병활동

노기욱(호남의병연구소 소장)

발표3 : 왜구침입으로 본 을묘왜변

정현창(전남대학교 문화유산연구소 연구원)

토론1 : 안종경(목포대학교 호남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원)

토론2 : 김용철(전남이순신연구소 연구원)

토론3 : 이영현(영암학회장)

을묘왜변과 영암 달랑 전투

김덕진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1. 달랑이란?

달랑(達梁)은 1906년 월경지 정비 때 해남군으로 이속되기까지 영암 땅이었다. 『동국여지승람』 전라도 영암군(靈巖郡) 조항에 달도(達島)를 포함하여 24개의 도서가 본군 소속으로 기록되어 있다. 달도를 기준으로 그 남쪽이 완도(莞島)란 섬이고, 북쪽이 달랑이다. 달랑이란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명랑(鳴梁)이나 노랑(露梁)처럼 달도와 육지 사이의 좁은 해협을 말하고, 또 하나는 영암 땅에 있는 달랑포(達梁浦)란 포구를 말한다. 이 가운데 사람들은 달랑포를 보통 달랑이라고 불렀다. 여기에서도 달랑을 달랑포로 표현하고자 한다.

달랑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고, 바로 앞 완도 원동을 오가는 진(津)이 달랑에 있었다. 또한 “要衝一路大津流”¹⁾이라고 할 정도로 교통의 요지여서 남해와 서해를 오가는 상선·조운선·여객선이 왕래하는 곳이었다. 그리고 1872년 영암 고지도에 “古達梁鎮地關隘要衝地”라고 적혀 있을 정도로 달랑은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였다.²⁾

이러한 점으로 인해 일찍이 달랑에 수군진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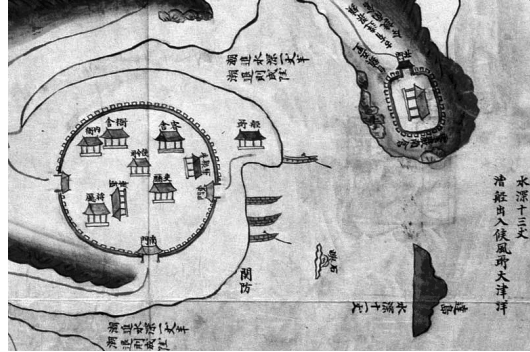
1) 竹島松峯點點浮 要衝一路大津流 時平戰艦湖邊繫 老將閒眠海月樓(『영암읍지』, 누정, 해월루). 이 시 속의 죽도(竹島)는 확인되지 않지만, 송봉(松峯)은 1872년 「영암군지도」에 표기되어 있는데 서(嶼)로 보인다.

2) 김덕진, 「전라도 영암의 達梁浦, 達梁鎮, 古達梁」, 『南道文化研究』 41,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20.

1872년 지방지도(전라도) 속의 옛 달랑진성



영암군지도(오른쪽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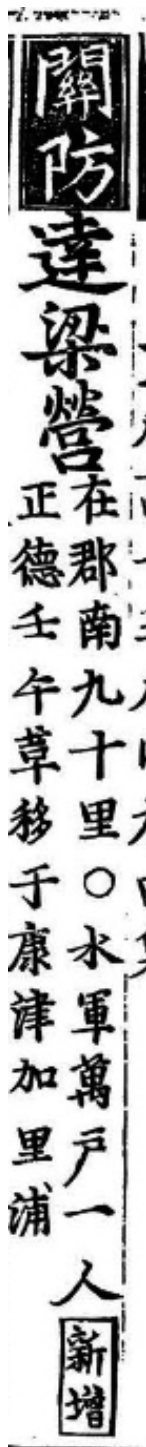
영암군이진진지도(오른쪽 성)

2. 달랑, 만호진에서 권관진으로

수군 편성과 수군진 설치는 여말선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영암군 남쪽에 있는 달랑은 좌도 도만호 아래의 8개 만호진(萬戶鎭) 가운데 하나로, 중선(中船) 7척과 맹선(孟船) 2척, 군사 5백 19명과 뱃사공 4명을 거느렸다. 『경국대전』에도 달랑진은 좌도 소속이었다. 『동국여지승람』 영암군조에도 군 남쪽 90리에 달랑영(達梁營)이 있다고 적혀 있다. 결국 달랑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조선전기에 만호가 주둔하는 수군진이 설치되어 있었던 곳이다.

1522년(중종 17) 5월에 적왜(賊倭)들이 추자도에 나타나 우리나라 사람 30여 인을 살상하고 노략질을 자행했고, 이를 접한 정부는 “이번의 왜변은 다른 때보다도 심하다”고 인식하고서 우도의 수사·우후·수령·만호·첨사 등을 추고해야 한다고 하였다.³⁾ 심지어 좌도가 허술해서 그랬으니 그곳 수사 또한 죄가 없을 수 없다는 말까지 나왔다. 조방장을 파견해야겠다고 논의하는 사이에 다음 달 6월에는 왜선(倭船)들이 15척 또는 10여 척씩 떼를 지어 달랑, 보길도, 추자도 등지를 드나들고 있었다. 남도포와 금갑도 만호가 노근도에서 왜선 8척을 만나 신기

3) 『중종실록』 권44, 중종 17년 5월 26일(辛未), 27일(壬申).



전과 총통을 쏘아대니 그때에서야 물러갔다. 이때 왜선 12척이 깃발을 세우고 징과 북을 치면서 달랑을 침범하였다. 승선한 왜적 80여 명이 먼저 하륙하자, 달랑 군사들이 성벽을 굳게 단속하고 화살을 마구 쏘며 또한 포를 쏘자 왜적들은 흩어져 북쪽으로 도망갔다.⁴⁾ 규모와 깃발 사용 및 우리 말 사용 등 여러 측면에서 당국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구가 한반도로 들어오는 요지인 완도 가리포(加里浦)에 첨사진이 설치되고 만호진인 달랑진이 가리포진으로 병합되고 말았다.

그렇다고 달랑진 자체가 바로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달랑진은 진(鎭)급의 규모가 아니라 그 아래 급의 보(堡)로, 위상이 만호진이 아니라 권관진(權管鎭)으로 계속 존치되었다. 최소한의 방어시설도 없이 가리포가 무너진다면 달랑 지역에 치명타가 가해지리라고 예상하여 달랑을 권관진 수준으로 남겨 놓았을 것 같다.

권관이란 적로 요해처 또는 보와 같은 소형 성곽에 두는 임시 장수로, 그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들어가서 지역민을 수호하게 하였다. 보통 현지인이 맡기도 하지만, 무과 급제자가 임명되기도 하였다. 전라도 능성 사람으로 1554년에 18세의 나이로 무과에 급제하고서 선전관에 임명된 조현(曹顯)이 1555년에 달랑권관(達梁權管)에 제수되었다. 제수된 해에 일어난 을묘왜변 때 왜구가 달랑을 침략하자 검을 뽑아 분격하여 살상한 자가 매우 많았으나 화살이 떨어지고 힘이 다하고 성이 함락되자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⁵⁾ 이 점을 높이 산 선조는 “절의는 국가의 원기이고 우주의 동량(棟梁)이다. 지난 을묘년 왜변 때 변장(邊將)들이 어떤 사

4) 全羅道觀察使申鑑、節度使吳堡馳啓: “倭船十二隻, 設旗纛、擊鉦鼓, 八十餘人先下陸, 犯新達梁, 我軍堅壁亂射, 又放炮, 奔竄北走云(『중종실록』 권45, 중종 17년 6월 11일丙戌).

5) 『여지도서』, 능주, 인물. 광종석, 『면우집』 권160, 묘갈명, 「効力副尉行達梁鎭權管贈通政大夫兵曹參議曹公墓碣銘」, 을묘왜변 때 조현이 가리포첨절제사로서 달랑에서 전사하였다는 기록이 있지만(양진영, 『만회집』 권10, 「褒忠祠給復事實記」), 이는 당시 가리포첨사는 실록에 이세린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기로 보인다.

람은 갑옷을 벗고 항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을 버리고 달아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머뭇거리면서 진격하지 않기도 했는데 장흥부사 한온과 달랑권관 조현은 홀로 절의를 지키다가 죽었으니 이 두 사람의 늠름한 의기를 내가 매우 가상히 여긴다. 특별히 사제(賜祭)할 일에 대해 대신에게 의논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⁶⁾

3. 왜구, 달랑을 침범하다

1555년(명종 10)에 왜구의 대규모 침략이 있었다. 이를 을묘년에 일어난 왜변이라고 하여 을묘왜변(乙卯倭變)이라 한다. 을묘왜변은 전라도 서남부를 초토화시켰고, 서울까지 바짝 긴장시켰다.

5월 11일, 왜구들이 선박을 타고 영암 땅 달랑진성 밖 바다에 출몰했다. 달서봉(達嶼峰) 앞에다 구름처럼 진을 쳤다고 한다.⁷⁾ 달서봉은 달도의 봉우리 또는 달랑 앞 바다에 있는 서(嶼)를 말할 것 같다. 유자나무가 많아 유자도(柚子島)라고 불린 달랑포 바로 앞 섬에 적선이 정박했었다는 기록도 있다.⁸⁾ 유자도는 19세기 고지도에 보이는 굴도(橋島)로 짐작된다. 출몰한 왜적의 숫자에 대해 6천여 명, 1만여 명⁹⁾ 등이 보인다. 선박의 숫자에 대해서는 수십척,¹⁰⁾ 60여척,¹¹⁾ 70여척, 1591년에 최립이 올린 주본에 1백여 척¹²⁾ 등이 보인다. 적선의 돛대가

6) 『선조실록』 권12, 선조 11년 5월 6일(丙辰).

7) 達嶼峯前陣如雲(백광훈, 『옥봉집』 권하, 시, 「達梁行」).

8) 구봉령, 『백담속집』 권2, 칠언절구, 「柚子島」(乙卯 羣倭陷達梁之處).

9) 『영암읍지』, 선생안, 이덕견편에는 5월 13일 적병 만여 명이 달랑을 약탈하였다고 적혀 있다. 6천이건 1만이건 간에 숫적으로 을묘왜변은 전면전 양상이었다.

10) 歲乙卯夏五月 倭船數十艘 出沒於靈巖之達梁鎮 節度使元績 領軍馬馳赴其城 賊之帆檣 蓋海而來 績也素乏算略 戰守乖方 顧酒投書乞降 賊衆開門闌入 績及一城將士 竝被屠害 列鎮守將 望風奔竄 猶恐或後(소세양, 『양곡집』 권14, 기, 「兵營重創記」).

11) 乙卯 倭賊六十餘艘來寇 陷於蘭達梁兵營康津 靈岩郡守李德堅被虜 賊進圍長興 九官救兵 一時潰散 兵使元績敗死 府使韓蘊 城陷死之(박동량, 『기재잡기』 권3, 「歷朝舊聞」3 明宗).

12) 至嘉靖乙卯 有倭船一百餘艘 來犯全羅道達梁等鎮 緣是小邦狃安之久 戰守兵吏 多有被害 然賊亦敗衄 殆無得還(최립, 『간이집』 권1, 주, 「辛卯奏奉教製」).

바다를 덮었다고 하니, 대규모 침범임을 알 수 있다.

왜구들은 두 진영으로 나뉘어 동쪽 달랑포(達梁浦)와 서쪽 이진포(梨津浦)를 통해 육지로 상륙하기 시작하였다. 상륙하며 왜구의 일부는 창을 휘두르며 칼을 빼들고 사람에게 덤벼들었다. 또 일부는 호각을 불며 불을 놓아 달랑진성 아래 민가를 불태우니 연기가 3일 동안이나 하늘을 덮었다. 백광훈(白光勳, 1537~1582)이 「달랑행」에서 “홍해 마을 들관 입구 막혀 구원의 길은 끊기고”라고 읊었다. 달랑에서 2km 이상 떨어진 ‘홍해(洪海)’ 마을까지 왜구의 발길이 미쳤던 것 같다. 상륙한 적들은 모두 달랑진성으로 몰려와 6겹으로 포위하며 성곽을 공격하였다. 달랑권관 조현이 홀로 성을 지키며 성 담장 위에 올라가 화살로 적을 쏘아 맞히며 저지하였다. 그러나 5월 13일, 왜구들은 성문을 열고 난입하였다. 3일만에 달랑진성이 함락당한 것이다.¹³⁾ 조현은 화살이 다하고 활이 부러지자 몸을 날려 지붕으로 올라가서 잇따라 기와 조각을 던져 무수한 적들을 죽였으며, 기왓장이 다하자 북쪽을 향해 재배(再拜)하고는 적을 꾸짖다 그만 죽고 말았다.

왜적의 출몰 사실을 가리포첨사 이세린이 즉각 전라병사 원적(元績)에게 보고하였다. 원적은 군사 2백여 명을 거느리고 장흥부사 한온(韓蘊), 영암군수 이덕견(李德堅)과 함께 달랑으로 갔다. 날이 저물기도 하였지만 왜적들이 거짓으로 피하여 도망가자, 원적은 드디어 성 안으로 들어가 지키며 방어하였다. 이튿날 아침에 적의 무리가 성을 포위하였다. 병사(兵使)와 군사들이 그들을 굽어보며 활을 쏘아 맞는 자가 많자, 왜인들이 큰 깃발을 성 밑으로 옮기어 쫓고 각각 방패를 지니고서 날뛰며 북을 치고 소리를 질러댔다. 성안의 사람들이 돌로 내리치자 깃발과 방패가 더러는 부숴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여 패배하는 듯한 모양이 있기도 했다. 달랑진은 조그마한 진(鎭)인데다가, 성 안에 군사도 적었고 그 마저도 대부분 성을 넘어 몰래 도망쳐버렸다. 구원병은 패해 달아나고 외부의 구원도 지연되고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 실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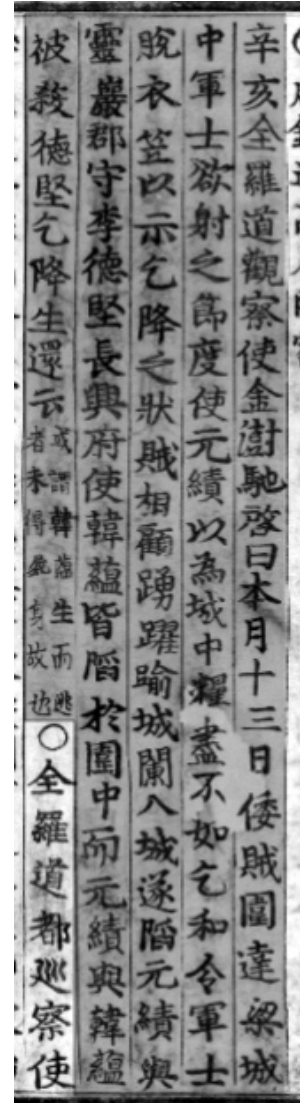
당초 포위되었을 때에 김빈(金贇, 전라우수사)이 주장으로서 구원도 하지 못하고 겁을 내 조치하지도 못하고 단지 성이 함락되는 것을 엿보고만 있었기 때문에 온 도의 정병이 모두 적의

13) 노수신, 『소재집』 권4, 시, 「入智力山次簡齋韻」. 이 시의 세주에 “五月十三日 晴 倭寇先嘗達梁園三日 垂陷”이라고 적혀 있다.

손에 죽고 원적·한온이 또한 모두 살해당하게 되었다. (중략)
 김빈이 머뭇거리고 나가지 않은 것이나 최인(崔湍, 진도군수),
 이희손(李希孫, 광주목사), 홍언성(洪彦誠, 강진현감) 등이 성
 을 버리고 도망하여 무너지게 한 것을 군법으로 다스려 군령이
 엄숙해지게 하지 못했다.¹⁴⁾

왜적이 성을 포위한 지 3일째 되니, 식량마저 바닥나고 말았
 다. 원적은 항복을 하기 위해 군사들로 하여금 의복과 갓을 벗
 어 항복을 표하는 모양을 보이게 하였다. 왜적들은 성안에 화
 살이 다 떨어지고 힘도 다한 것을 알아차리고서 서로 돌아보며
 날뛰어 사다리를 타고 성을 넘어 마구 들어와 드디어 성이 함락
 되고 말았다. 왜적들은 원적의 머리를 베고 군사들도 남김없이
 살해하였으며 한온¹⁵⁾도 또한 죽었다. 이덕견은 항복한 후 애
 곁하여 살아서 돌아왔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도륙
 당하고 말았다. 원적의 작전은 실책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명
 종이 “달랑의 함락은 원적 때문이다. 원적이 당초에 외로운 군
 사를 이끌고 작은 보(堡)에 들어간 것도 이미 실책이었거니와,
 포위당한 뒤에 있어서도 갑자기 항복을 청하다 마침내 함락당
 하게 된 것이다.”¹⁶⁾고, 백광훈이 “장군은 계책이 졸렬하여 포
 위당하길 자초했으니”라고 한 바에서 알 수 있다.

정부는 급히 이준경(李浚慶)을 전라도 도순찰사로 삼아, 남치



14) 『명종실록』 권18, 명종 10년 5월 19일(임자).

15) 장흥부사 한온에 대해 어떤 사람은 죽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도적과 함께 잡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평량자(平涼子)를 쓰고 성을 넘어 달아났다고 하였다. 그 시체는 끝내 찾지 못하여 의복만으로 장례를 치렀다. 조정에서는 참인지 거짓인지 의아한 상태로 있었는데, 6년이 지난 뒤에 그 처의 상언(上言)으로 인하여 2품에 증직(贈職)되었다. 그러다가 그 이듬해에 명종은 달랑권관 조현과 함께 절의를 지키다가 죽었다면서 치제(致祭)하게 하였다.

16) 『명종실록』 권18, 명종 10년 5월 22일(을묘).

근(南致勤)을 전라좌도 방어사로 삼아, 김정석(金景錫)을 우도 방어사로 삼아 내려 보냈다. 해남현감 변협(邊協)이 달랑이 포위된 것을 듣고서 군사 3백 명을 거느리고 달려가 구원하는데, 전 무장현감 이남(李楠)과 힘을 합쳐 접전을 펼치다가 적에게 격파되어 이남은 죽고 변협은 패배하여 겨우 몸만 빠져 나왔다. 달랑의 북쪽 입구 홍해 부근에서 구원군이 패전하고 차단당한 것 같다. 우도수사 김빈(金賓)과 진도군수 최린(崔漣)은 어란포에서 왔으나 달랑이 함락된 뒤였다. 그래서 정부 당국자들은 우수영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달랑으로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가서 구원하지 않고 성이 함락되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고 하여 김빈을 잡아다가 추문하여 법률대로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다. 김빈 외에 주변의 많은 지휘관들이 도망가거나 구원하지 않았다고 문책을 받았다.

계속해서 왜구들은 동쪽으로 나아가 강진의 가리포진, 마도진을 습격했고, 강진읍성, 병영성, 장흥읍성을 차례로 함락시켰다. 다른 무리는 진도의 금갑도진, 남도포진을 무너트리고 진도를 쑥밭으로 만들어버렸다. 또 다른 무리는 서북쪽으로 올라가 해남의 어란포진¹⁷⁾을 점령한 후 온갖 방화와 약탈을 일삼으며 해남읍과 영암읍에도 침입했으나, 격퇴 당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양사준(楊士俊)이 지은 「남정가(南征歌)」에 “十城을 連陷하니”라고 하였듯이,¹⁸⁾ 전라도 남쪽 10개 읍진성이 함락되었던 것이다.

4. 문학으로 남은 을묘왜변

당시 위정자들은 을묘왜변을 조선 건국 이래 대변란으로 인식할 만큼 남해안과 서해안 일대가 왜구들에 의해 크게 유린당했다. 많은 집이 불타고, 사람이 죽고 다쳤다. 전라도에서 돌아온 선전관 홍인록이 “당초에 영암, 장흥, 강진에서 왜적들이 분탕질할 때에 성 밖에 사는 사서인(士庶人) 집의 부녀자들이 사로 잡혔갔다”¹⁹⁾고 하였다. 일본으로 붙잡혀 간 사람도 적지

17) 어란포진은 이때는 해남 소속이었지만, 뒤에 영암으로 이속되었다가, 월경지 정비 때 다시 해남으로 이속되어 현재 주소는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이다.

18) 이상보, 「양사준의 「남정가」 신고」, 『국어국문학』 62·63, 1973, 250쪽.

19) 『명종실록』 권18, 명종 10년 6월 10일(계유).

않았던 것이다.

조선 건국 이래 가장 충격적인 화를 전라도 사람들은 을묘왜변으로 입었다. 이때의 상황을 여러 사람들이 문학작품으로 남겼다. 남치근의 부하였던 양사준이 「남정가」라는 가사로 을묘왜변의 참상을 읊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을묘왜변 때 도망간 관리들을 질타하는 시를 지어 전라도 장흥부(長興府)의 원(院) 벽에 붙였다.²⁰⁾ 그리고 장흥 출신의 문장가 백광훈이 「달량행」이라는 시로 을묘왜변의 참상을 표현했다.

달량성 머리에 해는 저물어 뉘엿뉘엿(達梁城頭日欲暮),

달량성 밖에 바다 물결이 흐느끼네(達梁城外潮聲咽).

모래사장 막막하여 사람은 보이지 않고(平沙浩浩不見人),

발길에 채이느니 풀에 얽힌 해골이로다(古道唯逢纏草骨).

이 몸은 난리를 겪어 마음이 하마 죽었거니(身經亂離心久死),

지금 목전에 참혹한 정경 어찌 입으로 다 표현하랴!(慘目如今那更說).

그 해에 흉악한 왜놈들 감히 침노해 오니(當年獠虜敢不恭),

남쪽 멀리 외로운 성 실로 위기일발의 형세(絕徼孤城勢一髮).

장군은 계책이 졸렬하여 포위당하길 자초했으니(將軍計下自作圍),

병졸들 싸우기도 전에 혼이 벌써 달아났다네(士卒不戰魂已奪).

달서봉 전면으로 적군이 구름처럼 진을 치니(達嶼峯前陣如雲),

홍해 마을 들관 입구 막혀 구원의 길은 끊기고(洪海原頭救來絕).

20) 『명종실록』 권19, 명종 10년 12월 2일(임진).

하늘은 멀고 땅은 넓어 천지간에 막막한데(天長地闊兩茫茫),

장수로서 갑옷 벗고 옷을 던지다니 생사가 결판나게 되었구나(解甲投衣生死決).

슬프다 병사들이여, 부모의 사랑하는 자식 누군들 아니라!(哀汝誰非父母身),

무고한 생명이 모두 함께 칼날 아래 피를 흘렸더라오(無辜同爲白刃血).

버려진 시체 물어뜯고 흠쳐가고 까마귀 술개에 늑대가 덤벼들어(烏鴛銜飛狐狸儵),

가족이 와서 찾을 때는 머리가 떨어지고 다리는 달아나고(家室來收頭足別).

산천은 삭막하기 그지없고 초목도 구슬피 우는데(山川索莫草樹悲),

사람 사는 지경인들 무사했을까 잿더미만 남아 황량하구나(境落蕭條灰燼滅).

흉악한 왜구놈들 무인지경처럼 들어오게 하여(遂令兇醜入無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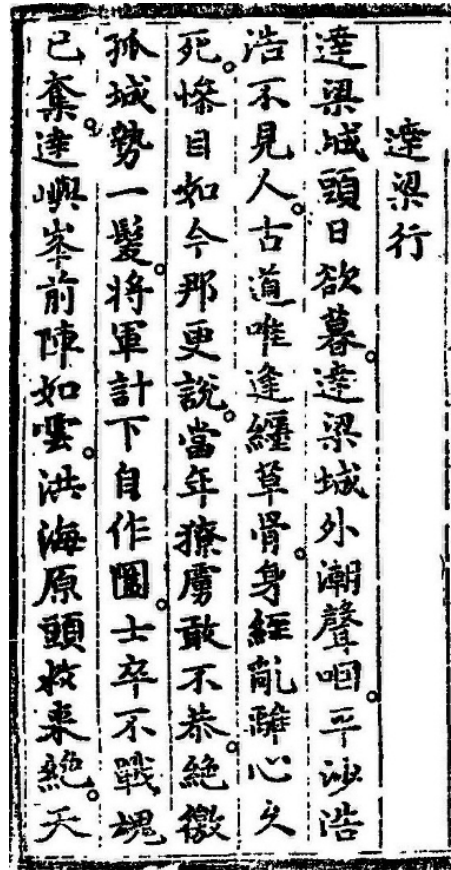
늘어선 방어진지 허무하게 무너졌단 말인가(列鎭相望竟瓦裂).

진남의 아침 구름 오랑캐 북소리에 놀라고(羯鼓朝驚鎮南雲),

모산의 저녁 달 피비린내 먼지에 어둡구나(腥塵夜暗茅山月).

처자식 잃어 헤매고 노약자들 쓰러지고(妻孥相失老弱顛),

풀숲에 엎드리고 산골에 숨어 호랑이굴이라도 찾아들 관이었네(草伏林投信虎穴).



나 또한 옛 역사 읽으며 안타까워 눈물을 흘린 적 있었더니(迂儒攬古泣書史),
언제 생각했으랴 몸소 그런 일 겪으리라고(不意身親見此日).

뿔뿔이 피란을 나가 우리 군사 언제 어나 고대하기만(流離唯日望官軍),
저 언덕 위에 칩덩굴 벌써 저만치 뻗었는데(彼葛旆丘何誕節).

서울 소식 들어보니 처음 장수를 뽑아 보내실 제(聞說長安遣帥初),
임금님 궐문 앞에 나와 전송하며 손수 수레를 밀어주셨다지(玉旒親推餞雙闕).

임금님의 애통해하시는 말씀 귓가에 쟁쟁 울리는 듯(天語哀痛皆耳聞),
신하된 도리러 무슨 마음에 육신과 목숨을 아끼리요(臣子何心軀命恤).

나주에 주둔한 일천의 군사 끝내 하릴없이 되었고(錦城千羣竟無爲),
영암의 일전의 승리도 실패를 보충하기 어려우리(朗州一戰難補失).

월출산 높고 높은데다 구호(九湖) 물 깊숙하지만(月出山高九湖深),
물 마르고 산이 깎인들 이 치욕 씻겨질 건가!(水渴山摧恥能雪).

지금도 바다가 음산하여 비바람 몰아칠 땐(至今海天風雨時),
귀신의 울음소리 들린다는데 상기 그날의 싸움을 원통히 여기는 듯(鬼哭猶疑初戰伐).

이 사연 읊어서 원혼들에게 바치노니(爲吟此辭酌煩冤),
당일에 실전한 장수 얼굴이 응당 뜨거워지리(征南舊將面應熱).

5. 맺음말

고려말기부터 조선건국에 이르기까지 왜구의 잦은 출몰은 최대 국정사안 가운데 하나였

다. 그 대안으로 수군이 창설되었고, 그 연장선에서 조선초기에 전략적 요충지인 달랑에 만호진이 설치되었고, 크지는 않지만 진성도 축조되었다. 그런데 종종 때에는 3포왜란 이후 왜구가 경상도 해역은 물론이고, 전라도의 초도·완도·보길도·추자도 등지를 침범하더니, 급기야 1522년(중종 17)에는 달랑을 침범하여 하륙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달랑 앞에서 왜구를 격퇴하기 위해 완도 가리포에 만호진이 설치되었고, 그와 함께 달랑진을 폐하고 가리포진에 합병하게 하였다. 그렇지만 달랑진은 완전 사라지지 않고, 권관진 형태로 계속 존속되었다.

달랑진은 권관진 상태에서 1555년(명종 10) 을묘왜변을 맞이하였다. 6천~1만명, 60~1백척에 이르는 왜군이 상륙한 곳이 달랑이었다. 3일간의 혈전의 공방전 끝에 성이 함락되고 수많은 장졸들이 목숨을 잃었다. 달랑을 함락시킨 왜구는 전라도 서남부 지역을 휩쓸었지만, 해남과 영암에서의 패전을 계기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참고문헌〉

『영암읍지』

『명종실록』

『동국여지승람』

김덕진, 「전라도 영암의 達梁浦, 達梁鎭, 古達梁」, 『南道文化研究』 41,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20.

김종서, 「乙卯倭變과 장편서사시 「達梁行」」, 『문헌과 해석』 8, 문헌과 해석사, 1999,

이상보, 「양사준의 「남정가」 신고」, 『국어국문학』 62·63, 1973.

임형택 편역, 『이조시대 서사시』, 창작과비평사, 1992.

영암지역 양달사 장군과 창우대 의병활동

노기욱

호남의병연구소 소장

1. 머리말

16세기 서남해안 일대에 빈번하게 왜구(倭寇)¹⁾가 출몰하자 조정에서는 1521년(중종 16) 왜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가리포²⁾에 첨절제사진을 설치하였다.³⁾ 이후 1522년(중종 17) 가리포진은 영암 달량진의 수군을 이관 받게 되었다. 소속된 진은 영암 어란포진(於蘭浦鎭), 장흥 회령포진, 강진 마도진, 진도 금갑도진, 진도남도포진 등이었다.⁴⁾ 『대동지지』 영암군

1) 왜구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일본인으로 구성된 무장집단으로 조선의 연해지방에서 약탈 및 납치 등을 일삼는 집단이다. 이중 조선시대 왜구 중 전기왜구는 일본인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14~15세기에 출현하였다. 후기왜구는 일본인과 중국인으로 혼합된 16세기에 나타나는 왜구를 가리킨다. 조선인에게는 倭는 '日本'과 같은 의미로 倭寇, 倭人 등의 침략자로 여겼다.

2) 노기욱, 「가리포진 관아와 복원 학술세미나」, 2017.07.28

3) 조선시대 왜구가 전라도 지역에 침입하는 경로는 2개의 노선이 있었다. 첫째, 일본 고도(五島)에서 동남풍을 타고 삼도(여수 거문도)에 이르러서 묵고 강진 선산도(청산도)를 지나면 곧장 가리포진이나 가리포진에 도달하는 바닷길이다. 둘째, 쓰시마로부터 동북풍으로 타면 통영의 연화도와 육지도 두 섬 사이에 이르러서 묵고 곧장 남해의 미조항이나 순천의 방답진(여수 돌산도)에 이르는 바닷길이다(고용규, 2014, 「전라좌도지역의 조선시대 수군진보성 연구」, 『조선시대 수군진조사Ⅱ 전라좌수영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44쪽 참조).

4) 『중종실록』 17년(1522) 5월 7일. 『東國輿地誌』 康津縣 城郭條와 『大東地志』 靈巖郡 鎭堡條는 설치 년대가 1521년으로 나타난다.

진보조에 의하면 가리포진의 설치 연대를 1522년(중종 17)으로 기록하면서 “달랑진을 가리포진으로 옮기고 만호를 권관(權官)으로 대체하였다가 후에 폐지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가리포진의 신설을 통하여 서남해안 방어의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취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⁵⁾

그러나 평소 왜구들이 서남해안으로 진출하면서 거치는 물목이 달랑포(達梁浦)라는 점에서 이는 해안 방어의 공백이 발생되게 되었다. 이러한 우려 속에 가리포진과 어란포진 사이 달랑포가 왜구들의 상륙지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전운이 시작되었다. 이로써 1555년(명종 10) 5월 ‘을묘왜변(乙卯倭變)’⁶⁾이 발발하였다.

을묘왜변은 삼포왜란(三浦倭亂) 이래 왜구의 세건선이 조선과의 무역에 제약을 받자, 70여 척의 선박과 군사 약 6천으로 서남해안 지역을 침공한 것이다.⁷⁾ 왜구들에게 영암·강진·진도 일대가 약탈당하게 되었다. 왜구와 전투 중 조선군 병사 원적(兵使 元積), 장흥부사 한온(韓蘊) 등이 전사하고, 영암군수 이덕견(李德堅)은 포로가 되었다. 왜구들은 분탕질한 전리품을 수레에 싣고 영암 향교에 들어가 진을 쳤다.

이를 본 영암의 양달사 장군은 왜구 격퇴에 고심하던 끝에 창우대(倡優隊)를 의병으로 편입하여 대규모 부대를 편성하였다. 이 후 양달사 장군은 창우대를 이끌고 왜구들을 차례로 공략하였다. 이로써 왜구들의 공세가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고 조정에서 경군들이 증원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첫째, 왜구를 격퇴하기 위하여 상중(喪中)임에도 불구하고 국난극복에 앞장 선 영암지역 양달사 장군의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양달사 장군이 운영한 창우대의 활동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양달사 장군의 의병활동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고자 한다.

5) 『중종실록』 17년(1522) 7월 15일.

6) 을묘왜변은 임진왜란의 전초전이라 할 만한 대규모의 사변으로 1555년(명종 10) 5월 13일 왜구 6천여 명이 70여 척의 선박을 동원 달랑포진과 이진포를 통해 침입하여 달랑포진과 인근의 군현 및 수군진, 그리고 전라병영성까지 침공한 사건이다.

7)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8월 1일, 석강에 《강목》을 강하고 북변과 왜적의 대비에 대해 의논하다.

2. 양달사(梁達泗) 장군의 읍성전투

1555년(명종 10) 5월 11일 왜선 70척에 약 6천여 명의 왜구가 서남해안 일대를 침범하면서 을묘왜변이 발발하였다.⁸⁾ 달랑 권관 조세현(達梁權管 曹世顯)이 왜구와 교전을 벌였다.⁹⁾

‘처음 왜선 10여 척이 달랑진 해상에 발견되었으나 달랑포와 이진포에 상륙할 때는 70여 척으로 늘어나 성 아래 촌락은 약탈과 방화로 이어졌다. 이에 가리포첨사 이세린(加里浦僉使 李世麟)이 즉각 병사 원적(兵使 元績)에게 치보하여, 원적이 장흥 부사 한온(韓蘊), 영암 군수 이덕견(李德堅)¹⁰⁾ 등과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구원하려고 달랑으로 달려갔으나 왜구들에게 포위되었다.

연이어 5월 13일 달랑이 함락되고 이덕견이 왜적에게 잡혔다. 이 급박한 달랑진의 전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해남 현감 변협(邊協)이 군사 3백 명을 거느리고 달려갔다. 전 무장 현감 이남(茂長縣監 李楠) 역시 신속하게 증원군으로 참전하여 함께 전투를 벌였으나 왜구의 강성한 세력을 못 이겨 결국 전사하였다. 이때 변협은 패배하여 겨우 몸만 빠져나왔다. 우도수사 김윤(右道水使 金贇)과 진도 군수 최린(珍島郡守 崔潁)은 변협이 패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왜구들이 주둔한 어란포로 들어가 방어하였으나 역시 함락되었다.¹²⁾

감사 김주(監司 金澍)가 영암으로 달려와 전주 부윤 이윤경(李潤慶)을 불렀다. 급히 전주 부윤 이윤경(李潤慶)이 들어와 영암 수성장(靈岩 守城將)을 맡았다. 윤기(尹祁) 역시 영암읍성에 입성하여 수성전에 참전하였다.¹³⁾

8)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8월 1일, 북변과 왜적의 대비에 대해 의논하다.

9) 『숙종실록』 36권, 1702년 숙종 28년 4월 2일, 능주 진사 구삼익 등이 왜구와 싸우다 죽은 달랑 권관 조세현의 정려를 청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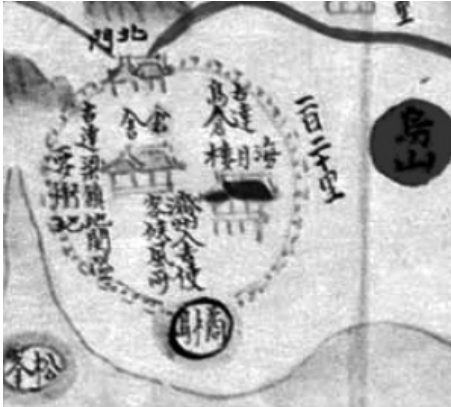
10) 전주부윤 이윤경(李潤慶)에게 처형당하였다.

11) 『명종실록』 18권, 1555년 명종 10년 5월 16일, 전라도 관찰사 김주가 달랑포에 왜선 70여 척이 침략해왔다고 치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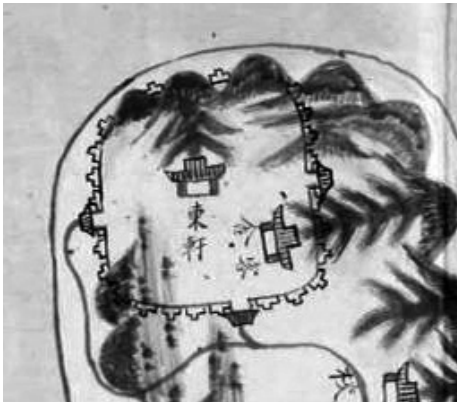
12) 『명종실록』 18권, 1555년 명종 10년 5월 21일, 해남 현감 변협이 보낸 충순위 임현령이 왜변의 일을 아뢰다

13) 『선조수정실록』 20권, 1586년 선조 19년 10월 1일, 주학 제독관으로 제수된 조현이 봉당의 시비와 학정의 폐단을 논한 상소문

〈그림 1〉 달랑진



〈그림 2〉 가리포도



조정에서는 전라도 순찰사 이준경(李俊慶), 우도 방어사 김경석(金景錫), 좌도방어사 남치근(南治勤)으로 삼았다. 경상도 순찰사 조광원(曹光遠), 좌도 방어사 조안국(曹安國), 우도 방어사 윤선지(尹先智), 충청도 방어사 장세호(長世豪)로 각각 임명하여 왜구를 격퇴하게 하였다.¹⁴⁾

이 시기 전라도 순찰사 이준경은 금성(錦城)에 주둔하였다. 동고 이준경은 보성군수 방진(方震)도 참전시킨 것으로 여겨진다.¹⁵⁾ 보성군수 방진은 22살의 약관의 나이에 대정현감이 되었다.¹⁶⁾ 그는 1535년부터 1537년까지 근무를 마치고 전라병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보성군에 자리 잡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전라도순찰사 이준경은 나주목에서 왜구 진압작전을 위해 관할 모든 지휘관을 불러들였다. 특히 명사수로 이름 있는 전현직(前現職) 관원들이 차출되었다.

전주 부윤 이윤경에게 격문(檄文)을 보내어 “방어사가 이미 성에 들어갔으니, 가장(假將)은 돌아와 본성(本城)을 지키라.” 하니, 전주 부윤 이윤경이 답하기를 “적의 움직임을 헤아리기 어렵고, 또 내가 항상 죽을 곳을 찾지 못할까 염려하였기에 돌아갈 수 없다.”고 하였다.¹⁷⁾ 수성병력은 부장

14) 『명종실록』 18권, 1555년 명종 10년 5월 16일, 전라도 관찰사 김주가 달랑포에 왜선 70여 척이 침략해왔다고 치계하다.

15) 보성군수 방진의 묘비 관직이 都護府使 나타난 것이 이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방진의 묘소 비문에 의하면 동고 이준경이 이순신의 중매를 썼다고 기록하였다.

16) 方震은 『濟州邑誌』, 「先生案」에 1535~1537년 濟州縣監으로 재임하고, 乙未(1535)正月到任~丁酉(1537)十一月遞歸하였다고 기록하였다.

17) 『연려실기술』 제11권, 명종조 고사본말(明宗朝故事本末), 乙卯倭變(乙卯倭變).

〈그림 3〉 영암읍성도



심수경(沈守慶)·부장 김귀영(金貴榮) 등 3천 병력을 이었다.¹⁸⁾

포로가 되었던 이덕건이 적진에서 돌아와 왜구들의 말을 전하기를, “군량(軍糧) 30섬을 공급하면 물러나겠다.”¹⁹⁾ 라고 하였다. 그러자 수성장은, 이덕건을 참수하여 민심의 동요를 막았다.²⁰⁾

이때 양달사(梁達泗) 장군은 모친상중이어서 상복을 입은 채로 빈 성에 들어갔다.²¹⁾ 그리고 양달사 장군은 충효일체(忠孝一體)의 근본을 주창하며 더욱 의병참여를 독려했다.²²⁾ 이에

18) 張桓鉅, 『國難을 克服한 南道の 史』, 國際出版社, 1972, 6.

19) 『명종실록』 18권, 1555년 명종 10년 5월 19일, 왜적이 이덕건 편에 서계를 보내어 군량 30석을 요구하다

20) 『해동야언』.

21) 高廷憲, 『湖南節義錄』, 乙卯義蹟.

22) 『湖南邑誌(靈巖郡)』, 義士, 靈巖文化院, 2009. 참조

양달사 장군의 형 양달수(梁達洙)²³⁾, 동생 양달해(梁達海) 및 양달초(梁達礎)가 참전하였다. 실로 일문사충신(一門四忠臣)을 배출하게 된 것이다.²⁴⁾ 이에 고을 사람들은 서로 앞 다투어 의병으로 나섰다.²⁵⁾ 그 수효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장정 4천여 명에 이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²⁶⁾

양달사[1518년(중종 13)~1557년(명종 12)]는 자가 도원(道源)이고, 호는 남암(南巖)²⁷⁾이며, 본관은 제주(濟州)이다. 감역 양흥효(監役 梁興孝)의 증손이며, 주부 양승조(主簿 梁承祖)와 청주 한씨의 둘째 아들로 서기 1518년(중종 13년) 무인 2월 2일 영암군 도포면 봉호리 봉호정(鳳湖亭)에서 태어났다. 집에 있을 때는 효제(孝悌)하였고, 관직에 있을 때는 청간(淸簡)하였다.²⁸⁾ 남달리 충명 출중하였고 용기가 뛰어나서 장래가 촉망되는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

삼종숙(三從叔)인 양팽손(梁彭孫)의 문인이기도하다. 지금의 화순군 도암면 월곡리에서 고향에 돌아와 시종면과 도포면 경계 아래 태산봉에 정자를 짓고 남암정이라 이름하고 이곳에서 무술을 연마하였다. 그는 무예에 능하고 학문 또한 성리와 경서에 능하였다.²⁹⁾

1536년(중종 31)에 무과에 급제하였고, 1544년(중종 39)에 증시에 합격하였다.³⁰⁾ 그리고 전라좌우우후(全羅左右虞侯)와 진해현감(鎭海縣監)을 역임하였다. 이로써 해안 방어와 왜구 진압에 상당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1553년(명종 8) 능력을 인정받아 남해와 서해가 교차하는 연해를 관할하는 해남현감(海南縣監)에 부임하면서 더욱 기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

23) 양달수는 전공을 세워 지평(持平)을 증직 받고 정려가 내려졌다.

24) 『광주·전남 오란충의사록』, 사)광주·전남 오란충의사록헌창회, 1992, 461쪽.

25) 『靈巖郡誌』上, 靈巖郡, 1998, 241쪽.

26) 창의장 양공달사 공적비(倡義將梁公達泗功績碑)

27) 공이 태어날 때 어머니 청주 한씨의 꿈에 월출산에 올라갔더니 한 백발노인이 나타나서 비검을 준 후 바위로 사라졌다. 그리하여 그 꿈을 따라 호를 남암이라 하였다. (『내 고장 전통 가꾸기』, 영암군, 1981.)

28) 高廷憲, 『湖南節義錄』, 乙卯義蹟.

29) 『내 고장 전통 가꾸기』, 영암군, 1981, 59~63쪽.

30) 高廷憲, 『湖南節義錄』, 乙卯義蹟.

〈표 1〉 전남읍성(최인선 논문 재인용)³¹⁾

區分	邑城	둘레	높이	女牆高	敵臺	성문	웅성	女牆	井	泉	池	邑城
仍舊	順天府邑城	3,383尺	12尺	3尺	6	4	2	514	4	·	8	3,701尺
	樂安郡邑城	2,865尺	9~8.5尺	2.5尺	12(未8)	3	無	420	2	·	2	未鑿
	寶城郡邑城	3,000尺	8~7尺	2尺	無	3	無	539	2	2	1	未鑿
	靈巖郡邑城	4,369尺	12~9尺	3尺	6	3	無	639	·	2	·	未鑿
	光陽縣邑城	1,812尺	7.6尺	3尺	9(未7)	3	無	374	·	·	·	1,995尺
	興陽縣邑城	3,500尺	12~9.4尺	3尺	11	2	無	574	5	·	·	未鑿
	務安縣邑城	2,700尺	11尺	3尺	7	3	1	427	2	2	1	2,893尺
	康津縣內廂城	2,225尺	10.8尺	2.4尺	8	4	有	443	4	·	·	2,597尺
	萬頃縣邑城	2,820尺	12尺	3尺	4	3	無	453	3	·	·	未鑿
	臨陂縣邑城	3,095尺	10尺	3尺	9	3	2	439	7	·	2	3,075尺
退築	咸悅縣邑城	3,485尺	11尺	2尺	16	2	有	550	2	·	1	未鑿
	古阜郡邑城	1,803尺	9尺	3尺	無	2	無	335	4	·	1	難鑿
	茂長縣邑城	1,470尺	7尺	1尺	無	2	有	471	·	·	·	2,127尺
	扶安縣邑城	1,500尺	7尺	1.5尺	無	2	無	250	無	無	·	難鑿
改築	沃溝縣邑城	1,511尺	9尺	2尺	無	3	無	300	·	1	·	難鑿
	長興府邑城	6,400尺	10~4尺	2~1尺	2	3	1	916	·	·	·	難鑿
	靈光郡邑城	2,712尺	10尺	1.6尺	2	3	1	462	·	6	·	未鑿
	羅州牧邑城	7,000尺	·	·	·	·	·	·	·	·	·	·
	龍安縣邑城	2,797尺	8~4尺	·	·	·	·	·	·	·	·	·
合計	興德縣邑城	1,747尺	6.8尺	1.8尺	無	2	無	·	·	·	·	難鑿
	17											

그런데 모친상을 당하여 시묘살이 예제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임금과 부모는 한 몸인데 어찌 예제(禮制)에 얽히어 소홀하게 할 것인가.” 라고 분전하였다.³²⁾

영암전투에서 가장 많은 왜적을 사살하고 활과 창칼에 능숙하게 사용한 장수로 양달사 장

31) 『文宗實錄』卷9, 元年(1451) 8月 丙戌條.

32) 高廷憲, 『湖南節義錄』, 乙卯義蹟.

〈그림 3〉 영암읍성도



군과 조구(趙逯) 그리고 김희장(金希章) 등이 회자되었다.³³⁾

당시 영암읍성 전투는 의기만으로 모인 영암지역 의병과 소수의 관군 병력으로 화약무기를 소지하고 많은 전투 경력을 보유한 왜구와의 전투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세종실록』에 성의 둘레를 보(步)라 하였다. 1보는 6척(尺)으로 당시 기준척으로 포백척(布帛尺)을 사용하였다.³⁴⁾ 포백척의 1척을 46.703cm³⁵⁾으로 보는 견해와 포백척의 1척을 41.8cm³⁶⁾로 보는 견해가 있다. 영암 성곽의 둘레를 4,369尺³⁷⁾이며 여장의 높이는 3척이며

33) 李潤慶, 『崇德齋先生遺稿』3, 書, 與原吉書. 且靈巖之戰. 初欲出門試驗者. 趙逯, 金希章. 馳射擊刺者雖多. 而最能射殺者. 趙逯, 金希章, 梁達泗三人

34) 『文宗實錄』卷7, 元年 5月 壬寅條

35) 朴興秀, 『韓·中國度量衡制度史』, 성균관대학교출판사, 1999, 583쪽.

36) 田大熙, 「朝鮮代 度量衡器의 實크기에 관한 研究」, 『韓國海洋大學論文集』 제18집, 韓國海洋大學, 1983, 54쪽.

37) 『신증동국여지승람』 35, 全羅道, 靈巖郡.

적대가 6개소, 문이 3개소, 여장이 6백 39개, 성안에 샘이 2개소이며 해자가 없는 상태였다.³⁸⁾ 문중대는 포백척을 적용하였으므로 포백척의 기준치인 46.73cm를 적용하여 미터 단위로 환산해 보면 성의 둘레가 약 2,041m에 이른다.

읍성안의 백성들과 의병들은 해자가 없는 방어가 불리한 상태에서 왜구들에 둘러싸여서 포위되어 군량미가 떨어져 가고 식수가 고갈되어 전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때 양달사 장군은 식수 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암성 지세를 살피고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영암성 서남쪽 낮은 구릉에 장독기(將蠶旗)를 꽂고 수맥을 찾아 샘을 파도록 명령하였다. 그 이후 오늘날까지 이곳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있으며 장독기를 꽂았던 곳이라 하여 장독천(將蠶泉)으로 부르고 있다. 양달사 장군의 지혜로 식수 문제를 해결한 의병들은 왜구의 포위 공격에도 수성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³⁹⁾

양달사 장군이 형제와 군민을 동원하여 관군과 조력하며 향토방위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냄으로 관군이 퇴패한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데 기여하였다. 이로써 초기 수성전에서 양달사 장군은 왜구 격퇴에 두각을 나타냈었다.

3. 양달사 장군의 창우대(倡優隊) 운영

1555년(명종 10) 5월 24일 수성전에 패퇴한 왜구들은 전략을 바꾸어 동서로 진(陣)을 나누어 포위하며 일시에 공격하였다. 이에 양달사 장군의 창우대 운영이라는 새로운 전술을 바꾸어 대응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지방목민관 시절 창우들의 집단생활 규모나 명령 체계 등을 눈여겨보았기 때문에, 이들을 의병부대에 편입하여 관민의 한 협력 축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창우(倡優)는 노래와 춤에 뛰어나 재담과 익살스러운 연기를 펼쳤던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38)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8월 21일 병술 5번째 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의정부에서 전라도 각 고을의 성이 규식에 맞지 않게 쌓여져 있다고 아뢰다

39) 『광주·전남 오란충의사록』, 사)광주·전남 오란충의사록현창회, 1992, 460쪽.

서로 호령(號令)하려 할 때는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붙어서 절도(絶倒)를 삼았다.⁴⁰⁾ 궁중과 관아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공식적으로 초청되어 예능의 기예를 펼쳤다.⁴¹⁾ 궁중 행사에 출연하여 여러 물품을 왕으로부터 하사받기도 하였다.⁴²⁾ 관아나 양반층의 놀이 행사에서는 유희 역할을 담당하였다.

『평양감사향연도(平壤監司饗宴圖)』⁴³⁾를 보면 공연 행사가 대규모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평양감사향연도(71.2x196.6cm)」⁴⁴⁾에서 창우들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집단임을 짐작할 수 있다. 김개남이 동학군 일군(一軍)을 만들면서 도내의 창우(倡優)·재인(才人) 1,000여 명으로 도모하였다.⁴⁵⁾ 이는 창우대의 조직 규모가 1천여 명을 징발규모라고 여겨지는 부분이라 하겠다. 창우는 낮은 신분에서 기예를 팔아 살아가는 집단의 민간의 예능인이었다. 궁중 음악을 관리하는 관서인 교방사(敎坊司)에 속한 천한 음악·가무·잡기(雜伎)·희학(戲謔) 등으로 남을 즐겁게 하는 기예인(技藝人)을 지칭하였다.⁴⁶⁾ 창우는 일정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주로 행사장이나 장시(場市) 등을 찾아다니며 각종 기예(技藝) 및 풍악, 노래 등의 공연을 하여 의식주를 감당하였다.⁴⁷⁾ 이 같은 ‘배우 공연을 정재(程材)라 하고, 창우를 화랑(花郎)이라 한다.’⁴⁸⁾ 유득공은 “광대란 창우(倡優)이다.[廣大者倡優也]”⁴⁹⁾ 라고 하였다. 조선시대 공연 행사에 주도하였던 창우는 광대(廣大), 화랑 등으로 다양하게 인식되고 혼용되어 불리었다.

창우의 춤은 ‘머리를 흔들며 눈을 크게 뜨고 어깨를 으쓱거리며 팔을 굽히고 두 다리와 열 손가락을 동시에 굽혔다 폈다 하여, 혹은 활을 쏘는 형상을 하고, 혹은 개가 걷는 형상도 하고, 혹은 나무를 잡고 늘어지듯이 늘어지고, 새가 공중을 날아 다리를 쭉 뻗듯이 뻗기도 하며,

40) 『청장관전서』 56권, 양엽기.

41) 『연산군일기』 3년 12월 28일.

42) 『중종실록』 18년 12월 28일.

43) 『평양감사향연도(平壤監司饗宴圖)』, 국립중앙박물관, 2006.

44) 전(傳) 김홍도<평안감사향연도(平安監司饗宴圖)>, 국립중앙박물관(덕수5769).

45) 『오하기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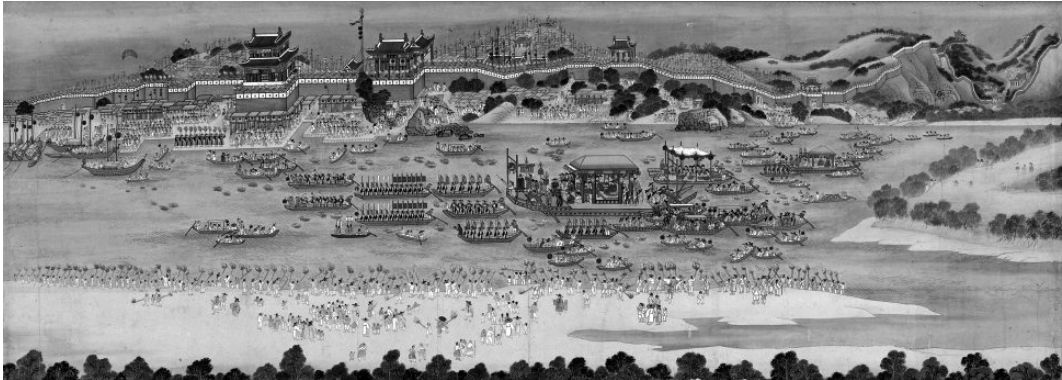
46)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6권, 호율.

47) 『성종실록』 12년 12월 17일.

48) 『성호사설』 18권, 경사문(經史門), 화랑(花郎)조.

49) 『경도잡지(京都雜誌)』 유가(遊街).

〈그림 5〉 평양감사향연도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갈 때는 획 바람이 났다.’하는 형태이다.⁵⁰⁾

공중제비 근두(筋斗)놀이를 할 때에는 반드시 손가락을 구부려 입술에 대고 휘파람을 부는데 그 소리가 뚜렷하다.⁵¹⁾ 창우들은 유창하게 절묘하게 기술을 보였다.⁵²⁾ 창우의 재담은 ‘보는 사람들이 크게 웃으며 절도(絶倒)하였는데, 소리가 골짜기에 메아리쳤다.’라고 할 정도이었다.⁵³⁾ 당시 방상씨를 통하여 행사에 따라 분장이나 복색 등이 달라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창우(倡優)들이 둥근 모자와 같은 것을 썼다.⁵⁴⁾ 창우의 공연이 떠들썩하였기에 궁중 행사에 금지시키도록 왕에게 신하들이 건의할 정도였다.⁵⁵⁾

창우는 유가(遊街) 행사에서 사흘 동안 공연 행사를 진행하였다. 유가행사는 과거급제자가

50) 『연려실기술 별집』 제12권, 정교.

51) 『청장관전서』56권 양엽기 3(崑葉記三).

52) 『무명자집(無名子集)』 시고 제2책 시(詩).

53) 『해행총재』, 해유록 7월조.

54) 『북원록』 1권, 산천풍속총론(山川風俗總論).

55) 『숙종실록』 13년 9월 21일.

〈그림 6〉 유가도⁵⁶⁾



창우대를 데리고 풍악을 울리면서 시험관, 선배, 친척 등을 찾아 거리를 돌아다니며 공연을 펼치는 행사이다.⁵⁷⁾ 창우는 비단옷에 초립을 쓰고 비단 가화(假花)를 꽂고, 손에는 공작선을 들고 어지럽게 춤추며 익살을 부렸다.⁵⁸⁾

양달사 장군의 부름에 창우들은 일사분란하게 나서 전장에 참여하게 된다. 양달사 장군은 창우를 일정한 부대로 묶어 창우대로 만들어 유인 전술의 조력자로 운영하고자 하였다.

56) 이훈중, 『국학도감』, 일조각, 1969, 17.

57) 『성종실록』 10년 1월 24일.

58) 『경도잡지(京都雜誌)』 유가(遊街).

4. 양달사 장군의 향교·금교전투

창우들은 왜구들의 공격 사정거리를 벗어난 지점이라고 하지만, 적을 유인하는 현혹 허세 전술은 쉽지 않았다. 왜구를 현혹하기 위하여 의병부대 앞으로 나아갔다. 왜구들은 고을 북쪽에 둔을 치고 있었다. 양달사 장군은 초랭이패 광대를 모아 조직한 창우대는 목숨을 건 첩병이 되었다. 창우대는 채색 옷을 입고 적을 유인하고 현혹하며 희롱하였다.⁵⁹⁾ 창우대의 알록달록한 옷에 꽃 모자를 쓰고 온갖 유희를 벌이는 모습에 왜적들은 이를 보고 웃고 떠들었다. 남다른 줄타기 기술과 광대놀이에 왜구들이 더욱 현혹되기에 충분하였다. 양달사 장군은 이 순간을 이용하여 정예부대를 이끌고 역현(驛峴) 고개를 넘어 후방에서 왜구를 공격하여 전열을 무너뜨렸다.⁶⁰⁾

조선군들은 화살을 비 오듯이 쏘자, 왜구들이 기세를 잃고 무너지며 향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갔다. 왜구의 우두머리는 영광향교 성전의 위판을 모시는 교의(交倚)에 앉아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선봉에선 왜구는 누른 빛깔의 기(旗)를 들고 위 아래로 신호를 하며 마치 우리 군사를 부르는 것과 같은 모양을 하였다. 또 칼과 창을 휘두르고 박수(拍手)치며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⁶¹⁾ 영암향교에 왜구들이 떼 지어 모여 있었다.⁶²⁾

양달사 장군의 향교전투에서 창우대들도 일제히 뛰쳐나가 함께 공격하였고, 성안의 백성들도 징 등을 두드리며 적의 뒤를 추격하여 왜구를 무찌르는데 협력하였다.⁶³⁾ 양달사 장군은 서풍을 이용하여 화전(火箭)을 쏘며 추격하였다. 이 전투에서 양달사 장군도 10여 군테의

59) 『湖南邑誌』 靈巖郡, 義士. 梁達泗濟州人武科縣監膂力過人丁憂在家值乙卯倭寇猖獗列邑奔潰本郡被圍城幾陷達泗不勝忠憤 墨衰募士又聚倡優衣綵張百戲賊聚觀達泗乘賊怠舊擊大破賊忿怒并力追之達泗賊淤泥中挾馬跳去 賊盡陷況中因盡斬之賊遂平達泗恥以喪人獻功元帥還歸廬次終身不伐以此未蒙褒典道內儒生累呈 營門朴大器咸陽人正言權之孫也王.

60) 高廷憲, 『湖南節義錄』, 乙卯義蹟.

61) 『명종실록』 18권, 1555년, 명종 10년 5월 30일, 전라도 방어사 김경석이 군관 남정을 보내 장계를 올리니 사정전에 세 인견하다.

62) 『명종실록』 18권, 1555년 명종 10년 7월 3일, 전라도 관찰사 김주가 영암 향교의 위패에 대해 장계하다.

63) 『연려실기술』 제11권, 明宗朝故事本末, 乙卯倭變. 이운경이 곧 광대 4, 5백 명을 뽑아 모두 채색 옷을 입히고 성에 들어와 막게 하였다. 《기재잡기》

좌상을 입었다.⁶⁴⁾ 왜구 1백 4급을 베고 또 도망하는 자를 추격하여 6급을 더 베었다.⁶⁵⁾ 사살된 왜구들의 시체가 사방으로 널브러졌다.

5월 13일 달랑성 함락으로 활개를 치던 왜구들은, 5월 24일 영암성을 공격하며, 서울까지 점령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양달사 장군의 창우대를 이용한 전략으로 많은 타격을 입혔다.⁶⁶⁾ 양달사 장군은 창우대를 이용한 전술로 5월 25일 영암향교전투와 금교전투에서 승세를 거둬들이고 왜구들이 퇴각하였다.

양달사 장군은 향교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휴식을 취하는데 적이 다시 몰려왔다. 양달사 장군은 한편으로 적과 일전을 치루며 한편 군사를 퇴각시켰다. 양달사 장군이 후퇴하던 중 말이 진흙에 빠져버린 것이다. 이에 양달사 장군은 손으로 말갈기 끝을 잡고 말을 진흙 속에서 끌어내어 다시 말 위에 오르려는데 왜장이 칼을 던져 말이 칼에 맞아 땅에 쓰러졌다.

양달사 장군은 급히 성에 들어가 만호(萬戶) 박천추(朴天樞)의 말을 빌려 타고 적을 유인하니 적이 쫓아왔다. 공이 거짓으로 패한 척하고 도망치다가 영암읍 대신리 추다리[추다리; 金橋]⁶⁷⁾의 진흙 밭에 이르러 말을 옆구리에 끼고 번개처럼 건넜다. 왜구들은 수령을 알지 못하고 뒤쫓아 오다가 진흙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다.⁶⁸⁾ 이 기회에 양달사 장군은 말을 돌려 단칼로 왜구를 진살(盡殺)하였다.⁶⁹⁾

왜구를 진흙 수령으로 유도한 것은 양달사 장군이 영산강 주변 지류천의 지형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양달사 장군은 평소 영산강변 무심평 시종면 봉소리에 400두락의 논과 우암포

(64) 高廷憲, 『湖南節義錄』, 乙卯義蹟.

(65) 『명종실록』 18권, 1555년, 명종 10년 5월 30일, 전라도 방어사 김경석이 군관 남정을 보내 장계를 올리니 사정전에 세 인견하다.

(66) 『靈巖郡誌』上, 靈巖郡, 1998, 242쪽.

(67) 『영암신문』, 영암읍 대신리(1) - 〈40〉 자자손손이 오순도순 모여 사는 족자동 마을, 2009.02.19. 장암리 길을 따라 내려오다 대신리 마을길로 들어섰다. 신복촌과 족자동마을은 대신리 1구, 대내와 월등마을은 대신리 2구에 속한다. 영암여중·고에서 819번 도로를 따라 800m쯤 가서 '대신교'(다리)를 건너면 대신 3거리가 나온다. 왼쪽은 '영보길'이다. 영보길과 819번도로의 사이에 있는 마을이 족자동이다. 이 마을은 풍성한 가을밤의 둥근달과 같은 형국이라고 하여 추월리(秋月里) 또는 추다리(추다리)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자자손손이 모여 사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족자동(簇子洞)이라 한다.

(68) 『湖南邑誌(靈巖郡)』, 義士, 靈巖文化院, 2009. 참조

(69) 高廷憲, 『湖南節義錄』, 乙卯義蹟.

[봉소리]에 1,000두락의 논을 간척사업을 한 연유로 땅의 깊은 수렁골이 어디인지 잘 알았다.⁷¹⁾ 당시 덕진만의 바닷물은 망호천과 대신리(대내: 배가 드나든 것에 연유된 마을 이름) 앞 추더리 다리를 거쳐 개신리 방아다리까지 드나들었다.

을묘왜변 당시 양달사 장군은 영암군민들에게 의병이 되길 권하고 그의 형제까지 의병으로 활약케 함으로 의병의 사표가 되기에 부족이 없었다. 공을 탐하지 않았던 그는 조선사회의 뜻있는 선비들은 공의의 표상으로 회자하였다.⁷²⁾

을묘왜변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와 다시 상제를 지키고 전쟁 중에 입은 부상을 치료하였다. 그리고 미암 류희춘(眉巖 柳希春)을 방문하였다.⁷³⁾ 양달사 장군은 호남을 대표한 인물들과 교유하며 예제(禮際) 지키기를 처음처럼 하였다. “적을 섬멸한 일에 기복(起復)하여 싸움터에 나선 것은 임금의 명에 따른 것이 아닌데 이에 상을 바란다면 이는 내가 부끄러워할 일이다.”고 하였다. 얼마 후 병으로 갑작스럽게 죽자, 고을 사람들이 울면서 말하길 “우리 고을이 오늘을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양공의 공이다.”라고 하였다. 양달사 장군은 훌륭한 전공을 이루었지만 모친 상중이기에 포상을 극구 거절하여 다소 조명이 더디게 되었다. 그럼에도 1842년(경종 2) 5월 20일 영암 유림 김규성 등이 상소하고 의병의 사표로 자랑스럽게 여겼다.

조정에서는 1847년(헌종 13) 10월 19일, 양달사 장군을 통정대부승정원좌승지점경연참찬관(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으로 추증하였다.

이러한 전공은 『전남도지(全南道誌)』, 『영암군지(靈巖郡誌)』등과 『남암공사적(南巖公事跡)』⁷⁴⁾

70) 『내 고장 전통 가꾸기』, 영암군, 1981, 62참조.

71) 『영암신문』, 영암읍 총괄편2, 청동기 시대 200호, 1천여 명 거주 추정, 덕진만의 바닷물… 방아다리까지 드나들어, 2010년 4월 6일.

72) 『명종실록』 1555년 명종 10년 12월 2일조에, 어떤 사람이 전라도 長興府 院壁에 써 붙였다고 하는 詩에, “… 공을 세운 梁達泗는 어디로 갔나… 상과 벌이 불분명하니 公道(公道)가 망했구나. 실망하여 탄식하는 임금의 수치는 씻을 길 없네…” 라고 하였다. 이 시를 쓴 詩人이 淸江 李濟臣이라고 전한다(李濟臣, 『淸江先生鯨鱗瑣語』, 淸江先生詩話 참고).

73) 柳希春, 『眉巖集』9, 日記, 1571년(선조 4) 10월 7일. 十月初七日. 羅老職士恒, 前海南梁達泗及金千鑑來訪. 1571년(선조 4) 10월 7일 노직 나사항(老職 羅士恒), 전 해남 현감 양달사, 김천일(金千鑑)이 찾아왔다.

74) 1958년(戊戌年) 2월 봉호정(鳳湖亭)에서 등초(謄抄)한 것이다. 목차를 정리하면 ▶ 南巖公行狀 嘉靖 乙卯(1555) 後 78年(1633) 錦城後人 參奉 林垹, ▶ 遺事 崇禎 3丁酉(1777년) 居昌人 愼師浚 謹識, ▶ 通政大夫海南縣監梁公行狀 丁巳(1797년) 通訓大夫 羅州牧使 任焞 撰, ▶ 通政大夫海南縣監梁公墓誌銘 崇禎 紀元 後3 戊午(1834년) 嘉善大夫 尹得孚, ▶ 梁海南南巖公傳 嘉靖 乙卯(1555년) 後 2有 24년(1759년) 全義 李基敬 述, ▶ 通政大夫 梁海南南

등에서 높게 평가하였다.

이 시대에 의병의 사표로 양달사 장군의 조명되면서, 1971년 7월 10일 영암읍 장독샘 현장에 양달사 장군의 공적비(功績碑)를 서예가 구철우(具哲祐)가 글씨를 쓰고 군민을 대표하여 영암군수 김기회(金基會)가 세웠다. 이어서 1973년 8월 25일 시종면 봉소리 조등 양달사 장군의 묘소에 묘비(墓碑)를 세웠다.⁷⁵⁾ 그리고 1974년 6월 양달사 장군이 시묘살이를 하였던 모친의 묘소 앞에 전남도지사 허련(許鍊) 등을 고문으로 정하고 영암군수 김연수를 위원장으로 추대하여 ‘호남창의영수양달사선생순국비(湖南倡義領袖梁達泗先生殉國碑)’를 건립하였다.⁷⁶⁾ 2019년 8월 22일 영암군은 장독샘, 도포면 시묘유적을 영암군 향토문화유산 제8호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⁷⁷⁾

5. 맺음말

의병장 양달사(1518~?) 장군은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제주이며 자는 통원 호는 남암이고, 그의 아버지는 주부 승조이다. 양달사는 힘이 장사였는데 18세(중종31년 1536)에 무과에 급제하고 25세(중종 39년, 1544)에 증시에 합격하였다.

의병장 양달사 장군은 명종 10년(1555)에 해남현감으로 재직하던 중 모친상을 당하여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때 왜구가 70여척의 배를 이끌고 전라도 일대, 특히 영암 달량을 점령하였다. 이 을묘왜변으로 어란포, 장흥, 강진, 진도 등을 차례로 침략하여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巖公 墓碣銘 崇禎 紀元 후3 갑자(1804년) 通訓大夫 吳淵常 撰, ▶書攷梁公縣監事跡後 崇禎 紀元 후3 갑자(1804년) 通訓大夫 李寅未 識, ▶梁海南南巖記跡文 辛酉(1801년) 仲春日 錦城 林祐鎮, ▶梁海南行錄後序 通政大夫 幸州 奇學敬 謹撰, ▶본군 유생 林蘇 등이 上書, ▶1746년 (영조 22) 병인 8월 본군 유생 林蘇 등이 上巡相書, ▶1777년 (정조 1) 정유 2월 도내 유생 上巡相書 나주 진사 吳時裕 외 多士, 1780년 (정조 4) 경자 9월 나주 진사 吳時裕 등이 上巡相書, ▶1781년 (정조 5) 신축 7월 본읍 유생 愼昌晟 등이 上繡衣書, ▶1781년 (정조 5) 신축 8월 본읍 유생 愼昌晟 등이 呈本官書, ▶1842년(경종 2) 임인 5월 23일 영암 유림 김규성(金圭成) 등이 상소.

75) 『내 고장 전통 가꾸기』, 영암군, 1981, 63쪽.

76) 영암군 도포면 산 65번지.

77) 『시대일보』, 조선 최초의 義兵將 梁達泗 유적 두곳, 영암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2019년 08월 26일.

왜구의 침입을 맞아 절도사 원적과 장흥부사 한온 등이 전사하고 영암군수 이덕견이 사로잡혔다. 특히 영암은 왜구의 주요 공략지점으로 영암성이 포위 위협 당하였다.

의병장 양달사 장군은 모친상을 당하여 거상 중에 있었으나 이러한 긴박한 사태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분개하고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임금과 아버이는 일체인데 어찌 예제에 얽매어 국난을 외면하고 있으랴’ 하였다. 그가 상복을 입은 채로 군사를 모아 먼저 성안으로 들어가니 영암군민들과 형제들이 앞 다투어 뒤를 따랐다.

의병장 양달사 장군은 적을 현혹시키기 위하여 오색 비단옷을 입고 고깔을 쓴 창우를 동원하여 향교 앞에서 광대놀이를 하도록 했다. 왜구들이 현혹되어 경계를 허술한 틈을 이용하여 역 고개를 넘어 창우대를 동원하여 일제히 적을 협공하였다. 또 성안의 노인과 젊은이들도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양달사 장군을 뒤따라 쳐들어가 적을 요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양달사 장군은 적을 공격하는 도중 10여 곳의 창상을 입었다. 전투가 소강상태에 이르자 일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적이 다시 침공하였다. 그는 후퇴하면서 적을 금교로 유인하여 진흙탕에 왜구를 빠뜨려 무찔렀다.

5월 13일 달량성 함락으로 활개를 치던 왜구들은 5월 24일 영암성을 공격하였으나 양달사 장군은 창우대를 이용한 전술로 5월 25일 영암향교전투와 금교전투에서 승세를 거둬서 왜구들이 퇴각하였다.

양달사 장군은 모친상 중에 을묘왜변이라는 전장을 치렀기에 극구 포상을 거부하였다. 이는 상중에 피 묻은 전투 활동이 포상을 탐닉한 것이 아니라 충효일체 사상을 실천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양달사 장군은 왜구가 평정되자 곧바로 돌아와 여전히 상제를 지키고 유희춘, 김천일 등 당대 최고의 명사들과 교유하였다.

을묘왜변으로 연해안 일대가 유린된 상황에서 향토방위전에 나선 양달사 장군과 영암 군민 유랑 배우로 살던 창우까지의 의병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을묘왜변의 전란의 상황 속에서 양달사 장군과 함께 충효일체 사상을 실천한 창우대와 영암군민의 의병정신은 대를 이어 계승되기에 충분하였다.

영암은 전란에 당면하자 주저하지 않고 전장으로 나선 호남 최고의 의향으로 손색이 없다 하겠다.

참고문헌

『경도잡지』

『대명률직해』

『무명자집』

『북원록』

『성호사설』

『송덕재선생유고』

『신증동국여지승람』

『악학궤범』

『오하기문』

『연려실기술』

『오주연문장전산고』

『이충무공전서』

『조선왕조실록』

『청장관전서』

『충무공유사』

『해행총재』

『해동야언』

『호남절의록』

이훈종, 『국학도감』, 일조각, 1969.

『내고장 전통 가꾸기』, 영암군, 1981.

田大熙, 「朝鮮代 度量衡器의 實크기에 관한 研究」, 『韓國海洋大學論文集』 제18집, 韓國海洋大學, 1983.

장한기, 『한국 연극사』, 동국대학교출판부, 1986.

『문화유적총람』, 전라남도, 1986.

이보형, 「倡優集團의 廣大소리研究」, 『韓國傳統音樂論究』,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광주·전남 오란총의사록』, 사)광주·전남 오란총의사록헌창회, 1992.

노동은, 『한국근대음악사 1』, 한길사, 1995.

이두현, 『한국 무속과 연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영암군지』하, 영암군, 1998.

박흥수, 『한·중국도량형제도사』, 성균관대학교출판사, 1999.

『호남읍지(영암군)』, 의사, 영암문화원, 2009.

고용규, 「전라좌도지역의 조선시대 수군진보성 연구」, 『조선시대 수군진조사Ⅱ 전라좌수영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4.

『이순신 문화자원 선양·활용 추진계획』, 전남도, 2016.

「평양감사향연도(平壤監司饗宴圖)」

서울대 규장각

『영암신문』

왜구의 침입으로 본 을묘왜변

정현창

전남대학교문화유산연구소 연구원, 문화재학박사

1. 머리말

을묘왜변은 ‘달량의 변’¹⁾으로 시작하여 유린당하던 남해안을 영암성 승리로 본토를 지켰고, 남해안 도서의 핵심 제주에서 대첩을 거두어 국토를 굳게 지켰다.

왜구들 소굴의 하나인 대마도는 척박한 땅으로 이루어져서 농산물의 산출이 거의 없었기에 대마도의 생존을 위한 재화를 외지에서 얻을 수밖에 없었다. 일기도(壹岐島)는 대마도보다 다소 나은 곳이지만 오도(五島)열도는 우리나라와 해류가 깊은 관련이 있어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인연이 깊은 곳이다. 특히 대마도에 못지않게 열악한 오도를 포함한 일본 서부 연해는 우리나라 남서해안은 물론이거니와 중국의 동남해안 등지에서도 약탈하는 심각한 왜구 근거지가 되었다.

1510년 삼포왜란 이후 조선에서는 왜인에 대한 엄격한 통제 아래 통상이 재개되고, 1544년 사랑진왜변에 이어 다시 통교는 이어졌으나 약 1세기 동안 조선이 취했던 통교의 단절과 통제 같은 대응책으로는 해결이 이루지지 못하였다.

결국 1555년(을묘년) 5월 달량진 침범으로 시작된 을묘왜변은 지난 왜란 중에 다른 성격의

1) 『명종실록』 18권, 명종 10년 5월 17일.

지닌 왜변이 되었다. 이러한 을묘왜변에 대한 연구로는 이전의 삼포왜란의 연속선상에서 다루고 을묘왜변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중국인 왕직(王直) 집단과 오도 왜구의 해적행위로 파악하고 중국 대륙에서 행해지고 있던 ‘후기 왜구’와 같은 유형으로 성격을 규정하거나²⁾ 진관체제의 근원적 문제와 군 기강 해이로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을묘왜변 이후 비변사의 의의 등의 주장들이 언급되고 있다.³⁾

최근 영암성 전투 중심의 을묘왜변에 대한 연구를 넘어 남해안의 도서들의 핵심으로서의 을묘년의 제주에서의 전투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최근 제주연구원과 지역신문에서 제주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을묘왜변의 마지막에 전개된 제주 승첩의 의의를 찾는데 깊은 관심이 주어지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을묘왜변 당시 왜구들의 침입로 따라 조선 수군진이 공략을 당하였던 곳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왜구들이 침입할만한 그 배경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다. 3장에서는 을묘왜변 중 왜적에게 가장 의미있는 패배를 안겨준 제주에서의 침입로는 어디였으며, 마지막 대첩을 이룬 배경의 시원을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제주의 파적’, ‘을묘왜변의 대첩’ 또는 ‘제주의 승첩’이라는 용어들을 합당한 정의로 정리하겠다. 을묘왜변의 마지막에 제주도에서 이룬 제주대첩이 함유하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2. 을묘왜변 시 왜구의 해상 침입로

본 장에서 가리포진 왜선이 출몰하였던 일시 미상의 시기부터 제주에 도착하기 이전의 보길도까지의 해상로를 살펴보고 1절에서는 을묘왜변 중의 달랑에서 보길도까지 기간 중의 해상 침입로를 살펴보고 2절에서는 왜 수군진을 위주로 침입하였는지 그 까닭을 추구하여 볼 것이며 중국에서 왜구 활동과의 연관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2) 윤성일, ‘후기왜구로서의 을묘왜변’, 『한일관계사연구』 24집, 12쪽.

3) 문준호, 군사(103), 조선 명종대 을묘왜변에 관한 군과 정부의 대응, 2017, 207쪽.

1) 을묘왜변 시 해상 침입로

을묘왜변은 1555년 5월 11일에 시작되어 6월 27일로 종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달랑진의 변(達梁變)을 발생 시점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을묘왜변이 전개된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왜구가 5월 11일 달랑진 해구에 정박하기 이전에 가리포진에서 첨사 이세진이 전라 병사에게 보고하였으며, 영암성전투 상황이 종결된 시기의 전기(前期) 상황과 이후 왜구의 5월 27일 가리포진 침입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시기를 후기(後期)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리포진 공격을 시작으로 전라 서남해안 도서들을 침입한 경로를 따라 제주 침입 실패를 마지막으로 을묘왜변이 끝을 맺는다. 따라서 을묘왜변의 전개는 왜선 70여 척이 전라도 달랑진 해구에 정박한 5월 11일부터 제주에서 패퇴한 6월 27일까지가 아니라, 5월 11일 이전부터 가리포 첨사 이세린이 즉각 병사(兵使) 원적에게 치보하였고 그에 따를 병사의 대응 조치가 전개되었으므로 가리포진에서 왜선 출몰 사건도 포함되어 왜적의 출현 기점이 달랑진 앞바다가 아니라 완도 가리포진 앞바다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을묘왜변 기간 동안 왜구의 해상 침입로는 그 관점을 피아간에 전선(戰船)에 승선하여 침입이나 전투 상황 및 퇴각 이동 등을 간략히 살펴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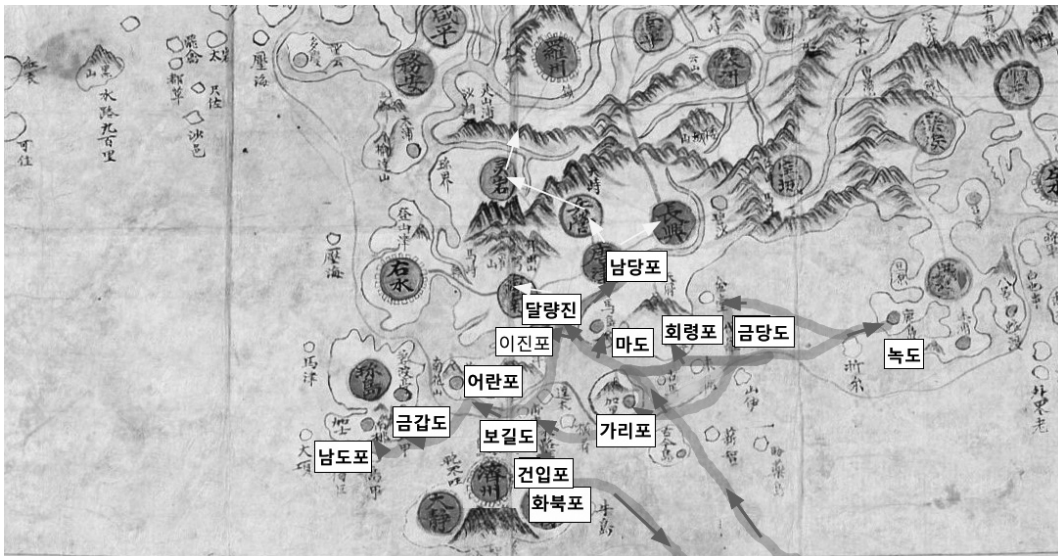
<표 1> 왜적의 해상 침입 관련 일지

일시	왜구 침입로	관련 상황 및 전몰자
5/10?	왜선 가리포 출현 보고	
5/11	달랑진 해구	11척/60-70척
5/12	달랑진성 포위	변협군사 3백 명
5/13	달랑진 함락	원적 부자, 한온 외 부하들
5/14	진도 남도·금갑 불태움	
5/16	왜구 나주 매복	1천여 명
5/21	왜구 강진현에 들어옴, 왜적 장흥부 침범, 연이어 난포·마도·장흥부 병영·강진현 함락	50여 명
5/22	장흥부	
5/23	영암 진격. 방패선	창우대 4-5백 명

일시	왜구 침입로	관련 상황 및 전몰자
5/25	효용군(驍勇軍) 6명, 활 잘 쓰는 사람 15명	왜적 110명/11급 침수 왜적 200여 급.
5/26	병영 침입	배를 띄우고 도망
5/27	가리포 침입	
5/28	가리포 함락. 이어서 회령포 함락. 다시 녹도 포위	군선 식량 등
5/28	녹도 퇴각, 금당도로	조선 수군 50척 왜선 29척
6/20	보길도	
6/21	보길도 출발 제주 앞 바다 1리 정박	왜선 40여 척
6/ ?	제주 화북포 상륙	
6/24	제주성 포위	3일간
6/27	제주 패퇴	왜장 외 다수 참획

위의 표를 종합하여 지도 위에 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을묘왜변 시 왜구의 해상 침입로



왜구의 해상 침입로의 경계를 보면 대략 북쪽 끝으로는 강진현 남당포, 남쪽 끝으로 제주도 건입포(화북포)에 이르며 서쪽 끝으로는 남도포 선소에서 동쪽 끝으로는 녹도 선소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이 왜선의 침탈 활동 범위에 해당하며 전라남도 여자만을 제외한 서남해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왜적의 소굴로 변한 해상 활동 무대 면적은 약 7천여 ㎞에 달하며 침략된 육지만 하여도 포함하여 대강 4만여 ㎞에 달한다.

2) 왜구 침입 수군진의 실태

이 절에서는 을묘왜변이 진행될 전후에 중국에서 왜구 활동을 살펴보고 이와의 연관성과 수군진을 대상으로 침입한 배경을 검토하겠다.

달랑의 변이 발생하자 조선에서는 “이번의 왜란은 경오년과는 같지 않습니다. 이번 왜인들은 곧 중국에서 도적질하던 무리들로서 먼저 민간을 약탈하고, 또한 고을들을 공격하니 난이(難易)의 사세가 경오년과는 같지 않습니다.”하고 중국에서 도적질하던 무리들로서 중국에서 하던 경험을 살려 먼저 민간을 약탈하고, 또한 고을들을 공격하였다는 점에서 이전 왜변과의 성격이 다른 왜란이라는 것을 재빠르게 파악하였다.⁴⁾

그렇다면 중국에서 도적질하던 왜구 무리들의 기록을 명나라 실록에서 검토하여보았다. 명실록에서 ‘海寇’ 등 관련된 다른 주제어도 있지만 단지 ‘倭’란 주제어만으로 검색한 결과 약 1천여 건의 기사가 있는바 그중에서 단연 명 세종 대에 5백여 건과 신종 대에 7백여 건의 기사가 있었다. 합계 1,275건의 기록이 있어 전체 1,980건의 기사 중 65%가 15명의 황제 중에서 두 분에게 집중되었다.⁵⁾ 즉 을묘왜변과 임진왜란 이 발생한 즈음에 왜구의 난동이 격심하였다는 것이다. 명 세종 때에서도 조선에 을묘왜변 전후를 분석한 결과, 1553년에 33건, 1554년에 70건, 1555년에 157건, 1556년에 94건, 1557년에 102건, 1558년에 26건의 왜에 관한 기록이 있었다.

1555년(가정 34) 왜 관련 기사 157건 중에서 1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25건, 5월 12일부터 6월 22일 사이에 20건이나 발생하였음을 볼 때, 조선에 달랑진에서 제주도 앞바다에 정박한

4) 『명종실록』 18권, 명종 10년 5월 18일.

5) 전체 (1,983) 太祖 (80) 太宗 (64) 仁宗 (1) 宣宗 (29) 英宗 (157) 憲宗 (46) 孝宗 (29) 武宗 (41) 世宗 (535) 穆宗 (45) 神宗 (740) 光宗 (6) 熹宗 (54) 附錄 (30) 校勘記 (126).

동안에 20건의 중국에서의 왜변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는데, 제주에 정박하고 있을 동안에는 6월 22일에 한 번 있었고⁶⁾ 다른 한 달 동안 기록이 없었다.

5월 12일부터 6월 22일 사이에 중국에서 자행된 왜란의 대강은 이렇다.

이들 사건 중에는 주요 왜란으로는 가정 34년 4월 24일 관병과 민병 삼천이 공격하여 왜구 소굴을 파괴하고 150여 명을 참수하였으며 적선 27척을 불태우니 남은 적은 흩어졌다. 5월 11일에는 45급을 참수하고 많은 적을 섬멸하였고, 5월 12일에는 왜선 30여 척을 포함하여 해양으로부터 돌연 침범한 무리 약 천여 인을 섬멸하였다. 왜선 39여 척에 천여 명의 왜구가 침입하여 45명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15, 16, 17, 20일에 최대 소란을 보이는데 5월 16일에는 천여 인을 살육한 기록이 있으며 5월 23일에는 150-200인이 참수 당하였다. 6월 7일에는 왜적 백여 명이 절강에서 나타났다. 6월 11일에는 삼장포에서 130여 인이 참수를 당하였고, 21, 22일에는 약간 소강상태로 있다가, 6월 22일 하항진에서 명군이 공격하여 40여 인을 참수하고 남은 적이 민가로 들어가자 불태워 섬멸한⁷⁾ 기사를 마지막으로 얼마간 왜구들의 난동 기록이 사라진다. 7월 초에 들어서 사라졌다가 7월 24일에 10명 참수, 27일에 왜선 30여 척과 왜적 여 명이 바다에서 돌연히 침범하여 공격하였다.

이를 보면 중국과 전라도 두 곳에서 동시에 왜변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이 파악된다. 특이한 점은 다만 제주도 전투 시기에는 중국의 소란이 없었으며 제주 패퇴 이후 약 한 달 동안 중국의 침입이 없었음을 볼 때 제주도 공격에 상당히 집중하지 않았나 하는 추정이 가능하다.

1555년 5월 11일 ‘달량의 변’이 있었던 전후의 명나라 왜변의 기록을 볼 수 있는데 명나라에서 왜가 조선에서의 왜구가 동시에 진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5월 18일 심연원(沈連源)⁸⁾이 아뢰대로 중국에서 활약하던 왜인들의 전체가 아닌 일부 왜가 조선 침입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6) 世宗肅皇帝實錄 卷四百二十三 嘉靖三十四年 六月 二十二日 3번째 기사 / ○蔡涇開倭至夏港鎮副使至崇古 副使至崇……○蔡涇開倭至夏港鎮副使至崇古 副使至崇古:三本至作王, 是也。督水陸兵夾擊之賊遂出港泊淺沙分舟南犯至靖江陳公港登岸我兵急擊之斬首四十有奇餘賊走入民家我軍 我軍:三本軍作兵。焚而殲之。

7) 『世宗肅皇帝實錄』卷四百二十三 嘉靖三十四年 六月 二十二日.

8) 심연원은 1534-1537년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명륜당을 중수하였다. 증보탐라지 학고 명륜당기에 심연원서가 있다. 제주목사로 있었기에 왜구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

이 왜구들이 통로에 해당하는 진도 해로가 방해받는 것을 염려하여 진도로 가서 금갑과 남도를 공격하였을뿐더러 아주 불태워버려⁹⁾ 후환을 없애 재기할 수 없도록 왜들의 안전을 보장할 목적과 연관이 있었지 않았을까 한다.

조선 초기에는 진선소를 중심으로 진포, 대굴포, 무안선소 등과 원포, 삼촌포, 축두포 등 내륙 깊숙한 강어귀나 만 안 깊숙한 곳에 수군진 선소가 설치되었다. 15세기 세종 대에 이르러 조선 초기에 설치되었던 선소들은 숫자적으로 축소되었으며 좌우 관할 기준은 영산강을 축으로 함평과 고흥이 각각 중심 도만호 선소로 나뉘어졌다. 15세기 후반에 이르면서 진도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남도포와 금갑도 수군진이 생겼다. 그리고 해남과 순천이 수군진 선소의 거점이 되었다. 각 좌우수군진의 중심축이 이동하였다. 그 좌우 관할 경계는 해남 땅끝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 시기에 경계가 되는 해남반도는 어란포와 달랑진 선소가 있었다. 그러다가 16세기 초에 완도의 가리포진 선소가 설치되었다. 16세기 중엽에 을묘왜변을 계기로 달랑진이 폐기되었다. 그 대신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진진과 어란진의 선소가 생겼다.

조선시대를 통시적으로 보았을 때 좌우수영의 관할 지역은 대체적으로 영산강 하구에서 해남반도를 거쳐 장흥반도로 그 분할 구획선이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선소의 위치가 변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해방의 영역이 변하였음을 나타낸 것이다. 전라도 좌수영의 책임 구역이 넓지 않은 구역을 차지하였지만 많은 업무량을 책임지고 있었다. 이 지역이 바로 남해안에서도 동부 구역인 좌수영 구역에 왜구의 침입 구역이 잦았음을 알 수 있다.

을묘왜변 중에 왜구에게 침략을 당한 이진포는 수군진이 설립되기 이전으로 포구에 불과하였다. 이진포를 제외하고는 남도, 금갑, 어란, 달랑, 가리포, 마도, 회령포, 녹도 등은 모두 전라 남해안의 수군진이었다.

왜구들이 주로 수군진을 침략하였는데 왜구들이 공략하여야 할 조선 수군진의 유인책은 무엇일까?

왜구들이 목적지로 삼고 침략한 영암, 강진, 해남, 장흥 등은 산물이 풍부한 지역이다. 강진은 곡물, 목화, 도자기를 울산의 소금, 기장·영일·장기의 청어, 강경의 수공업제품과 교역을 하며 미역은 평안도까지 판매하였다. 영암은 미곡, 목면, 수산물을 서울, 강경, 은진의 잡화와 교역을 하였고, 장흥은 곡물을 경상도의 어물과 바꾸며, 해남은 경상도, 제주와 상품 유

9) 『명종실록』 18권, 명종 10년 5월 21일.

통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¹⁰⁾ 이러한 풍부한 생산물이 있었기에 조선의 보장(保障)이었고, 언제나 호남은 왜구들이 노리는 목표지역이 되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왜구들이 조선 수군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는 대변량, 군기, 즈물, 전선 등이 있다. 이들은 왜구들의 중요 이동 수단인 배를 운영하는 필수요소들이다. 이들이 원활하여야 다음 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마치 등산가들이 고산 최고봉을 등정하기 위한 베이스캠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들은 전진 침략을 위한 전진기지로 공격 준비의 거점이고 철수 퇴각의 완결점으로서 귀환선들의 안전한 출발기지이기도 하다.

수군진 선소를 점령하므로써 적의 기동력을 꺾을 수 있다. 적의 공격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육지에서는 말이요, 해양에서는 전선이기에 바다를 마당으로 삼고 살아가는 왜구에게는 필수이다.

또한 식량을 획득할 수 있다. 전투에서 전투식량을 제일의 요소이다. 각 수군진에는 대변량이라고 하는 식량이 저장되어 있다. 을묘년 이후 화북소에는 다른 방호소의 두 배나 되는 대변량을 저장하여 두었다. 그리고 전선이 출동할 경우에 선상에 지참하는 것이 증미(蒸米)이다. 군기(軍器)는 물론 전쟁의 필수요소이기에 유용한 것은 물론이고, 보통 즈물고(汁物庫)라는 창고에 보관된 즈물은 각종 수리 도구 병참을 말한다. 끝으로 우리 전선은 왜선과는 그 구조가 달라서 왜구들이 활용하는데 익숙하지 않으나 침략 도중이나 퇴각 시에 노획물의 운송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유용하다. 노획 후 고향에 비치하여 두고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타 격군들을 얻을 수 있다. 5월 21일 강진에 들어온 왜적 50여 명이 단지 창과 칼만 가지고 병영에 들어와 병기와 잡물은 모두 뒤희쳐가고, 또한 증미 7백여 석을 가져간 사례를 들 수 있다.¹¹⁾

아울러 조운선의 운반항로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탈취에 용이한 곳이므로 식량 획득의 용이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각 수군진과의 거리는 다음 작전 이동의 중요한 지역이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마치 육지의 역원(驛院)이 위치하듯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최적 상태의 항구 지형과 이웃하는 수군진 간의 거리, 배후 지원 도시 등의 제반 조건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수백

10) 고동환, 『한국전근대교통사』, 들녘, 2015, 212-216쪽.

11) 『명종실록』 18권, 명종 10년 5월 26일.

년 동안 장소를 옮겨가며 확정된 수군기지이기 때문이다. 다음 장소로 움직이기 위하여서는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장소들이 수군진이 있는 곳이 공략을 당한 것이다.

3. 제주대첩

본 3장은 제주에서의 7일간의 간단한 상황을 왜선이 화북포를 범하였다고 하는 ‘탐라기년’에 기록된 화북포로 침입한 이유를 1절에서 유추하여 보겠다. 2절에서는 을묘왜변 중에 제주대첩이 지닌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제주성전투 시 왜적의 침입로 고찰

을묘년 6월 27일 김수문 목사의 보고에 의하면 21일 주북1리에 왜선 40여 척이 정박하였고, 여러 차례 싸우다가 물러나기를 기다려 27일에 일격을 가하여 격퇴하고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왜구들이 제주성 침입로에 대하여서는 언급이 없었다. 김석익의 ‘탐라기년’에 ‘犯禾北’이라는 유일한 언급이 있다. 건입포에 정박한 왜구들이 화북포로 침범한 사실에 대하여 의문이 들지만 ‘탐라기년’의 기록이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검토하여보고자 한다.

이 화북포 침입 문제는 제주로의 침입로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제주는 섬 주위가 암벽으로 둘러쳐져 있어서 상륙 지점을 탐색하기에 곤란을 겪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선박 출입 문제는 제주 해안 출입의 단점이자 해안방어의 장점이기 때문이다.

일순 “왜구는 아직 수전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화북포를 최적의 상륙지점으로 판단한 듯하다.”¹²⁾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 아울러 또 다른 요인이 있었을 가능성도 검토하겠다.

먼저, 을묘년 당시에 건입포에는 전선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부터 검토하였다. 건입포와 화북포를 중심으로 읍지와 지지류 등의 문헌을 통하여 만든 <표 2>에서 보듯이 건입포는 예나 지금이 제주에서 중요한 포구였다.

12) 한라일보, 2022. 08. 09, [제주 유일의 승전 역사 을묘왜변 현장을 가다 2] (1)을묘왜변의 재조명과 역사적 의미 (하)군·민 합심 승리… 조선·동아시아 평화 정착 기여.

〈표 2〉 제주목 포구 및 관해방 현황

方向		方向										方向											
距里(里)		80	70	60		50	40	30	20	10	10	20	30	40	50	60	70	80					
新增東國 輿地勝覽 =奎貴19 32-v.1 -25 (1530) ¹³⁾	浦名 / 里數	⑮ 釜浦	③ 板浦	⑩ 排船浦	⑨ 甕浦	② 明月浦 14)	⑧ 歸德浦	⑯ 涯月浦	⑦ 高內浦	⑥ 貴日浦	-	⑤ 道圓浦	① 健入浦 15)	⑰ 禾北浦	-	⑭ 朝天浦 16)	⑪ 咸德浦	④ 北浦 17)	⑮ 金寧浦	⑫ 魚登浦 18)	-	⑬ 敦義嶼浦 19)	
		80	70	63	61	60	50	40	35	25		10	1	10		25	30	40	50	60		72	
	監考 20)	◇	◇	◇	◇	◇	◇	◇	◇	◇	-	◇	◇	◆		◆	◇	◇	◇	◇	◇	-	◇
	梁直	○	○	○	○	○	○	○	○	○	-	○	○	○		○	○	○	○	○	○	-	○
	關防 22)					明月浦防護所 60		涯月浦防護所 42			都近川防護所 17		新增左右衛 23)			朝天館防護所 26			金寧浦防護所 51	新增別郎城			
	24)					明月浦口水戰所		涯月浦口水戰所			都近川浦口水戰所	伐郎浦水戰所 20步	巾入浦水戰所 1			朝天館浦口水戰所			伐郎浦口水戰所	新增左右衛			

13) 1611년(광해군 3) 간행본.

14) 海口可泊舟.朝元時, 候風於此, 凡七晝夜乃涉大洋, 至中國.○高麗崔瑩討哈赤時, 牧子迭里必思等以三十餘騎拒於此浦.大軍齊進, 奮擊大破之.

15) 世傳高厚、高淸自新羅還泊, 族屬會迎于此.

16) 朝天館.在朝天城中.由三邑出陸者皆候風于此, 由全羅入三邑者皆泊舟于此及涯月浦.

17) 有鹽盆.

18) 有牛場.

19) 道衣浦.

20) 조선시대 정부의 재정부서에서 전곡(錢穀) 출납의 실무를 맡거나 지방의 전세·공물징수를 담당하던 하급관리로 1472년(성종 3)에 폐지됨.

21) 譏察浦口出入之人.; 1841년 「탐라지초본」(상), 진보조에 지금은 폐지되었다고 함.

22) 皆置留鎭軍卒以守之.

23) 舊在客舍門外金錫哲爲牧使時移構于觀德亭東.

24) 皆有戰船又有軍.

方向		方向										方向									
乙卯倭變 1555	浦口 吳水戰所											?	?								
南槎錄 (1601)	戰船所				明月防護所	涯月防護所							本州	朝天館					別防護所		
	隻數				1	1							3	1					1		
	戰船碇泊浦口				明月浦	涯月浦							別刀浦	朝天浦					魚登浦		
	出船記浦口 ²⁵⁾												●	●							
	兵船碇泊可能浦												別刀浦	所訖浦	朝天館浦	威德浦	北叱浦	金寧浦 60無注浦	大浦	作爾了浦	大浦 75 甘同浦 75v 67
支那朝鮮古地圖 (1623)	浦		板浦	盃船浦	明月浦	歸德浦	涯月浦	高內浦	貴日浦	道浦		巾入浦		朝天館	威德浦	北浦	金寧浦	於等浦		道衣灘浦	
	船泊		95	63		41	45		26			○			31	45	51	64		72	
耽羅誌 (1653) 增補耽羅誌 (1765)	山川 / 里數								朝貢川 ²⁷⁾	大川	屏門川城外	山底川 ²⁸⁾	禾北川								
									20	2		1	13								

25) 홍기표 역, 남사록(하), 2009, 제주문화원, 32쪽 '을묘년 이후 사선이 마음대로 출입하여 도망자가 많아지자 목사군관 한 사람이 장부와 일일이 대조하여 점검하여 출발하는 포구를 두 곳으로 제한하였다. 별도포와 조천포는 동풍을 기다리는 후풍소이나 김상헌은 주로 별도포를 이용하였다.

26) 東輿備考, 支那朝鮮古地圖(1623).

27) 一名水精川一名都近川之上.

28) 在城東一里即嘉樂泉下流流二里許入海爲健入浦今在城內.

方向		方向									方向								
耽羅誌 (1653) 增補耽 羅誌 (1765)	浦							朝貢浦	大瓮浦	伐浪浦	巾入浦	禾北浦 (29)							
	防護所				明月所		涯月所						朝天所			別防所			
	水戰所 里數				明月浦		涯月浦		都近川浦 18 今廢	伐浪浦 20 步今廢	今廢健入 (30) 1 (31)	禾北浦 (32)	朝天浦			金寧浦 今廢	魚登浦		
東國輿地志 (1656)	浦口 里數	⑰釜浦 80	③板浦 75	⑨排船浦 63	⑧甕浦 61	②明月浦 60	⑦歸德浦 50	⑬涯月浦 40	⑥高內浦 35	⑤貴日浦 25	④道園浦 10	①健入浦 1		⑬朝天浦 25		⑩威德浦 31	⑭金寧浦 26	⑪魚登浦 60	⑫敦義嶼浦 72
	防護所					明月浦		涯月浦						朝天浦			別防		
	水戰所					-		-						-			-		
濟州邑誌 - 奎10797 ⁽³³⁾ (1899)	浦口 里數		②板浦 95	⑩盃令浦 63	⑨獨浦 60	①明月浦 (34) 60	⑧歸德浦 47	⑦高內浦 40	⑥貴日浦 27	⑤道道里浦 10	④泥浦 9	-	⑬禾北浦			⑪威德浦 31	③北浦 45	⑫於等浦 64	⑬道衣灘浦 72
	防護所 ⁽³⁵⁾					明月浦		涯月浦						朝天浦			別防所		

29) 禾北川 旱竭雨漲浦口有候風館, ; “옛날에는 항만이 얇고 좁아서 배를 정박하기가 어려웠다.” 담수계의 증보탐라지’ 재인용.

30) 增補耽羅誌第二 水戰所2, “今廢健入”, “補 肅祖乙卯因御史啓各浦戰船革罷”. 따라서 탐라지초본에도 건입포는 “今廢健入”라는 기록이 있으므로 증보탐라지 기록대로 1675년(숙종 1)에 혁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1) 今廢健入金寧伐浪朝貢三浦古有水戰所今廢

32) 船將3人.

33) 濟州邑誌(奎10796)본에는 ‘關陬處無’ ‘戰船 昔存今無’ 鎭堡 화북진, 조천진, 별방진, 애월진, 명월진,가 있으며 각 진장 1인과 군, 포수, 궁인 등의 인원수가 기록되어 있다.

34) 海口可泊舟。朝元時，候風於此，凡七晝夜乃涉大洋，至中國。

35) 濟州邑誌(奎10796본)에는 防護所 없음.

方向		方向								方向							
濟州邑誌 - 奎10797 (1899)	水戰所 ³⁶⁾				明月浦	涯月浦			朝貢浦 今廢	伐浪浦 今廢	今廢健入	禾北浦	朝天浦			金寧浦 今廢	魚登浦
	待變糧				3	3						6石	3				3
	板屋戰船				1	1						3 ³⁷⁾	1				1
	船將				1	1						3	1				1
	格軍				103	118						180	128				104
	射砲				-	28						87					23
濟州邑誌 - 想白古 915.149- J389. (17930 ^幸)	鎮堡 里數				明月鎮 60	涯月鎮 40						禾北鎮 10	朝天鎮 30			別防鎮 80	
	伺候船				1	1						1	1			1	
	書記				*38)	7						12	7			7	
	防軍				103	93						121	118			120	
1872年 地方地圖 ³⁹⁾	鎮				明月鎮	涯月鎮						禾北鎮	朝天鎮				
耽羅誌」 1902년 이후 ⁴⁰⁾	戰守 有戰船 / 水戰所 皆今廢								朝貢 今廢	伐浪 今廢	今廢健入	禾北有戰船	朝天有戰船			金寧 今廢	魚登有戰船

36) 有戰船又有軍更番分戍.

37) 中部左部右部.

38) 軍官三十人鎮吏十四名使令二十四名 書記十八名.

39) 萬機要覽(1808) > 軍政編四 > 關防 > 全羅道 > 濟州條와 같음.

40) 1902年 以後, 南萬里 編, 「耽羅誌」邊情條. 戰守項.

을묘왜변이 일어나기 116년 전에는 건입포에 수전소가 없었다.⁴¹⁾ 조선 초 동국여지승람에 건입포수전소가 기록되어 있다. 이후 1555년을 지나서 1653년 『탐라지(이원진)』 수전소조에 “今廢健入金寧伐浪朝貢三浦古有水戰所今廢”라는 기록에서 ‘今廢健入’, ‘三浦今廢’의 두 경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廢라는 용어가 품사의 어순에서 다르게 쓰였음을 볼 수 있다. 필자의 해석으로는 건입포는 탐라지를 저술할 당시쯤 머지않은 시기에 폐지되었으며, 금녕·별랑·조공 3포는 건입포보다는 그보다 오래된 이전에 폐지되었다는 뜻이다. 을묘년 당시에 주목 1리에 있는 건입포에는 수전소로써 전함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왜선이 정박할 당시에 건입포 전선과 마주 보았을 것이다. 을묘년 당시의 수군은 병선의 수도 적고, 수졸들의 사기도 저하되어 제 기능을 잃은 상태였는데 제주의 수군 상황도 비슷하였을 것이다.⁴²⁾ 앞서 여러 수군진을 함락시키고 제주에 온 왜적들은 왜선이 40척이므로 전선의 수로는 40 대 1의 열세를 지닌 건입포 수군을 두려워하거나 기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승패의 결과는 명약관화하다. 건입포수전소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군병이나 민간인의 공훈은 상세히 보고하면서도 건입포수전소의 전선과 전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건입포 수군이 굳건히 막아냈거나 직접 전투하여 승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화북포로 왜군을 이끌었던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전술적인 면을 들 수 있다. 왜구는 제주 침입에 앞선 시기에 겪은 달량진성⁴³⁾이나 가리포진성의 공략에서 높은 배후산을 점령하여⁴⁴⁾ 성안의 상황 전개를 명확히 알고 있었던⁴⁵⁾ 경험이 있다. 제주의 공격에 이 전술을 활용할 계획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화북으로 우회하여 사라봉⁴⁶⁾ 줄기를 따라 제주성의 동문 인근의 높은 언덕을 통하거나 사라봉 줄기를 점령한다면 높은 위치를 점령하여 내려다보며 싸우는 달량성전투와

41) 『세종실록』 84권, 세종 21년 윤2월 4일.

42) 이록 1세기 후에도 『탐라지』, 군병, 수군조에는 “제주목에 152명의 수군이 소속하였고 보인이 각 2명이다. …수군이 부족하니 전선이 격군을 포작인들로 정원을 충원하고 겸하여 치고 찌르는 재주를 훈련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43) 『중종실록』 45권, 중종 17년 6월 20일.

44) 박병익, 소재 노수신의 「괴구록」 연구, 『고시가연구』 제29집, 2012, 15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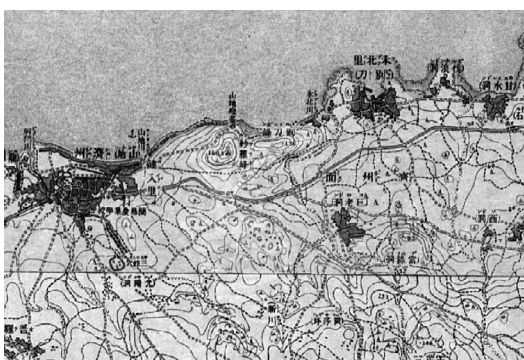
45) 『중종실록』 권45, 중종 17년 7월 15일.

46) 『南槎錄』城郭“續誌, 按紗羅峰 壓臨州城若使賊登陸據此 則州城決非暫守之地”.

같은 전술을 적용하면 제주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화북포를 통하여 사라봉 줄기를 통한 우회로도 생각할 수 있다. 침입로가 어느 곳이든 왜적들은 결국 4인의 치마돌격대가 동문을 나와 말을 달려 적진에 돌진할만한 위치에 있는 동문 밖 어느 높은 능선을 점령하였다. “왜구들은 높은 곳을 점령하고 날뛰면서 성을 포위하였다. 높은 능선을 차지하고 내려다보며 성안으로 살과 돌을 퍼부었다”라는 운주당에 대한 글⁴⁷⁾을 통하여 을묘년 여름 일을 적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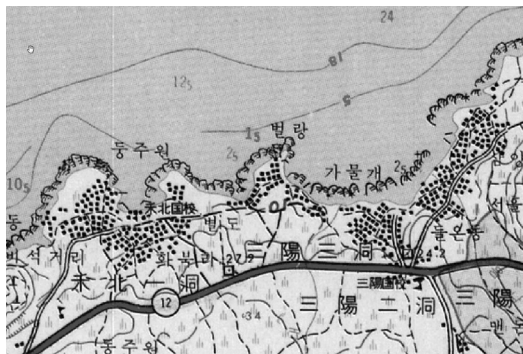
두 번째로는 산저촌과 건입포의 지형 조건이 고려될 수 있다. 일부 고지도에는 성 북쪽 해

〈그림 2〉 1963년 제주 지형도⁴⁸⁾



〈그림 2-1〉 1918년 제주군 지형도

〈그림 2-2〉 1963년 제주 지형도(+는 수중암초)



〈그림 2-3〉 1974년 제주 지형도

〈그림 2-4〉 1974년 제주 화북포지형도

47) 李源祚, 『增補耽羅誌』, 館宇 運籌堂, 愼景尹改建 教授黃祐獻之記, “…海寇憑陵奔突圍城高而盤擬陵臨壁城中矢石交下…”.

48) 자료출처; 국립지리원.

안에 산저촌(山底村)이라는 널찍한 평지가 있으며 탐라순력도 중 ‘건포배은(巾浦拜恩)’에도 넓은 장소가 잘 표현되어 있다. 산지천 하구만을 제외한 동쪽 사라봉 아래나 산저촌은 1918년 지형도나 1963년의 지형도에는 해안선이 암초로 구성되어 선박을 정박할만한 지형이 못되고 단지 그 동쪽 1리에 있는 산지천 하구만이 정박이 가능하여 보이는데 이곳이 건입포이다. 건입포는 산지천(山地川) 하구의 해저 지형이 낮아 1963년의 지형도에는 사라봉 북 산록의 산지등대 북서쪽 해저 1.5m 정도의 해저 봉우리를 지닌 3m 정도의 해면 아래에는 직경 오륙백미터 정도 크기의 동그랗게 낮은 해저지형이 있고 부근에는 해면하 3m 정도의 해저 지형으로 되어 있다. 해면이 낮아지면 이른바 풀등이 된다. 1971년 지형도에도 나타나 있다. 1974년 지도에는 이 해저 지형이 정상 2.5m를 가진 5m 정도에 낮은 둥근 지형으로 기록되어 있다. 불과 십여 년 사이에도 해저지형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00여 년 전의 건입포구 모습도 이런 특성이 있었을 것이다.

북문 수문 밖에 소위 건입포에 조수와 함께 들어왔다가 물이 빠지자 나가지 못하여 걸려있는 큰 거북이 있다는 포인(浦人)의 보고에 거북을 살려주⁴⁹⁾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건입포의 해안 지형조건을 말한 것이다.

을묘왜변 당시에는 충분히 산지천 하구가 갯벌이 넓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수(潮水)가 빠지는 곳이 매우 멀기 때문에 왜인들이 그 조수가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한다.”⁵⁰⁾ 건입포는 왜선들이 정박하기는 하였으나 조수 간만의 차이에 곤란해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입포 포구는 포구의 면적으로 비교하여 화북포구보다 여실히 적으므로 다량의 선박이 정박하기에는 화북포가 유리하였을 것이다.

세 번째 왜군의 상륙은 한 곳이 아닌 두 곳 정도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당시 근년에 해마다 흉년이 들어 군졸들이 피폐해졌고 지금 사졸들이 굶주림에 지쳐 있어 사기가 이미 떨어졌으며 각 포구의 병선이 정돈되지 않아 왜구들이 쳐들어오면 수군으로는 싸울 수가 없는 형편으로 당시의 수군의 전투력도 낮았다.⁵¹⁾ 포작인을 격군으로 대신하고 활을 쏠 줄 아는 수군

49) 『寓庵集』卷之三, 甲午六月日記, 北浦放大龜記, “州城北水門外卽所謂健八浦一日朝浦人走告大龜乘早潮入石堰水退不能去”.

50) 『명종실록』18권, 명종 10년 5월 18일.

51) 『명종실록』18권, 명종 10년 5월 16일.

이 백 명 중의 1명도 못 되는⁵²⁾ 정도인 일반적인 실태에서 건입포 전선 1척으로 40여 척의 왜선을 방어하기에는 무리이기 때문에 승리를 바라기보다는 전투 의지조차도 일어나지 못하였을 것이고 결국 건입포로 왜선 병력도 들어왔을 것이다.

그렇다고 전 병력이 건입포로만 진입하기에는 무리이다. 5월 11일 달랑진 초구에 정박한 왜구도 달랑포구와 이진포구로 나누어서 상륙하였던 것처럼 건입포와 화북포로 나누어 상륙하였을 것이다.

또한 현 제주항 축대가 있기 전까지도 수중암초가 널리 퍼져 있어서 감히 선박이 접안하기 용이한 지형은 오로지 산지천 하구인 건입포 부근뿐이었다. 그리하여 왜적들이 주 1리쯤에 정박하여 머물렀다. 반드시 전투의 승패는 있었을 것이고 건입포로 상륙도 시도하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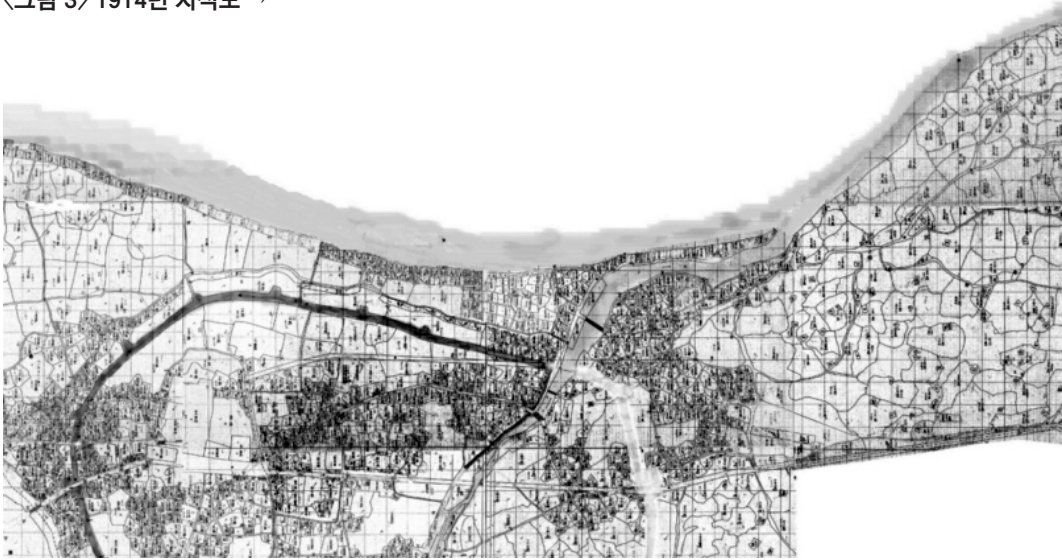
소규모의 왜구 부대나 소선박(小船舶) 승선하여 배의 출입이 가능한⁵³⁾ 산지천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긴 행렬로 인하여 아군의 공격을 받기가 용이하기 때문일 것이다. 건입포를 통하여 진입하기에는 40여 척이라는 많은 왜선이었기에 일시에 상륙하기에는 무리한 지형이다. 더군다나 적선이 의지해 정박할 수도 있는 포구도 아니었다.⁵⁴⁾ 따라서 바로 건입포를 통하여 성을 포위하기보다는 우회작전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병력을 분산하여 상륙하고 성밖에서 집합할 다른 경로를 모색하였을 것이다. 그곳이 화북포였을 것이다.

52) 『명종실록』 18권, 명종 10년 1월 12일.

53) 古地圖, 濟州邑城圖, 中 “北水門, 舟出入”.

54) 『중종실록』 12권, 중종 5년 9월 16일. ‘제주 목사 장임(張琳)의 방어 절목(防禦節目)’.

〈그림 3〉 1914년 지적도⁵⁵⁾



네 번째로 중요한 조건이 물때이다. 뱃사람은 물때를 모르고는 살 수 없다. 더구나 왜선이 북 1리쯤에 정박하여 머무를[距州一里許, 因下碇留泊] 당시의 날짜인 6월 21일은 13물이므로 간만의 차이가 3m 정도였다.⁵⁶⁾ 이삼일 후면 간만의 차이가 1m 정도로 줄어들므로 조금인 23일과 1물인 24일을 기다렸을 것으로 여겨진다. 왜구들은 간만의 차가 큰 갯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왜구들이 범한 화북포는 물속의 암초가 많아 해면의 조석 수위 변화에 민감하므로 화북포로 상륙하기 위한 물때를 기다렸을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이유를 들자면 건입포와 화북포의 포구 지형 차이점이다. 대부분의 해안이 절벽과 암초로 이루어져 있는 제주는 이와 다른 차이가 있다. 앞서 건입포는 모래벌이 얇고 넓은 지형이다.

화북포의 경우는 포구의 좌우가 물결이 낮아도 돌부리가 두루 깔려 있어서 배가 드나들 때 조금만 벗어나면 부딪쳐 부서진다.⁵⁷⁾ 암초와 바위섬이 험악하고 거센 바람이 늘 많이 불어서 판옥선은 다만 운용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를 숨겨 매는 것도 또한 온당하지 못하

55) 자료 출처: 국가기록원 지적아카이브.

56) 음력 6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의 조석표는 평균해면하 +176cm/-128cm이므로 3m 정도의 차이가 난다. <국립해양조사원>.

57) 『增補耽羅誌』第6, 九鎮.

다.⁵⁸⁾ “조천포나 별도포는 물밑의 바위가 칼날처럼 서 있다. 이처럼 깜깜한 밤중이면 또한 배가 뒤집힐 위험을 면하기 어려우니 더욱 두렵습니다.”⁵⁹⁾ 배가 정박하는 곳은 모두 다 암석이 깔려 있어 큰 배는 들어갈 수가 없으므로 [포구에 성을 축조할 필요가 없다. 오직 제주의 도 근천과 화북 등 두 곳이 다른 데와 비교하면 조금 넓기는 하나,⁶⁰⁾ 제주로 향하는 배사람들도 야간에는 화북포 포구에 접근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지형을 지닌 곳이기는 하나 포구 안이 큰 배를 정박하기에 알맞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화북포는 건입포에 비하여 최적의 정박장소이다. 언제 끝날지 모른 전투에서 정박 기간을 예측할 수 없는데 만약의 경우 승선하고 출발하기에 좋은 지역이기 때문일 것이다. 조천관은 상당히 멀리 있기에 작전상 진퇴 시에 불리한 곳이다.

여섯 번째 이유를 찾자면 왜선의 구조이다. 평저선인 조선선은 넓직한 평지도 정박이 가능하지만, 첨저선인 왜선은 물이 깊은 곳이어야 유리하다. 더군다나 “전에는 왜선은 얇은 판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수기가 매우 쉬웠는데 지금은 중국인들과 교통하여 배를 아주 견고하게 만들었으므로 총통으로도 부술 수가 없어 왜놈들을 막기가 그전보다 어렵다.”⁶¹⁾ 하니 압초가 많은 화북포에 입항하기에 좀 더 유리하였을 것이다. 40여 척의 규모에서 천여 명만이 상륙하였음은 진퇴의 조건이 불리함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1601년 『남사록』 기록을 들어 제주에서 전선의 정박이 가능한 25곳을 들었는데⁶²⁾ 그중에는 건입포는 누락되고 별도포가 포함되어 있음을 볼 때, 46년 전 을묘년 당시 40척의 첨저선의 튼튼한 구조를 지닌 왜구선단이 화북포를 선택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다. 을묘왜변 이후 화북과 조천 두 곳으로 배를 출항시키는 곳을 조방장을 두어 제한하였다. 화북포에는 전선의 정박은 가능하나 전선의 운용이 불편하여 1675년(숙종 1)에 전선을 혁파하고 1678년(숙종 4)에 목사 최관이 화북진을 설치하여 조천관의 목사나 왕명 사신 후풍관을 화북진으로 옮겼다⁶³⁾가 중간[1679-1698]에 없었다.⁶⁴⁾

58) 『增補耽羅誌』第6, 水戰所, 禾北浦.

59) 『남사록』, 정월 25일.

60) 『숙종실록』 6권, 숙종 3년 5월 8일.

61) 『명종실록』 18권, 명종 10년 5월 19일.

62) 『增補耽羅誌』, 濟州, 水戰所. ; 전선이 정박할 수 있는[可泊] 포구.

63) 『增補耽羅誌』, 九鎮, 禾北鎮. 『南槎錄』記.

64) 李增, 『南槎日錄』, ‘禾北浦距州治十里 浦口舊有候風館中廢’.

건입포는 고후·고청이 신라에 조공을 바치고 돌아올 때 정박한 곳이며, 건입포는 꾸준히 건재하였고 현재도 건입동 제주항은 국제항까지 갖춘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일곱 번째 이유로는 수전소 전투 승리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제주는 사방이 탁 트여 있으므로 후망(候望)하면 왜선이 온 곳을 환히 알 수 있으므로 왜선 역시 아무 곳이나 정박할 수가 없음’에도⁶⁵⁾ 불구하고 왜적선단 대개 60척 중 20척 정도는 다른 임무 수행으로 일본으로 돌아갔을 것이고⁶⁶⁾, 40여 척의 왜선단이 주 북쪽 1리의 건입포 앞바다에 정박하였다. 당시에 건입포에 전선 1척 정도의 방어시설은 갖추어 정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목사가 수전소의 활약을 언급하지 않았다. 바로 이곳을 통하여 직접 제주성으로 진입하였다는 기록이 없이 동문 밖 전투의 승리만 언급하였을 뿐이다.

여덟 번째 이유로는 화북포는 대규모 인원의 출입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남사일록』의 이증 일행은 53명, 『남사록』의 김상헌의 일행은 38명, 『표해록』의 최부 일행은 43명, 장한철 일행은 28명을, 정부의 공마선에도 격군을 포함해 30~40명이 일행이 탑승하여 화북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특히 호남원군(湖南援軍)은 무려 383명이나 되는 인원이 매년 봄에 화북포를 통하여 들어왔다가 익년에 교체되어 나갔다.⁶⁷⁾ 화북포는 제주성에서 가까운 곳이라 드나들기에 편리하여 절제영의 목사나 왕명을 받들어 오가는 사신들이 모두 이 포구로 드나든다.⁶⁸⁾ 이처럼 화북포는 대규모 인원의 출입이 용이한 포구였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일본으로 도망해간 일본국 살마주(薩摩州)⁶⁹⁾ 왜인⁷⁰⁾이 탐라도 산천의 형세를 잘 알기 때문에 이 왜선들을 안내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그동안 왜구가 제주에 침구해 오지 않은 까닭은 저들이 멀리서 제주 지리의 험이(險夷)와 군사의 허실을 측량하기 어려웠던 것이

65) 『명종실록』 13권, 명종 7년 5월 30일.

66) 『명종실록』 19권, 명종 10년 8월 15일.

67) 일본동경대학교 소장본, 『탐라지』 권지이, 邊情, ‘호남에서 차출되어 들어온 호남원군들은 제주 관덕정전 좌우위랑을 분담하여 오랑개 방어 임무를 맡다가 다음해 교대한다. 만력 경신(1620)년에 혁파되었다.’. 임제(林悌)의 ‘남명소승’ 1578년(선조 11) 2월 호남원병들이 매년 3월이면 별도포로 들어오고, 8월이면 조천포에서 떠난다.

68) 『增補耽羅誌』 第六, 九嶽, 禾北嶽. “地近州城 出入便易 故”營牧及. 往來別星 多有此浦“.

69) 사쓰마 주(薩摩国, Satsuma no Kuni).

70) 『명종실록』 17권, 명종 9년 12월 19일.

다.⁷¹⁾ 일단 40여 척의 왜선이 건입포 외양에 정박하였는데 살마주 왜인이 안내를 따라 화북포로 옮겼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들을 검토한 결과 건입포보다는 화북포에 정박하는 것이 대형 선단으로 구성된 왜적에게 유리한 점이 많아 보인다. 따라서 왜구들의 침략 작전은 물론 유사시 퇴각을 염려하여 그에 따른 승선 등 입출입에 적합한 점이 많은 화북포로 들어왔을 것으로 여겨진다.

가리포 지원군의 제주 도착은 상기도 멀었는데, 6월 27일, 무려 1천여 인의 왜적이 [정박지 미상의] 배에서 육지로 내려서[下陸] 진을 쳤다.⁷²⁾ 제주성을 포위한 왜적들을 맞아 제주목사 김수문과 경예한 치마병과 보통의 장병들이 용감히 싸워 제주 역사상 가장 큰 전투에서 승리하여 제주를 온전히 지키게 되었다. 6월 27일 김수문은 민간인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제주성 전투의 승첩 소식을 적어 장계를 올렸고, 승리 사실을 모르는 조정에서는 7월 2일 구원군을 보냈고, 6일 조정에 도착 제주 목사의 장계 속에 승리의 소식을 보았다.

‘사람됨이 눈은 번갯불처럼 빛나고 담략이 있으며 심히 사졸의 환심을 얻은’ 김수문⁷³⁾은 적은 군졸로 많은 적을 방어하여 마침내 ‘제주의 파적(破賊)’⁷⁴⁾의 큰 공을 세워 제주와 조선은 얼마간 평화를 얻었다.

적진 앞으로 돌격한 70인의 효용군(驍勇軍)도 훌륭하지만, 4인의 치마돌격대 정로위 김직손(金直孫), 갑사 김성조(金成祖)·이희준(李希俊), 보인 문시봉(文時鳳) 등의 무공이 한층 높아 보인다. 그 위에 자신의 활 솜씨만 믿고 홀로 물러가지 않던 왜군 장수를 [화살 한 방으로] 쏘아 무너뜨린 정병(正兵)⁷⁵⁾ 김몽근(金夢根)이 으뜸이었다. 명종이 변란만 일어나면 명궁수들을 선발하여 조직하려는 이유를 증명한 셈이다.

2) 제주대첩이 지닌 을묘왜변의 함의(含意)

이 절에서는 40여 척에 1천여 명의 대규모 공격으로도 제주에게 제주대첩을 안겨주고 꽤

71) 『중종실록』 94권, 중종 36년 1월 3일.

72) 『명종실록』 19권, 명종 10년 7월 6일. “倭賊無慮千餘人，下陸結陣”.

73) 『명종실록』 29권, 명종 18년 6월 11일.

74) 『명종실록』 19권, 명종 10년 7월 7일.

75) 조선시대 군사 제도의 근간을 이룬 일반 양인 농민 출신의 병종(兵種).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퇴(敗退)한 왜적의 행적에 관련된 사건의 시말을 추적하여 제주대첩에 숨겨진 의미를 규명하여보고자 한다.

호남에서의 무려 총 5백 10여 명의 전사자 및 피살자를 낸⁷⁶⁾ 을묘년 6월 제주에서의 적을 무찌른 것을 총결산하여 ‘영암의 수성과 제주의 파적’은 상을 아니 줄 수 없다고 사신은 논하였다.⁷⁷⁾ 제주 지역에서는 제주의 파적(濟州之破賊)을 ‘을묘왜변의 대첩(大捷)’ 또는 ‘제주의 승첩’⁷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명종 임금도 김수문을 칭찬하여 적은 수로 이렇게 대첩(大捷)을 이루었느냐고 하였으며⁷⁹⁾ ‘27일 극첩(克捷)’⁸⁰⁾이라고도 하였다. 이제부터 명종이 내린 정의(定義)처럼 이들을 ‘제주대첩(濟州大捷)’이라고 부르하고자 한다.

왜구는 제주패퇴 이후 일 년 남짓 조선 땅에서 말썽을 내지 않았기에 을묘왜변의 막을 내렸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왜구의 조선에 대한 자신감은 더 커져 버렸고 그들의 침입은 더욱 대담하여 졌다.

을묘년과 다름없이 1556년에도 중국에의 왜구의 침입은 계속되었지만 을묘년 157회의 기사에 비하여 1556년에는 94건의 기사가 보인 것은 중국에의 침입도 확연히 줄어들었음을 보여주지만 조선 침입의 2~3배 많다. 왜구들의 중국 침입 유인 인자가 조선보다 높은 모양이다. 조선에서는 1556년에 침범한 왜구의 숫자가 을묘년보다 10분의 2~3정도이었다. 왜변이 비록 을묘년만큼 심하지 않았으나 왜구를 쏘아 잡은 것도 많았다.⁸¹⁾ 1556년 7월에는 여전히 제주를 침범하였고 김수문은 왜선 2척을 나포하고⁸²⁾ 머리 75급을 베었다. 보길도와 작지도 등에는 큰 배들이 들어왔고,⁸³⁾ 심지어는 1557년에는 가덕첨사의 진선소(鎭船所) 내 수장(水

76) 『명종실록』 19권, 명종 10년 8월 23일.

77) 『명종실록』 19권, 명종 10년 7월 7일, “靈巖之守城, 濟州之破賊, 固不可不賞”,

78) 한라일보, 2022.08.09. [제주 유일의 승전 역사 을묘왜변 현장을 가다 2] (1)을묘왜변의 재조명과 역사적 의미 (하).

79) 『명종실록』 19권, 명종 10년 7월 7일, 非卿素服忠義, 有許國死○之心, 能以寡擊衆, 致此大捷乎.; 고전데이터베이스 국역에서는 “큰 승첩”이라고 번역하였다.

80) 『명종실록』 19권, 명종 10년 7월 7일.

81) 『명종실록』 21권, 명종 11년 8월 12일.

82) 『증보탐라지』에는 왜적의 배 9척을 포획하였다..

83) 『명종실록』 21권, 명종 11년 7월 17일.

漿)까지 왜선이 들어오기도 하였다.⁸⁴⁾ 그 이듬해에도 왜구가 나타나 큰 전투를 벌여졌고⁸⁵⁾ 왜구들이 나라 밖에서 업신여기니,⁸⁶⁾ 1559년에도 왜구의 움직임에 대한 소식이 있어 방비에 심혈을 기울지만⁸⁷⁾ 왜구의 교만한 침입은 양보다 질적인 면이 더 대담해졌다.

본래 왜구들이 사는 대마도나 오도열도는 산악이 많고 평지가 적어 생산물이 적으니 생계가 어려워 약탈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해양으로 나갈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이다. 조류가 우리나라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표류인은 물론 쓰레기까지 오도열도로 흘러가기에⁸⁸⁾ 우리나라 남해안과는 숙명적인 항해 루트가 형성된 것이다. 이번에는 부산포에서 15일 거리인⁸⁹⁾ 구주의 살마주 왜인이 관련된 사안이다.

“제주 을묘왜변의 대첩은 평상시 철저한 군비 관리와 관민의 일심동체로 이루어졌으며, 거기에 효용군 70인 및 4인의 치마돌격 등 강인한 용기가 수반돼 이를 수 있었다”고 홍기표 교수는 명석하게 분석하고 있다.

그 위에 필자는 한두 가지 사족을 붙이고자 한다.

먼저 ‘평상시 철저한 군비 관리의 힘’에 대하여 더불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확한 정보에 대한 임금과 조정 대신들의 올바른 판단, 그리고 철저한 대응책 마련과 하달, 그리고 이에 대한 현지 목민관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방어책 실행 등이 빛을 발휘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싶다.

일찍이 조정에서 제주도에 관한 왜구의 침략 정보를 접하고 수많은 대비책을 마련하였다. 그러한 결과가 제주대첩인 것이다.

이 제주대첩의 발단은 1554년(명종 9) 12월 19일로, 역사적인 이날부터 시작된다.

을묘왜변이 일어나기 4개월여 전에 왜인이 탐라도를 침략할 뜻이 있다고 하니 미리 조치할 것을 비변사가 아뢰는 중차대한 사건이 발생한다. 침략의 시기와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보고였다.

84) 『명종실록』 21권, 명종 11년 8월 8일.

85) 『명종실록』 23권, 명종 12년 7월 4일.

86) 『명종실록』 23권, 명종 12년 8월 20일.

87) 『명종실록』 25권, 명종 14년 4월 8일.

88) 강진일보, 2016. 11. 17., 강진과 바다, 고대항로를 다시본다 <23> 영원한 바닷길 강진-제주도,

89) 『세종실록』 82권, 세종 20년 9월 29일.

“유충홍(柳忠弘)이 총통 만드는 것을 감독하는 일로 왜인 신장(信長)이 머무는 곳에 가 있었는데, 신장의 말이 ‘일본국 살마주(薩摩州) 왜인이 귀국의 탐라도(耽羅島)에서 도망해왔는데 그 산천의 형세를 잘 알고서 내년 봄 바람이 순탄할 적에 대병선을 출동하여 명나라를 침략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는데 실은 귀국 탐라도에 뜻이 있는 것이다.’ 했습니다.⁹⁰⁾ 이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우리로서는 대비를 해야 후환이 없게 될 것입니다. 제주 목사를 이번에 체임하게 되어 있으니 가려서 차출해 보내 방비하는 모든 일을 미리 조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는 비변사의 보고에 명종은 “알았다. 새로 차임하는 목사는 대신들과 함께 의논하여 주의하도록 하라.”고 전교하며 ‘전쟁에 대비한 넉넉한 양식을 준비한 조처로 전라도 연해의 창고에 저장된 쌀 5~6천 석을 갈라서 해남으로 수송하였다가 제주 목사가 들어갈 적에 즉시 실어가도록 하고, 제주에 변이 있게 되면 가리포 첨사가 구원할 것, 특별히 날마다 망보게 할 것, 제주목사 책임자를 조치할 것, 새 목사는 적들이 침범하기 전에 폐단들을 회복시키도록 계책을 펼 것, 2월 보름 뒤에는 곧 바람이 순해지니 반드시 밤낮 헤아리지 않고 조치할 것’ 등 의정 사항을 보고 받고 모든 지시사항의 조속한 수의(收議)를 삼공과 두 부원군에게 당부하였다.⁹¹⁾ 제주목사에 김수문을 임명하며 “각별히 군민(軍民)을 돌보고, 방비하는 모든 일도 마음을 다해 조치하라.”고 특별히 전교하였으니⁹²⁾ 명종의 판단은 옳았고 후속 대처법도 구체적이고 적확하였다. 훌륭한 지도자의 역할을 보여주었다.

신임 목사 김수문은 남치근과 인수인계를 하면서 조치사항 등을 참고하였을 것이고,⁹³⁾ 제주에서도 최대한 대비책을⁹⁴⁾ 갑절 강구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더군다나 제주성전투가 진행된 무렵 6월 22일에는 중국 하항진 기사⁹⁵⁾를 마지막으로 얼마간 왜구들의 난동 기록이 없다가 7월 24일 왜구는 10급이 참수되는 희생을 시작으로 중국 침입을 보이더니 사흘 후 27일에 천여 명의 대규모 왜적이 중국을 침략하였다. 이것으로 보

90) 『명종실록』 17권, 명종 9년 12월 19일. “日本國 薩摩州 倭人, 有自貴國耽羅島逃死而來, 諳其山川形勢, 欲於明春風順之時, 大興兵船, 聲言作賊於大明, 而實有意於貴國耽羅島’云”.

91) 『명종실록』 18권, 명종 10년 1월 11일.

92) 『명종실록』 18권, 명종 10년 1월 12일.

93) 『약전집』 제24권, 가승, 5대 종조 자헌대부 한성부판윤 겸 지훈련원사 오위도총부도총관 공 묘지명.

94) 『명종실록』 18권, 명종 10년 1월 12일.

95) 『世宗肅皇帝實錄』 卷四百二十三 嘉靖三十四年 六月 二十二日.

아 왜구들이 조선의 제주성전투에 마지막 전력을 다 쏟은 것으로 여겨지며 제주성에서의 패배에서 받은 충격이 컸던 것 같다. 6월 27일 이후 약 한 달만에 제주성전투와 같은 규모의 병력으로 복수를 위하여 제주를 재침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을 침입한 사실은 제주인들의 저돌적인 용맹성에 왜구들이 받은 충격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얻어낸 제주대첩은 을묘년의 왜란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 목민관들은 다른 진영보다 갑절이나 힘들게 방어 준비와 방어책을 마련하여⁹⁶⁾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실행하였다. 나아가 내지의 군사의 도움없이 강변의 토병⁹⁷⁾만으로 한 번도 패함이 없이 힘껏 막다가, 물러나기를 기다려서 추격하여 힘껏 싸워 대파하였던 김수문의 뛰어난 전술과 지도력의 힘ियो, 또 그를 따라 앞장서서 돌진한 용맹한 탐라인들의 공지였다.

국가 지도자들의 판단과 대응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과 현지에서 꾸준히 실행으로 대비하여 지켜온 목민관과 백성의 용기를 일깨워 주는 것이 제주의 대첩이다. 제주대첩을 통하여 을묘왜변이라는 비참한 변란 속에 유충홍(柳忠弘)의 신장이 제공한 정보를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처한 명종 조정(朝廷)의 큰 공이 숨겨져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유충홍이 만났던 왜인 신장(信長)이 일본 전국시대 세 영걸(三英傑) 중의 한 사람인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이었다면 우리 조정의 대응은 매우 미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유충홍이 만난 신장이 명나라 침략과 탐라 탈출 운운하며 흘린 탐라도 침략의 정보는 어찌면 혈기왕성한 20대 오다 노부나가 자신의 천하포무(天下布武) 야망이었을 것이다. 노부나가는 1549년 이미 오미국(近江, 현 시가현)의 구니토모무라(国友村)에 조총 5백 정을 손에 넣었고, 그 위에 1554년 조선이 보내준 유충홍의 선진 총통 기술 이전에 대한 작은 보답이였는지도 모른다. 이는 노부나가의 야망을 실현할 준비들이었다. 오부나가는 탐라도를 중간 길목으로 삼아 대륙 침략의 꿈을 구상하였고, 그의 가신 출신인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이어받

96) 李源祚, 『增補耽羅誌』, 館宇 運籌堂, 愼景尹改建 教授黃祐獻之記, “...則控禦之備 城戍之方 固可謂倍徙於他鎮...”.

97) 『燕行錄選集』, “더군다나 당시의 상황에서 제주목사 김수문은 내지의 군사를 동원시키지 않고 강변의 토병만을 썼는데도 패한 일이 한 번도 없이”.

아 중간 길목을 조선국으로 바뀌어 임진왜란을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제주대첩은 4인의 치마돌격대(四人馳馬突擊隊)에게 천군(千軍)의 왜적들이 풀잎처럼 무너져내린 동문 밖 높은 언덕에서 만용(蠻勇)과 교만의 갑주로 무장한 채 홀로 앉아 버틴 젊은 명사수 왜장이 보통 사람 정병(正兵) 김몽근(金夢根)의 화룡정점 화살 한 방에⁹⁸⁾ 쓰러지니 약탈로 연명하던 왜구들의 꿈이 무너지는 소리가 제주 동성 밖 능선에서 화북포까지 울려 퍼지며 을묘왜변의 막을 내렸다.

4. 맺는말

달랑진에서 시작된 을묘왜변에서 왜구들이 침입한 곳은 조선의 식량창고였고 핵심 군사기지인 동시에 선진 도자기를 생산하는 고장이었다. 이들을 약탈하고자 왜구들이 쳐들어온 침입로는 수군진 선소였다. 수군선소는 행정 관아 치소에 버금가는 물자를 보유한 곳이다. 소규모의 약탈 목표로 침입한다면 가장 최적지이다.

예전부터 중국과 조선을 약탈하였고 적지 않은 희생을 치르며 전투 경험을 쌓아 방어 실패를 파악하고 조선을 발판으로 삼아 명나라 침략하려는 의도가 제주성전투를 조망하는 이번 계기로 인하여 임란 전부터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을묘왜변이야말로 왜구들의 수백 년에 걸쳐 조·중 침략으로 쌓은 경험에서 얻은 자신감으로 일본이 품고 있던 몽상의 실현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격적이고 확장된 현장이 임진왜란이었다고 할 수 있다. 명나라를 치기 위하여 길을 빌려달라는 풍신수길의 명분은 명나라를 치겠다는 1554년의 일본 직전신장의 구상 위에 조선까지도 침략하겠다는 확장된 목표의 실행이었을 뿐이었다.

두 사람의 상반된 보고로 인하여 국가 존망에 위기를 초래한 임진왜란과 정보 보고를 정확

98) 조선에서 활은 기본 무기이면서 중대한 주무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군졸 가운데 활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열에 두셋도 안 되었고, 특히 수군은 백 명에 하나 정도였던 형편이기에 늘상 강조하던 활 잘 쏘는 용감한 사람을 가려서 차임하여 미리 계원장(繼援將)으로 선발하는 등 일찍이 이전부터 제주에서는 지방 방어에 힘을 기울여 온 결과인 것이다. 제주성에서 정병 김몽근의 활숨씨로 증명한 셈이다.

히 믿고 판단하여 대처한 제주대첩이 크게 대조를 보인다. 을묘왜란에서 영암성전투는 오로지 양달사를 비롯한 민중의 충의와 기발한 창우대 전술에서 비롯된 영암성 승리였으며, 제주대첩은 대왜 정보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조정의 적절하고 지속적인 대처를 바탕으로 눈앞에 적에 맞서서 보인 탐라인의 용맹과 기개가 낳은 결정체이었다.

거시적인 국제 안목의 결여로 을묘년 왜구의 탐라 침입이 주는 보다 큰 의미를 읽지 못하고 더 큰 국난을 거듭 맞은 우리의 흑역사는 자못 가슴 저민 일임에도 불구하고, 을묘왜변 특히 제주대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미미한 상황마저도 놓치지 않는 현명한 판단과 대처가 지도자의 역할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러주고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을묘왜변과 영암 달랑 전투」에 대한 토론문

안종경

목포대학교 호남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원

지역사(地域史) 연구에 많은 족적을 남기신 김덕진 교수님의 연구와 정열에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제주 지역사 연구를 위해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제주연구원 관계자 분들께 존경과 성원을 보냅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전국 제일의 지역학 연구의 요람이 되길 기대합니다.

본고는 당량진의 중요성과 을묘왜변의 상황을 일정 부분 문학에 내포된 강렬한 상징적(象徴的) 메시지를 통하여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본고를 통해 3가지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1]

〈본고 14쪽〉 “수군 편성과 수군진 설치는 여말선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영암군 남쪽에 있는 달랑은 좌도 도만호 아래의 8개 만호진(萬戶鎭) 가운데 하나로, 중선(中船) 7척과 맹선(孟船) 2척, 군사 5백 19명과 뱃사공 4명을 거느렸다. 『정국대전』에도 달랑진은 좌도 소속이었다. 『동국여지승람』 영암군조에도 군 남쪽 90리에 달랑영(達梁營)이 있다고 적혀 있다. 결국 달랑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조선전기에 만호가 주둔하는 수군진이 설치되어 있었던 곳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 질문

본고에서 달량의 만호진 설립 시기가 매우 포괄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태종 6년 6월 19일 “전라도 해남현(海南縣) 달량(達梁)의 수군(水軍)에 충군시키고...”¹⁾ 태종 15년 11월 1일 “이지로(李智老)를 천거하여 달량만호(達梁萬戶)를 시킨 것 때문이다.”²⁾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의 기록으로 볼 때 달량의 만호진 설립 시기가 태종 15년 11월 1일 이전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하여 발표자님의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질문2]

〈본고 16쪽〉 “달서봉은 달도의 봉우리 또는 달량 앞 바다에 있는 서(嶼)를 말할 것 같다.” 라고 하였습니다.

▶ 질문

달서봉이 봉우리인지 서(=돌섬)인지 모른다는 것인데, 저의 검토 견해로는 지리지와 전략적인 점 현장지형 등을 살펴보면 달서봉은 ‘달량진 중학교 뒷산 봉우리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질문3]

〈본고 19쪽〉 “다른 무리는 진도의 금갑도진, 남도포진을 무너트리고 진도를 쑥밭으로 만들어 버렸다.” 라고 하였습니다.

▶ 질문

다른 무리의 구체적인 문헌적 근거와 진도의 금갑도진, 남도포진을 함락시킨 내용이 어떤 문헌에서 등장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수님의 조언을 듣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1)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6월 19일 정축 1번째 기사.

2)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1월 1일 갑오 4번째 기사.

「영암지역 양달사 장군과 창우대의 의병활동」에 대한 토론문

김용철

전남이순신연구소 연구원

본고의 발표를 위하여 논고를 준비해 주신 노기욱 소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호남 지역 지역사 연구로 전남대 호남학문화연구소가 1960년 초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연구를 거듭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재)호남학진흥원이 지역사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무안학, 진도학, 여수학, 강진학, 해남학, 영암학, 영광학, 나주학, 광주학, 전주학, 군산학 등 각 지역 지역학 연구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오늘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제주연구원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연구가 제주학연구와 을묘왜변의 연구에 보다 많은 기여와, 각 처에서 많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노기욱 발표자님은 영암지역 양달사 의병장의 의병활동을 통하여 당시의 상황과 창우대의 활동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본고를 통해 2가지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양달사장군의 창우대를 이용한 방식에서 왜구들과의 전투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기여가 있었을 것인지와, 또 4,000여명의 의병을 모집하였다고 그 중에서 창우대의 규모는 어떠했는지가 궁금합니다. 1543년 8월 25일 큐슈 지방 다네시가시마에 포르투갈상선이 표류하여 정박하면서 2자루의 화약무기인 조총이 전해지면서 이후 전투상황은 일정부분 화약전

쟁으로 볼 수 있는데 본고의 전사자 내용에서 이러한 언급이 없음은 왜구 진압형태에서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떠했는지가 궁금합니다. 특히 왜구 두목 오초쿠가 명나라 투항으로 왜구들의 활동은 사실상종막을 고하게 되는데 왜구의 개념은 과연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발표자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이순신장인 보성군수 방진의 이력이 대정현감으로 나오는데 이를 통하여 이순신과 이순신 아내를 콘텐츠화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조언을 바랍니다.

「왜구 침입으로 본 을묘왜변」에 대한 토론문

이영현

영암학회장

2019년 9월 25일, 영암군민회관에서 조선 최초 의병장 양달사현창사업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또한 그날, 그리고 금년 6월 10일 두 번에 걸쳐 이 자리에 계시는 교수님들을 모시고 의병장 양달사 세미나도 개최했다. 양달사 의병장의 시묘공원과 전적지가 영암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고, 양달사의 이름도 널리 알려지고 있다. 내년에는 영암교육청 주관으로 동화책을 발간하고 조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도 단위 백일장도 개최한다. 양달사 의병장 영정 제작과 동상 건립, 영암성 복원과 영암성 대첩 기념사업 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느낀 소회는 참으로 씁쓸하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양달사 의병장이 이번에 제주의 을묘왜변 영웅들보다 학계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유는 간단하다. 양달사 의병장은 조선왕조실록에 이름밖에 등장하지 않은 데 비해서, 제주 을묘왜변 영웅들은 실록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제주의 영웅들은 관병이고, 우리 영암의 영웅들은 의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 동안 양달사현창사업회 사무국장으로서 양달사 의병장을 제주의 영웅들과 동등한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이미 1555년 을묘왜변 직후 조정의 처사에 불만을 느낀 전라도 도민들의 들끓은 인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555년 12월 2일 조선왕조실록에 적힌 속칭 “공이 있는 달사는 어디로 갔나”라는 시구를 비롯해 지난 4월 필자가 언론에 발굴 공개한 ‘양달사 남암공 문헌록’을 보면 1633년부터 전라도 유생들

이 줄기차게 양달사에게 포상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암 나주만 아니라 1777년에는 전라도 54개 군현 유생 444명이 탄원하였다. 1779년 황해도 관찰사를 지낸 이기경 같은 분을 비롯해, 1797년 나주목사 임육, 대사성을 지낸 윤득부까지 행장이나 묘지명을 통해 양달사의 억울함을 기록하였고, 1842년 전주향교 유림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자 조정에서는 1847년에야 양달사를 좌승지로 추증하기에 이른다. 양달사 의병장의 영암성 대첩이 호남만 아니라 나라를 구한 것이라는 평가를 마침내 인정한 것이다.

솔직히 양달사의 공적이 사실이라는 점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영암 전투 상황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봐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오늘 정현창 교수님도 실록에서 발췌하였듯이 1555년 5월 25일, 영암성 앞 향교에 주둔해 있던 왜구들이, 10여 개성을 함락하고 기고만장해 있던 왜구들이 단지 효용군 6명과 활 잘 쏘는 병사들 15명의 공격에 뿔뿔이 흩어졌다는 기록은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렵다. 5월 25일 영암전투에서 누가 선봉장이고, 어떤 전술로 승리하였는가에 대한 기록도 없다. 제주에서의 전투는 세밀하게 기술하고 있으면서도, 영암에서의 전투는 대충 얼버무리고 있다.

그러다 200여 년이 지난 후 여지도서에 양달사의 기록이 등장하면서 당시 승리의 주역이 누구이고, 어떻게 승리했는가가 명확히 밝혀진다.

그래서 필자는 봉래시집의 부록에 있는 당시 우도방어사 김경석의 부장인 양사준의 시 “정왜대첩”을 “영암성 대첩”이라고 부르면서 양달사의 업적을 홍보하기에 앞장서 왔고, ‘바람벽에 쓴 시(소설)’라는 졸작도 남겼다.

결론적으로, 오늘 교수님들께 여쭙고 싶은 것은 다음 두 가지뿐이다.

첫째, 양달사 의병장의 영암성 대첩을 정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달라는 것이다. 제주의 김수문 목사와 이튼바 치마돌격대의 김직손, 김성조, 이희봉, 문시봉 등도 훌륭한 분이지만, 당시 영암에서 창우대 등을 이용한 신출귀몰한 전략으로 왜구를 격퇴한 양달사 의병장과 영암의병들도 훌륭하다는 점이다.

둘째, 대첩의 명칭에 관해서다. 오늘 정현창 교수님은 제주의 승첩을 제주의 대첩이라고 하겠다고 공언하셨다. 하지만 당시 영암성 대첩 때 김경석의 종사관 양사준이, 물론 장군이 누구인지는 불명확하지만, 정왜대첩이라는 시를 남겼음에도 왜 영암성 대첩 명칭 사용을 주저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가 “을묘왜변과 지역사회의 대응, 역사문화 자원화”이다. 오늘 세미나

의 명칭에 걸맞게 영암성 대첩과 제주 대첩이 을묘왜변에서 왜구를 물리친 역사적인 사건으로 널리 회자되기를 바란다.

〈주제2〉

을묘왜변과 제주의 대응

좌 장 : 문영택(사단법인 질토래비 이사장)

발표4 : ‘제주’을묘왜변의 재조명과 역사적 의의

홍기표(前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겸임교수)

발표5 : ‘제주’을묘왜변과 역사인물

김석윤(제주대학교 강사)

발표6 : 조선전기 왜구와 제주의 방어체계

오수정(제주여성가족연구원 경영지원실장)

토론4 : 윤성익(경희대학교 강사)

토론5 : 김익수(제주불교신문 대기자)

토론6 : 강문규(前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소장)

제주 을묘왜변의 재조명과 역사적 의의

홍기표

전 성균관대 사학과 겸임교수

1. 머리말

을묘왜변은 1555년(명종 10) 6월 약 40척의 배에 1,000여 명의 왜구가 제주를 침략하여 제주 성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전투를 벌인 사건이다. 이 전투에서 제주의 군민(軍民)은 넘치는 기개와 용기로 과감한 선제공격을 전개하였고, 뛰어난 궁술과 기마술로 왜구를 무찔러 대승을 거두었다. 조선 건국 이래 약 200년 동안 외적의 침입이 없던 제주에 대규모 왜구의 침략은 제주에 큰 위기였고, 이러한 시련에 제주민은 일심동체로 협력하며 대첩을 거두어 극복했다.

제주 을묘왜변은 조선 시대에 들어와 처음 겪는 대규모 외적의 침입이었고, 제주민은 이를 대첩으로 이끌어 시련을 극복하였다. 이는 비단 제주만의 승리가 아니었고, 조선 을묘왜변의 최종적 승리로 귀결한다고도 볼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오늘날 제주 을묘왜변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며 크게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사실 제주 섬은 고려 후기 두 차례에 걸친 외부 세력의 침투와 대규모 접전이 벌어졌었다. 1271년~1273년 삼별초의 입도와 여원연합군의 공격, 1372년~1374년 목호의 난과 최영의 정벌이 바로 그것이다. 그때 제주로서는 엄청난 전쟁의 참상을 겪었으며, 그로 인해 제주 섬은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그 이후 약 200년 동안 제주는 외세의 침략 없는 평화가 이어져 왔다. 물론 조선 초기에 산발적인 왜구의 침입이 있었지만, 이들은 노략질을 일삼을 뿐 대규모 상륙과 전투를 벌인 것은 아니었다.

이에 본고는 제주 을묘왜변의 실상에 대해 사료를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 그동안 조선의 을묘왜변에 대해 비교적 덜 알려진 제주 을묘왜변의 재조명을 기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제주 을묘왜변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새롭게 부각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기억 속에 길이 각인 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의 목적은 두 가지로 귀결된다. 첫째는 조선 을묘왜변 중 제주 을묘왜변의 실상과 위상을 정확히 전달한다. 둘째는 제주 을묘왜변이 제주 역사에 지니는 의미 등을 널리 알린다.

2. 을묘왜변 이전 왜구의 제주침탈

왜구의 침탈은 이미 고려 후기부터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있었다. 왜구들은 미곡 운송 등 고려의 조운선 약탈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주로 삼남 지역에 집중되었다. 『고려사』에 의하면, 왜구는 1223년(고종 10)부터 1392년(공양왕 4)까지 169년간 우리나라 전역에 519회나 침입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왜구가 본격적으로 창궐하기 시작한 1350년(충정왕 2)부터 고려 멸망까지 42년 동안은 506회로 연평균 12회 침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왜구가 가장 많이 침입했던 우왕 연간(1374~1388)에는 연평균 27회의 숫자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극심했던 해는 1383년(우왕 9)의 50회로 월평균 4회를 넘고 있다.¹⁾

『고려사』에서는 당시 왜구의 침탈로 인해 “해변에서 50리 혹은 30~40리 떨어진 곳에서만 살 수 있는데, 이는 왜구 때문이다.”²⁾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처럼 극심한 왜구의 침입에 고려는 1376년(우왕 2) 최영의 홍산대첩(충남 부여), 1380년(우왕 6) 8월 최무선의 진포해전(전북 군산), 9월 이성계의 황산대첩(전북 남원), 1383년(우왕 9) 정지(鄭地)의 관음포대첩(경남 남해), 1389년(창왕 1) 박위(朴葦)의 쓰시마섬 토벌로 대응하며, 그들의 침략에 맞서 싸웠다. 특히 최무선이 개발한 화약, 화포 등의 신병기는 왜구에 큰 타격을 입혔고, 1380년 진포해전 이후부터 왜구 침략은 크게 쇠퇴해갔다.

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20), 1994, 395쪽.

2) 『고려사』(권 42), 세가 42, 공민왕 19년(1370) 5월 갑인.

고려 후기 왜구의 제주침탈에 대해서 『고려사』와 『탐라기년』(김석익)에 의하면 9회의 침입 횟수가 전한다. 물론 기록을 남기지 아니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침입 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무튼 1323년(충숙왕 10) 6월 추자도에 왜구가 침입했다는 사실이 왜구의 제주침탈 최초 기사이다. 그 후 1341년(충혜왕 복위 2) 제주 남쪽 변방에 왜구가 침입했으며, 이듬해는 왜선 700여 척이 침입해 온 사실이 기록으로 전한다.

1377년(우왕 3)까지 왜적의 침입은 계속되었으며, 그들의 침입지역으로 귀일촌, 우포(현 한경면 용수리), 대촌(현 제주시 원도심)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또한 우왕 때는 200여 척, 600여 척의 왜적이 침입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고려말 왜구의 제주 침입 규모는 대규모인 사실이 눈에 띈다. 우왕 때 이들의 침입은 성주 고신걸(高臣傑)의 대응과 고려 지원군의 격퇴로 물리쳤다고 전한다. 하지만 1377년의 기사를 마지막으로 고려 때의 왜구 제주 침략 사실은 더 이상 전하지 않는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1380년 진포대첩 때 등장한 화약, 화포 등의 신무기 개발 등 대대적인 왜구 토벌과 대첩이 전개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고려사』 및 『탐라기년』에 수록된 고려 후기 왜구의 제주 침략 기사는 다음의 <표 1>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조선 건국 이래 왜구의 제주침탈을 『조선왕조실록』과 『탐라기년』(김석익)에서 찾아보니 1401년(태종 1)부터 1555년 을묘왜변까지 약 30회에 이르렀다. 태종 때까지는 수십 척의 왜선이 침입하였으며, 그들의 침입 범위는 광지, 고내, 명월, 죽도, 조공천, 우포, 차귀 등 주로 북쪽 해안 일대였다. 하지만 세종부터 명종까지는 왜선 1~4척으로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침입 범위는 대정현, 천미포 등 남쪽까지 이르렀다. 또한 태종과 세종 때 왜구의 제주침탈이 총횟수의 절반을 넘겨 수시로 피해를 주었다면, 1451년(문종 1) 이후 1494년(성종 25)까지 40여 년은 왜구의 제주침탈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세종 때 조선과 일본과의 공식적인 교역 창구가 개설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즉 1419년(세종 1) 이종무의 쓰시마정벌 이후, 1426년(세종 8)에는 부산포, 제포(진해), 염포(울산)의 삼포개항이 이루어졌다. 1443년(세종 25)에는 쓰시마도주와 계해약조를 맺고 1년에 교역할 수 있는 세견선과 세사미두가 정해졌다. 삼포에 왜관을 설치하고 그들의 거류지를 제공하면서 공식적인 교역이 이루어지자, 상대적으로 왜구의 침탈은 줄어들었다고 판단된다. 세종 때 쓰시마도주를 포함한 일본과 일련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15세기 후반은 내내 왜구의 침탈이 소강 국면에 들어갔다.

16세기로 접어들면서 1510년(중종 5) 삼포왜란의 발발, 1544년(중종 39) 사랑진왜변(경남 통

영), 1555년(명종 10) 을묘왜변까지 다시 왜구의 침탈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제주에서도 1506년(중종 1) 10월 왜구가 출몰한 이래 16세기 전기 약 10회의 왜구 침탈이 이어졌다. 『조선 왕조실록』 및 『탐라기년』에 수록된 조선 전기 왜구의 제주 침략 기사는 다음의 <표 2>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표 1> 왜적의 해상 침입 관련 일지

연번	출전	연대	주요 내용	지역	비고
1	고려사	1323년(충숙왕 10) 6월	왜, 침입	추자도	
2	탐라기년	1341년(충혜왕 복위 2)	왜, 침입	남쪽 변방	
3	탐라기년	1342년(충혜왕 복위 3)	왜, 700여 척 침입	(남쪽 변방)	
4	탐라기년	1350년(충정왕 2)	왜, 침입	(추자도)	추자도민 이주(조공포변)
5	탐라기년	1351년(충정왕 3)	왜, 침입	귀일촌(貴日村)	
6	탐라기년	1352년(공민왕 1)	왜, 침입	우포(友浦, 범질포犯叱浦)	
7	탐라기년	1359년(공민왕 8)	왜, 침입	대촌(大村)	
8	탐라기년	1376년(우왕 2)	왜, 600여 척 침입	제주	성주 고신걸(高臣傑) 방어
9	고려사, 탐라기년	1377년(우왕 3) 여름	왜, 200여 척 침입	제주	전리수군만호 정룡(鄭龍), 윤인우(尹仁祐) 격퇴, 적선 1척 포획

<표 2> 조선 전기 왜구의 제주침탈 기사(『조선왕조실록』 & 『탐라기년』)

연번	출전	연대	왜구 규모	지역	주요 내용
1	탐라기년1	1401년(태종 1)	왜, 침입	곽지(郭支)	
2	실록(태종)	1404년(태종 4) 2월 22일	왜선 수십 척	제주	피해(객관, 민가 수십호 소실, 7명 살해, 포로 10여 인)
3	실록(태종)	1406년(태종 6) 1월 26일	왜선 16척	제주	주병(州兵) 격퇴, 참 1급
4	탐라기년2	1404년(태종 4)	왜, 침입	고내(高內), 명월(明月)	
5	탐라기년3	1406년(태종 6) 7월	왜, 침입	죽도(竹島)	목사 이원항(李原恒), 판관 진준(陳遵)
6	실록(태종)	1408년(태종 8) 10월 16일	왜적	추자도	피해(제주선 1척, 5명 살해)

연번	출전	연대	왜구 규모	지역	주요 내용
7	탐라기년4	1408년(태종 8)	왜, 침입	조공천(朝貢川)	
8	실록(태종)	1415년(태종 15) 5월 29일	왜선 23척	제주	민가 소실, 약탈 인몰, 제주인 송전(宋全) 방어
9	탐라기년5	1418년(태종 18)	왜, 침입	우둔(牛屯), 우포(友浦), 차귀(遮歸) 등	
10	실록(세종)	1418년(세종 즉위) 9월 9일	왜적	제주	미곡선[漕船] 약탈
11	실록(세종)	1419년(세종 1) 11월 15일	왜선 3척	추자도	제주 상선 1척 피해, 제주목사 정을현, 판관 하담 삼판선(17척) 격퇴
12	실록(세종)	1424년(세종 6) 11월 7일	왜구	제주	제주목사 김소 표창, 왜구 격퇴, 왜선 포획
13	실록(세종)	1430년(세종 12) 3월 25일	왜선 1척	제주	제주목사 김흡, 참획 9인
14	실록(세종)	1433년(세종 15) 윤8월 27일	왜선 1척	舟子島	왜적 11명 사살, 14명 생포
15	실록(세종)	1435년(세종 17) 6월 28일	왜구	제주	왜구 포로 획득 포상
16	실록(세종)	1443년(세종 25) 6월 10일	왜선 2척	서여서도	
17	실록(세종)	1443년(세종 25) 6월 27일	왜선 1척	대정현	대정현감 강순, 2명 사살, 9명 생포
18	실록(문종)	1450년(문종 즉위) 7월 29일	왜인	제주	제주 생포 왜인 대우, 왜인 포로 48명(8월 1일 기사) 추자도 어로
19	탐라기년6	1451년(문종 1)	왜, 침입	미상	목사 이명겸(李鳴謙)
20	실록(성종)	1494년(성종 25) 4월 18일	왜선 4척	추자도	제주 진공 물건 탈취
21	실록(중종)	1506년(중종 1) 10월 13일	왜적	제주	전 대사간 류현(柳軒) 등 5인 피해
22	실록(중종)	1529년(중종 24) 4월 4일	왜선	제주	제주 진상선 약탈, 7~8명 상해
23	탐라기년7	1540년(중종 35) 8월	왜, 침입	미상	목사 권진(權軫)과 판관 한근(韓瑾) 파직

연번	출전	연대	왜구 규모	지역	주요 내용
24	탐라기년8	1552년(명종 7) 5월	왜, 침입	천미포(川尾浦)	왜적 30명 한라산 잡입, 왜적 망고삼부라(望古三夫羅) 체포
25	실록(명종)	1552년(명종 7) 5월 30일	왜선 1척	천미포	제주목사 김충렬, 정의현감 김인
26	실록(명종)	1554년(명종 9) 5월 25일	왜선 1척	천미포	제주목사 남치근, 왜인 식수 확보
27	실록(명종)	1554년(명종 9) 6월 8일	왜인 23명	비양도	왜인 생포, 중국인 2명
28	탐라기년9	1554년(명종 9) 7월	왜, 2척 포획	미상	목사 남치근(南致勤) 가자(加資)
29	탐라기년10	1555년(명종 10) 6월	왜, 60척	제주성 침입(3일)	화북포 상륙, 목사 김수문(金秀文) 가자(加資)
30	실록(명종)	1555년(명종 10) 7월 2일		제주	을묘왜변 제주 지원

조선 건국 이래 1555년 을묘왜변 이전까지 왜구의 제주침탈은 주로 해안가에 상륙하여 민가를 소실하고 노략질을 자행하거나, 진상선을 약탈하였다. 다시 말해 왜구의 제주 침범은 해안가에 상륙했다가 노략질을 일삼고는 철수하는 단계가 반복되었다. 제주를 점령하고, 제주를 그들의 전진 기지로 삼기 위해 계획적으로 침범한 것은 아니었다.

이에 비하면 제주 을묘왜변은 이전의 왜구 침략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왜선 40척에 1,000여 명의 왜구가 침략하여 이전보다는 대규모의 침략이었다. 또한 그들은 해안가 약탈이 아니라, 제주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공방전을 펼쳤다. 따라서 이를 물리친 을묘왜변의 제주 대첩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오늘날 을묘왜변의 실상을 면밀히 조사하여, 기존의 판단 오류를 바로잡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재조명이 필요한 이유이다.

한편 조선 전기 제주에서도 왜구의 제주침탈을 방어하기 위한 계획과 논의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1439년(세종 21) 제주목사 한승순(韓承舜)은 의정부의 요청에 따라 제주의 수비 및 방어 조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장계를 올린다.

○ 『세종실록』 1439년(세종 21) 윤2월 4일.

도내에 군인이 주둔한 곳은 본주의 동쪽은 김녕(金寧)·조천관(朝天館)이요, 서쪽은 도근천(都近川)·애월(涯月)·명월(明月)이며, 대정현(大靜縣)은 서쪽 차귀(遮歸)요, 동쪽 동해(東海)이며, 정의현(旌義縣)은 서쪽 서귀포(西歸浦)요, 동쪽 수산(水山)인데 모두가 왜구가 배를 댈 수 있는 요충지여서, 이전에는 다 방어소를 두었습니다. (중략) 위의 방호소 외에 왜선이 정박할 만한 염려스러운 곳은 김녕부터 조천관까지 18리(里) 남짓한 그 안에 세 곳이 있고, 조천관부터 주(州)의 읍성(邑城)까지 30여 리 안에 일곱 곳이 있으며, 동해부터 서귀포까지 20여 리 안에 세 곳이고, 서귀포에서 정의(旌義)까지의 60여 리 안에 세 곳이며, 수산(水山)에서 김녕까지 40여 리 안에 다섯 곳이니, 공사(公私) 노예와 각 방호소 소속의 정군, 봉족 등 잡색군인을 그 다소에 따라 매 1처마다 혹 5~60명 혹은 1백여 명을 나누어 정하여 번을 갈라서 방어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한승순 목사는 기존에 설치된 9개의 방호소 외에도 왜선의 정박이 염려되는 곳으로 21개소를 별도로 지정하여 이곳에도 군사를 배치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21개소의 구체적 장소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위 사료에 따르면 북동쪽에 15곳, 남동쪽에 6곳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다시 말해 기존 방호소 외에 왜선의 침탈(정박)이 염려스러운 곳으로 제주 섬 동쪽 지역을 염두에 두었고, 이곳에 대한 군사 방어 체계를 보강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1443년(세종 25) 1월에는 제주안무사가 김녕, 명월, 서귀방호소 세 곳은 왜선이 침범해 들어올 만한 곳이니 축성해야 한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건의는 동년 5월 병조에서 “제주는 사면이 험하여 적선이 정박하기 어려우며, 토지가 척박하고 백성이 가난하여 성을 쌓기 매우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³⁾ 그러나 이후 세 곳에 대한 축성은 결국 이루어졌고, 그중 서귀방호소의 축성이 가장 먼저 이루어졌다.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이 책의 편찬이 이루어진 1481년(성종 12) 시점에 이미 서귀방호소는 축성이 되어 있었다.⁴⁾

3) 『세종실록』 세종 25년(1443) 1월 10일; 동년 5월 28일.

4) 『동국여지승람』(권38) 정의현, 성곽에 의하면, “서귀포방호소성(西歸浦防護所城).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161척이고 높이가 5척이다.”라고 되어 있다. 『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된 1481년에 이미 서귀방호소의 석성 축조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김녕을 대신한 별방성과 명월성은 1510년(중종 5) 장림(張琳) 목사 때 축성되었다.⁵⁾

1510년 7월에는 제주자제(濟州子弟) 김의중(金義中)이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제주 여러 포구에 군사방어 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했으니, 이에 대한 보강을 서둘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상소의 간략한 내용을 아래에 소개한다.

○ 『중종실록』 1510년(중종 5) 7월 10일.

본주는 적침을 받을 요충 지역이 매우 많은데, 3읍(邑)에 방호하는 곳은 매우 적습니다. 목관(牧官) 동쪽에는 7~8포(浦)가 있고, 서쪽에는 17포가 있고, 정의(旌義)·대정(大靜)에 각각 13포가 있어 대소의 포가 모두 방호소에 속하였습니다. 포소(浦所) 60여 곳에 방호는 9개소뿐이며, 군사는 강한 병졸이 없고 통솔하는 사람도 적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방호의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없습니다. (중략) 신은 원컨대 지금부터 사변이 가라앉을 동안은 7포에 각각 권관(權管)을 두어 조방장(助防將)으로 하되, 무략(武略)과 담용이 있는 자를 가려서 진수하게 하여 방호를 실행하게 하소서.

제주 출신인 김의중의 상소는 앞서 제주목사 한승순의 건의와도 그 맥락이 상통하는 내용이다. 제주 삼읍의 9방호소 외에 왜구의 침략을 받을 만한 곳의 군사 방어시설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의중은 특히 제주에 포구가 있는 곳은 모두 왜구의 침략 가능성이 있는 곳이므로 적절한 군사들의 배치와 방어체계를 갖추도록 건의하고 있다.

결국 두 달 뒤인 1510년 9월 제주목사 장림의 제주 방어절목(防禦節目)이 조정에 보고되기에 이르렀다. 장림은 축성 필요성, 전선/활/화약/화포의 공급, 군역의 보강 등 총 8개 조항의 건의 사항을 조정에 전달하는데, 그 첫 번째 건의가 바로 아래의 내용이다.

5)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 관방. “명월방호소. 돌로 성을 쌓았는데 둘레가 2,020척이요, 높이가 8척이다. 예전에 성이 없었는데, 정덕(正德) 경오년에 이 땅이 비양도(飛陽島)가 왜선(倭船)이 가까이 대일 수 있는 곳이라 하여 쌓았다; 별방성.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2,390척이고 높이가 7척이다. 정덕(正德) 경오에 이 땅이 우도(牛島)가 왜선이 가까이 대일 수 있는 곳이라 하여 성을 쌓고 김녕방호소를 여기에 옮기고 별방(別防)이라 이름하였다.” 즉 명월성과 별방성은 같은 해인 1510년(중종 5) 동일한 이유로 축성이 이루어졌다. 명월성은 바로 앞바다에 비양도가 있고, 별방성은 우도가 있어서 이 두 곳은 왜선이 숨어 있을 만한 장소여서, 왜선이 배를 탈 수 있는 명월포와 별방포에 축성이 필요했다는 점이다.

○ 『중종실록』 1510년(중종 5) 9월 16일.

본주의 건입포 등 18포(浦)와 정의현의 천미포 등 10포와 대정현의 모슬포 등 11포는 포구가 넓지 않아서 적선(賊船)이 의지해 정박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다 깊은 구덩이를 설치하고 긴 말뚝을 가로질러 놓았으며, 철질려(鐵蒺藜)⁶⁾를 흩어 놓아 변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주(州)의 조천관포·김녕포·도근천포·애월포·명월포와 정의의 수산포·서귀포, 대정의 차귀포·동해포는 적선이 의지해 정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전에 설치한 방호소에 각각 육군 1여(旅)씩을 나눠 보내서 2번(番)으로 나누고 군관을 나누어 정해 방어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사료에 따르면 김의중의 상소에서 건의한 60여 포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약 40 포구에 적선이 쉽게 상륙하지 못하도록 방어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 조선 전기 제주에서도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왜구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건의되고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목사의 건의뿐 아니라, 제주 출신 인사의 상소까지 더해져 왜구의 제주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었다. 방호소 축성, 군사시설 및 군인 보강 등 군사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바로 왜구의 제주침탈에 맞서 지속적으로 준비되고 있었다.

3. 제주 을묘왜변의 전개와 의미

을묘왜변 바로 직전에도 왜구의 제주침탈이 있었다. 1552년(명종 7) 5월, 이른바 천미포왜변이 그것이다. 왜구가 정의현 천미포에 상륙하여 백성을 죽이고 약탈했는데, 이들 중 일부는 한라산으로 피신하였다가 몰래 어선을 탈취하여 도망한 사건이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제주목사 김충렬(金忠烈)과 정의현감 김인(金仁)은 방비에 힘쓰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직당해 유배형을 받았다.

6) 철질려(鐵蒺藜): 마름쇠. 무기의 한 가지. 끝이 뾰족한 삼각형의 무쇠를 끈으로 이어서 땅 위에 흩어 놓아 적병의 침입을 막는 것.

그 후 제주목사로 부임한 남치근(南致勤)은 1554년(명종 9) 5월, 또 천미포로 들어온 왜선 1척을 물리쳐 이 때문에 포상을 받기도 하였다. 바로 이 두 번째의 천미포왜변은 식수를 확보하고 정탐하기 위해 상륙한 왜구 10명 중 1명을 목 벤 사건이었다. 이 때문에 2차의 천미포왜변을 왜구의 노략질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사실 『명종실록』(1554.05.25.)에 실린 사신의 논평 역시 논공의 남용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두 차례의 천미포왜변 바로 1년 뒤, 1555년(명종 10) 5월 왜구는 70여 척의 배를 거느리고 전라남도 남해안 일대를 침략하며 을묘왜변을 일으켰다. 왜구들은 달랑포(達梁浦, 해남군 북평면)로 침입해 성을 포위하였고, 진도·강진·장흥·영암 등 인근 지역을 횡행하면서 약탈과 노략질을 일삼았다. 왜구들의 침략에 당시 전라병사 원적(元積)과 장흥부사 한온(韓蘊)은 전사하고, 영암군수 이덕견(李德堅)은 포로가 되는 등 전라도 곳곳이 큰 피해를 입었다. 조정에서는 호조판서 이준경(李浚慶)을 도순찰사, 김경석(金景錫)과 남치근(南致勤)을 방어사로 임명하여 왜구토벌의 임무를 맡겨 전장으로 내려보냈다. 이준경은 전주부윤 이윤경(李潤慶) 등과 함께 영암성에 머무르며 적을 무너뜨렸고, 인근 지역의 왜구마저 토벌하자 왜구들은 퇴각하였다.

퇴각하던 왜구들은 본토로 돌아간 게 아니고 제주로 다시 침입하였다. 1555년 6월 21일 왜선 40여 척이 보길도(甫吉島)에서 바로 제주(濟州) 앞바다로 와 1리가량의 거리에 닻을 내리고 정박해 있다는 제주목사 김수문(金秀文)의 장계가 조정에 보고되었다. 이른바 제주 을묘왜변의 서막이었다.

왜구들은 6월 27일 화북포(禾北浦)로 상륙하였고, 곧바로 제주성으로 쳐들어왔다. 제주성 동성의 관문인 동문과 산지천을 사이에 두고 왜구들은 남수각(현재 오현교 아래) 동쪽의 높은 언덕에 진을 쳤다. 당시 만해도 제주성 동성은 산지천 서안으로 이어져 있었다. 제주 을묘왜변의 영향으로 1566년(명종 21) 곽홀(郭屹) 제주목사가 산지천을 제주성 안으로 들이면서 동성을 퇴축하였다. 따라서 1555년 을묘왜변 당시 왜구들이 진을 쳤던 곳은 바로 산지천 동쪽의 제주성이 내려다보이는 높은 언덕이었으며, 왜구들은 동성 중에서도 관문이 있는 동문을 내려다보며 화살을 쏘아대고 침략하였다. 3일간에 걸친 대접전이었다.

김수문 목사는 70인의 효용군(驍勇軍)을 선발하여 동문을 통해 선제공격을 감행하여 적진 40여m의 거리까지 쳐들어갔고, 뒤이어 김직손, 김성조, 이회준, 문시봉 등 4인이 말을 달려 적진으로 돌격하자 왜구가 드디어 무너져 흩어졌다. 김몽근은 적장을 화살로 쏘아 쓰러뜨렸고, 이후 제주 군민(軍民)은 승세를 타서 추격하며 다수의 왜구들을 목 베고 사로잡아 대첩을

거두었다.

전라도에 큰 피해를 주었던 왜구들이 영암성 공략에 실패하며, 철수하다 제주로 눈을 돌려 2차 공격을 해왔다. 천여 명의 왜구가 제주를 침범하였고, 제주성을 사이에 둔 대접전이 벌어졌으며, 이 전투에서 제주 군민은 대첩을 거두었다. 이 때문에 『조선왕조실록(명종실록)』(1555.07.07.)에서는 ‘영암의 수성(守城)과 제주의 파적(破賊)⁷⁾’이라는 기록을 남겨 사실상 을묘왜변의 결과는 제주의 승전으로 종결되었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즉 을묘왜변에 대해 전라도 영암 지역은 성을 잘 지킴으로써 왜적을 물리쳤다면, 제주에서는 적을 격파하여 승첩을 거두었다고 기록하였다. 다시 말해 을묘왜변은 전라도 남해안에서 발발하여 최종적으로 제주에서 끝났으며, 마침내 제주의 승첩으로 귀결되었다.

더욱이 제주 을묘왜변의 대첩은 김수문 목사라는 유능한 무관과 김직손, 김성조, 이회준, 문시봉, 김몽근 등 군민(軍民)이 일심동체로 전투에 나섰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 이는 『조선왕조실록(명종실록)』(1555.08.10.)에 ‘사졸(士卒)이 한마음이 되어 방비에 힘썼기 때문에 왜적을 물리쳤다.’⁸⁾라고 기록된 사실로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왕조실록(명종실록)』(1555.10.12.)에는 을묘왜변 당시 제주의 상황이 비록 흉년으로 백성이 힘든 시절이었지만, ‘성 안에 병기(兵器)가 온전하게 잘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을 지킬 수 있었다.’⁹⁾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 을묘왜변의 대첩은 평상시 철저한 군비 관리와 관민의 일심동체로 이루어졌으며, 거기에 효용군(驍勇軍) 70인 및 4인의 치마돌격(馳馬突擊) 등 강인한 용기가 수반되어 이를 수 있었다.

한편 제주 을묘왜변에 대해서는 오늘날 정확한 사료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해 필자마다 서술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예컨대 제주에 침입한 왜선이 40여 척인지, 60여 척인지 또는 왜구와의 접전 장소가 남수각인지, 그 외 화북포 등 다른 곳에서도 전투가 있었는지 등등 각각의 주장이 다르다. 따라서 제주 을묘왜변과 관련한 모든 사료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정

7) 『명종실록』 명종 10년(1555) 7월 7일. “史臣曰, 靈巖之守城, 濟州之破賊, 固不可不賞…”

8) 『명종실록』 명종 10년(1555) 8월 10일. “又命傳于濟州牧使金秀文曰, … 與士卒爲一心, 勤修防備, 盡力措置, 能却賊兵, 其功甚大.”

9) 『명종실록』 명종 10년(1555) 10월 12일. “尹穀中曰, 連年凶荒, 民物流亡殆盡, 無可恃而保城矣. 但城內器械甚完, 措置得宜, 此足可恃.”

확한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현재 제주 을묘왜변과 관련하여 기록된 사료는 그렇게 많지 않다. 전근대 사료로는 『조선왕조실록』(명종실록), 「운주당기문」(황우현), 『남사록』(김상헌), 『연려실기술』(이공익), 『탐라지』(이원진), 『남환박물』(이형상), 『증보탐라지』(윤시동) 등이 있으며, 근현대 사료로는 『탐라기년』(김석익), 「탐라인물고」(김석익), 『증보탐라지』(담수계) 등이 전부이다. 물론 이외에도 1988년에 편찬된 『제주선현지』(제주도) 등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제주선현지』는 을묘왜변 중 ‘김성조’를 조명하면서 기존 사료에는 언급되지 않은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객관적 사실로 보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어서 본고에서는 제외하였다.

제주 을묘왜변은 양난(왜란과 호란) 이전 조선 전기 때의 일이어서 관련 사료가 드물기도 하다. 예컨대 실록보다 자세한 역사적 사실이 기록된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등의 사료는 조선 후기 때부터 작성되었기 때문에 을묘왜변과 관련한 기록이 없다. 이제 앞에서 제시한 제주 을묘왜변 관련 사료들을 하나씩 제시하며, 이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조선왕조실록』(명종실록)

『명종실록』에 수록된 제주 을묘왜변 관련 기록은 총 여섯 곳이다. 1555년(명종 10) 6월 28일 기사에 처음 등장하여 동년 10월 21일 기사까지이다. 물론 이전과 이후에 왜구 침입과 격퇴와 관련한 기사가 여러 차례 등장한다. 하지만 제주 을묘왜변과 관련한 사실을 중점적으로 살피기 위해 을묘년(1555)의 기사만 추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조선왕조실록』(명종실록) 을묘년에 기록된 제주 을묘왜변 관련 사실은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1) 『명종실록』 1555년(명종 10) 6월 28일.

○ 제주목사 김수문(金秀文)이 급히 장계를 올리기를, “이달 21일에 왜선 40여 척이 보길도(浦吉島)에서 바로 제주 앞바다로 와 1리가량의 거리에 닿을 내리고 정박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위의 기사(6월 28일)에서는 제주를 침략한 왜선이 40여 척이라는 점과 이들이 보길도에서 왔다고 하였다. 『조선왕조실록』(명종 10년 5월 16일)에 의하면 전라도를 침략한 왜선은 70여 척

이라고 되어 있다.¹⁰⁾ 왜구들은 전라도에서 접전 시 일부 왜선이 파손되었을 터이고, 제주 이외의 지역으로 도주한 왜선도 있었을 터이므로 제주 앞바다에 와서 닻을 내린 왜선 40여 척은 그들 중 주력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을묘왜변의 2차 접전지는 곧 제주이며, 전라도의 을묘왜변 사실로만 인식하는 데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주 을묘왜변은 조선 시대 을묘왜변의 결과를 논할 때 최종전을 대첩으로 마무리 지었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재조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제주 을묘왜변의 대첩이 우리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한편 제주 을묘왜변 침략의 왜선은 40여 척으로 보는 게 타당할 듯하다. 이는 다름 아닌 당시 제주목사가 보낸 장계 속에 기록된 사실이어서 그렇다. 1918년 김석익의 『탐라기년』에 기록된 왜선 60여 척의 표현¹¹⁾도 전라도에 침범한 왜선의 숫자를 지칭한 것이지, 제주 침략 왜선의 숫자로 기술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향후 제주 을묘왜변 때 침략 왜선의 총수는 40여 척으로 기술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2) 『명종실록』 1555년(명종 10) 7월 6일.

○ 제주목사 김수문이 장계를 올렸다. “6월 27일, 무려 1천여 인의 왜적이 물으로 올라와 진을 쳤습니다. 신이 날랜 군사 70인을 뽑아 거느리고 진 앞으로 돌격하여 30보(步)의 거리까지 들어갔습니다. 화살에 맞은 왜인이 매우 많았는데도 퇴병(退兵)하지 않으므로 정로위(定虜衛) 김직손(金直孫), 갑사(甲士) 김성조(金成祖)·이희준(李希俊), 보인(保人) 문시봉(文時鳳) 등 4인이 말을 달려 돌격하자 적군은 드디어 무너져 흩어졌습니다. 홍모두구(紅毛頭具)〈투구이다.〉를 쓴 한 왜장(倭將)이 자신의 활 솜씨만 믿고 홀로 물러가지 않으므로 정병(正兵) 김몽근(金夢根)이 그의 등을 쏘아 명중시키자 곧 쓰러졌습니다. 이에 아군이 승세를 타고 추격하였으므로 참획(斬獲)이 매우 많았습니다.”

10) 『명종실록』 명종 10년(1555) 5월 16일. “全羅道觀察使金澍馳啓曰, 五月十一日, 倭船七十餘隻, 來泊達梁外, 自梨津浦達梁浦, 分東西下陸, 焚蕩城底閭閻, 遂圍其城云.”

11) 김석익, 『탐라기년』(명종 10년 6월). “時倭賊六十餘艘, 連陷全羅道長興康津等八鎮, 因來犯禾北浦, 圍州城三日.”

위의 기사(7월 6일)에서는 사실상 제주 을묘왜변의 전투 상황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왜적들이 제주에 상륙한 일자가 6월 27일이었으며, 당시 왜적의 총인원은 1,000여 명이었다. 상륙한 왜적들이 진을 친 곳으로 김수문 제주목사가 효용군(驍勇軍) 70여 명을 이끌고 선제공격을 가했다. 곧이어 김직손, 김성조 등 4명의 치마돌격(馳馬突擊)이 왜적을 무너뜨렸고, 김몽근이 적장을 쏘아죽임으로써 왜적은 퇴각하였다. 승세를 잡은 아군이 왜적을 추격하며 다수를 참획하였다. 제주 을묘왜변 때 활약했던 인물들의 이름까지 거명하며, 결국은 대첩을 거두게 된 전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제주 을묘왜변에서 활약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직책이 정로위(김직손), 갑사(김성조, 이희준), 보인(문시봉), 정병(김몽근)으로 되어 있다. 정로위는 1512년(중종 7)에 처음 설치된 정예군으로 한량 계층 중심의 내금위(內禁衛) 부대이다. 당시 제주에는 없던 병종이기 때문에 김수문 제주목사가 부임할 때 함께 들어온 군관(軍官)으로 추정된다. 갑사는 조선 전기 군사 편제인 오위제(五衛制) 중 의흥위(義興衛)에 속했던 전문 직업군인이다. 조선 초기에는 서울의 시위병으로 활동하였지만, 점차 대외 변경 방어까지 담당하는 정예병의 갑사도 존재하였다. 세종 이후부터는 시취(試取)를 통해 선발하였으며, 을묘왜변 당시 제주에도 한량 출신으로 무예가 뛰어난 자를 갑사로 선발한 게 아닌가 추정된다. 정병은 정군이라고도 하는데 16세~60세의 평민 남자(정남丁男) 중에 현역군인으로 복무하는 자를 말한다. 보인은 현역군인인 정군(정병)을 지원하는 평민으로 재정 지원이 곧 군역의 이수를 의미한다.

아무튼 정로위 김직손을 제외하면 나머지 4인은 모두 제주 출신으로 이해되며, 갑사와 정병 및 보인으로 이루어진 이들은 신분상 지배계층보다는 일반 평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의 뛰어난 기마술과 궁술이 결국 왜적을 물리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다하였고, 제주 을묘왜변을 대첩으로 이끈 주요 인물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제주의 군사와 민간이 합심하여 전투에 참전했고, 제주 을묘왜변은 오히려 이들 군민(軍民)이 승리를 안겨주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만큼 제주민의 기개와 용기가 뛰어나고 군사훈련이 상시 이루어져 군사들 개개인의 능력도 우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제주의 효용군과 치마돌격의 선제공격이 대첩을 거둔 결정적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조선왕조실록』(명종 10년 5월 29일)에서도 전라도 영암성의 최후 승리를 거둔 요인으로 효용군의 선제공격을 들고 있다. 왜구의 침입에 당시 전라도 장수들이 두려워했고, 왜구들은 조금만 군사적 위엄을 보여도 도망하여 숨기에 바빴다고 하면서 ‘영암에서의 승전 또

한 효용군(驍勇軍) 10여 명이 먼저 싸운 데서 얻어진 것이다.¹²⁾라고 사관(史官)이 평가하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제주 을묘왜변의 대첩은 효용군 및 치마돌격 등 제주 군민(軍民)들의 용기로 달성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위의 기사에서 왜적들이 상륙하고 진을 친 곳이 어디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 때문에 1918년 김석익의 『탐라기년』에 수록된 ‘화북포(禾北浦)’와 ‘남수각(南水閣)’이 바로 그곳이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¹³⁾ 또한 효용군 70인의 전투와 치마돌격 4인의 활약이 각각 다른 장소였다고 주장하는 일부 학자가 있다. 하지만 이는 실록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효용군의 공격과 치마돌격의 상황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왜적과 제주 군민간의 대전투는 제주성 동성 중 동문과 산지천을 사이에 둔 남수각 일대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3) 『명종실록』 1555년(명종 10) 7월 7일.

○ 제주목사 김수문에게 교서를 내렸다. “〈상략〉 지금 경의 치계(馳啓) 내용을 보고 지난달 27일의 승전(勝戰) 상황을 자세히 알게 되니 나의 근심이 크게 감해졌다. 〈중략〉 적은 숫자로 많은 수를 공격하여 이와 같은 큰 승첩을 거둘 수 있었겠는가. 김직손 등 4인이 돌격한 공로도 역시 작은 것이 아니나, 이는 경이 몸소 사졸에 앞서 칼날을 무릅쓰고 돌진하여 그들의 용맹을 고무시킨 소치가 아니겠는가. 〈중략〉 사신은 논한다. 영암의 수성(守城)과 제주의 파적(破賊)은 상(賞)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하략〉

위의 기사(7월 7일)는 70명의 효용군과 4인의 치마돌격이 왜적 1,000여 명을 물리친 전과를 치하하고 있다. 또한 을묘왜변의 결과 전라도 영암 지역은 성을 잘 지킴으로써 왜적을 물리

12) 『명종실록』 명종 10년(1555) 5월 29일. “사신은 논한다. 왜구들이 감히 멋대로 돌격하게 된 것은 장수들이 두려워하여 물러나 움츠렸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왜구들은 공격하면 무너지고 쫓아가면 도망하여 조금만 군사의 위엄을 보여도 도망하여 숨기에 바빴다. 이리므로 영암에서의 승전도 또한 효용군(驍勇軍) 10여 명이 먼저 싸운 데에서 얻어진 것이다.”

13) 김석익, 『탐라기년』, 명종 10년 6월. “왜적이 화북포로 침범하여 제주성을 3일 동안 포위하였다.”; 명종 11년 여름. “제주 사람 김성조(金成祖)가 왜변을 당해 (중략) 남수구(南水口)에서 적을 패배시켰다.”

쳤다면, 제주에서는 적을 격파하여 승첩을 거두었다고 기록하였다. 다시 말해 을묘왜변은 전라도 남해안에서 발발하여 최종적으로 제주에서 끝났으며, 마침내 제주의 승첩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이다.

종래 을묘왜변에서 제주의 전황과 전과에 대해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제주성을 사이에 두고 대규모 접전이 벌어졌고, 만약 제주성이 함락되었다면 조선의 지원군이 파견되기 전까지 왜구들에 의한 제주민의 피해는 엄청났을 터였다. 더군다나 일본과 한반도 및 중국과 연결되는 해상 요충지 제주가 왜구 수중에 들어간다는 것은 당시 동아시아 정세에 큰 지각변동을 초래할 사안이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제주 을묘왜변의 대첩은 당대 조선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기여를 이루었다 볼 수 있다.

(4) 『명종실록』 1555년(명종 10) 8월 10일.

○ 제주선로사(濟州宣勞使) 윤의중(尹毅中)이 임금에게 부임 인사를 올리니, <중략> 또 제주목사 김수문에게 전하라고 명하면서 이르기를, “<중략> 오직 경(卿)은 청렴 신중하고 신망이 두터워 해외의 관직에 제수되었고 사졸들과 한마음이 되어 방비에 힘썼음은 물론 힘을 다하여 조치함으로써 적병을 물리쳤으니, 그 공이 매우 크다. <하략>”라고 하였다.

(5) 『명종실록』 1555년(명종 10) 10월 12일.

○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제주선로사인 홍문관 부교리 윤의중을 인견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방어의 모든 일과 듣고 본 것을 모두 말하라.”라고 하니, 윤의중이 아뢰기를,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과 물자가 모두 흩어지니 힘입어 성을 지킬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안에 병기(兵器)만은 온전하게 잘 보존되어 있으니 조치만 잘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위의 (4)번(8월 10일) 및 (5)번(10월 12일) 기사는 제주 을묘왜변의 승리 요인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사졸(士卒)이 한마음으로 방비에 힘썼고, 일심동체로 적을 공격하였으며, 성안에 병기가 온전하게 잘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첩을 거두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앞서 효용군(驍勇軍)과 치마돌격(馳馬突擊)의 선제공격이 왜적을 무너뜨렸다는 사실과 더불어 제주 을묘왜변의 대첩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당시 전쟁에 임하는 제주의 군민(軍

民)이 강인한 정신력과 용기로 무장되어 있으며, 평상시의 군비 유지 또한 잘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 『명종실록』 1555년(명종 10) 10월 21일.

○ 전라도에서 싸운 군졸들의 군공(軍功)에 대하여 차등 있게 논상하였다. <영암과 제주에서 승전한 군공 1등은 두 품계를 올린다. <중략> 갑사(甲士)는 본래 체아록직(遞兒祿職)¹⁴⁾이거든 품계를 높여라. 향리는 향역(鄉役)을 면하며, 공사천(公私賤)은 면천(免賤)하고 잡류(雜類)는 면포(綿布) 10필을 지급하라. <중략> 영암과 제주의 군공 2등과 녹도(鹿島)와 영원(嶺院) 등지에서 군공을 세운 자는 (군공 1등에 비해) 등급을 낮춰 논상하였다.>

위의 기사는 을묘왜변 시 군공을 세운 이들에 대한 논상을 열거한 대목이다. 일단 군공이 1등과 2등으로 나뉘었고, 대체로 품계를 올려주는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군공 1등과 2등의 해당 인물에 대해서는 서술되어 있지 않아 아쉽다. 제주 을묘왜변의 경우는 임금도 강조하듯이 대규모 승전으로 치하하였고, 활약한 주요 인물들이 실록에까지 수록될 정도였으니 1등의 논상을 받았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김직손 이하 5명에 대해서는 품계 승진 및 신분 상승 등의 보상이 뒤따랐으리라 여겨진다.

2) 황우현, 「운주당 기문」(1568년 봄)

운주당(運籌堂)은 1568년(선조 1) 제주목사 곽홀(郭屹) 때 창건된 제주성 장대(將臺)이다. 장대란 유사시 또는 군사훈련 시 성내의 군사들을 지휘하기 위해 대장이 자리하는 누대이다. 운주당은 제주성 전체의 상황이 한 눈에 들어오는 제주성 동남쪽 모퉁이에 세워져 유사시 전황을 살펴보면서 임기응변할 수 있는 장대로 세워졌다.

운주(運籌)란 ‘점치는 데 필요한’ 산가지를 놀린다.’라는 뜻이다. 이리저리 궁리하고 계획하는 것을 말하는데, 운주유악(運籌帷幄)의 줄인 말로 장막 안에서 산가지를 놀린다는 뜻이다. 유방

14) 체아록직(遞兒祿職): 현직을 떠난 문무관을 예우하여 계속 녹봉을 지급하기 위해 만든 벼슬자리이다.

(劉邦)과 장량(張良)의 고사에서 유래한다. 한고조(漢高祖), 즉 유방이 장량에 대해 “장막 속에서 작전 계획을 세워 천 리 밖의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장자방보다 못하다.”¹⁵⁾라고 칭찬한 고사가 있다.

곽홀 제주목사는 1568년 봄에 운주당을 완공하여 낙성식을 하는데, 황우현에게 기문을 쓰도록 하였다. 이 글이 이원진의 『탐라지』에 수록되어 전한다. 을묘왜변이 끝난 지 10여 년 만에 쓴 글이어서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였다. 황우현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 1555년(명종 10) 여름에 해구(海寇)가 침범하여 이리저리 날뛰며 성을 포위하고는 높은 능선(高陵)에 웅크리고서 성안을 내려다보며 접근을 하는데 화살과 돌이 뒤섞여 내려오니, 군진의 허실과 사졸의 강약은 등불을 켜고 숫자를 헤아리듯 점칠 수 있었다.¹⁶⁾

황우현의 윗글은 을묘왜변 당시 전투가 벌어진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화북포로 상륙한 왜구는 제주성으로 이동하여 제주성을 포위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높은 능선’에 진을 쳤고, 동성을 내려다보며 공격하고 있었다. 당시 제주성의 동성은 퇴축(退築)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산지천 서안으로 이어져 있었다. 특히 성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당시 제주성 동문은 1780년(정조 4) 김영수 목사 때 축조된 간성(間城)의 남문(소민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왜구들이 진을 쳤던 ‘높은 능선’은 오늘날 제주기상대가 위치한 산지천 하류 쪽이 아닌, 당시 제주성 동문이 내려다보이는 오늘날 남수각 동쪽 일대로 판단된다. 바로 이곳에서 제주 군민과 왜구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3) 김상헌, 『남사록』(1601. 09. 22)

김상헌은 1601년(선조 34) 7월 제주에서 발생했던 길운절, 소덕유 모반 사건에 대한 진상 조

15) 사마천, 『사기』(권 55), 유후세가 장량. “夫運籌策帷帳之中 決勝於千里之外 吾不如子房.”

16) 이원진, 『탐라지』(궁실, 운주당) 황우현 기문. “... 乙卯之夏 海寇憑陵奔突圍城 而盤據高陵臨壓城中矢石交下 則軍陣虛實士卒強弱 若燭照數計而龜卜矣. ...”

사와 제주민 위무 등의 임무를 맡고 제주를 찾았던 안무어사이다. 그는 1601년 9월 22일 제주에 도착하여 교서를 반포하고 한라산 정상에 올라 산신제를 거행하였으며, 제주를 일주하여 군기를 점검한 뒤 이듬해 1월 25일 제주를 떠났다. 그가 남긴 기록인 『남사록』(관풍안, 명환)의 김수문 목사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목사 김수문. 을묘(乙卯, 1555)에 왜구가 강진(康津)에서 쫓아 와서 침범하였으며, 포위된 지 3일간 굳게 지켰다. 적들이 스스로 물러날 때를 기다려 곧 출격하여 승리를 거두니, 교서를 내려 포상하였다.¹⁷⁾

김상헌의 『남사록』은 을묘왜변으로부터 46년 뒤의 기록이다. 여전히 옛 기억이 남아 있을 때이고, 당시 일부 관련 기록도 남아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이 문헌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제주성을 포위한 게 3일이었다는 표현이다. 『명종실록』(1555.07.06)에 의하면 왜구가 상륙하여 진을 친 것이 1555년 6월 27일이었다고 했다. 이때부터 3일간 제주성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었다면, 6월 30일이면 왜구를 격퇴하여 승전하였고, 대체로 7월 1일쯤 김수문 목사가 장계를 올렸으며, 제주목사의 장계가 조정에 도착한 게 7월 6일이었기 때문에 실록에 기록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이금익, 『연려실기술』

『연려실기술』 권11, 명종조고사본말(明宗朝故事本末), 을묘왜변(乙卯倭變)에 의하면 1555년(명종 10) 5월 왜선 60여 척이 전라도에 침범한 사실이 소개되어 있고, 이어서 전라도 일대의 전황과 전적에 대한 자세한 내막이 기록되어 있다. 제주에서의 을묘왜변 기록은 간략하게 서술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 패해 달아나던 (왜)적이 제주(濟州)를 침범하니, 목사 이수문(李秀文)이 힘껏 막다가, 물러나

17) 김상헌, 『남사록』(1601.09.22.) 관풍안 명환. “牧使 金秀文. 乙卯倭寇自康津追來犯 被圍三日堅守 以待竣賊自退 卽出擊獲捷 賜教書褒獎.”

기를 기다려서 추격하여 대파하였다.¹⁸⁾ 《고사촬요》

연려실기술의 제주 을묘왜변 기사는 먼저 제주목사 김수문의 인명이 이수문으로 오기되어 있다. 전라도와 제주에서의 을묘왜변 기사 중 사실상 마지막 부분에 기술되어 있으며, 제주에서의 왜구 격퇴를 ‘대파(大破)’라고 하여 최후의 승리를 가져왔다는 대목이 강조되어 있다.

5) 제주 역사지서

제주 을묘왜변에 대한 제주 역사지서들의 기술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1653년(효종 4) 편찬된 이원진의 『탐라지』, 1704년(숙종 30) 이형상의 『남환박물』, 1765년(영조 41) 윤시동의 『증보탐라지』까지 모두 ‘명환(名宦)’ 편에서 제주목사 김수문에 대한 해설에 기술되어 있다. 유사한 내용이지만 이들 사료의 내용을 아래에 소개한다.

(1) 이원진, 『탐라지』, 명환.

○ 김수문. 제주목사가 되어 왜적이 성을 포위한 지 3일 만에 물러가자, 수문이 날랜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하여 적을 베거나 사로잡았으며, 또 왜선 9척을 포획하였다.¹⁹⁾

(2) 이형상, 『남환박물』, 지명환.

○ 김수문. 왜적이 성을 포위한 지 3일 만에 물러가자, 추격하여 적을 벤 뒤에 9척의 배를 포획하였다. 을묘년(1555, 명종 10) 2월에 제주목사로 도임하여 정사년(1557, 명종 12) 9월에 교체되어 갔다.²⁰⁾

(3) 윤시동, 『증보탐라지』 명환.

○ 김수문. 제주목사가 되어 왜적이 성을 포위한 지 3일 만에 물러가자, 수문이 날랜 군사를 거

18) 『燃藜室記述』卷11, 明宗朝故事本末, 乙卯倭變. “退遁之賊犯濟州 牧使李秀文 力拒俟其退 追擊大破之, 攷事撮要.

19) 李元鎮, 『耽羅志』, 名宦. “金秀文. 爲牧使 倭賊圍城三日乃退 秀文率輕銳追擊斬獲 又捕倭船九艘.”

20) 李衡祥, 『南宦博物』, 誌名宦. “金秀文. 倭賊圍城三日乃退 追擊斬獲 又捕九艘.”

느리고 추격하여 적을 베거나 사로잡았으며, 또 왜선 9척을 포획하였다.²¹⁾

이상 제주 역사지지서에 소개된 제주 을묘왜변에 대한 해설은 대부분 ‘제주성을 포위한 지 3일 만에 물러갔고, 적을 추격하여 대파하였으며, 왜선 9척을 포획하였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제주 민군(民軍)의 역할에 대한 소개는 없고, 오로지 제주목사 김수문의 역할만 강조되어 있다. 물론 해당 주제가 제주 목민관에 대한 해설인 ‘명환’ 편이고, 김수문 목사에 대한 항목이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군이 일심동체로 제주를 지켜냈다는 표현이 없어서 아쉬울 따름이다.

6) 김석익, 『탐라기년』

『탐라기년』은 제주의 역사를 편년체 통사로 서술한 김석익의 저술로, 1918년 영주서관에서 출간되었다. 비록 조선 시대 고문헌은 아니지만, 제주인이 제주 역사를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편년체로 상세히 기술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예전의 『탐라지』류에서 확인되는 ‘건치연혁’의 내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분량으로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 우리나라 정통 사서들을 두루 섭렵하며 인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탐라기년』에는 제주 을묘왜변과 관련 기존의 사료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 다수 전해진다. 김석익이 참고한 사료가 무엇인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기존의 제주 역사지지서뿐 아니라 정사에서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실려 있어서, 김석익은 당시 별도로 전하던 제주 역사서를 소장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추정한다. 『탐라기년』에 소개된 제주 을묘왜변 관련 사실은 두 곳이 확인된다. 1555년(명종 10) 6월 기사와 1556년(명종 11) 여름 기사이다. 이제 이를 소개하여 분석해 본다.

(1) 1555년(명종 10) 6월

○ 왜적이 침입하니 김수문 등이 이를 쳐부렸다. 당시 왜적의 배 60여 척이 전라도 장흥 강진

21) 尹蓄東, 『增補耽羅誌』 名宦, “金秀文, 爲牧使 倭賊圍城三日乃退 秀文率輕銳追擊斬獲 又捕倭船九艘.”

등 8진을 연이어 함락하고, 이어서 화북포<제주목 동쪽에 있다.>로 침범하여 제주성을 3일 동안 포위하였다. 김수문 등이 힘써 물리치며 그들이 물러나기를 기다리다 날썬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하여 크게 쳐부수니 목을 베고 사로잡은 것이 아주 많았다. 조정이 이를 가상히 여겨 수문을 포상하여 가의대부로 품계를 올려주고, 더하여 한 벌의 옷감을 하사하였으며, 홍문관 교리 윤의중을 보내 대신 위로하였다.²²⁾

(2) 1556년(명종 11) 여름

○ 제주 사람 김성조가 왜변을 당하여 후군(後軍)을 거느린 장수로 남수구에서 적을 패배시켜 건공장군(建功將軍)을 상 주었다.²³⁾

위의 (1)번 기사(1555년 6월)는 왜구가 침범하여 제주성을 포위하고 3일간 전투 끝에 격퇴하여 승전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이전 사료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탐라기년』의 기사가 이전 사료와 다른 대목은 두 가지이다. 첫째 제주를 침범한 왜선이 60여 척으로 되어 있고, 둘째 왜구가 상륙한 곳이 ‘화북포’라고 기록된 점이다.

이 중 왜선 60여 척은 문맥상 전라도 지역에 처음 침탈한 왜선의 총수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연려실기술』에도 을묘왜변이 발생한 전라도 지역의 침범 왜선이 60여 척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1555년 5월 16일)에는 전라도관찰사 김주(金澍)가 ‘5월 11일 왜선 70여 척이 달량(達梁) 밖에 와서 정박했다가 이진포(梨津浦)와 달량포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 육지로 상륙하여 성저(城底)의 민가를 불태워 버리고 드디어 성을 포위했다.’²⁴⁾라고 장계로 알리고 있다. 즉 을묘왜변 때 전라도 지역을 침범한 왜선은 70여 척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을묘왜변 때 전라도 지역에 침범한 왜선은 60여 척 또는 70여 척이라고 인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그대로 제주에 쳐들어온 것은 아니다. 앞서 『조선왕조실록』(1555년 6월 28일)

22) 金錫翼, 『耽羅紀年』(1555. 06.). “倭賊來侵 金秀文等擊破之 時 倭賊六十餘艘 連陷全羅道長興康津等八鎮 因來犯 禾北浦[州東] 圍州城三日 金秀文等 力拒之 俟其退 率輕銳 追擊大破 斬獲甚衆 朝廷嘉之 賞秀文嘉義 加賜表裏一襲 遣弘文校理尹穀中來宣慰之.”

23) 金錫翼, 『耽羅紀年』(1556年 夏). “土人金成祖 當倭變 以後軍將 敗賊于南水口 賞建功將軍.”

24) 본고 각주 10) 참조.

에 의하면 전라도에서 보길도를 거쳐 제주로 후퇴한 왜선은 40여 척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제주 을묘왜변의 경우 침범 왜선의 수를 60여 척 또는 70여 척으로 인용하면 오류일 듯하고,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처럼 약 40여 척으로 보는 게 옳을 것 같다.

한편 왜적들이 화북포로 상륙했다는 대목은 『탐라기년』에서만 확인되는 사실이다. 이 대목은 중요한 사실이므로 보다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화북포는 조선 전기에는 수전소 조차 설치되지 않은 포구였다. 1530년(중종 25)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제주의 방어 시설이 방호소는 13개소, 수전소는 12개소라 적시하고 있다. 방호소 13개소는 제주목 5개소(조천관, 김녕포, 도근천, 애월포, 명월포), 정의현 3개소(대수산, 서귀포, 오소포), 대정현 5개소(차귀, 동해, 색포, 모슬포, 범질포)로 되어 있다. 또한 수전소 12개소는 제주목 7개소(견입포, 조천관, 김녕포, 별랑포, 도근천, 애월포, 명월포), 정의현 2개소(오소포, 서귀포), 대정현 3개소(모슬포中, 색포東, 범질포西)였다.²⁵⁾ 따라서 조선 전기에는 화북포에 방호소 또는 수전소가 설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화북포가 관문의 역할을 했다는 기록은 최부(崔溥)의 『표해록』에 처음 등장한다. 최부는 1487년(성종 18) 9월 제주에 추쇄정차관으로 왔다가, 이듬해 정월 부친상의 비보를 듣고 윤1월 3일 별도포에서 출발하였고,²⁶⁾ 해상에서 표류하여 중국 강남까지 갔다가 육로로 귀환하여 7월 서울에 도착하였다. 따라서 1488년(성종 19) 윤1월 최부가 제주를 떠날 때의 장소가 별도포였으며, 이곳에서 후풍(候風)하다가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임제(林梯)의 『남명소승』에도 별도포가 등장한다. 1578년(선조 11) 2월 기록에 의하면, 호남 원병(援兵)들이 매년 3월이면 별도포(화북포)로 들어오고, 8월이면 조천관에서 떠난다고 되어 있다.²⁷⁾ 또한 김상헌(金尙憲)의 『남사록』(1601.10.12)에 의하면 그가 제주의 방어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제주 일주를 시작할 때 처음 들린 곳이 별도포였고, 전선(戰船)과 여러 병기를 점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²⁸⁾ 결국 1601년 시점에는 화북포에 전선이 배치된 수전소가 이미 설

25)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정의현/대정현, 관방.

26) 최부, 『표해록』(권1), 무신(1488) 윤1월 2일. “侵晨, 臣詣別刀浦候風.”; 윤1월 3일. “鎮撫安義來告曰, 東風正好, 可以去矣. 重幹仲衆等亦勸行, 臣遂告別登船.”

27) 임제, 『남명소승』(1578.02). “每歲三月, 援兵別赴防之入也, 女輩凝粧, 携酒來待於別刀浦上, 舟入浦則勸酒相狎, 迎至其家, 八月罷防而去也, 泣涕追送.”

28) 김상헌, 『남사록』(1601.10.12). “早食後發行, 出東門到別刀浦, 查點戰船諸具, 即向朝天館.”

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1653년(효종 4)에 편찬된 이원진의 『탐라지』에는 비로소 처음으로 화북포에 수전소가 있었다고 전한다.²⁹⁾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에 화북포수전소는 없었으며, 곧이어 1555년 제주 을묘왜변을 겪었고, 1578년 무렵이면 호남 원병이 화북포로 들어왔으며, 1601년에는 전선이 배치된 사실이 확인된다. 결국 1653년 처음으로 화북포수전소의 설치가 확인된다. 이로 보아 화북포수전소의 설치는 아마도 제주 을묘왜변의 결과 화북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그 이후 설치된 것으로 생각된다. 화북진성의 축조는 그보다도 훨씬 뒤인 1678년(숙종 4) 윤창형 목사 때 창건되었으며, 1737년(영조 13)에는 김정(金儆) 목사에 의해 대대적인 화북포 축항공사가 이루어졌다.

앞서 실록에는 왜선 40여 척이 제주 앞바다에서 1리가량 되는 곳에 닻을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1555년 당시 제주성 양안인 병문천과 산지천 하류에는 각각 별랑포와 건입포 수전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뿐 아니라 조천관에도 수전소가 있었기 때문에 왜구는 아직 수전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화북포를 최적의 상륙지점으로 판단한 듯하다.

(2)번 기사(1556. 여름) 역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 을묘왜변의 접전지가 남수구였다는 점이 첫째요, 김성조의 역할이 후군(後軍) 장수였다는 점과 승전 후 그에게 건공장군의 포상이 내려졌다는 점이 둘째이다. 이는 『탐라기년』에서만 확인되는 내용으로 여타 사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중요 사실들이다. 특히 왜적과의 접전 장소가 남수구였다는 점은 당시 제주성 동성과 동문의 위치 및 산지천 건너편(동쪽) 높은 언덕에 왜적이 진을 쳤다는 점에 비추어 타당한 사실로 확인된다. 남수구는 곧 오늘날 남수각으로 불리는 곳이다.

문제는 김성조의 역할과 포상의 내용이다. 실록에 의하면 김성조는 갑사로 치마돌격의 전사(戰士)였다. 김성조가 후군 장수로 활약하였다는 대목은 의심쩍은 사실이다. 후군이란 고려 시대 오군(五軍)의 전시 편성부대 시 전군, 후군, 중군, 좌군, 우군 중 하나이다. 오군이 조선 시대로 들어와 삼군으로 편성되는데, 중군, 좌군, 우군이 그것이다. 따라서 조선 시대 후군이

29) 이원진, 『탐라지』, 제주목, 수전소. “화북포. 판옥전선이 있는데, 중부, 좌부, 우부에 각 1척이 있다. 대변량 6척, 격군 180명, 사수와 포수 87명이 있다.”

란 용어 사용은 극히 드물 뿐 아니라, 제주목의 군사체제 상 후군이란 부대 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마도 효용군 70명의 1차 공격 이후 4명의 치마돌격이 이루어져서 이들을 후군으로 지칭하고, 말을 타고 적진을 무너뜨렸으니 장수의 호칭을 붙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김성조를 후군 장수로 지칭하는 사실은 다른 사료에서 확인할 수 없고, 『탐라기년』의 저자인 김석익 선생의 자의적 표현이 아닌가 추정된다.

또한 건공장군의 포상에 대해서도 당시 김성조의 직책이 갑사였는데, 아무리 군공 1등의 포상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전문 직업군인 신분의 그에게 갑자기 종3품 상계의 무관에 해당하는 품계가 내려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의 아들 김용호(金用瑚)가 을묘왜변 이후 방담첨사로 재임하였고, 이러한 부자의 활약이 차후 왜변 극복에 막중한 역할을 했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후 추증된 품계가 아닌가 생각된다.

7) 「탐라인물고」(김석익, 『심재집』 권2)

「탐라인물고」는 김석익의 저술로 『심재집』 권2에 수록되어 있다. 고려에서 조선까지 제주인 170여 명에 대해 간략한 생애와 업적 등을 기록한 일종의 인물 사전이다. 여기에 김성조와 그의 아들 김용호에 대한 항목이 수록되어 있어 아래에 소개한다. 다만 저자 김석익이 『탐라기년』의 저자이기도 하여 그 서술 내용은 앞선 『탐라기년』과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내용 분석 역시 앞에서 제시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 김성조(金成祖). 〈김용호(金用瑚)〉

김성조는 본관이 나주다. 어려서부터 용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했다. 집이 본래 가난하여 제주 본영 지인(知印)에 소속되었다. 명종 을묘년(1555, 명종 10) 여름에 왜적 80여 척이 호남의 장흥, 강진 등 여덟 진(鎭)을 연이어 함락하였고, 인하여 화북포(禾北浦)를 침범하여 제주성(濟州城)을 3일 동안 포위했다. 목사 김수문(金秀文)과 판관 이선원(李善源) 등이 왜적들을 힘써 막았다. 김성조가 재주와 용기로써 군대에 응모하여 후군 장수를 맡아 몸이 가볍고 날랜 병사들을 이끌고 추격하여 남수구(南水口)에서 대파하였는데, 죽이고 포획함이 매우 많았다. 임금이 교서를 내려 표창하여 김수문 이하에게는 작위를 높여 주고, 김성조에게는 건공장군(建功將軍)을 상 주었다. (그 아들) 김용호(金用瑚)는 당시 왜변에 아버지를 따라 왜

적을 토벌하여 공이 있다 하여 방답첨사(防踏僉使)에 제수되었다.³⁰⁾

8) 『증보탐라지』(담수계)

『증보탐라지』는 1954년 김문희, 김범준 등 제주의 석학 12명이 결성한 담수계가 편찬하여 낸 제주 역사지서이다. 조선 시대 편찬된 각종 『탐라지』 및 개인 문집의 내용까지 인용하며 서술되어 있어서 제주역사 종합백과사전이라 지칭할 만하다. 여기서도 제주 을묘왜변의 내용과 관련 인물(김성조)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서 아래에 소개한다. 다만 서문을 김석익 선생이 쓰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기존 김석익 선생의 『탐라기년』과 『탐라인물고』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내용 분석 역시 앞에서 제시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1) 『증보탐라지』(담수계), 인물, 관환.

○ 김성조. 용감하기가 남달리 뛰어나고, 말 타고 활쏘기를 잘하였다. 명종 때에 왜변을 당하여 후군의 장수로서 주성(州城) 남수구(南水口)에서 적을 격파하고 건공장군(建功將軍)의 품계를 받았다.³¹⁾

(2) 『증보탐라지』(담수계), 관풍안.

○ 목사 김수문. 명종 10년(1555) 을묘 2월에 도임하고, 2년이 지나서 정사년(1557)에 교체되어 가니, 세상 사람들이 명환이라 일컬었다. 6월에 왜적 80여 척이 장흥, 강진 등 팔진(八鎭)을 함락 시키고 별도포(別刀浦)에 와서 정박하였으며, 주성(州城)을 포위한 지 3일 만에 공이 날랜 군사를 뽑아 인솔하고 진격하여 크게 무찔러 베고 사로잡은 것이 매우 많았다. 그 공으로 가의대부를

30) 金錫翼, 『心齋集』卷2, 「耽羅人物考」, “金成祖 本羅州人也. 自少勇力絶人, 善騎射, 以家本寒微, 隸本營知印. 明宗乙卯夏, 倭賊八十餘艘, 連陷湖南長興康津等八鎭, 因來犯禾北浦, 圍州城三日. 牧使金秀文判官李善源等, 力拒之, 成祖以才勇應募, 任後軍將, 率輕銳, 追擊大破于南水口, 殺獲甚多. 璽書褒獎, 進爵秀文以下, 賞成祖建功將軍, 于用瑚當倭變從父, 討賊有功, 除防踏僉使.”

31) 淡水契, 『增補耽羅誌』, 人物, 科宦. “金成祖. 勇力이 絶人하고 善騎射라. 明宗朝에 倭變을 堂하야 後軍將으로 城을 南水口에서 破하고 建功將軍의 階를 受하다.”

를 포상받았으며 표리(表裏, 옷감) 한 벌을 하사받았다. 홍문관 교리 윤의중을 보내 선양하고 위로하였다.³²⁾

제주 을묘왜변과 관련 오늘날 전하는 사료는 그렇게 많지 않다. 『조선왕조실록』(명종실록)을 비롯한 전근대 사료 7종과 『탐라기년』(김석익)을 비롯한 근현대 사료 3종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한정된 사료 때문에 제주 을묘왜변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사료 해석의 차이 때문에 잘못 알려진 내용도 상당하다. 무엇보다도 제주 을묘왜변의 의미 부여와 재조명 작업이 부진하여 학계는 물론 일반에 그리 알려지지 않은 것이 큰 문제이다. 따라서 옛 사료를 중심으로 정밀한 분석을 이룬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에 알려진 내용 중 오류 부분의 시정을 포함하여 제주 을묘왜변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다.

4. 맺음말

1555년(명종 10) 5월 왜구가 70여 척의 배를 거느리고 전라남도 남해안 일대를 침략하며 을묘왜변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전라도 일대에 큰 피해를 안기고 퇴각하다 동년 6월 21일 제주 앞바다로 집결하였다. 왜선 40여 척에 약 1,000여 명의 왜구들이 6월 27일 제주 화북포로 상륙하여 곧장 제주성으로 향했다. 당시 제주성 동성은 1566년(명종 21) 곽휼 목사가 퇴축하기 이전이어서 산지천 서안으로 이어져 있었다. 제주성 동문 역시 지금의 오현단 북쪽 농협 중앙지점에서 동쪽으로 30m가량 떨어진 곳으로 추정하며, 1780년(정조 4) 김영수 목사 때 세워진 간성(間城) 남문(소민문)이 당시 동문으로 이해된다.

왜구들은 산지천 동쪽 높은 언덕에 진을 쳐서 제주성을 포위하였으며, 제주성 동성(동문)

32) 淡水契, 『增補耽羅誌』, 觀風案. “牧使 金秀文. 明宗十年 乙卯 二月에 到任하고 越二年 丁巳에 遞去하니 世稱名宦이라. 六月에 倭賊 八十餘艘가 長興康津等 八鎭을 陷하고 別刀浦에 來泊하여 州城을 圍한 지 三日에 公이 輕銳를 抄率하고 進擊大破하고 斬獲이 甚衆한지라. 그 功으로써 嘉義大夫를 賞하며 表裏一襲을 加賜하고 弘文館校理尹穀中을 遣하여 宣慰하다.”

및 산지천을 사이에 두고, 오늘날 남수각을 중심으로 3일간의 전투가 벌어졌다. 당시 제주목사 김수문은 70인의 효용군(驍勇軍)을 선발하여 동문을 통해 선제공격을 감행하여 적진 40여 m의 거리까지 쳐들어갔고, 뒤이어 김직손, 김성조, 이희준, 문시봉 등 4인이 말을 달려 적진으로 돌격하자 왜구가 드디어 무너져 흩어졌다. 김몽근은 적장을 화살로 쏘아 쓰러뜨렸고, 이후 제주 군민(軍民)은 승세를 타서 추격하며 다수의 왜구들을 목 베고 사로잡아 대첩을 거두었다.

을묘왜변의 전적은 『조선왕조실록(명종실록)』(1555.07.07.)에 기록한 바와 같이 ‘영암의 수성(守城)과 제주의 과적(破賊)’으로 종결되었다. 제주 을묘왜변의 대첩은 김수문 목사라는 유능한 무관과 김직손, 김성조, 이희준, 문시봉, 김몽근 등 군민(軍民)이 일심동체로 전투에 나섰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 과감한 선제공격과 온전하게 잘 보존되어 있던 병기 등이 승리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제주 을묘왜변은 조선 시대에 들어와 제주가 처음 겪은 대규모 외적의 침입이었고, 제주민은 이를 대첩으로 이끌어 시련을 극복하였다. 이는 비단 제주만의 승리가 아니었고, 조선 을묘왜변의 최종적 승리로 귀결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제주 을묘왜변의 대첩은 일본과 한반도 및 중국과 연결되는 해상 요충지 제주를 왜구로부터 지켜냈다는 점에서 당시 동아시아 평화 정착에 큰 기여를 했다. 바로 이 점에서 오늘날 제주 을묘왜변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주 을묘왜변과 관련한 옛 사료를 간략하게 도표로 나타내 다음의 <표 3>으로 제시한다.

〈표 3〉 제주 을묘왜변 관련 사료 및 간략 내용

연번	연번	연번	연번	연번
1	명종실록	1555(명종 10). 06. 28	왜선 40여 척(6월 21일), 보길도, 제주 앞 바다 1리 정박	
2	명종실록	1555(명종 10). 07. 06	상륙(6월 27일), 왜적 1,000여 명, 효용군 70명, 치마돌격 4인(김직손, 김성조, 이희준, 문시봉), 적장 사살(김몽근)	
3	명종실록	1555(명종 10). 07. 07	승전 보고 접수, 대첩(적은 숫자로 왜적 다수 참획), 을묘왜변의 결과〈영암의 수성(守城)과 제주의 파적(破賊)〉	
4	명종실록	1555(명종 10). 08. 10	제주 을묘왜변 승인1 (김수문의 지휘, 사졸과 일심동체)	
5	명종실록	1555(명종 10). 10. 12	제주 을묘왜변 승인2(성안의 병기 완비)	
6	명종실록	1555(명종 10). 10. 21	을묘왜변 군공 논상	
7	윤주당 기문(황우현)	1568(선조 1) 봄	제주성 포위, 왜군 진중(높은 능선)	출전(이원진 탐라지)
8	남사록(김상헌)	1601(선조 34). 09. 22	제주성 포위, 3일 전투	관풍안 명환(김수문)
9	연려실기술(이금익)	명종조 고사본말(을묘왜변)	후퇴 왜구, 제주에서 대파(大破)	제주목사 인명 오기 (이수문)
10	탐라지(이원진)	1653(효종 4)	제주성 포위, 3일 전투, 왜선 9척 포획	명환(김수문)
11	남환박물(이형상)	1704(숙종 30)	〃	지명환(김수문)
12	증보탐라지(윤시동)	1765(영조 41)	〃	명환(김수문)
13	탐라기년(김석익)	1918<1555(명종 10). 06>	왜선 60여 척, 화북포, 제주성 포위, 3일 전투	김수문
14	탐라기년(김석익)	1918<1556(명종 11). 여름>	후군 장수, 남수구, 건공장군	김성조
15	탐라인물고(김석익)	1920년대	지인, 왜선 80여 척, 화북포, 제주성 포위, 3일 전투, 후군 장수, 남수구, 건공장군, 방답첨사(김용호)	심재집 권2 (김성조, 김용호)
16	증보탐라지(답수계)	1954	후군 장수, 남수구, 건공장군	인물, 과환(김성조)
17	증보탐라지(답수계)	1954	왜선 80여 척, 별도포, 제주성 포위, 3일 전투	명환(김수문)

참고문헌

○ 사료

『고려사』, 『조선왕조실록』(명종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이행 외), 『표해록』(최부), 『남명소승』(임제), 『남사록』(김상헌), 『탐라지』(이원진), 『남환박물』(이형상), 『증보탐라지』(윤시동), 『연려실기술』(이금익), 『탐라기년』(김석익), 『심재집』(김석익), 『증보탐라지』(담수계).

○ 논저

국사편찬위원회(<https://www.history.go.kr/>), 『명종실록』.
김병하(1989), 「을묘왜변고」, 『탐라문화』(8호).
김영길 역(2016), 『국역 증보탐라지』(윤시동), 제주문화원.
김찬흠 외 역(2002), 『역주 탐라지』(이원진), 푸른역사.
김태능(1968), 「천미천포의 왜란과 을묘왜변」, 『제주도』(36호).
문준호(2017), 「조선 명종대 을묘왜변에 관한 군과 정부의 대응」, 『군사』(103), 군사편찬연구소.
오문복 외 역(2011), 『심재집』(김석익),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오창명 외 역(2009), 『남환박물』(이형상), 푸른역사.
윤성익(2006), 「‘후기왜구’로서의 을묘왜변」, 『한일관계사연구』(24), 한일관계사학회.
제주도(1988), 『제주선현지』, 일신인쇄사.
최기홍 역(1997), 『표해록』(최부), 교양사.
한국고전번역원(<https://www.itkc.or.kr/>),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한국고전번역원(<https://www.itkc.or.kr/>), 『연려실기술』(권11).
홍기표 역(2007), 『역주제주고기문집<남명소승>』(임제), 제주문화원.
홍기표 역(2008~2009), 『남사록 역주』(김상헌), 제주문화원.
홍기표 외 역(2015), 『역주 탐라기년』(김석익), 제주문화원.
홍순만 외 역(2006), 『역주 증보탐라지』(담수계), 제주문화원.

제주을묘왜변과 역사인물

김석윤

제주대학교 강사

1. 들어가며

역사인물은 중앙과 지역을 통틀어서 역사적 사건과 연관이 있거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시대를 넘어 많은 사람에게 기억되고 추모되는 대상이다. 특히 역사인물은 지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존재이자 지역의 주요한 역사자원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인물을 발굴하고 선양하는 사업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지역주민을 화합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 이처럼 지역의 역사인물을 발굴하고 선양하는 일은 뜻깊은 일이기도 하지만 조심스럽게 다가서야 한다.

역사인물에 대한 고증과 선양 사업은 행정 혹은 문중이나 후손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문제를 드러내기도 한다. 주로 발생하는 문제점 가운데는 역사 고증이 불철저한 문제, 지역마다 특색 없이 비슷한 형태의 사업을 경쟁적으로 시행하는 문제, 콘텐츠가 빈약한 시설 건립의 문제 등이 뒤따르기도 한다. 다양한 역사인물 자원이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역사적 가치나 의미가 뒷전으로 밀려나기도 한다. 심지어 역사적 사실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현대에 와서 역사인물 자체가 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아가서 가문이나 씨

족의 역사가 아닌 지역의 역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별한 인물로서 역사적 인물은 그가 지닌 본래 가치, 혹은 의미가 현대적으로 재해석되고 지역의 추구 가치와 연결될 수 있을 때 개인적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지역사회의 추구 가치로서 생명력과 지속성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역사인물의 경우 조선시대까지는 주로 중앙에서 파견된 관료와 연관된 인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중앙중심적인 사고의 반영일 수 있으며, 기록 문화 자체가 지역의 기록으로 남겨진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그나마 제주인의 활약이 돋보이고 지역의 주체적 관점에서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사건이 어찌면 을묘왜변이라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기도 하지만 피해가 심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에 다양한 사료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 왜구의 제주 침탈과 역사 인물

제주해역에 출몰했던 왜구의 기록은 고려시대의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조선시대에는 『조선왕조실록』, 현대에 넘어오면 『탐라기년』, 『증보탐라지』 등 문헌 기록으로 남아 있다. 이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왜구들이 전라도와 경상도를 비롯하여 내륙지방까지 술하게 약탈을 일삼았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왜구가 드나드는 길목에 놓여 있었던 제주 역시 왜구가 자주 침범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제주와 관련된 왜구의 침입 사례는 대표적으로 고려시대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1377년(우왕 3년) 왜구가 배 200여 척으로 제주를 노략질하니, 전라도수군도만호(全羅道水軍都萬戶) 정용·윤인우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기다렸다가 배 1척을 노획하고 섬멸하였으며 그 공으로 정용 등에게 옷 1벌씩을 내려 주었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조선시대에는 주로 제주 인근의 해상에서 조정에 진상을 위한 선박을 약탈하거나 소규모로 제주 해안을 노략질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제주 침입은 1555년(명종 10년) 을묘왜변이다. 을묘왜변과 관련된 내용은 『조선왕조실록』뿐만 아니라 읍지류 등에도 기록으로 남아 있다.

이들 사료에는 사건뿐만 아니라 당시 주요 인물들에 대한 논공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 왜

구섬멸에 대한 포상의 경우는 대부분 관직에 있는 자들에게 내려지고 있다. 그 내용은 옷을 하사하거나 직급을 높여 주는 방식이었다.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에서는 1424년(세종 6년)에 왜구를 쫓아내고 배를 포획한 상으로 제주도안무사(濟州都安撫使) 김소에게 술과 옷 한 벌을 하사하였다. 1433년(세종 15년)에도 안무사 김인에게 옷 한 벌을 하사하였다. 1435년(세종 17년)에는 제주에서 왜구를 잡아 공이 있는 사람 중에, 1등은 원직이 부사정(副司正)인 사람을 사정으로 승진시키고, 학생(學生)은 대장(隊長)을 주고, 2등 학생은 대부(大副)를 주고, 3등과 격군(格軍)은 각각 쌀 2석, 면포(綿布) 2필씩을 주게 하였다. 왜구를 쫓아낸 공훈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포상하고 있다.

『역주 탐라기년』〈권2〉(김석익)에서는 1554년(명종 9년) 가을 7월에는 목사 남치근이 왜적의 배 2척을 포획하여 그 공으로 품계를 올려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같은 사건에 대해 『국역 증보탐라지』〈고금사적〉(김영길)의 기록은 1554년(명종 9년) 왜적과 중국 객상 등이 정의현에 표류하여 주민들을 죽이고 약탈하였다. 군사를 보내어 토벌하고 붙잡았다. 그 공으로 남치근 목사에게 가의대부로 자급을 올려주고 판관 이선원은 직급을 삼품으로 높여 주었다고 밝히고 있다.

『명종실록』1555년(명종 10년) 7월 7일 기사에서 김수문에게 한 자급을 더 하여 주고 단의(緞衣) 1영(領)을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반면에 『역주 탐라기년』(김석익)에서는 1555년(명종 10년) 목사 김수문이 제주성을 포위한 왜적을 물리쳐 가의대부(嘉義大夫)로 품계를 올려주고, 판관 이선원에게는 군기부정(軍器副正)을 제수하고 대정현감 공사검을 판관으로 옮겨 파견, 군관 강려는 대정현감을 주었다. 제주 사람 김성조가 왜변을 당하여 후군을 거느린 장수로 남수구에서 적을 패배시켜 건공장군(建功將軍)을 상 주었다. 또한 『국역 증보탐라지』〈고금사적〉(김영길)에서는 1555년(명종 10년) 김수문 목사가 왜적을 붙잡은 공로로 가의대부를 가자하고 겹옷과 속옷 한 벌씩을 하사하였다. 군관 강려는 등급을 건너뛰어 대정현감으로 임명하였다. 왜적이 다시 제주목을 침범하니 김수문이 고립된 군사로 힘껏 싸워 항거하다가 적이 물러나자 뒤쫓아 가서 크게 무찔렀다. 포상하여 장려하면서 다시 자헌대부를 가자하였다.

『명종실록』 1555년(명종 10년) 10월 21일 기사에서는 영암과 제주에서 승전한 군공 1등은, 두 품계를 올리되 자궁자(資窮者)는 대가(代加) 하고 본품(本品)에 승서하 삼으며, 갑사(甲士)는 본래 체아록직(遞兒祿職)이거든 품계를 높이고 향리(鄉吏)는 향역(鄉役)을 면하며, 공사천(公私賤)은 면천(免賤)하게 하고 잡류(雜類)는 면포(綿布) 10필을 주며, 도류(徒流)·부처(付處)125)·충군

(充軍)된 자는 방송하고 직첩을 돌려주도록 하였다. 세종 때 논공의 기준과 비교하면 이때에 이르러서는 보상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명종실록』1556년(명종 11년) 11월 6일 기사에는 제주 목사 김수문은 왜적을 섬멸한 공으로 특별히 한 자금을 더 해 주고, 군관 강여는 동반(東班)에 승서(陞敍)하고 판관 이선원은 지난해 부터 누차 전공을 세웠는데, 이제 또다시 칼날을 무릅쓰고 용감히 싸워 사살(射殺)한 수가 또 한 많으므로 3품에 승직(陞職)하라. 의영고(義盈庫)를 시켜 호초(胡椒) 10두(斗)를 내려보내 상하 장졸(將卒)에게 두루 지급해서 이 더위에 쓰도록 했으며, 전상자(戰傷者)가 복용할 약물(藥物)도 보내 주도록 했다.

사료에서 알 수 있듯이 공훈에 따라서 다양한 보상을 지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보상은 대부분 관료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상을 받고 있었다. 이들은 작게는 옷감에서부터 크게는 직급을 올려주는 일들이 흔히 있었다. 반면에 일반 군사나 백성들에게는 약재를 지급하는 정도가 이루어졌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실록과 읍지류의 기술 방식에 대해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실록과 읍지류에서는 같은 사건이지만 포상과 관련된 시기가 조금씩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군관 강여와 판관 이선원에 관한 기술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1556년 왜구 섬멸에 대한 공훈 내용이 섞여 있기에 이렇게 기술된 것으로 보인다. 명종실록 1556년(명종 11년) 11월 16일 기사에는 이선원은 전에 본품(本品)에 승서(陞敍) 되었는데 또다시 3품을 승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에 대해 윤허하지 않았다는 기사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1555년에 이미 승진했으므로 또다시 승진시키는 것은 불가하다는 대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역주 탐라기년』과 『국역 증보탐라지』(김영길)기록은 1555년 사실에 1556년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공사검에 대한 기록을 비교하면 『역주 탐라기년』에는 1555년에 판관으로 옮겼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역주 탐라지초본 下』에는 1556년에 부임한 것으로 적혀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록에서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실록의 경우 연도와 날짜를 구분하여 기록했으나 읍지류의 경우 1555년 왜구침입과 1556년 왜구침입을 하나의 연속된 사건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1555년 10월에도 적지 않은 수의 왜구 침입이 발생했었기 때문이다. 이때 적선을 불사르고 베어 죽인 왜구가 54급이었으며 군관 강여에게 절의(節衣)를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또한 1556년에도 대규모 왜구 침입이 발생했다. 『명종실록』

1556년(명종 11년) 6월 14일 기사에 따르면 왜적을 사로잡아 목을 벤 것이 제주에서 33, 정의 31, 대정 33급이며 왜선 4척¹⁾을 불태웠다고 보고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내용은 사건에 대한 보고서의 성격이므로 연도와 날짜를 중요시했다면 읍지류의 경우 1년이 채 안 된 시기의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세 개의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기록의 오류라기보다는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사료에는 남아 있지 않으나 집안 족보나 비문을 통해서 공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을묘왜변 당시 보인(保人) 신분이었던 문시봉(文時鳳) 집안에서도 건공장군을 제수받았다고 전하고 있다.

3. 제주을묘왜변과 주요 인물

을묘왜변에 등장하는 역사 인물을 살펴보면, 조선왕조실록 1555년(명종 10년) 제주 목사의 장계(狀啓)에는 날랜 군사 70인과 목사 김수문, 정로위 김직손, 갑사 김성조·이희준, 보인 문시봉, 정병 김몽근이 나타난다. 조선왕조실록 1556년(명종 11년) 6월 16일 기사에는 판관 이선원도 지난해 왜적을 포획한 공으로 이미 승서(陞叙)했다는 기록이 있고, 『역주 탐라기년』에서는 판관 이선원에게는 군기부정을 제수하고 대정 현감 공사검을 판관으로 옮겼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이들 또한 을묘왜변 과정에 참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 목사 김수문이 군관 강여를 보내어 승첩을 아뢰었다는 사실에서 군관 강여 또한 을묘왜변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각 인물의 역할을 살펴보면 목사 김수문은 무반이었으며 제주를 방비하는 책임자로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고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다. 무관을 목사²⁾로 파견한 점은 제주지역 정세

1) 명종실록 1556년(명종 11년) 6월 16일 기사에는 왜선 5척을 포획한 것으로 기록됨

2) 조선 전기 지휘체계는 평상시와 유사시에 두루 적용된다. 이는 별도의 군사 지휘관 파견과 그 수행원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수령 중에 병법을 모르거나 武才가 부족한 경우 군사를 지휘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으므로 중앙에서 지휘관들을 파견하여 지방군을 지휘하게 했다(서태원, 2001; 67).

가 급박함을 조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김수문 목사와 관련된 기록은 『증보 탐라지』(담수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이름난 신하로 을묘년에 왜구가 제주성을 포위한지 3일에 날랜 병사를 거느려 적을 크게 대파하였다. 그 공으로 가의대부와 옷을 하사받았다. 『국역 증보탐라지』〈증보탐라지제삼〉(김영길)의 기록은 왜적이 3일 동안 제주성을 포위하였다가 물러갔다. 수문이 날렵한 정예병을 이끌고 진격하여 목을 베거나 사로잡았고 또 왜적의 배 9척을 포획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역주 남사록上』〈관풍안 명환〉(홍기표)는 을묘에 왜구가 강진으로부터 돌아와서 침범하였다. 3일간 굳게 지켰다. 도적들이 스스로 물러날 때를 기다려 곧 출격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교서를 내려 포상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원진의 『탐라지』〈명환〉(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서는 목사가 되어 왜적이 성을 포위하였다가 3일만에 물러가자 날랜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하여 적을 죽이고 왜선 9척을 나포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목사 김수문이 제주성 전투에서 펼쳤던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명종실록』1552년(명종 7년) 7월 27일, 8월 16일, 10월 1일, 10월 13일 기사를 요약하면, 함경도 경흥(慶興) 땅에 오랑캐가 침입했을 때 군마(軍馬)를 엄히 갖추어 위엄을 떨치며 잣어야 하는데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외로운 군대로 들어갔다. 또한 이응거도(伊應巨島)³⁾에 진을 설치할 때도 조정의 명(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축성했다. 마음대로 공역(工役)을 시작하여 오랑캐들의 옛 거주지를 빼앗아 그들과 원한을 맺음으로써 변방에 있는 백성이 많이 피살되거나 포로가 되었다. 그는 함경도에 근무하면서 여진족과의 전투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다. 실제 실록의 표현된 기사를 살펴보면 전투상황에서 부대를 운영할 때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 이응거도는 慶興鎭에서 북쪽으로 10~20리 떨어진 두만강 건너편에 있는 섬[島]이었고, 여진 중에서도 骨幹兀賊 함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다. 조선에서 이곳에 자모진을 설치하였는데, 그 이유는 경흥진 주변이 잣은 수해를 입어 전답이 상실되고 백성들이 계속 굶주림에 시달리는 등 피해가 컸고, 이응거도에 경작할 만한 땅이 있어서였다. 즉 이응거도의 要路에 진을 설치하여 방어를 하면서, 섬을 개간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었다. 자모진의 설치 시기는 1551년(명종 6) 12월 이전으로, 함경북도병사 金舜臯와 경흥부사 金秀文이 주도하였다. 그렇지만 임시적인 목적에 대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石城을 쌓고 館舍까지 지은 것이 보고되면서 ‘鎭’ 설치의 便不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켰다. 鎭 설치를 반대한 사람들의 이유는 이응거도의 여진인들을 내쫓으면 결국 땅을 다투게 되어 여진과의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한성주, 2012; 149).

관관 이선원과 공사검이 을묘왜변에서의 구체적인 역할은 기록에서 찾을 수는 없다. 다만 당시 제주목에 소속된 관관과 현감이었으므로 중익(中翼)과 우익(右翼)을 담당하면서 목사를 보좌했을 것으로 여겨진다.⁴⁾

『명종실록』1555년(명종 9년) 제주 선로사인 홍문관 부교리 윤의중의 보고내용 가운데 ‘목사 김수문은 사람됨이 칭찬할 만하고, 관관 이선원은 나랏일에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니, 왜구가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성을 침범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정 현감 공사검도 마음을 다하여 일을 조치하고 지성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니 사람들이 모두 칭찬합니다’라고 보고하고 있다.

관관 이선원은『증보 탐라지』(담수계)에서 명종 8년 12월에 훈련주부(訓練主簿)로 내려와서 후에 군기부정에 올라 옮겼다고 전하고 있다. 이는 을묘왜변에서 공을 세운 후 승진하여 제주를 떠났다고 볼 수 있다. 『탐라지초본 下』〈관안〉(제주교육박물관)에 따르면 1565년(명종 20년)에는 제주 목사로 내려왔다. 이보다 앞서 1553년(명종 8년) 12월에 판관으로 부임한 후 1556년 8월에 교체되어 떠난 것으로 나온다. 이 자료에서 공사검은 1556년(명종 11년) 8월에 부임하여 명종 13년 2월에 교체되어 떠났다.

강여는 목사와 함께 내려왔다고 볼 수 있다. 을묘왜변 이후 왜구가 재차 침입했을 때(『명종실록』, 1555년, 명종 10년, 9월 12일 기사) 조정에 보고 한 내용을 살펴보면 ‘김수문이 신들에게 군사를 거느려 배를 타고 진격하게 하였습니다. 총통(銃筒)을 가지고 적선을 불사르니 적왜가 모두 타죽고 빠져 죽었으므로 드디어 54급을 베었습니다. 임금이 옷을 하사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그는 수군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을묘왜변 당시에도 육상에서의 추격 이후 해상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을묘왜변 당시에도 왜선 9척을 포획했기 때문이다. 『탐라지초본 下』〈관안〉(제주교육박물관)은 그가 1573년(선조 6년)에 제주 목사로 부임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

4) 제주의 경우 제주 목사가 담당하는 제주읍을 핵심 主鑰인 中翼으로 삼고 정의를, 대정을 각각 左翼과 右翼으로 편성하여 진관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진관체제로의 전환은 남부지역의 경우는 지속해서 약탈을 일삼던 倭寇에 대한 군사적 변화로 볼 수 있다. 특히 해안가를 집중적으로 약탈했던 왜구에 대한 방비책도 원거리에서 火砲를 발사하고, 이후 상륙함과 동시에 驍兵을 이용하여 내륙으로의 진입을 막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기에 기병강화 양상은 지속된다(최형국, 2014; 97).

말을 타고 돌격했던 김직손, 김성조, 이희준, 문시봉은 기병이었다. 이들은 같은 기병이었지만 신분은 각기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정로위, 갑사⁵⁾. 보인이라는 신분과 직급이 드러나고 있다.

갑사와 보인이 70명 날랜 군사에 포함됐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목사와 함께 내려온 군사라면 갑사나 보인의 신분이 아닐 것이다. 김직손은 정규군에 해당하기 때문에 목사와 함께 내려왔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갑사와 보인은 제주 출신으로 보인다. 이희준의 경우 『명종실록』에 언급된 이후 다른 기록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하지만 김성조와 문시봉은 사료와 족보 등을 통해서 제주 출신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성조와 이희준은 제주 출신 갑사의 신분으로 전투에 참여했으며 건공장군 칭호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록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 둘이 건공장군을 받았다면 실록에서 같은 공훈을 인정받는 이희준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봐야 한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읍지류는 1555년과 1556년을 같은 사건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건공장군을 받은 시점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김몽근(金夢根)은 왜장(倭將)의 등을 쏘아 명증시키고 쓰러뜨렸다. 그는 정병(正兵)⁶⁾이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김몽근은 제주 출신으로 의무 군역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병은 정면에서 적의 공격을 맞서 싸우는 부대를 의미하고, 기병은 기동성을 활용하여 적의 양 측면과 후방을 노리는 부대를 의미한다. 그는 정면에서 왜장을 활로 쏘아 쓰러뜨리는 공훈을 세우게 된다.

을묘왜변의 논공과 관련하여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제주 목사를 비롯한 제주성의 군사와

5) 조선시대에 갑사는 취재에 합격하게 되면 비록 체아직이긴 하지만 직업군인으로서 관록(官祿)을 받게 됨과 아울러 무관으로 진출하여 계속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초기에 취재는 서울에서만 실시되었으나 이에 따른 폐단이 많아지자 외방에서 일단 취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병조에서 관리하면서 갑사 군직에서 소요가 발생하면 성적순으로 배정하였다. 많은 인원이 시취에 응하면서 기준을 설정하여 통과한 인원에게만 시취에 응할 수 있도록 했다(김정운, 2018; 370,391).

6) 정병은 각 진관에 적을 두고 소속되어 있으나 평상시는 생업에 종사하였다. 제주도와 같이 중앙군으로 변상하는 것이 어려운 지역의 보충군 병사들은 그 지역 방어군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조선 초기 국방체계가 세조 대에 와서 진관체제로 정비되고 군역제도도 봉족체제에서 보법체제로 개편되면서 의무 군역인 정병으로 일원화되었다(김정웅, 2017; 228).

더불어 5인의 공적을 올렸으나 실질적으로 포상이 이루어진 것은 목사에 국한되고 있다. 이외의 자료가 소실되어 논증할 수 없으므로 지방사 관련 사료를 참조하여 복원하면 총 8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이 가운데 제주 출신은 4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8명의 신분은 목사 김수문, 판관 이선원, 군관 강여, 정로위 김직손, 갑사 김성조·이희준, 보인 문시봉, 정병 김몽근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제주 출신들의 신분은 당시에는 그리 높은 편이 아니었다.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지경에 있었음에도 제주를 지키는 일에 앞장섰다는 데 의미가 깊다.

4. 결론

을묘왜변과 관련된 제주의 인물들은 관찬의 기록에서도 중요하게 대접받지 못하고 구비전승되는 설화나 민속에서도 그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가 않다. 왜구로 부터의 침입을 물리친 역사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인에게서 그들을 칭송되는 사례는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명종실록』에서 찾을 수 있다. 1555년(명종 10년) 7월 7일 기사를 살펴보면 '김직손 등 4인이 돌격한 공로도 역시 작은 것이 아니나, 이는 경이 몸소 사졸에 앞서 칼날을 무릅쓰고 돌진하여 그들의 용맹을 고무시킨 소치가 아니겠는가. 주장(主將)과 부장(副將)은 같지 아니하다.'라는 기사가 보여주듯이 제주사람보다는 중앙에서 파견된 목사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을묘왜변의 주요인물들에 대한 역사적 존재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필요하다.

고려 이후 현대까지 많은 제주 출신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대체로 관료나 충·효·열과 연관된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다. 말을 바쳐 공신이 되거나 굶주린 제주 백성을 구한 의녀 등이 익숙하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던 역사 속 인물이나 불편한 세상에서 제주백성을 위해 싸웠던 민란의 인물 등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알려진 바가 없다. 통치를 위해서 역사인물을 오늘에 되살리는 필요한 만큼만 기억하고 재생하고 있다. 제주를 오롯이 기억하기 위해서는 선택적으로 역사인물을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당대의 사회 구조 속에서 적극적으로 모순을 극복하고 실천하고자 했던 사람들에 대한 역사복원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

진다. 따라서 잊혀진 역사,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오늘의 제주를 있게 만든 인물들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자료의 미비로 을묘왜변에 참가했던 제주 출신 인물의 논공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당시 제주 출신 4인의 주요 인물들의 삶의 궤적, 보직과 의미, 사회적 위치 등은 현재까지 밝혀진 자료만을 갖고는 자세히 파악하기가 힘들다. 남아 있는 일부 사료에 따르면 논공은 관료 중심으로 추진됨으로써 제주인의 자발적인 헌신과 노력에 대해 다소 낮게 평가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주 출신 인물들에 대한 조사는 관찬사 뿐만 아니라 읍지류나 문집 등을 통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을묘왜변과 관련 인물들에 관한 연구는 을묘왜변이 지닌 성격과 무관하지가 않다. 섬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 내 자체적인 인적 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왜구를 물리쳤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그 과정에서 전투에 동원된 군사는 정규군뿐만 아니라 낮은 직급의 병사와 일반 백성들도 함께 전투에 참여하고 승리로 이끌었다는 의미를 거론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을묘왜변의 승리는 단지 그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왜구의 두 차례 침입 과정에서도 외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왜구를 물리치는 디딤돌로 작용했다는 사실이다.

참고문헌

- 김새미오(2020), 『심재집Ⅲ』, 제주시우당도서관.
- 김영길(2016), 『국역 증보탐라지』, 제주문화원.
- 담수계(2004), 『증보탐라지』, 제주문화원.
- 제주문화원(2017), 『역주 탐라기년』(김석익).
-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1991), 『이원진 탐라지』.
- 제주교육박물관(2008), 『탐라지초본 下』(이원조).
- 홍기표(2018), 「여말선초 제주 입도조 연구」, 『濟州島研究』 제49집.
- 홍기표(2022), 『조선시대 제주금석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홍기표(2008), 『역주 남사록 上』, 제주문화원.
- 김순남(2015), 「16세기 조선 지방군제의 동요」, 『조선시대사학보 73, 조선시대사학회』.
- 김정운(2018), 「조선초기 수성군(守城軍)에 관한 연구」, 『군사』(10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김정웅(2017), 「조선전기 보충군의 설치와 역할」, 『군사연구』제144호, 육군군사연구소.
- 김재형(2011), 「조선시대 제주유배인 실태분석과 특징」,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남(2018), 「이영(李穎)의 왜구 주체논쟁과 현재적 과제」, 『역사비평』 122·2018봄.
- 서태원(2001), 「조선전기 유사시 지방군의 지휘체계」, 『사학연구』(63), 한국사학회.
- 이홍두(2014), 「한국 기병의 무기와 기병전술」, 『역사와 실학』 53.
- 한성주(2012), 「조선 명종대 豆滿江 以北 지역에 대한 ‘鎭’ 설치 시도 :伊應巨島의 子母鎭 설치와 女眞과의 분쟁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제42집, 한일관계사학회.
- 최형국(2014), 「조선초기 軍事 戰術체계와 제주 戰馬」, 『군사』 제93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 홍기표(2022), 조선의 항일 운동과 문화 유적의 재조명 학술세미나 자료집

조선전기 왜구와 제주의 방어체계

오수정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경영지원실장

1. 왜구의 발생

제주는 육지와 멀리 떨어진 험난한 절해고도(絶海孤島)로서 일본과 중국을 오가는 중간적인 길목에 있는 섬이다. 이런 지리적인 요건으로 인해 일본열도와 오래전부터 많은 교류가 있어 왔다. 한반도 역시 통일신라시대까지만 해도 대왜관계는 선진문화의 전수과정이 일반적이었다.

13세기에서 16세기에 걸치면서 왜구는 단순히 일본열도에 사는 사람을 지칭하는 왜의 개념과는 달리 우리나라와 중국의 연안에서 약탈을 일삼았던 일본인 해적을 통칭하게 된다. 이 당시 일본은 남북조의 쟁란(爭亂)이 있던 시기라 중앙정부의 통제권을 이탈한 지방 무사집단과 자국민들은 왜구라는 해적집단으로 변신하여 한반도와 중국의 해안지대에 출몰하면서 식량 약탈 등 노략질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이 되었다.

고려에서 왜구의 첫 침입에 대한 기록은 1223년(고종 10)¹⁾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14세기 중엽인 1320년(충정왕 2)부터 1390년(공양왕 2)까지 40년 동안 500여회의 침입²⁾이 있었다고 한다. 이 당시 왜구는 200여척에서 500여척 규모의 대규모 선단으로 남해안에서 서해안까지 확

1) 『고려사』 권22, 세가 권제22, 고종 10년 5월; 甲子 倭寇金州.

2) 국방군사연구소, 1993, 『왜구토벌사』 왜구 침략 연표 중세편 p.292~307

대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남해안인 경상, 전라를 지나 서해안인 충청, 평안, 함경도 해안지방은 물론 개경 부근의 강화도와 교동도 및 그 내륙에까지 침략하여 수도권의 치안을 위협하기까지 이르렀다. 한때 고려 조정은 수도를 한양³⁾, 철원⁴⁾, 충주⁵⁾ 등으로 옮기자는 천도론까지 제기됐을 정도였고, 고려멸망의 요인이 될 정도로 왜구 침입에 대한 피해는 매우 컸다.

왜구의 침입은 조선초기에도 계속되어 태조가 “국가의 근심거리 중 왜적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왜구의 문제가 심각했었다. 고려의 멸망과 이성계 즉위년인 1392년부터 1420년(세종 2) 대마도 정벌까지 28년 동안 129건⁶⁾의 왜구의 침략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알만하다. 세종은 조선초부터 유지해온 사대교린(事大交隣) 정책으로 대응하였고, 대마도 정벌 이후 대마도를 경상도의 일부로 복속하면서 계해조약(1443, 세종 25)을 맺어 삼포를 개항할 때 왜에게 통상의 권한까지 부여했다. 그럼에도 중종대에 오면 삼포왜란(1510년 중종 5, 4월)과 사랑진왜변(1544년 중종 39, 4월)으로 또다시 왜구의 약탈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조선 정부는 삼포왜란의 임진조약과 사랑진왜변의 정미조약 등을 통해 왜인들을 통제해 나갔다.

이런 통제정책으로 왜구들은 조선이 아닌 명나라를 침구(侵寇) 대상으로 삼게 되어 조선은 어느 정도 잠잠한 시기를 거치게 되지만 16세기부터 왜구는 다시 조선의 해안을 침탈하기 시작한다. 그 대표적 사건이 을묘왜변이다. 을묘년인 1555년 5월 11일 왜구들이 명나라 해안 쪽에서 침략행위를 하고 돌아오다가 전라남도 지역인 이진포부터 달랑포까지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고, 왜구의 퇴각 과정에서 6월 27일 제주까지 침략하였던 것이다.

제주는 이미 고려 후기부터 왜선과 중국 상선의 왕래가 빈번한 지정학적 요충지로 부각되고 있었고, 『고려사』의 원종 원년의 기록을 보면 “제주(濟州)는 해외의 큰 진(巨鎭)으로 송나라 상인들과 왜인들이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왕래하는 곳이니 특별히 방호별감(防護別監)을 파

3) 『고려사』 권39, 세가 권제39, 공민왕 6년 1월조, 壬辰 王如奉恩寺, 謁太祖眞殿, 卜遷都漢陽, 王探, 得靜字.

4) 『고려사』 권133, 열전 권제46 우왕 3년 5월조, 以京城濱海, 倭寇不測, 欲遷都內地. 會耆老尹桓等, 書動·止二字, 議可否. 衆雖心不肯, 恐後有變, 禍將及己, 皆占動字書名, 唯崔瑩否. 慶復興·瑩等, 詣太祖眞殿, 卜之, 得止字. 禍曰, “倭寇密邇, 可從卜耶?” 遣政堂文學權仲和, 相宅于鐵原, 瑩諫之, 事遂寢.

5) 『고려사』 권129 열전 권제39 간신 이인임조, 三年, 以京城濱海, 畏倭寇, 欲遷都內地, 議可否. 崔瑩以爲不可遷, 陳徵師固守之策, 仁任曰, “今赤地千里, 農夫輟耕, 望雲霓, 而又徵師, 使失農業, 非爲國之謀也.” 後仁任坐都堂, 議遷都曰, “今倭謀寇京都, 忠州去海遠, 四方道路適均宜, 預遷太祖眞于忠州, 以松都爲防戍之地.” 禍錄仁任·復興功, 教曰, “卿以功臣之後, 在先王時, 赤心素節, 歷仕中外.

6) 국방군사연구소, 1993, 『왜구토벌사』 왜구 침략 연표 근세편 p.307~312

견하여 비상시를 대비해야 한다”⁷⁾고 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지역이었다.

제주는 고려, 일본, 중국의 정세와 맞물려 나타난 왜구들의 침입로가 되었고, 또한 몽골의 직할지로 있으면서 일본과 남송 공략을 위한 전략기지로 활용되기도 했다. 조선에 와서도 일본 자국 내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있을 때마다 창궐하는 왜구에 대응해야 하는 군사적 요충지로서 많은 왜구의 침입에 대비한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했고, 지방관 파견에서도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차별적인 인사정책이 수행될 수밖에 없었다.

2. 왜구의 침략과 방어체계의 구축

제주에서 왜구의 침입은 『탐라기년』에 1316년(충숙왕 3) “왜구가 제주에 침입했다”는 기록이 처음 전하고 있다. 이후 을묘왜변이 일어났던 조선 명종때까지 약 250여년간 43차례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⁸⁾ 여말선초 육지에서의 왜구 출몰에 비한다면 많지 않다. 하지만 고려시

7) 『고려사』 卷25 世家 卷第25 元宗 元年 2월조, 二月 庚子 以濟州副使判禮賓省事羅得璜, 兼防護使, 朝議濟州, 海外巨鎮, 宋商島倭, 無時往來, 宜特遣防護別監, 以備非常.

8) 고려말 조선초 왜구의 제주 침입사례

일시	침입내용	출처
1	충숙왕3년(1316) 제주침입	탐라기년
2	충숙왕10년(1323) 6월 추자도 침입	탐라기년
3	충혜왕2년(1341) 왜적이 남쪽변방 침입	탐라기년
4	충혜왕3년(1342) 왜적이 700여척으로 침입	탐라기년
5	충정왕2년(1350) 왜적이 자주 침입하여 추자도 사는 사람들이 조공포로 옮김	탐라기년
6	충정왕3년(1351) 왜적이 귀일촌에 침입	탐라기년
7	공민왕원년(1352) 友浦(지금의 용수리)에 침입	남사록, 탐라기년
8	공민왕8년(1359) 大村(지금의 제주시)에 침입	남사록, 탐라기년
9	우왕2년(1376) 왜적 600여척이 온 섬을 돌며 침입	남사록, 탐라기년
10	우왕3년(1377) 왜적 200여척이 온 섬을 돌며 침입	고려사, 탐라기년
11	태조5년(1396) 추지도에서 적선 2척을 포획	태조실록
12	태종원년(1401) 왜구가 각지에 쳐들어와 노략질을 함	남사록, 탐라기년
13	태종4년(1404) 왜구가 고내와 명월을 노략질 함	태종실록, 탐라기년
14	태종6년(1406) 왜적이 차귀도에 침입	태종실록, 남사록, 탐라기년

대 왜구의 침입은 규모에서도 매우 컸고, 제주의 사회, 경제적 낙후성을 감안 한다면 피해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피해가 많았을 것은 유추할 수 있겠다.

병진(1376) 우왕 2년(명 홍무 9)

이해에 왜적 600여척이 주변을 돌다가 침입하자 성주 고신걸이 힘을 다해 방어하다가 화살에

일시	침입내용	출처
15	태종8년(1408) 왜적이 조공천으로 쳐들어 옴	태종실록, 탐라기년
16	태종8년(1408) 왜적이 추자도에 침입 배1척을 빼앗아 감	태종실록
17	태종9년(1409) 왜선 14척이 장산곶에 이르러 제주 등지에서 약탈한 부녀자 17명을 넘겨 줌	태종실록
18	태종13년(1413) 경차관을 호송하던 제주병선 1척이 왜구를 만나 싸우다가 침몰	태종실록
19	태종15년(1415) 왜적 15척이 제주에 침범	태종실록
20	태종17년(1417) 왜적 추자도 정박	태종실록
21	태종18년(1418) 왜적이 우둔과 우포 차귀 등지에 쳐들어 옴	탐라지초본
22	세종원년(1419) 제주상선 1척이 추자도를 지나다가 왜적에 포위	세종실록
23	세종6년(1424) 왜적이 제주에 침입	세종실록
24	세종12년(1430) 왜적선 1척이 침입, 섬멸	세종실록
25	세종13년(1431) 차귀도 서해에서 왜구들을 잡아 죽임	세종실록
26	세종15년(1433) 추자도 남쪽에서 왜구와 대결	세종실록
27	세종15년(1433) 병조에서 제주에서 나포한 왜구들을 신문한 후에 크게 징벌할 것을 아킴	세종실록
28	세종17년(1435) 제주에서 왜구를 잡아 공을 세운 자에게 상을 내림	세종실록
29	세종25년(1443) 제주공선이 돌아오다가 바람을 만나 정박 중 왜적선 2척과 항쟁	세종실록
30	세종32년(1350) 진무 김덕길 등이 왜선 5척을 추격하여 모두 잡음.	문종실록
31	문종원년(1451) 왜적이 들어와 노략질함. 안무사 이명겸이 이들을 공격하여 달아나게 함.	탐라지
32	세조9년(1463) 왜선 6척을 추자도에서 나포됨	세조실록
33	성종20(1489) 진상물을 실은 배가 추자도에서 왜적들에게 약탈당함	성종실록
34	성종21(1490) 제주인이 해도에서 왜적을 만나 의류와 식량을 약탈당함.	성종실록
35	성종25(1494) 왜적 4척이 추자도에 은거하면서 제주진상물을 약탈함.	성종실록
36	중종원년(1506) 김양보 등 5인이 제주에 유배, 방면되어 출륙하다가 왜적을 만나 살해됨	중종실록
37	중종4년(1509) 제주공마선적이 보길도 정박 중 왜구 5척과 격돌	중종실록
38	중종17년(1522) 제주 진상물 수송선이 왜적을 만나 살상	중종실록
39	명종7년(1552) 왜적이 천미천 침입	명종실록
40	명종9년(1554) 왜선 1척이 천미포, 비양도에 침입, 죽도에도 정박	명종실록
41	명종10년(1555) 왜선 40여척이 제주성 공격	명종실록
42	명종11년(1556) 왜적이 전도에 걸쳐 침공	명종실록
43	명종14년(1559) 제주에 왜적선 침입	명종실록

맞았으나 전력을 다해 끝내 물리쳐 퇴각시켰다. 조정에서 이를 가상히 여겨 특별히 호조전서를 제수하였다(『탐라기년』)

왜구가 배 200여 척으로 제주(濟州)를 노략질하니, 전라도수군도만호(全羅道水軍都萬戶) 정용(鄭龍)·윤인우(尹仁祐)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기다렸다가 배 1척을 노획하고 섬멸하였다. 우왕이 정용 등에게 옷 1벌씩을 내려 주었다. (『고려사』 우왕 3년 6월)

고려시대 제주의 대표적 침입이었던 우왕 2년(1376)의 왜구 600여척이 침략과 우왕 3년(1377)의 200여척의 왜선 침범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물리쳐 퇴각했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왜적 200여척의 침입에 적선 1척을 포획하여 모두 죽였다는 기록에서도 침입한 왜적 전체를 격파했다기보다는 방어의 차원에서 대응했음을 짐작케 한다. 그 외에도 왜적의 잦은 침입으로 추자도 사람들이 조공포로 읍졌다는 『탐라기년』의 기록도 보이고 있어 잦은 왜구의 침입에 대한 문제는 심각했음을 유추할수 있다.

이런 기록에도 불구하고 실제 왜구에 대한 방어시설 구축에 대해서는 1351년(충정왕 3)에 송악산에 봉수를 설치했다⁹⁾는 기록이 있지만, 이 외에는 확인이 안된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향파두리성과 환해장성은 삼별초와 관련된 방어시설로 남아 있는 것인 점을 감안하면 당시 왜구 침입에 대한 방호시설이 없음이 안타깝다.

조선 초기에 와서도 제주를 침입하는 왜구에 대한 문제해결은 제주에 병선을 추가로 배치하는 정도였다. 제주의 관방체계의 시작은 1416년(태종 16)에 기존 17개 현을 군현제의 체계에 맞게 3개의 읍으로 나뉘 마정, 군관 차정 등 목사와 판관, 현감의 역할을 조정하기 시작하였다. 세종 1년 대마도 정벌 이후에도 소규모 왜적 선단들이 제주해역을 기웃거리자 병조의 요청에 따라 왜구를 잡는데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승진¹⁰⁾까지 시켰다.

왜구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 조치는 세종 11년(1429)부터 下三道를 중심으로 연해 및 연안 지역에 에서 대대적인 성곽을 축성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이것은

9) 『고려사』 卷81 志 卷35 兵 1 병제조, 忠定王三年八月 置松嶽山烽火所.

10)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28일 무진조, 戊辰/兵曹啓: "濟州捕倭有功人內, 一等元職副司正陞司正, 學生授隊長, 二等學生授隊副, 三等及格軍, 各賜米二石、綿布二匹。" 從之。

왜구를 해안선에서 미리 차단하여 피해를 줄이고 백성들의 생활 터전을 보호하는 방어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¹¹⁾ 세조 3년(1457)에 오면 조선전기 국방체계의 근간인 진관체제를 확립시킨다. 진관체제는 행정조직 단위인 읍을 군사조직 단위인 진으로 동시에 편성하여 행정관인 수령이 군사지휘관의 임무도 겸임하도록 한 제도이다.

제주에서 방어시설 정비의 필요성은 세종 21년 처음 제주도 안무사 한승순의 장계에서 처음 논의되며, 중종 5년 장림목사에 의해 증설된다. 이후 을묘왜변, 임진왜란 등 대규모 침입 외에 잦은 왜구의 침입으로 제주의 관방시설은 3개 읍성과 9개 진성, 25개 봉수 38개소의 연대가 설치되었다.

세종 21년(1439) 당시 안무사의 보고내용을 보면 목사와 현감이 지휘하던 3읍성과는 별도로 군인들이 주둔했던 진성이라 부르는 9개의 방호소에 제주목 소관에 736명과 대정현 소관 131명, 정의현 소관 299명의 마보병(馬步兵)배치¹²⁾되어 있었다. 또한 방호소가 아닌데 왜구

세종시기 방호소 현황¹³⁾

읍성	방호소	馬步兵 배치사항	비고
제주목	守禦所, 左右所, 轟所	1,329	
	김녕	153명	
	조천	103명	
	도근천	144명	
	애월	144명	
	명월	192명	
대정현	성내 3곳	407명	
	차귀	75명	
	동해	56명	
대정현	성내 3곳	483명	
	서귀	124명	
	수산	175명	

11) 심정보, 1995, 한국읍성의 연구, 학연문화사, p.414

12) 『세종실록』 84권, 세종 21년 윤 2월 4일 임오조

13) 『세종실록』 84권, 세종 21년 윤 2월 4일 임오조의 내용 편집

의 정박이 가능한 곳에는 별도로 잡색군들 50~60여명 혹은 100여명까지 배치하였다. 그리고 통신시설인 봉수대가 22군데가 있어 봉군 5명씩 배치하고 있었다. 이로 볼 때 제주 전 지역을 돌며 나뭇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 때 제주도안무사 한승순이 올린 장계 내용을 보면 방어조직의 방향을 말해주고 있다. 장계에 의하면, 왜구침입을 위한 방어체계로서 제주목에 김녕, 조천, 도근천, 애월, 명월 등 5개소, 대정현에는 차귀와 동해 2개소, 정의현에는 서귀와 수산 2개소에 이미 방호소가 설치되어 있었고, 각 방호소마다 규모에 따라 馬·步兵이 배치되어 번을 나누어 방호하고 있었다.¹⁴⁾ 추가로 방호소 외에 왜선이 정박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公私노비와 각 소속의 正軍奉足 등 雜色軍人¹⁵⁾을 마·보병의 수에 따라 곳곳마다 5~60명 혹은 100여명을 정해서 나누고 번을 서서 방어로 하었다.

하지만 문제는 왜구 침입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일부 방호소는 위치 문제도 있거니와 정작 유리한 교전을 해야 할 성곽이 없었다는 것이다. 세종 25년(1443) 제주안무사가 보고했던 계문을 보면, “김녕방호소에는 우도가 있고, 명월방호소에는 차귀도가 있는데, 모두 다 적선(賊船)이 침범해 들어오는 곳입니다. 정의·대정 두 현 사이에 있는 서귀 방호소는 두 현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적선이 쉽게 들어와 정박할 수 있으니, 이 세 곳에 성을 쌓아 방어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라고 보고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후 9개의 방호소 중에서 먼저 김녕과 명월 2개소에 성곽이 축조되었다.

대대적인 성곽축조는 중종 5년(1510) 4월에 삼포왜란 이후 그해 9월 장림목사가 진성축성에 대해 건의하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중종때 증보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살펴보면, 세종대 9개소에서 13개의 방호소로 증설되고, 수전소 역시 13개소, 봉수는 세종대 22개소에서 23개소로 정비되었다는 기록을 볼 때 비로소 중종대에 제주도의 관방시설은 크게 확충되었고, 왜구 침입에 대한 해안방어의 시설이 어느 정도 정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14) 『세종실록』 84권, 세종 21년 윤 2월 4일 임오조

15) 잡색군은 조선 초기의 유사시에 향토방위를 맡은 예비군으로 전직 관료, 서리, 향리, 교생, 노비 등 각계각층의 장정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평상시에는 본업에 종사하면서 일정 기간만 군사 훈련을 받아 유사시 향토방위를 맡았다.

봉수 현황

출처	계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비고
도안무사 한승순 장계(1439)	22	10	5	7	
『신증동국여지승람』 중종25년(1530)	23	8	5	10	
『탐라지』(효종4년/1653)	25	10	5	10	
『탐라방영총람』(1760~1770 추정)	24	10	5	9	
『제주읍지』(1780~1789)	25	10	5	10	
『탐라지초본』(1841)	24	10	4	10	

그 외에 추가적으로 통신시설인 봉수도 고려시대부터 설치하여 운영되었다. 마찬가지로 봉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조선 세종 당시 도안무사 한승순이 올린 장계에서 보인다. 한승순은 제주목에 10개소, 대정현에 5개소, 정의현 7개소로 모두 22개소로 각 봉수마다 5명씩 나누어 배치하였다고 하고 있다.

이처럼 봉수대는 15세기부터 이미 갖추어져 있었다. 중종 25년(1530) 증수한 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 23개소의 봉수를 보면, 제주목 소관에 사라악, 별도, 원당악, 입산, 도도리악, 수산악, 고내악, 판을포의 8개소와 정의현 소관으로는 남산, 오음사지악, 여을운, 소수산, 지말산, 달산, 토산, 전월론, 호아촌, 삼매봉의 10개소, 대정현 소관으로는 송악, 모슬악, 차귀악, 굴산, 거옥악의 5개소의 봉수가 있다. 도안무사 한승순이 보고한 장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봉수의 현황이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세종 당시 봉수에서 1개가 더 추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을묘왜변 당시 왜구의 출입로였던 화북수전소는 성곽도 없이 전투에 임해야 했지만 별도봉수가 선초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아 나름의 역할을 했으리라고 본다. 진성은 임진왜란을 거친 이후에야 성곽 축성이 이루어지고 3개 읍성, 9개 진성, 25개 봉수, 38개 연대 체제로 갖추지게 된다.

3. 군사체계의 정립

제주에서 왜구 방어는 매우 큰 현안이었고,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주도민들의 역할이 매우 컸을 것이다. 제주의 군사체계는 행정체계와 일원화하여 제주에 침입한 왜구 방어를 위해서 별도의 무신 장군들을 파견하지는 않았다.

여기에는 섬이라는 여건과 왜구의 침입이 유리한 지리적 요충지로 인해 중앙의 관심사가 큰 지역이었다. 또한 오랫동안 독자적인 지위를 유지해 오면서 나타난 토호세력들이 중심이 된 사회적 구조를 감안할 때 조선의 지방통치제도인 군현제도로의 편입은 다른 지역과는 구분될 수밖에 없었다.

1429년(세종 11년)에 제주의 군정법이 육지와 같지 않다는 병조의 보고¹⁶⁾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앙에서 파견되는 수령들 외에 좌·우도지관 같은 지방토착세력들에 대한 군정을 재편성하고, 11월에는 제주자제에 대한 新甲士의 예에 따라 기사(騎射)와 보사(步射)를 시취하기 시작하였다.¹⁷⁾

수령을 파견할 때도 국경의 巨鎮이니 군민들의 책임을 겸하여 맡게 해야 한다는 인식이 컸다. 목사인 경우에는 목사겸첨절제사(牧使兼僉節制使)라든가 안무사겸목사(安撫使兼牧使), 병마수군절제사(兵馬水軍節制使) 등 상황에 따라 목사가 겸임하도록 하였다. 제주에 정3품의 목사를 파견하는데 있어서도 병조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경국대전』에 규정하여 제주 목사는 행정관이자, 군사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주목사에게는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례가 있었다.

제주는 현재의 전라도 소속 도지사 격인 전라 관찰사의 관할 아래에 있었지만, 제주 사회는 기존에 세습되어 오던 토관 세력들이 원 간섭기에 몽골에서 온 목호 세력들과 함께 절대적 권력을 누리고 있었다는 점, 몽골의 간접적인 지배와 목마장이 설립된 군사적 중요 지역으로 인식되어 있었다는 점, 국제적 여건에 따라 왜구의 침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16) 『세종실록』 45권, 세종 11년 7월 28일 임신조, 兵曹啓: "濟州軍丁之法, 與陸地不同。乞自今依陸地軍丁之例, 父爲正軍, 子壻爲奉足, 三丁爲一正軍。" 命下政府諸曹同議。

17) 『세종실록』 46권, 세종 11년 10월 16일 기축조 兵曹啓: "濟州子弟, 請依新甲士例, 試以騎步射, 一才中者授職, 其文算有能者, 吏曹試取敍用。" 從之。

위험성을 지닌 곳이었기 때문에 섬이란 여건으로 실질적인 관찰사의 감독이 어려웠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제도적으로 제주목사에게 관찰사의 역할을 상당수 위임해 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제주목사가 대정, 정의현을 포함하여 제주 전 지역을 통치할 수 있도록 관찰사의 직무를 대행하게 했다. 정2품에게 해당하는 관찰사, 즉 도지사에 준하는 감독권을 주었던 것이다. 신분에서도 3읍을 통치해야 하므로 반드시 당상관을 보냈던 것이다.

목사를 보좌하는 종5품의 판관인 경우에도 전례에 따라 중군(中軍)을 겸하도록 하였고, 상황에 따라 목사가 문관일 경우 무관으로 파견하기도 하는 등 문무교차하여 파견시켰다. 목사의 군사적, 행정적 성격을 함께 하다 보니 판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는데, 전국적으로 목사가 있는 곳에 모두 파견되었지만 영조대에는 제주를 포함하여 7개소만 남기고 모두 없어졌다는데서도 알 수 있다. 성격상 대정과 정의 현감 역시 감목관을 겸하도록 하여 마정을 살피고, 진관의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를 겸하도록 하여 군병을 지휘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조선은 비상시에 목사, 판관, 현감까지 모두 전투태세에 들어갈 수 있는 지휘체계를 갖추었다.

수령 지휘 아래에는 마정과 함께 방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주 토호세력인 좌·우도지관을 비롯하여 친호, 진무, 백호가 있었는데 3읍성과 진에 배치된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 제주 양민들이 시취를 통해 등용하고 있는 갑사들이 있었다. 갑사는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무장을 한 군사, 혹은 정병으로 통칭되는데, 조선 건국 초기에는 경중시위병(京中侍衛兵)을 전담하였다. 후대에 오면서 침략 등 대외적인 문제들이 생겨나면서 군현에 갑사를 두게 되었다. 하번갑사(下番甲士)인 경우에는 지방군현에 귀속¹⁸⁾되어 수령을 지원하게 된다. 을묘왜변 당시 큰 활약을 했던 갑사 김성조¹⁹⁾인 경우에도 하번갑사로서 진에 소속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 외 3읍과 방호소에 배치된 마보병(馬步兵), 왜선이 정박하기 쉬운 곳에 배치된 잡색군(雜色軍)들이 있었다. 마병과 보병들은 군역의무자로 편성된 정병(正兵)이며 마병은 곧 기병(騎兵)

18) 차문섭, 1995, 「선조의 갑사」, 『조선시대 군제연구』, 단대출판부 p. 43

19) 『명종실록』 19권, 명종 10년 7월 6일 무술조 濟州牧使金秀文狀啓: 六月二十七日, 倭賊無慮千餘人, 下陸結陣. 臣抄率驍勇軍七十人, 突入陣前, 相距三十步. 倭人中箭者甚多, 而尚未退兵, 定虜衛金直孫、甲士金成祖·李希俊、保人文時鳳四人, 馳馬突擊, 賊軍潰散. 有一倭將, 着紅毛頭具, 【盔也.】自恃其能射, 獨不退北, 正兵金夢根射中其背, 卽顛仆. 我軍乘勝追擊, 斬獲甚衆.

으로 유사시에 말을 타고 싸우는 군사라고 말할 수 있겠다. 잡색군은公私노비와 각 소속의 正軍의 군력을 돕는 奉足 등으로 별도 구성된 병졸이다.

1555년 을묘왜변 당시 왜구들이 화북포로 들어와 제주목 주성에서 전투할 때 제주목사 김수문을 비롯하여 군사 70명과 치마(馳馬)돌격대 등이 승전하였다는 기록은 방호소에 배치된 갑사와 기병들, 보병들의 활약을 전해준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군사적 전투의 기능보다는 통신의 기능을 주로 담당하였던 봉수에는 봉화가 있는 곳마다 별장, 망한과 봉군을 두어 밤낮으로 지키게 했다. 또한 적변이 있을 때에는 공사의 배 5~6척이 1대를 편성하고 노 젓는 병졸 4인, 사공 1인, 사관(射官) 2인을 배치하였다.

제주는 외부요인으로서 왜구 침략이 가장 큰 현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비롯한 수령과 토호세력, 도민 모두가 왜구침략에 대한 방어태세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4. 맺음말

제주는 일본과 중국을 오가는 중심에 있는 섬으로서 중국을 비롯한 왜와의 교류가 빈번히 있어 왔다. 하지만 14세기 이후부터 16세기 사이에는 일본 자국내의 정치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쓰시마를 중심으로 왜구의 온상이 되었고, 왜구들은 제주를 비롯하여 한반도 전반에 걸친 침략으로 사회문제가 되었다.

제주는 이런 정치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행정과 군사체계를 일원화하여 제주를 통치해 나갔으며, 왜구 침입에 대해서는 수령과 토호세력, 도민 모두가 방어체계의 중심이 되었다.

참고자료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경국대전』

『신증동국여지승람』

『증보문헌비고』

이원진 『탐라지』

김상헌 『남사록』

김석익 『탐라기년』

김일우, 2016, 「조선시대 제주 관방시설의 설치와 분포양상」, 『한국사학보』65, 고려사학회, p.298

심정보, 1995, 『한국읍성의 연구』, 학연문화사,

오수정, 2018, 「조선초기 제주 통치 체제 고찰」, 『제주도연구』50

오수정, 2019, 「조선전기 제주목사의 역할과 권한」, 『탐라문화』62

차문섭, 1995, 「선초의 갑사」, 『조선시대 군제연구』, 단대출판부

심정보, 1995, 한국읍성의 연구, 학연문화사,

『왜구토벌사』 1993, 戰爭紀念事業會 國防軍史研究所

「‘제주’ 을묘왜변의 재조명과 역사적 의의」에 대한 토론문

윤성익

경희대학교 강사

제주 을묘왜변은 발표내용에서 밝혔듯이 역사상 큰 의의가 있음에도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거의 고찰되지 못했다. 본 발표를 통해 홍기표 선생님은 그동안 거의 조명되지 못했던 제주 을묘왜변의 실상 및 그 관련 사실을 본격적으로 탐구하고 이를 통해 제주 을묘왜변이 갖는 역사상의 의미를 환기(喚起)시켜주었습니다. 아마도 이를 계기로 제주 을묘왜변이 더 널리 알려지고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기대와 함께 예상해본다.

다만, 제주 을묘왜변이 큰 의의를 갖는 만큼 그 구체적 사실을 규명하는 작업은 엄격하고 정밀할 필요가 있다. 홍기표 선생님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동의하지만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위해, 아울러 토론자로서의 의무를 겸해 몇몇 문제점 혹은 의문점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1. ‘제주 을묘왜변’ - 용어의 문제

○ 조선시대 대표적인 왜구사건(왜변·왜란)의 명칭은 지명+왜변·왜란.

예) 삼포 왜란·사랑진 왜변·천미포 왜란

○ 제주 을묘왜변 → ‘을묘 제주왜변’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2. 사료의 문제

1) 고려말·조선초 제주도의 왜구 기록은 『탐라기년』보다는 『남사록』·『탐라지』를 준거 사료로 사용하는 게 옳다고 여겨짐

- 『탐라기년(耽羅紀年)』(1918)의 ‘왜구’기록은 기본적으로는 이원진의 『탐라지』(1653년 편찬) 김상헌의 『남사록(南槎錄)』(1601~2의 일기, 1669년 간행?)에서 이용한 『지지(地誌)』의 인용 내용.
- 침구 지역은 『지지』 쪽이 더 상세

순번	왕대년	서기	침구지역	관련내용
1	충혜 후2	1341	旌義	
2	충혜 후3	1342	旌義(?)	왜선 7백여 척
3	충정 3	1351	貴日	
4	공민 1	1352	友浦	
5	공민 8	1376	大村	
6	우왕 2	서기		대거 침입

2) 제주의 지역기록에만 존재하는 내용을 어떻게 인식·처리할 것인가?

- 『지지』에 기록된 고려말·조선초 왜구 기록은 『고려사』·『조선왕조실록』에는 없는 내용.
- 이 내용들은 기존의 ‘왜구연구’에서는 이용되지 않았을뿐더러 기존의 여러 ‘왜구설’로는 설명하기 곤란
-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역사 연구에 이용할 것인가? 지에는 좀 더 깊은 고민·고찰이 필요함.

3) 사료에 기재된 ‘왜구의 침입’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는가? 어떻게 읽어야하는가?

- <표2>에서 ‘왜’·‘침입’의 실상 중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왜구’와 다른 경우도 존재.
- (23) 1540년(중종 35) 8월

“제주 목사 권진(權軫)의 계본(啓本)을 보니 ‘황당선(荒唐船) 1척이 동쪽 해상으로부터 본주(本州)로 향해 오기에 왜적이라 생각되어 즉시 본진(本鎭)의 수군과 육군을 정돈하고 달려가서 알아보았더니 기해년에 감자(柑子)를 진상하러 갔던 강연공(姜衍恭) 등 4명이었

다....”(『중종실록』 중종 35년 9월 18일)

○ (24) 1552년(명종 7) 5월

“이른바 왜인이란 자들은 절반이 중국인이고, 또 식량과 배를 애걸했으나 역시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억지로 접전했다.”(『명종실록』 명종 7년 7월 30일)

○ 남치근의 왜구 단속 관련(제주목사 : 1552년(명종7)~1555년(명종10))

“전에 제주 목사로 있을 때 왜선 5~6척이 당물(唐物)을 가득 싣고 풍랑을 만나 표류해와 정박했었는데, 왜인들을 전부 죽이고 금은 보화와 비단들을 공공연히 자신이 차지하고자 조금도 부끄러워함이 없었다.”(『명종실록』 명종 20년 11월 9일)

→ “제주도에 대한 왜구의 침략”으로 볼 수 있나?

4) 『탐라기년』에만 기록된 사실을 어떻게 고증·확신할 수 있는가?

○ 『탐라기년』의 근거자료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음.

○ 발표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당시 현실에도 다소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음.

3. 제주도를 침략한 ‘왜구’에 대한 의문

1) 달랑 왜변과 제주 왜변의 왜구는 동일한 본체인가?

○ 5월 13일 : 왜구가 달랑 포위

○ 5월 17일 : 왜선 2척이 나라도에 와서 정박, 이를 추격해 31명의 머리를 뱀 ← 달랑의 왜구와는 별개

○ 5월 19일 : 군량 30섬 요구. 김주의 계본, “너희 나라가 우리들과 교분이 매우 두터웠는데 요사이 3~4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죄도 없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으니 이제는 원수가 되었다.”

○ 5월 25일 : 영암 향교에서 크게 승리 → 왜구들이 배에 올라 도망

○ 5월 27일 : 왜선이 가리포에 정박, 28일 성안을 공격. 이후 회령포로 옮겨 감.

○ 녹도(鹿島)를 포위 공격, 포위를 푼 뒤에 왜선 28척이 금당도(金堂島)로 물러가 정박.

○ 6월 3일 : 이를 남치근이 추격, 26척은 먼저 패주. 남은 2척 중 1척은 버리고 도망.

- 6월 21일 : 왜선 40여 척이 보길도에서 바로 제주 앞 바다로 와 1리 가량의 거리에 닿을 내리고 정박 ← 금당도에서 패주 뒤 제주도로?

2) 조선에서의 왜구는 중국대륙의 왜구활동과 연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 1555년은 중국대륙에서 후기왜구가 극성을 보이던 시기. 주 활동지역은 일본열도-제주도와 항로상 연장선에 있는 절강성 일원.
- 제주도는 일본에서 출발한 (약탈 혹은 밀무역을 위한) 왜구의 선박이 통과하던 곳
→ 을묘왜변 전후 빈번하게 나타나는 왜선·황당선(荒唐船)
- 을묘왜변이 진행되던 때 중국대륙으로는 새로운 왜구(新倭)가 속속 도착하고 있었음.
→ 『명 세종실록』에는 기존의 왜구에 신왜(新倭)가 와서 합세하는 정황이 기록되어있음.
(가정 34년 4월 7일, 5월 1일, 5월 12일, 6월 12일)
- 당시 이 주변 해역에서 활동하던 왜구집단을 모두 단일한 본체로만 볼 것인가?
→ 전라도 연안에서 패주한 왜구가 약 20일간 그대로 머물다가 제주도로?
일본에서 새로운 왜구집단이 제주도를 습격했을 가능성은?
혹은 중국대륙에서 일본으로 가던 왜구가 제주도를 습격한 것은 아닐까?

4. 제주 을묘왜변에 대한 의문

1) 『실록』과 제주지방지 기록의 차이

- 전투 기간 : 『실록』으로만 보면 하루로 이해됨.
- 김수문의 장계 : “6월 27일, 무려 1천여 인의 왜적이 물으로 올라와 진을 쳤습니다.”
- 명종의 회답 : “지난달 27일의 승전(勝戰) 상황을 자세히 알게 되니”
- 전투의 승리 과정 : 지방지에는 “스스로 물러날 때를 기다려...”
→ 『실록』과 지방지의 기록 중 각각 일부분만을 골라서 사실로 채택하는 것은 곤란.

2) 김수문의 보고 및 을묘왜변의 전과

- 『실록』의 왜구 규모 및 대승의 내용은 김수문의 보고에 의함. 그 신뢰 가능성은?
- 을묘왜변의 구체적인 전과가 나타나지 않음. 반면 이후 김수문의 왜구 토벌(?) 전과는

매우 상세.

- 10년 9월 12일 : 54급.

- 11년 6월 14일 : 왜적을 사로잡아 목을 벤 것이 제주 33, 정의 31, 대정 33급. 왜 선박 4~5척.

- 11년 6월 15일 : 배 한 척 나포, 33급 참수.

- 11년 7월 15일 : 왜선 2척 나포, 75급 참수.

- 12년 7월 5일 : 왜선 26척 정박 ←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음.

3) 왜구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 발표문 : “전라도에 큰 피해를 주었던 왜구들이 영암성 공략에 실패하며, 철수하다 제주로 눈을 돌려 2차 공격을 해왔다.”

→ 왜구가 갑자기 조선 및 제주도를 침략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4) 제주 을미왜변이 이후의 ‘왜구’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제주’ 을묘왜변과 역사인물」에 대한 토론문

김익수

제주불교신문 대기자

을묘왜변, 왜구 침략을 격퇴한 잊어버린 제주 역사적 영웅들을 기억해야

1555년(조선명종 10) 6월 왜선 40척에 1000여 명의 왜구가 제주를 침략해왔으니, 바로 제주 을묘왜변이 일어났다.

왜구들은 1555년 5월 전라도 남해안 일대를 침략해 약탈과 노략질을 일삼다가 퇴각하던 중 제주를 재차 침략했다. 왜구들은 화북포로 상륙하자마자 곧바로 제주성으로 진격해 성을 포위하게 된다. 산지천 서안에 있던 제주성을 동성을 중심으로 3일간의 접전이 벌어졌다.

‘조선왕조실록(명종실록)’에 자세한 기록을 남겼다. 상륙한 왜적들이 진을 친 곳으로 김수문 제주목사가 날랜 군사 70여 명을 이끌고 선제공격을 가했다. 곧이어 김직손, 김성조 등 4명의 치마돌격이 왜적을 무너뜨렸고, 김몽근이 적장을 쏘아죽임으로써 왜적은 퇴각했다. 이처럼 명종실록에서는 제주 을묘왜변의 대첩에 대해 평민과 일반 군인의 이름까지 거명하며 그들의 활약성을 높이 평가했다. 역사의 기록은 1401년(태종1)부터 1555년 을묘왜변까지 약 30회에 이르렀다. 태종 때까지는 수십 척의 왜선이 침입했으며, 그들의 침입 범위는 광지, 고내, 명월, 죽도, 우포, 차귀 등 주로 북쪽 해안일대였다. 그러나 세종부터 명종까지는 왜선 1~4척으로 규모는 줄었지만, 침입범위는 대정현, 천미포 등 남쪽까지 확장되었다. 이들은 주로 해안가에 상륙해 민가를 소실하고 노략질을 자행하거나, 진상선을 약탈했다. 이때까지의 침범

은 단순한 약탈에 그쳤다. 그러나 제주 을묘왜변은 이전의 왜구 침략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왜선 40여척에 1000여 명의 왜구가 침략해 이전보다는 대규모 침략이었다. 게다가 그들은 해안가 약탈이 아니라, 제주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공방전을 펼쳤다. 따라서 이를 물리친 을묘왜변의 제주대첩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튼튼한 군사조직체계도 없이 지역공동체의 협력으로 왜구를 격파했다는 것이다.

제주성을 지킨 치마 돌격대가 아니었으면 과연 제주성은 온전히 살아 숨 쉬게 되었을까.

1000여 명의 왜구를 파격해 대승을 거둔 사건임에도 우리들이 접할 수 있는 이야기나 매체가 많지 않다. 남수각 다리 위에 격전지라고 표시한 표지석 하나, 그것도 잘 보이지 않은 곳에 외롭고 쓸쓸하게 자리하고 있다. 또한 을묘왜변의 대첩을 그린 벽화만이 을묘왜변이 일어났음을 알려 주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을묘왜변에서 활약한 치마돌격대의 김성조 건공장군에 대한 조명이 나주 김씨종친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연히 볼 수가 있다. 각종 스크랩을 비롯해 단행본으로 『김성조 건공장군의 행장(1982)』/ 나주김씨 제주도종친회, 『증보 탐라지』/제주문화원(2004), 『역주 탐라기년』김석익/제주문화원(2017), 『탐라인물고(심재집3)』/제주대탐라문화연구소(2011), 『제주선현지』/제주도(1988), 『새로 쓰는 제주사』/이영권(2012), 『을묘왜변의 영웅, 김성조』/박재형 등.

연구논문으로는 『문화자원활용 스토리텔링 조사사업』/ (사)제주관광학회(2013), 『을묘왜변과 의병장 양달사의 영암읍성 수성』/노기옥 등.

도내 일간지 기고문으로는 <제주일보 2011.8.4.>향토수호의 상징물을 제대로 세우자/ 김정택, <제주일보 2015.7.13.>하나를 보면 열가지를 알 수 있다/ 김정택, <제주문학 2021.4.21.>다리 위에 표석/ 김정택, <한라일보 2021.5.4.>500년 전 제주에는 무슨 일이?/ 문영택, <제주일보 2021.5.12.>詠史 何處安表石/東韻 /김순택, <제주일보 2021.6.16.>獻贊 건공장군 김성조/灰韻 김경국, <제주일보 2021.6.22.>격전지 표지석을 바라보면서 /김익수, <청년회홈피 2008.4.6.>제주도 방어와 김성조 장군의 공로 / 김정택 등이 기고되고 있음을 찾아 볼 수가 있다.

또한 2021년 2월부터 건공장군 현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나주김씨인충공파종친회 산하에서 발족하고 범시민운동으로 확대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건공장군의 존재와 공헌을 알리

는 콘텐츠 구축과 홍보작업을 시작하기로 하다. 이에 따라 김성조 장군 관련 연구방법과 그 실행계획을 보면, 문헌조사를 비롯한 현장답사(전적지,묘소,비석, 생가터 등 관련 유적지를 중심으로 답사). 민간에 유포된 김성조 장군의 활동상, 전설, 기마돌격대 4 인과 김몽근의 인물추적, 제주도 외 지역의 사례와 연구업적, 진영, 학술세미나 등이다.

김성조 장군의 생가터와 묘소, 엄쟁이(엄장리), 고내봉 나주김씨인충공파 성역, 을묘왜변 전적지 순례, 남수각 동쪽 구릉-신산모루, 고으니모루, 동문성밖(동초교-여상고), 제주읍성: 산지천 성터, 북수구 홍문터, 오현단, 남수각, 화북포, 화북진터, 사라봉 봉화대, 제주관아의 망경루 등이다.

이처럼 을묘왜변의 영웅들 4인의 치마돌격대! 정로위 김직손, 갑사 김성조, 이회준, 보인 문시봉 용사와 왜장을 사살한 正兵 김몽근을 찾아나서 현장사업 추진해오고 있다.

우리가 매일 보고 지나치는 제주성과 남수구터에는 그날의 치열한 전투를 이끌었던 치마돌격대의 도전과 용맹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역사는 말하고 있다. 제주성 승전의 역사에 대한 기억과 기념의 반복은 한 사회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 공동체를 유지시켜주는 중대한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는 사실말이다.

잊혀진 역사를 새롭게 일깨우고 역사문화자원으로서 높이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제주가 세계 평화로 상징되면서 군.민 합심으로 승전한 을묘왜변은 평화 정책에 기여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역사문화자원화와 콘텐츠 개발에 관심을 확대시켜나가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같은 을묘왜변을 겪었던 영암에서는 영암읍성을 비롯해 의병 영웅 양달사 일대기를 스토리텔링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서 양달사 의병장 동상을 제작건립하고, 양달사 장군배 전국 궁도대회를 개최하고 영암성 대첩 기념일을 지정, 영암읍성 보존운동 전개, 장군의 붉은 깃발 공연 등 콘텐츠 발굴사업들이 관이 앞장서 전개하고 있다.

을묘왜변 제주는 대승을 거두고 있었음에도 김성조 장군을 비롯한 치마 돌격대에 대한 콘텐츠 개발사업은 미미하다. 먼저 치마돌격대들이 전적지의 길(순례길)을 지정해서 역사의 체험 길을 조성해야 한다.

(김성조 장군의 생가터와 묘소, 엄쟁이(엄장리), 고내봉 나주김씨인충공파 성역, 을묘왜변 전적지 순례, 남수각 동쪽 구릉-신산모루, 고으니모루, 동문성밖(동초교-여상고), 제주읍성:

산지천 성터, 복수구 홍문터, 오현단, 남수각, 화북포, 화북진터, 사라봉 봉화대, 제주관아의 망경루)

그 다음에 3 가지 문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지역에서부터 초등교육과정에 편성해 자라는 학생들에게 충의와 애국심을 불어 넣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지역 언론은 기획물이나 심층보도를 통해서 지역의 역사를 발굴 조명하고 전문적인 논평을 통해 제대로 민의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할 것이다. 묻혀진 역사적 기록을 파헤치고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셋째 행정적으로는 민의 힘이 역부족할 때 이를 지원하고 뒷받침이 되어 현창사업이 범도 민운동으로 전개시켜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조선전기 왜구와 제주의 방처체계」에 대한 토론문

강문규

前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소장

을묘왜변은 1555년(명종 10) 6월 27일 왜구 1천여 명이 40여척에 나눠 타고 화북포로 들어와 제주읍성을 포위하며 발발한 전쟁이다. 이에 김수문 목사와 김성조 등 장수들로 구성된 특공대가 왜구들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대승을 거두는 전사(戰史)를 남긴 전쟁이라 할 수 있다.

본 토론은 을묘왜변이 제주에 끼친 역사 문화적 영향과 그 가치는 무엇이며, 이러한 유·무형적 유산을 어떻게 복원·활용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을묘왜변의 승전은 전공(戰功)을 세운 관리와 장수들에게 각각 특진의 영예를 안겨주었고, 큰 공을 세운 김수문은 1556년 겨울 연희각 동북쪽에 망경루를 건립함으로써 제주목관아의 중요한 유적을 물려주는 등 제주역사에 자랑스러운 자취를 남겼다.

그러나 왜구의 침입이 이어지면서 제주읍성의 취약성을 보강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0년 뒤인 1565년 광해 목사 때에 동성(東城)을 확장하는 등 대대적인 읍성확장과 성문 등의 진지구축에 나서게 된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읍성의 방어체계를 강화하면서, 성안으로 끌어들이는 산지천의 이용편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백성들의 생활안정은 물론 읍성내의 경관을 크게 일신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을묘왜변 이후 새로 갖추어진 주요 방어유적을 살펴보면 광해 목사 때 동성을 확장하며

동문(東門:제충루)과 장대인 운주당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1599년(선조 32) 성윤문 목사의 제이각(制夷閣)과 산지천을 동서로 연결하는 남·북수구의 축조, 1780년 김영수 목사에 의해 간성 남북의 2문(소민문, 수복문) 등이 새로 세워지게 되었다.

이들 방어유적들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며 대부분 훼손되었으나 근래 제이각의 복원에 이어 운주당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 등이 이루어졌다. 아쉬운 부분은 남·북수구에 관한 복원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유적은 일제강점기인 1927년 홍수로 무너지기 전까지만 해도 원형 그대로 잘 남아 있었으며 이는 여러 사진과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남수구가 위치해 있던 자리에는 1990년대 중반 제주시가 오현교를 건설했는데 언론에서 남수구의 옛 모습을 살려 디자인한 교량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사성도 살리지 못한 채 세워져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일본 동경대 공학박사로 일본 문화재건물보존기술협회 이사를 지낸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亥治郎, 1899~?)의 제주여행기를 소개한다. 이 자료는 1923년 4월 조선총독부 문화재 담당 건축기사로 제주에 내려온 뒤 도일주하며 문화재 답사에 나섰던 기록으로 1980년대 후반 오사카에 있는 탐라학회지인 ‘탐라(耽羅)’에 발표한 내용이다.

그는 산지천의 홍예교(북수구)와 남수각 안경교의 형태를 보고 중국은 물론 조선 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건축양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음을 토로한다. 그는 곧바로 줄자를 갖고 측량에 나선 결과 단형 아치교(북수구)는 길이 25척, 너비 12.5척이며, 안경교(남수구)는 길이 30척, 너비 11.5척, 높이 17척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처럼 북수구(홍예교)와 남수구(쌍안교)에 관한 자료는 실측자료는 물론 사진까지 남아 있어 복원을 위한 고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해 오랫동안 문화재에 관한 업무경력과 식견을 갖고 계신 오수정 발표자에게 남북수구의 복원에 관한 절차와 가능성은 없는지 견해를 듣고 싶다.

끝으로 북수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축조되었는지에 관한 설화(『健入洞誌』, 2000년 刊)를 소개하는 것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북수구는 연중 흐르는 산지천으로 인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이 때 신씨 성을 가진 한 석공이 나서 나무 300단만 마련해 주면 한번 돌다리를 세워보겠다고 나섰다. 그것을 목사가 들어주자 나뭇단을 산지천에 깔더니 열나흘 만에 완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나무단을 쌓아 나뭇가지 사이로 물이 빠지도록 함으로써 석축공사를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목사는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경복궁 주춧돌 다듬을 걸 절도(絶島)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칭찬하며 상급을 주었다고 한다. - 스토리텔링 자료로 활용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주제3〉

역사문화자원의 문화원형 및 콘텐츠 발굴

좌 장 : 문순덕(제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발표7 : 영암읍성의 원형 추정과 문화유산 활용방안

성대철(재단법인 전남문화재연구원 건축문화재연구소장)

발표8 : 제주을묘왜변의 역사문화자원화

현혜경(제주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토론7 : 송태갑(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관장)

토론8 : 김형훈(미디어제주 편집국장)

영암읍성의 원형추정과 문화유산 활용방안

성대철

재단법인 전남문화재연구원 건축문화재연구소장

1. 영암읍성의 연혁 및 변천

읍성(邑城)은 고려시대에 서북쪽의 거란과 동북쪽의 여진을 주요 방어 대상으로 하여 고려 시대 전기부터 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동여진의 동해연안으로 침범이 잦아지고 이에 다른 연해읍성의 축성이 필요하게 되었다.¹⁾ 이후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극심한 왜구의 약탈로 연해읍성의 축조가 이어지게 되었으며, 『世宗實錄』 「地理志」에 충청도 15개소, 경상도 27개소, 전라도 20개소, 황해도 4개소, 강원도 6개소, 평안도 16개소, 함길도 8개의 기록이 남아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당시의 행정구역 330개소에서 읍성이 있는 곳은 160개소이다. 『輿地圖書』에는 334개의 행정구역 중 읍성이 있는 곳은 107개소로 수록되어 있다. 『經國大典』에서는 지방의 성보(城堡)를 읍성(邑城), 산성(山城), 행성(行城)으로 구분하였다. 읍성이라는 용어는 고려시대까지는 사용되지 않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비로소 사용되었는데, 치소(治所)가 위치한 성을 지칭하는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영암읍성(靈巖邑城)에 대한 문헌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암읍성과 관련된 최초 기록은 1435년(세종 17)의 『세종실록』에 보이는 이 기사로 볼 수 있

1) 沈正輔 1994, 「高麗末·朝鮮初의 下三道 邑城 築造記事 檢討」, 『石堂論叢』第20輯, 東亞大學校 石堂傳統文化研究院.

다. 이 기록에서 영암읍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라도의 예를 들면서 의금부 도사 민건에게 명하여 실상을 조사하게 한 내용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 금성일기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읍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자료로 볼 수 있다.

실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전라도 감사가 이르기를 ‘축성군(築城軍)으로서 도망한 자에게는 일수(日數)에 따라 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앞서 함길(咸吉)·충청(忠淸) 양도(兩道)의 축성군으로서 도망한 자는 모두 율문(律文)에 의하여 죄를 결단하여 이미 한 격례(格例)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전라도에서 일수에 따라 돈을 징수하고 있다는 것은 他例에 어긋남이 있다.’하고 즉시 의금부도사 민건(閔騫)에게 명하여 가서 실상을 조사하게 하였다.”²⁾

이러한 임금의 명에 의해 1435년 2월 12일에 민건이 영암(靈巖), 만경(萬頃)의 건 중 영암읍성에 대해서 “당시 조정에 보고하지 않고 읍성을 퇴축(退築, 성을 넓혀 쌓는 것) 과정에서 도망간 축성군(築城軍)과 부역 군인(賦役軍人) 중 도망가자고 주도한 자와 역군(役軍)을 통솔하는 패두(牌頭)와 통주(統主)를 조사하는 일로 나주에 왔다.”는 기록이 『錦城日記』에 있다.³⁾

〈표 1〉 문헌기록에 나타난 영암읍성의 규모 및 구성

출전	둘레 (尺)	높이(尺)		여장 높이 (尺)	적대	성문	웅성	여장길이 (尺)	성내 우물	연못	성내 건축물	해자길이 (尺)
		평지	고처									
문종실록	4,369	12.0	9.0	3.0	6	3	0	639	2	0	-	미착
동국여지승람	4,369	15		-	-	-	-	-	4	-	-	-
여지도서	4,369	15		-	-	-	-	1025	4	2	5	-
영암군지도 (1872년)	-	-		-	-	3	-	-	-	1	15	-

2) 『世宗實錄』67卷 1月 30日 壬人 3번째 기사 “全羅道監司啓, 上曰 前此咸吉忠淸兩道築城軍逃者, 皆按律科罪, 已成格例, 今全羅道追日徵錢, 有違他例, 卽命義禁府都事閔騫, 往覈之”.

3) 『錦城日記』“乙卯(1435년) 二月初七日(世宗大王十七年) …宣德十年二月二十日施行, 義禁府都事前宣務郎司憲監察閔騫, 道內靈巖萬頃, 築城形止審檢, 同靈巖城子乙, 啓聞不冬破取退築辭緣推考事, 及赴役軍人內, 首唱逃亡人果, 領役牌頭統主等推考事, 二月十二日入州”.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영암읍성은 1435년(세종 17) 이전에 축성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435년에 퇴축하여 성곽 규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이후 문종실록에서는 전라도 각 고을의 성자(城子)를 조사해보니 모두가 규칙(規式)에 맞지 않아 그대로 둘 고을, 물려서 쌓아야 할 고을, 개축을 요하는 고을로 나누어 보고하고 있다.

또 이 기록은 영암읍성의 규모에 관한 최초의 기록으로 볼 수 있다.

“議政府에서 兵曹의 公文에 의하여 아뢰기를, ‘충청·전라·경상도 都體察使 정문(鄭某)의 啓本 안에 전라도 각 고을의 城子를 순행하여 審察하니 애당초 법에 의해 쌓지 않아서 모두가 規式에 맞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그대로 둘 고을과 물려서 쌓아야 할 각 고을과 또 모르지기 改築을 요하는 각 고을을 마감하여 삼가 갖추어 보고합니다. 그대로 둘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략) 영암군읍성은 주위가 4,369尺, 성의 높이가 평지는 12尺, 높고 험한 지대는 9尺, 女牆의 높이는 3尺, 敵臺가 6개소, 문이 3개소인데 甕城이 없고, 여장이 639, 샘이 2개소, 海子[壕子]는 아직 파지 않았습니다. ……’.”⁴⁾

위의 내용처럼 정문이 하삼도의 읍성을 살피고 문종에게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영암읍성은 규격에 맞게 쌓아진 성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성종대(1470~1494)에 편찬된『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는 읍성이 석성이고 둘레가 4,369척, 높이가 15척, 성안에 4개의 우물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⁵⁾ 영조대(1725~1776)에 편찬된『여지도서(輿地圖書)』에서도 석성으로 기록되었으며, 둘레 4,369척, 높이 15척으로 동일하고 치첩(雉堞) 1,025, 성내에 연못 2개소, 우물이 4개, 건축물 5동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었다.⁶⁾ 또 1899년에 작성된『全羅南道靈巖郡邑誌輿地圖冊(전라남도영암군읍지여지도책)』에서는 공해(公廨)조에서 객사, 아사, 향사당, 훈련청, 군사의 5동이 그 위치와 함께 기록되었고, 성지(城池)조에는 연지(蓮池) 둘

4) 『文宗實錄』9卷 1年 8月 21日 丙戌 5번째 기사“議政府據兵曹呈啓, 忠淸全羅慶尙道都體察使鄭某本內, 全羅道各官城子巡行看審, 初不依法築之, 皆不合規式, 其中仍舊各官, 與須要改築各官, 磨勘謹具以聞, 仍舊, ……靈巖郡邑城, 周回四千三百六十九尺, 城高平地則十二尺, 高險處則九尺, 女牆高三尺, 敵臺六, 門三無擁城, 女牆六百三十九, 城內泉二, 海子未鑿……”.

5) 『東國輿地勝覽』卷35, 영암군, 성곽“邑城 石築 周圍四千三百六十九尺, 高十五尺, 內有四泉”.

6) 『輿地圖書』, 전라도 영암군, 성지“邑城 石築 周圍四千三百六十九尺, 高十五尺, 雉堞一千二十五 內有二池四井”.

레 470척, 덕곡지(德谷池) 둘레 210척, 적후지(赤後池) 둘레 200척으로 기록되어 명칭과 규모를 함께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록들을 정리해 보면 영암읍성의 규모는 둘레 4,369척, 성문은 3개로⁷⁾ 初築 이후로 증감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성벽의 높이와 여장길이, 연못의 개수 등은 변화가 있었으며 해자는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2009년 시굴조사⁸⁾에서 해자가 확인된 점으로 보아 初築 이후 어느 시점에서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또 후대 1899년 기록에서는 또 연지와 함께 덕곡지, 적후지라는 연못이 3개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해 건물에서 객사, 아사, 향사당, 훈련청, 군사의 5개만 기록되어 공해 건물 중 당시까지 5개의 건물만 잔존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이 책에 함께 수록된 지도에서 아사, 객사, 군기, 사창이 표현되어 공

〈그림 1〉 전라남도영암군읍지여지도책 공해조, 성지조공해(객사, 아사, 향사당, 훈련청, 군사)와 읍성 규모 등 기록



7) 한국학회 1983, 『한국지명총람 15-전남편』, 영암읍 서남리의 지명을 보면 “북문터 - 동헌터의 북쪽에 있는 영암 읍성의 북문터(p.279)”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영암읍성의 성문이 4개가 있었다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문헌에서는 북문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었는데, 지명 유래에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다른 성문과 혼동한 것인지 아니면 후대에 건축된 성문이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8) 全南文化財研究院, 2011, 『靈巖邑城-시굴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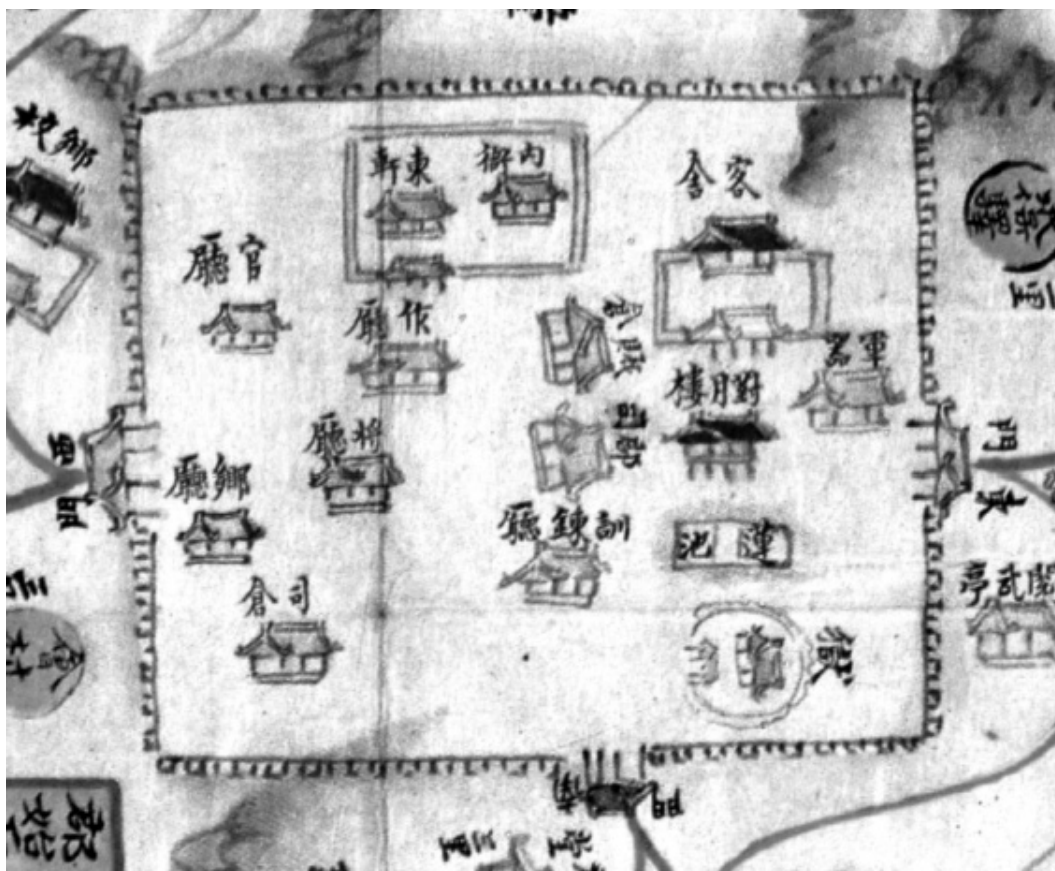
해조의 기록과 차이가 있으므로 중요 건물 5동만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실재한 건물이 기록상으로 확인된다는 점이다.

2. 영암읍성 관련 기록 및 문헌

가. 고지도 고찰

영암읍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고지도는 광여도, 여지도를 비롯하여 약 6종류가 된다. 그러나 1872년 지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원형으로 동일하게 표현되었고, 내부 시설물도 간단하게 표

〈그림 2〉 1872년 영암 고지도 중 영암읍성 읍성 부분



현되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해동지도의 경우는 내부 공해 건물에 대해서 객사와 아사 동헌 정도만 표기되어 매우 간단하다. 이에 고지도 중에서 가장 상세하게 표현된 1872년 영암군 지도를 살펴보았다.

- 전체적인 읍성의 형태는 동서방향이 남북방향보다 다소 긴 방형이며, 성문은 동문과 서문, 남문 3개소가 표현되어 고문헌상의 기록과 동일하며, 다른 지도와도 동일하다.
- 성벽에는 여장이 설치된 것으로 보이며, 성벽의 일부가 돌출된 부분이 없이 모두 직선으로 구성되었다.
- 읍성 내의 건축물은 우측에 객사(客舍)와 대월루(對月樓), 연지(蓮池)가 축을 이루는 듯 보이며, 연지의 남쪽으로는 원형의 옥(獄)이 서향으로 출입문과 함께 표현되었다. 담장이 원형으로 표현되었다.
- 중앙부 상부에는 동헌과 내아가 함께 담장으로 둘러져 있고, 동헌 앞으로 문이 표현되었다. 대월루와는 달리 단층 팔각지붕의 표현이다. 이 앞으로 바로 작청, 장청, 관청, 향청이 있고, 가장 밑 남쪽에 사창이 있다. 이들은 모두 동헌과 같은 남향을 하고 있으나 축선은 일치하지 않고 있다.
- 동헌 영역의 우측에는 서향을 한 진창(賑倉)과 군사(郡司)가 있고, 이 밑으로 훈련청(訓練廳)이 남향으로 위치한다. 이 세동의 건물은 동헌과 객사의 중간 위치로 볼 수 있다.
- 크게 객사 영역과 동헌 영역으로 나누어 볼 때 객사의 축과 동헌의 축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객사 영역의 축은 객사와 대월루, 연지가 되고, 동헌의 축은 작청, 장청이 되며 이 두 영역의 사이에서 진창, 군사가 위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읍성 내 가장 중요하고 상징이 되는 객사와 동헌이 중심축이 되어 읍성 내에서 객사 영역과 동헌 영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고지도의 영암읍성 표현



광여도 읍성부 확대
성문 3개소, 객사, 아(衙), 창(倉) 표현, 간략하게 표현, 체성 원형 표현



여지도 읍성부 확대
성문 3개소, 객사, 아(衙), 창(倉) 표현, 간략하게 표현, 원형 표현



지승 읍성부 확대
성문 3개소, 객사, 아(衙), 창(倉) 표현, 광여도, 여지도와 거의 유사



해동지도 읍성부 확대
해동지도: 성문 3개소, 객사, 아(衙), 창(倉) 표현, 거의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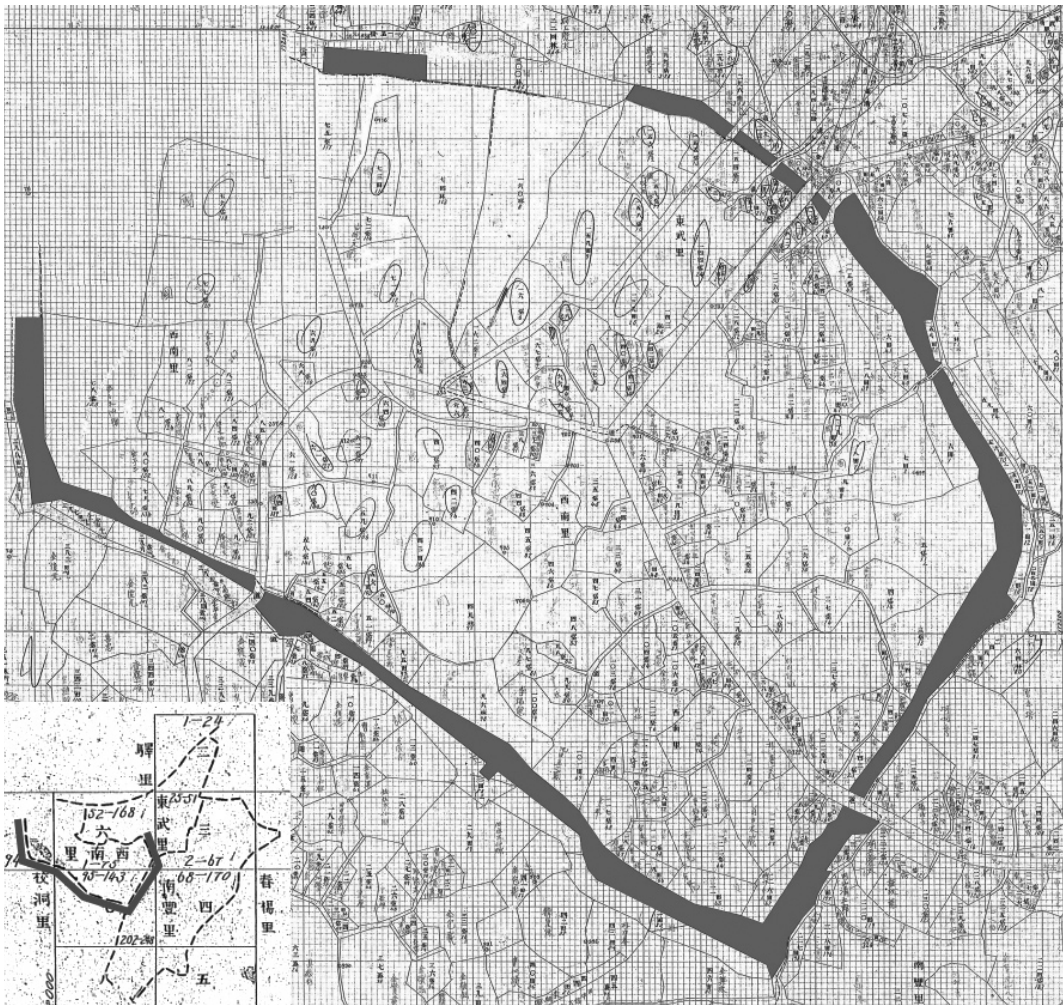


호남지도 읍성부 확대
다른 지도와 달리 군기의 표현되었으며, 객사 위로 산의 표현이 있고, 아사는 산의 좌측으로 표현

나. 지적원도 고찰

지적원도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령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영암읍 주변은 1916년(대정 5년)에 제작된 것이다. 현재 영암군청 주변은 영암읍 동무리인데, 동무리의 지적원도는 서남리(西南里 外二里)로 표현되었고, 여기에 서남리, 동무리, 남풍리의 총 3개리의 지적도가 함께 표현되었다. 여기에는 소유자를 비롯하여 영암읍성의 ‘성(城)’의 표현이 지목으로 정확하게 표현되었으며, 이를 연결하면 영암읍성의 전체적인 형태를 알 수 있다. 또한 북서쪽 부

〈그림 3〉1915년 지적원도상 ‘성(城)’ 표현과 지역 경계



분에서는 산으로 표현되어 토성이나 산과 연결되었던 흔적을 알 수 있다. 이 산은 현재 영암군청 뒤쪽에 있는 산으로 지형을 이용하여 당시에도 자연스럽게 성벽이 연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적원도에서는 소유자와 지적 형태, 지목이 함께 표현되었는데, 특이하게도 국유지[國]에는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일본인 조사자들의 표기의 가능성도 있지만 확실치 않고 다만 일반 대지와 확실한 구분이 되는 점은 분명하다. 또 성벽 부분에는 ‘성(城)’이라고 표현되었다. 현재 군청은 동무리 159번지인데, 당시 국유지였으며, 아래에 158번지 등과 주변 대부분이 모두 국유지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국유지는 대부분이 대규모이고, 북쪽 부분에 대부분 군집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국유지는 대부분 관아 건축물과 관련지를 수 있는데, 특히 현 군청 부지는 객사터로 전하고 있으며, 그 외에 동헌과 형방청 등의 위치가 전하고 있다. 대부분 국유지가 관아터로 변화되었

〈그림 4〉1954년 읍성 주변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



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지적원도상의 '리'의 경계와 성벽이 일치하는 구간이 일부 확인된다. 서문이 위치는 남서벽과 서벽, 그리고 최남단의 회절부에서부터 남문이 위치하는 남동벽과 북동벽의 일부까지이다. 이렇게 성벽이 리의 경계가 되는 것은 경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때까지만 해도 성벽의 좌우를 구분지어 경계로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지적원도상의 성벽은 성벽 추정선으로 보이며, 다만 그 너비가 다양한 점은 지형에 따라 하부는 토성으로서 완만한 구릉을 이루기 때문에 그 하부 구릉을 포함할 경우 너비가 넓게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영암읍성의 경우 남문지 주변이나 현재 공원으로 정비된 부분은 지표에서부터 성벽 지대 석까지의 높이 차이가 약 7~8m까지 나는 곳도 있어 지표에서부터 성벽까지 상당한 경사면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과거의 항공사진에서도 이러한 지형은 확인할 수 있다. 즉 지적원도에서 확인되는 성의 너비는 실제 체성의 너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넓은 경우는 체성부 아래의 지면까지를 포함한 너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면 부분은 성벽 내부의 내탁부를 표현했을 가능성도 있다.

3. 영암읍성 현황

가. 북동벽 구간

동문지를 포함하는 성벽의 북동방향의 일직선에 가까운 구간으로 군청 뒤쪽에서 현재 공원으로 조성된 구간이다. 일부 구간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조사지역에서만 성벽이 확인되고 있다.

발굴조사에서 체성의 직각방향으로 돌출된 치(雉)가 확인되었는데, 성돌은 매우 크고, 잡석지정을 하였으며, 지대석은 성벽보다 약 100mm 돌출하였고, 지대석의 전면으로 퇴박석이 너비 1.2m 정도로 깔려있다. 이러한 방식은 치 외에도 조사 구간 대부분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 치 구간은 지적원도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지적원도와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910년대의 조사에서는 내탁 또는 외탁처럼 흙에 덮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군청 우측의 의회 건물 주변에서는 성돌로 추정되는 석재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석재는 크기가 매우 크고 외부쪽으로 면이 고르게 잡혀있으며, 상하부가 대게 편평하여 축대 등으로 사용하기에 적당하기도 하다. 또 부분적으로 거뿔게 불에 그을린 흔적도 확인된다. 현재 군청 배면은 지형상 레벨이 높고, 성벽이 무너졌다면 아래로 굴러갔을 가능성도 있어, 성돌을 이용해 조정석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나. 남동벽 구간

남문지를 포함하는 구간이고, 전체적으로 거의 직선에 가깝다. 성벽의 너비가 부분적으로 일정하지 않지만 남문지 주변에서는 비교적 동일하다. 지적원도 상에서는 일부 돌출된 부분도 있으며, 남문지에서는 외부쪽에 웅성의 모양처럼 동그랗게 입구를 돌아가는 형태도 확인



〈그림 5〉 북동벽 구간 성벽(발굴조사 확인, 직상방향)



〈그림 6〉 북동벽 구간 치(雉) 상태(직각방향 돌출)



〈그림 7〉 의회 청사 동쪽 외부 주차장 부분 석재 1



〈그림 8〉 의회 청사 동쪽 외부 주차장 부분 석재 2



〈그림 9〉 남동벽 구간 성벽 상태



〈그림 10〉 남동벽 구간 외벽 상태



〈그림 11〉 남동벽 구간 내벽 상태



〈그림 12〉 동벽구간 치(雉)

되어 웅성의 존재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성벽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구간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고, 현재 영암경찰서와 삼거리 교차로가 형성되었고, 새롭게 도로도 신설되면서 상당수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성벽 중 잔존 상태가 가장 좋고, 석재가 크며 웅장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구간이다. 남동벽 외벽은 지대석 상부로 2~3단 정도 잔존하고 있으며, 큰 석재의 경우 너비가 1.2m가 넘고, 높이는 약 60cm로 상당히 큰 편이다. 읍성 영역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토성 상부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안정성을 위하여 가장 큰 석재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동벽의 구간과 동일하게 지대석은 약 150mm 돌출되고, 이 위로 성벽을 쌓아 올렸으며, 2~4단이 잔존하고 있다. 입면의 잔돌끼움방식이나 지대석 외부의 퇴박석 드는 거의 동일하다.

다. 남서벽 구간

이곳은 성벽의 최남단인 남동벽과 남서벽이 직각으로 교차하는 부분에서부터 서쪽방향으로 연결되는 곳이다. 서문지를 포함하며, 거의 직선에 가깝다. 서문지는 지적상으로 볼 때 현재 구 KT 건물이 있는 부근의 도로상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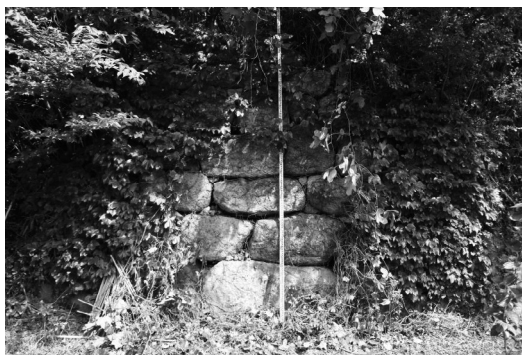
성벽이 잔존하는 구간이 일부 있으며, 대부분 훼손되었다.

외벽은 성돌과 성돌 빈틈에는 부정형 석재를 이용한 잔돌끼움쌓기 방식이 확인된다. 교동리 387번지의 성벽은 최대 12~13단에 약 5~6m까지 잔존하고 있어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하지만 이곳은 2001년에 군비를 들여 약 35m 가량을 복원 정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남서벽 회절부 구간에는 성돌에 글씨가 새겨진 각자성석(영암읍 교동리 2-6번지)이 확인되며, 서벽으로 회절되는 영암읍 교동리 388-1번지 주변 구간에 치(雉)로 추정되는 시설물이 위치한다.

라. 서벽 구간

범위는 남서벽의 회절부에서부터 북벽이 꺾이는 부분까지이다. 이 부분은 학교산 정상부를 지나는 성벽으로 남서벽 회절부인 영암읍 서남리 126-1번지 주변일대에서 신동아빌라 뒤쪽으로 있는 영암정수장으로 가는 도로 뒤쪽의 북벽으로 회절하는 구간인 영암읍 교동리 산 1-2번지까지이다.

성벽이 잔존하는 구간은 서벽 회절부에서 영암정수장까지와 영암정수장에서 북벽으로 회



〈그림 13〉 남서벽구간 성벽 상태



〈그림 14〉 남서벽구간(영암읍 교동리 2-6) 성벽



〈그림 15〉 가옥 축대로 이용 성벽 흔적(교동리 386-2) 〈그림 16〉 주변 복원 성벽(교동리 387)

절하는 구간까지 확인된다. 서벽 중앙부에 위치하는 영암정수장(교동리 산1-10번지)이 조성되면서 모두 훼손되었다. 또한 영암정수장을 약 50m 정도 못 미쳐서 1970~80년경에 영암천주교성당 뒤쪽 부근에서 회문리·송평리 쪽으로 넘어가는 너비 약 5m의 성벽(교동리 388-1번지)을 절단해서 길을 내었으며, 현재 이곳은 시멘트로 만든 군사용 참호가 한쪽에 구축되어 남아있다.

성벽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면서 정상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다리꼴 형태로 흙으로 덮여 있는 상태이며, 하단부에서 성돌로 추정되는 석재가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마. 북벽 구간

범위는 남서벽 회절부인 영암도서관 뒤쪽인 영암읍 서남리 126-1번지 주변에서 영암공원 현충탑을 지나 영암군의회 청사 뒤편 구릉까지이다.

성벽이 잔존하는 구간은 영암군의회 청사 뒤편에 위치하는 영암공원 내에서 일부만 잔존하며, 영암정수장에서 회절부까지 토성 일부가 해자로 보이는 넓은 구덩이도 확인된다. 그 외 북서쪽 등은 아파트가 조성되고, 민가가 도시화 되면서 모두 파괴된 상태이다.

성벽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면서 정상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다리꼴 형태로 흙으로 덮여 있는 상태이며, 하단부에서 성돌로 추정되는 석재가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성벽의 높이는 약 1-2m 정도 잔존한다.



〈그림 17〉 북벽 구간 일부, 성벽 위로 가옥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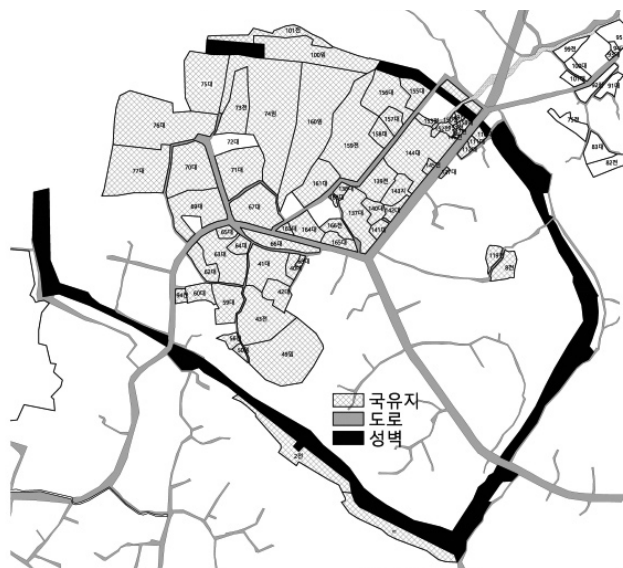
〈그림 18〉 지적선과 현재 지적선의 일치하는 성벽 추정 구간



〈그림 19〉 정수장 옆 토성부분 현황 토성부분



〈그림 20〉 북벽 아래부(남) 토성 상부 너비 약 6m 토성, 석성 혼합, 상부면 편평, 반듯이 이어짐



〈그림 21〉 지적원도상 성벽의 표현 및 국유지 현황

(검정색은 지적도상으로 성(城), 정확한 성벽 구획, 성벽 너비가 다른 것은 성벽 하부의 지형 등의 표현)

북벽의 일부구간에서는 과거 지적선과 현재의 지적선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곳은 성벽 상부에 바로 가옥을 건립한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영암군청 배면(현재 공원) 산에서 연결되는 곳으로 도로에 의해 성벽이 단절되었다.

4. 관아건축의 고찰

가. 객사 영역

객사는 전패(殿牌)와 궐패(闕牌)를 안치하고 초하루와 보름에 향궐망배하는 한편 사신의 숙소로도 사용한 읍성 내에서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건물이다. 대개 건물은 중앙 정청과 좌우 익랑을 두었고, 하나의 단일 건물로 구성된 곳도 있었다.

1872년 지도에 표현된 객사는 삼문과 대월루, 연지가 축을 이루고 있다. 대월루의 기능을



〈그림 22〉 객사터(159번지) 주변 지적원도

구전에는 158번지가 객사라고 하지만 너무 좁은 듯하고 159번지 이 앞으로 139, 143(연지)가 축을 이루고 있음. 빗금문양은 국유지 표시



〈그림 23〉 1872년 지도 중 객사 부분

객사-삼문-대월루-연지가 축을 이루고 있음
삼문과 대월루 사이에 군기(고) 위치로 볼 때,
144번지 가능성 있음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도상의 누문의 형태로 보아 객사의 정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읍성 내 객사나 동헌 등의 출입문이 삼문과 중삼문, 누문으로 구성되는 일반적인 형식이며, 나주읍성 내 금성관의 정문인 망화루와도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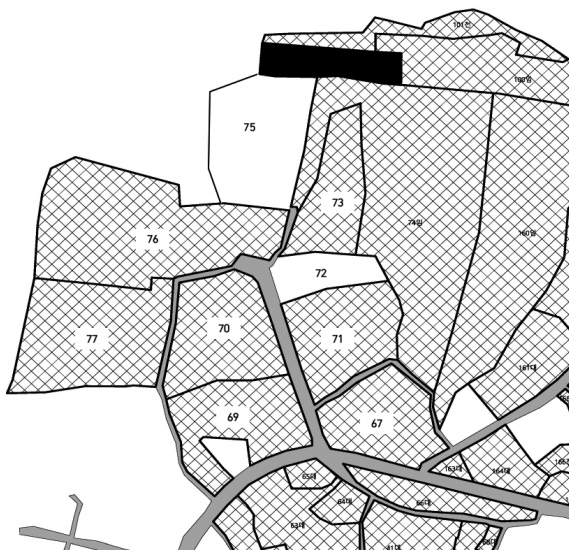
그리고 지적원도에서 143번지가 연지로 확인되므로 연지의 위쪽으로는 대월루가 위치할 것이며, 이 위로 객사 영역을 추정할 때, 143번지 연못, 139번지 대월루, 159번지가 객사 영역으로 보인다. 또 1872년 지도에서 객사 삼문과 대월루 사이의 우측에 군기(軍器)가 표현되었는데, 지적원도상에 143번지와 139번지의 우측으로 144번지는 국유지이면서 객사터 만큼의 큰 부지이기 때문에 군기고의 위치로 추정된다.

객사 정면 대월루의 좌측(서쪽)에 있는 진창과 군사, 훈련청 등의 부속건물들은 동헌쪽을 정면으로 서향하여 객사보다는 동헌에 가깝게 배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객사 전면의 도로가 서쪽으로 연결되고 다시 동헌앞 도로와 서문에서 오는 도로와 연결되므로 67번지, 164번지, 165번지 등에 부속건물이 배치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를 고지도에서 서향으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

나. 동헌 영역

동헌터는 75번지로 전해지고 있다. 이 대지는 지적원도에 의하면 남북방향이 장축이며, 76번지는 동서방향이 장축으로 동헌과 내아가 함께 있는 고지도의 표현으로 볼 때 76번지가 동헌터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도상의 동헌과 내아가 북쪽 성벽에 바로 접하고 있어 가장 안쪽인 75번의 가능성도 있다.

75번지와 아래의 76번지, 77번지, 70번지, 69번지 주변의 모든 대지가 국유지이고, 서문에서 연결되는 도로에서 북쪽방향으로 다시 연결되는 것으로 볼 때 동헌 아래의 부속건물들이 이곳에 집주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작청이 70번지로 전하고 있는데, 지도에서의 작청은 동헌의 삼문 바로 아래 부분이므로 75번지는 또는 76번지가 동헌터였을 가능성은 높아진다. 고지도의 표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군사(郡司)는 67-3번지, 형방청은 75번지로 전하고 있다.



〈그림 24〉 동헌 주변부 지적원도

동헌터(75) 구전, 75번지는 남북방향 장축이며, 76번지는 동서 방향이 장축으로 동헌과 내아가 함께 있는 고지도의 표현으로 볼 때 76번지가 동헌터의 가능성이 높음



〈그림 25〉 1872년 지도 중 동헌과 부속건물들

동헌과 내아가 나란히 담장에 의해 구획되었고, 이 앞으로 작청, 장청, 사창 등이 배치되고 관청, 향청이 서문에 가깝게 자리함

5. 영암읍성의 활용 및 보전

가. 문화재의 지정

문화재는 그 지역의 역사를 알려주고 지역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역사문화 유산으로서 지역 문화의 중심에 있다. 문화재를 공개·활용하는 것은 방문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방문자가 과거의 역사 및 문화를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설치하는 정비계획뿐만 아니라 물리적 시설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영암읍성의 경우는 상당수 도시화가 진행되어 전체적인 흔적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성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고, 공해 건축물의 원 위치 정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에서는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하였으며, 이중 “기념물”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으로 이로 볼 때 읍성은

기념물에 해당된다.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현재 “읍성”으로 지정된 문화재 사례는 37건으로 문화재의 종류로는 사적, 기념물, 문화재 자료가 있다.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개보수 비용의 지원이 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문화재 주변 지역의 현상변경의 제재가 가장 크다. 사유재산에 대한 건축행위 등에 관련된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문화재 주변 경관이나 환경을 보호한다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시도 지정문화재에서는 300m(도시지역은 200m)를 한계로 잡아 구역별로 나누어 건물의 높이나 층수 등의 제한사항을 두고 있다.

광주읍성유허(광주광역시 문화재자료)의 경우 읍성의 일부 구간 약 50m 정도의 성벽 구간만을

〈표 3〉 문화재로 지정된 읍성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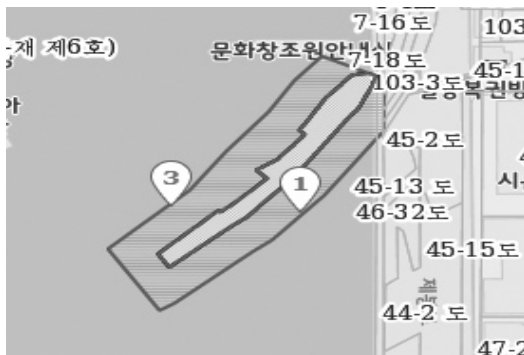
	종목	종목	종목	지정일	지정일	수량/면적
1	사적	경주읍성	고려시대	1963-01-21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성지	45,496㎡
2	사적	서산 해미읍성	조선시대	1963-01-21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성지	196,381㎡
3	사적	고창읍성	조선시대	1965-04-01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성지	199,972㎡
4	사적	울주 언양읍성	조선시대	1966-12-27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성지	89,990㎡
5	사적	홍성 홍주읍성	조선시대	1972-10-14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성지	110,991.5㎡
6	사적	단양 적성	신라	1979-07-26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성곽	64,879㎡
7	사적	남원읍성	조선시대	1982-11-03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성지	33,307㎡
8	사적	순천 낙안읍성	조선시대	1983-06-14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성지	223,070㎡
9	사적	나주읍성	고려시대	1990-10-31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성지	58,982㎡

	종목	종목	종목	지정일	지정일	수량/면적
10	사적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조선시대	1991-02-26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성지	129,349㎡
11	사적	포항 장기읍성	조선시대	1994-03-17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성지	120,520.8㎡
12	사적	하동읍성	조선시대	2004-05-31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성지	165,461㎡
13	부산 기념물	동래읍성지	조선시대	1972-06-26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성지	103,647㎡
14	충남 기념물	남포읍성		1976-01-08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성곽	86,528㎡
15	제주 기념물	대정성지	조선시대	1971-08-26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성지	일곽
16	경남 기념물	창원 웅천읍성		1974-12-28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성지	일곽
17	인천 기념물	교동읍성	조선시대	1995-03-02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성곽	1곽 / 5,958.7㎡
18	전남 기념물	흥양현읍성		1978-09-22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성곽	일원
19	부산 기념물	기장읍성	고려시대	1996-05-25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성곽	12,003㎡
20	경남 기념물	거제 고현성	조선시대	1979-05-02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성곽	23,679㎡
21	경남 기념물	창녕 영산읍성지		1983-08-06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성지	9,322㎡
22	충남 기념물	당진면천읍성		1993-12-31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성곽	16,954㎡(10필)
23	경기 기념물	수원고읍성	고려시대	1986-09-07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성곽	일원
24	경북 기념물	청도읍성		1995-01-14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성곽	6,570㎡
25	경기 기념물	안산읍성및관아지		1991-10-19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성지	일원
26	경남 기념물	사천읍성		1994-09-26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성곽	4,395㎡
27	충남 기념물	홍성 결성읍성		2004-04-10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성곽	11,913㎡
28	경남 기념물	밀양읍성		1997-12-31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성곽	75,746㎡(4필)
29	충남 기념물	태안읍성	조선시대	2020-09-10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성곽	63㎡
30	전남 기념물	강진읍성	조선시대	2005-07-13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성곽	92,533㎡
31	광주 문·자	광주읍성유취		1994-04-13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성지	일원
32	경남 문·자	고성읍성		1983-12-20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성지	32,060㎡
33	충남 문·자	서천읍성		1984-05-17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성곽	일원
34	충남 문·자	비인읍성		1984-05-17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성곽	일원
35	충남 문·자	한산읍성		1984-05-17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성곽	일원일원
36	전남 문·자	진도읍성	조선시대	1987-01-15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성곽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설정하였다. 반면 고성읍성, 대정읍성지와 같은 경우 성벽의 전체 구간이 확인되어 읍성 전체 구간을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일부 구간은 다시 보호구역으로 설정함을 알 수 있다. 진도읍성의 경우 역시 도시화로 인한 읍성의 훼손으로 일부 구간만

을 지정구역으로 설정하였다. 지정구역은 현상변경허용기준안과 관련하여 도시화로 인한 읍성이 훼손된 경우, 지정구역은 가급적 축소하고 기준안에 의해 건축행위가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림 26〉 문화재지정 구역과 보호구역읍성 전체 지정/ 일부 구간만 지정한 사례



광주읍성유취



고성읍성



경주읍성



대정읍성지



사천읍성



진도읍성

나. 읍성의 복원

1) 복원과 재현

영암읍성의 가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시설물이 있다면 이곳에 대한 역사적 장소로서의 정보만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을 상상하여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성문은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성문은 성을 통과하는 출입구이므로 현재의 위치로 볼 때 대부분 도로 위에 위치한다. 이 때문에 성문의 복원은 도로 체계의 변화가 수반되며, 성벽없이 성문만을 복원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 한편 나주읍성의 남문의 경우 발굴조사를 통해 1993년 복원되었는데, 원래의 위치에서 약간 이동하여 회전교차로 형으로 복원하여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영암읍성의 경우 동문, 남문, 서문 3개의 성문이 확인되는데, 동문의 경우 상가와 민가가 밀집해 있고, 정비를 위해서는 약 15필지 정도의 한 블록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서문의 경우 KT 건물 남쪽 도로의 사선으로 성문이 위치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주변 민가가 밀집하고, 도로 변화가 심하여 원래 모습대로의 성문 복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남문의 경우는 경찰서삼거리 교차로 상부가 남문지로 추정되므로 나주읍성 남문처럼 회전교차로 형태로 성문을 복원하기에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발굴조사나 도로 체계



〈그림 27〉 나주읍성 남문
(회전교차로형)



〈그림 28〉 남문 추정지



〈그림 29〉 남문 주변 항공사진

를 바꾸기 위한 충분한 조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하여 고고학적 조사가 필요하며, 정확한 위치를 찾는다 하여도 도로체계의 변화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2) 디지털 복원 및 전시

“디지털 복원”이라는 것은 물리적 복원이 아닌 가상적 복원의 총칭으로서 충분한 고증조사나 직접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추정 복원안을 컴퓨터 그래픽이나 가상현실로서 구현해 내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 복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문화유산의 옛 모습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유산이 존재했던 현장 속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최근에는 휴대기기를 이용한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이나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증강현실은 물리적 세계위에 정보를 덧입히는 것으로 오늘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으며, 가상 현실은 헤드셋을 통하여 가상 세계 안에서 감각을 몰입할 수 있는 경험적 구현의 모습이다.

디지털 복원은 과거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재현 가능하므로 과거 영암읍성의 모습을 표현하여 관람객에게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영암읍성 디지털로 복원하는 것은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고증자료의 한계에 따른 건물지 복원의 한계가 수반되므로 일부 직접 복원대상 건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지는 디지털 복원을 통해 과거의 모습을 재현하여 오류를 시정하는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다.

사이버 광주읍성 홈페이지나 청주읍성에서는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대국민 서비스와 광주읍성을 안내하고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모형을 전시하는 것이다. 나주시의 나주목문화관에는 나주목사의 부임행렬과 나주읍성의 전체적인 모습을 모형으로 전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모형은 개별 건물의 모습이나 양식 등에 대해서는 자세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모습이나 큰 윤곽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도시화가 상당히 진행된 영암읍성의 경우 현재 도시의 모습과 영암읍성의 모습을 함께 표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림 30〉 청주읍성 3D 디지털 복원영상 객사 및 누각(홈페이지 제공)



〈그림 31〉 나주목문화관 내 나주읍성 모형전시, 나주목사 부임행렬 (모형 전시)



〈그림 32〉 광주읍성 절양루와 읍성 전체 모형(광주역사민속박물관, 개별 건물과 읍성 전체 모형)

다. 프로그램 운영 사례

1) 성돌찾기 운동

청주시와 청주문화원, 청주문화사랑모임, 서원향토문화연구회, 충청북도문화유산연구회 등이 주축이 되어 용두사지철당간 광장에서 청주읍성 재현, 성돌모으기 선포식 및 시민참여

성돌 쌓기 퍼포먼스를 펼치면서 행사를 시작한다.

부대행사로 성돌 답사, 성돌 사진전 등을 통해 성돌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한편 청주읍성 주변 주택가 및 상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성돌찾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남 순천시 도시재생총괄주민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조선시대(1430~세종)에 옛 도심을 둘러싼 순천부읍성의 상징화 사업을 위해 당시 성을 구성하던 돌(성돌)을 모으는 운동을 진행하였다. 성돌 모으기 운동을 통해 지역 화합과 도시재생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700년 순천부읍성의 남아 있는 마지막 흔적을 도시재생에 활용한 사례이다. “순천부읍성 성돌을



〈그림 32〉 광주읍성 절양루와 읍성 전체 모형(광주역사민속박물관, 개별 건물과 읍성 전체 모형)

찾습니다.”, “순천부읍성 성돌을 찾는다 전해라!” 등의 현수막을 걸고 성돌 기증자 이름과 기증 장소를 새긴 동판을 설치하고 기증식을 개최해 참여 시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2) 지역 역사문화 축제

부산 동래읍성에서는 동래읍성 역사사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이 행사는 ‘1592년 조선, 동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동래부사 부임행사를 재현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행사가 있다.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 전투를 재현한 야외 뮤지컬 행사도 개최되어 대규모로 진행된다. 축제



〈그림 34〉 동래읍성 축제(임진왜란시 전투장면 재현)



〈그림 35〉 청주읍성 축제(청주성 큰잔치(청주성 탈환 기념))

는 1592년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을 지키기 위해 송상현 동래부사와 동래읍성민들이 일치단결하여 결사 항전하던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실제의 긴박한 전투상황을 재현하고, 조선시대 동래장터재현 등 읍성민들의 생활상을 직접 체험케 하는 역사교육·체험형 축제이다.

청주에서는 청주성 탈환기념 ‘청주읍성 큰잔치’가 진행된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청주읍성 시민퍼레이드인데 이는 임진왜란 당시 청주의 의승병들이 힘을 모아 왜군에게 함락됐던 청주성 탈환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양한 단체, 동아리, 시민들의 행렬로 이루어진다.

현재 영암군에서는 ‘영암 군민의 날 행사’가 있고 지역 축제로는 ‘왕인문화축제’, ‘영암 벚꽃 축제’등이 있다. 읍성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영암성 대첩’이나 ‘양달사 장군’등을 감안할 때 군민의 날 행사에 영암성 대첩이나 양달사 장군을 기리는 행사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군민의 날’행사는 군민의 화합과 출향민의 애향심을 고취하는 것으로 읍면 대항의 운동이나 수상 등이 있다. 여기에 영암군 도포면 출신의 양달사 장군과 영암성대첩 관련 행사를 포함하여 청주읍성이나 동래읍성과 같이 전투 장면의 재현이나 퍼포먼스를 추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6. 결론

읍성은 조선시대 지방통치의 거점으로써 문화와 행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개항 이후 강점기에 접어들며 수많은 읍성들이 강제로 헐렸으며, 이후 근대화를 거치면서 도시구조의 변화로 인해 상당수 사라졌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읍성은 335개소의 행정구역 중 96개소이며, 이중 전라도에서는 20개이다. 그러나 현존 읍성은 소수이다.

영암읍성의 경우 문헌기록에서 둘레는 4,369尺, 높이는 15尺, 4개의 우물이 공통적으로 확인되며, 가장 상세하게 표현된 1872년 영암군지도에서는 성문 3개, 연못 1개, 건물 15동이 확인된다.

1916년의 지적원도에서 성의 정확한 구획과 형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의 지적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당시 국유지는 관아건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국유지는 대부분 읍성 내에서 북동쪽에서 군집을 이루며, 대지의 규모도 대규모이다. 특히 객사와 대월루, 연지는 축을 이루고 있으며, 고지도에도 표현된 이 연못은 지적원도의 143번

지에서 ‘지(池)’로 표현되어 실재했음을 알 수 있다. 고지도의 표현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이다.

지적도상의 성은 두께에 의하여 체성 너비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성벽 너비 외에도 하부 지형이나 내탁부를 포함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이러한 지형은 내탁부의 표현 또는 지형상의 구릉까지도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정확하게 치 부분이나 일직선으로 표현된 경우 정확한 성벽의 너비를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성문 부분에서 출입구 바깥쪽으로 둥그렇게 감싸는 형태는 성문을 보호하는 옹성으로 추정되며, 동문과 남문에서 표현되는 점으로 볼 때 주출입이나 상징이 되는 문이 동문과 남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읍성의 규모에 대해서는 문헌상의 기록인 4,369척을 포백척으로 환산하면 1,997m이며,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읍성 둘레길이는 2,010m로 기록과 큰 차이는 없다.

내부의 관아건축물은 크게 객사영역과 동헌 영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두 중심 건물이 각각의 축을 이루며 중심이 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객사영역에서는 객사와 누문 형식의 대월루, 연지가 축을 이루며, 동헌영역은 내아와 동헌으로 구성되고, 남쪽으로 부속건물이 있고, 객사영역과 동헌 영역의 사이에 일부 부속건물이 자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벽의 축조양상은 지대석 위에서 성벽을 들여쌓았으며, 지대석 바깥쪽으로는 너비 1.5m의 퇴박석을 설치하였고, 성벽에서는 잔돌끼움쌓기를 한 내탁식 쌓기이다. 이는 전라도 지역의 일반적인 축조방식과 유사한 것이다. 또한 정확한 명문은 확인되지 않지만 각자성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사례의 경우처럼 주변 지역민을 동원하여 축성을 한 것도 짐작할 수 있다.

영암읍성은 현재까지 몇차례의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조사 구간이 일부에 한정되었고 전체적인 모습을 확인하기에 아직 많은 한계가 있다. 도시화로 인한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이와 함께 영암군 출신 양달사 장군과 관련된 스토리텔링이나 영암성 대첩을 활용한 콘텐츠는 영암군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읍묘왜변의 역사문화자원화¹⁾

현혜경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1. 역사문화자원의 콘텐츠란 무엇인가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관심은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지방의 고유성 혹은 정체성에 기반을 둔 지역개발이 강조되면서 주목되었다(제주도·제주연구원, 2021).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접근하게 되면서 문화산업과 콘텐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이때 역사문화자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탐색이 있어왔지만 오늘날까지 역사문화자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통일되게 정리된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역사문화자원의 개념과 범위가 논의되고 있다.

대체로 역사문화자원의 개념은 역사자원과 혼용하거나 역사·문화자원과 같이 역사 및 문화 등을 포괄하는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인류사회의 발전과 관련된 의미 있는 과거 사실들에 대한 인식이라면 ‘문화’란 각 사회의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는 생활양식의 총체이자 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발전시켜온 정신적, 물질적 총

1) 이글은 완성된 글이 아니므로 인용을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합이라고 보았을 때, 과거 생활의 총체적 접근을 위해서는 역사문화란 말이 형제처럼 들리게 되는 것이다.²⁾

박진문(2012)은 문화는 세대 간의 지속적인 전달과정을 통해 진화의 과정을 거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누적되어 나타나는 것이 역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인간의 생활 및 경제 생산에 이용되는 물적 자료 및 노동력, 기술 등을 일컫는 ‘자원’이란 개념이 이들 ‘역사문화’에 붙여졌을 때, 역사문화자원은 역사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보편성과 특수성 외에 활용성(예: 심미성, 경관성, 장소성, 도시조직 등) 등이 주요 특성으로 반영되는 것이다. 박미선(2018)은 역사문화자원은 ‘전통의 발굴’과 ‘현재적 활용’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역사문화자원은 사람이 일정 시·공간 안에 거주하면서 나타나는 고유한 특색의 궤적이 자원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공동체의 공감대와 동질감을 형성하여 시간이라는 변화 요소에 의해 발전, 소멸, 대체의 과정을 거치는 유기적 자원으로 설명된다(이은진, 2015: 12).

현실에서 한 공동체의 역사문화적 요인을 구성하는 자원들은 문화재(cultural properties) 또는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로서 문화재보호법 등에 의해 지원과 관리를 받는다. 현재 한국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의하여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근대건축물과 산업유산 등을 역사문화자원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이처럼 역사문화자원의 범위는 대체로 자원적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유형과 무형의 자원으로 우선 분류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시 세부 분류로 들어가서 학자들에 따라 경관자원, 전통역사자원, 근대역사자원, 문화자원, 경제자원, 무형자원 등으로 분류하는 경우(오세경 외, 2001; 오세경, 2002), 문화재, 전통사찰, 박물관, 전통문화자원 등으로 분류하는 경우(부산발전연구원, 2011), 문화재, 무형자원, 유형자원, 자연자원 등으로 분류하는 경우(공자원, 2011) 등, 다양한 분류와 구분이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조광호(2017)는 역사문화자원을 시간적, 공간적, 인적 자원으로 범주화 하여 장구한 시간이 축적된 일정한 공간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삶의 흔적을 강조하여 인적 요소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에드워드 베네트 타일러(Tylor, E.B)는 문화 또는 문명이란 제 민족의 양식을 고려할 때 한 사회의 구성원이 갖는 법, 도덕, 신념, 예술, 기타 여러 행동 양식을 총괄하는 것으로 정의함(이은진, 2015).

2. 역사문화자원과 콘텐츠의 발전

세계적으로 역사문화자원화와 콘텐츠의 발굴은 근대 국가의 성립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근대국가는 17~19세기 유럽에서 형성된 이후 세계로 확산되어 20세기 후반기에 전 세계의 정치조직의 근간이 된 하나의 통치형태이다(강상규, 2007).

이 근대국가가 성장하고 안착하는 데에는 수많은 전쟁의 상흔과 피해가 있었다. 근대국가는 이전과는 다른 몇 가지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기반으로 기존 정치형태를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국민정치형태 실현하는데 물리적 힘(폭력), 주권, 영토, 관료제 등등 새로운 체제들을 만들어냈다(조지프 알 스트레이어, 박은구 옮김, 1982; 크리스토퍼 피어슨, 박형신 옮김, 1997). 따라서 많은 근대국가들은 전쟁 속에서 탄생하고 성장하고 변화하였다(잔프랑코 쏫지, 박상섭 역, 1995; 박상섭, 1996).

국경을 기반으로 지정학적 실체를 가지게 된 근대국가는 내부의 균질적 공간화를 그리고 외부에 대해서는 동일한 위상의 다른 국가의 존재를 전제하면서 주권을 가진 개인들의 국민화 혹은 국민통합을 위해 새로운 체제와 수많은 구현물들을 갖추어 나갔다.³⁾ 또한 근대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치른 전쟁과 희생에 대한 기념은 근대국가 형성의 타당성을 부여하는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거의 대부분의 근대국가들은 근대국가 건설을 위해 희생된 사람들을 기념하는 기념묘지와 공원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는 1864년 육군 장관의 명령에 따라 군사묘지가 되었는데, 1864년 남군 포로가 처음으로 이곳에 묻힌 이후 독립전쟁 때 죽은 몇몇 장교들을 비롯해, 미국이 참전한 모든 전쟁에서 죽은 병사들의 시신이 이곳에 안치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의 묘지는 각 나라마다 산재하고 있다. 한국에도 현충원을 비롯하여 지역마다 충혼묘지가 있고, 이들의 희생을 기념한다. 또한 근대국가의 정체성 형성에 이념적 근간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과거 전쟁과 인물에 대한 기념화와 콘텐츠화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1, 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인류는 근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과 야만성을 목도하면서 반성적 사고의 시대와 함께 근대국민국가가 저지른 전쟁의 기억을 재해석하고

3) 최갑수(<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77XX61300184>) 참조

그것을 문화적 기억으로 구현하고 새로운 담론을 미래세대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홀로코스트, 5·18민주화운동, 4·3사건 등의 사례들도 여기에 속한다.

한편으로 후기 자본주의시대에 접어들면서 문화산업의 성장이 괄목할 만큼 성장하였는데, 이 성장은 크게 3가지 분야에서 일어났다. 첫째는 개인의 경험과 기억, 취미를 콘텐츠화 하고 산업화 하는 것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기억들은 문화산업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시민들의 시민권이 성장하는 만큼 개인의 경험과 기억, 취미는 매우 중요한 생산지이자, 소비처가 되었다. 둘째는 역사적 사건 및 인물에 대한 것이나 민속 및 생활문화에 대한 원형 발굴과 콘텐츠화 및 산업화 작업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민주화 및 지방자치나 지방분권, 지역산업발굴과 연결되면서 지역의 정체성 만들기 및 지역권력 창출과 연결되고,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문화콘텐츠 발굴은 가속화되었다.

이렇듯 문화산업의 성장과 함께 문화자원을 만들고 콘텐츠화 하는 일은 후기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할수록 매우 중요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 최근 콘텐츠산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플랫폼을 타고 글로벌 비대면 환경을 극복할 미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콘텐츠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콘텐츠 산업에 대한 모색은 자원 발굴로 이어지고 있다. 콘텐츠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들은 인간 삶 전반에 대한 탐구로 이어지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의 문화자원화는 시민들의 생생한 경험과 기억을 자원화 하여 다수가 공유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텍스트로 전환되는 경험과 기억은 기록자원으로 전환되면서 미래의 역사를 풍부하게 한다.

오늘날 문화산업의 핵심은 문화콘텐츠 산업이며, 문화콘텐츠 산업의 핵심은 기술 못지 않게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이다. 스토리텔링은 알고자 하는 이야기를 플롯(plot), 캐릭터(character), 시점(time line, time point)이라는 구조 속에서 단어, 이미지, 소리를 통해 전달하는 것으로, 스토리 또는 내러티브는 모든 문화권에서 교육과 도덕유지, 문화보존과 엔터테인먼트의 도구로써 공유되어 왔으며,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이르러 단어, 이미지, 소리를 매개하는 장치들의 성장과 확대는 스토리와 내러티브 콘텐츠의 중요성을 이끌고 있다. 특히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해서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Cloud) 시스템의 확대는 주민 스스로에 의해 주민들의 기억과 경험의 텍스트화 전환을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르러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개발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들

도 나타난다. 20세기 후반의 도시재생은 오롯이 역사문화자원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여 수행되는 면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역사문화자원화에 대한 관심은 이것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가지고 있다.

3. 임진왜란과 역사문화자원화

근대국민국가에 이르러 단순히 국가를 성립할 때 일어났던 전쟁 외에도 국가의 정당성과 관련된 과거의 전쟁을 조명하고 기념하는 것은 다시 국가 및 국민정체성과 통합을 공고히 하는 것과 관련된다. 한국사회에서는 많은 전쟁이 일어났지만, 유독 임진왜란과 이순신을 조명하는 데에 열광한다. 임진왜란이 가진 역사적 의미도 크지만, 임진왜란에서 처해졌던 포로, 열녀 등의 문제보다 이순신 인물론에 대한 선택적 기억이 큰 것은 사실이다.

역사문화자원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것은 사건과 인물이며, 사건 중에서도 전쟁사, 인물 중에서도 영웅이 가장 많이 다루어진다. 전쟁을 다루는 역사문화자원은 세계사적으로 매우 많다. 전쟁이 이렇게 중요 자원이 되는 것은 전쟁은 인류 및 국가 형성과 관련이 있으며, 사회변혁을 이끌고, 수많은 영웅 탄생을 통하여 전쟁의 정당성과 국민통합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쟁에 관한 수많은 스토리텔링들은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변화무쌍한 서사성을 갖추고 있다.

198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유독 충무공 이순신 동상이 학교 현장에 많이 세워졌다. 1968년 4월 서울 광화문광장에 당대 대표 조각가 김세중의 작품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이 공공미술로 건립되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정치적 시선과 논란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1968년 4월 27일 지금의 광화문광장에서 제막식이 열렸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건립비 전액을 헌납하였다. 충무공은 박정희가 오래도록 존경한 인물이기에, 광화문 충무공 동상은 군인 출신 박정희의 이미지와 오버랩 될 수밖에 없었다.⁴⁾

그런데 동상이 모습을 드러내자 고증이 잘못되었다는 지적들이 제기되었다. 논쟁은 크게

4) 이광표(2019) 참조

4가지였다. 첫째, 칼을 오른손에 잡고 있는 점. 둘째, 갑옷자락이 발끝까지 내려온 점. 셋째, 동상의 칼 모양이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이 사용한 장검과 다르다는 점, 넷째, 좌대 옆의 북(戰鼓)이 누워 있는 점 등이었다. 이 논란으로 인하여 건립 직후부터 충무공 동상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처음 이 주장은 금세 사그라졌지만 1977년 무렵 표준영정 문제가 추가로 거론되면서 다시 논쟁이 되었다. 장우성 화백이 그린 충무공 표준영정 속 얼굴과 동상 얼굴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표준영정은 충무공 동상이 건립되고 5년이 지난 1973년 제정되었다. 문화원형과 역사문화자원화 사이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왜곡’과 관련된 논쟁이었다.⁵⁾

동서고금의 여러 권력자는 국가나 민족과 관련된 영웅적 이미지를 자신의 상징으로 활용하였다. 그런 점에서 숭한 논란을 가져왔지만 매력적 스토리를 품는 것도 사실이다.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기념은 말한 것도 없고, 그의 어린 시절과 생애, 업적, 명언, 관련된 전투 등이 스토리텔링 콘텐츠화 되어 국민들의 민족적 정서를 증진시키는데 활용되었다.

이순신에 대한 대중적 열풍은 1960년대부터 영화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62년 유현목 감독의 〈임진왜란과 성웅, 이순신〉을 시작으로 1971년 김진규 감독의 〈성웅 이순신〉, 1978년 장일호 감독의 〈난중일기〉, 2005년 민준기 감독의 〈천군〉, 2014년 김한민 감독의 〈명량〉, 2022년 〈한산: 용의 출현〉, 〈노랑: 죽음의 바다(미개봉)〉 등이 있다. 1971년 김진규 작품은 그 해 대중상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2005년 천군은 이순신을 모티브로 하여 판타지 영화가 생산되기도 하였다. 또한 김한민 감독이 연이어 이순신을 주제로 영화를

5) 서울시는 1977년 표준영정에 맞게 동상을 다시 만들기로 하였고 문화공보부(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의 동의를 얻어냈다. 1980년 1월 예산까지 확보했지만 문화계와 시민 반대가 적지 않았다. 게다가 10·26 사건과 12·12 신군부 쿠데타로 인한 정국 불안까지 겹치면서 부담을 느낀 서울시는 결국 1980년 2월 충무공 동상 재건립을 포기하였다. 이후 한동안 잠잠하였던 이전 논의는 10년 뒤인 2004년 다시 시작되었다. 세종로 차로를 줄이고 보도를 넓히려는 논의가 한창이던 2004년 당시 한 여론조사에선 시민 87%가 충무공 동상을 옮기는 데 반대하였다. 2008년 지금의 광화문광장을 만들면서 또 한 차례 충무공 동상 이전 주장이 나왔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올해 1월, 또다시 이전 문제가 불거졌다. 서울시가 발표한 ‘새로운 광화문광장’ 설계공모 당선작에 충무공 동상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으로 옮기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발표 직후, 동상 이전에 대한 반대 의견이 터져 나왔다.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이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연말까지 시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제자리에 남을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인다.

만들어가고 있다.

TV드라마로는 1985년 <조선왕조 500년, 임진왜란>, 시청률 33%가 넘었던 2005년 KBS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등이 있다. 이렇듯 10여편의 영상물이 임진왜란과 이순신을 매개로 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외 2013년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지만, 이순신 이름을 자원화 하여 <최고다 이순신>이라는 드라마와 같이 3차, 4차 가공물들이 나타나고 있다. 2005년 <천군>은 28세에 무과에 떨어진 이순신이 방황하는 4년 동안 남북한 군인들이 시간여행을 가서 이순신을 훈련시켜주는 타임슬립이라는 판타지적 요소를 사용하여 과거와 현재를 잇는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선보였다.

현재 이순신이 치렀던 여러 전투들은 하나의 축제로 거듭나고 있기도 하다. 명량대첩, 한산대첩, 노량대첩 등을 겪은 지역들에서는 관련된 축제들을 콘텐츠로 개발하고 있다. 명량대첩축제는 1997년 명량대첩 400주년 기념행사로 해남군에서 시작되었는데, 2007년 10월에 해남군과 진도군의 명량대첩축제 통합 추진의 합의가 되어, 명량대첩기념사업회가 설립되고 2008년 조례가 제정되는 등을 거치면서 현재 전라남도와 해남군, 진도군이 주최가 되고 있으며,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에서 주관이 되어 수행하고 있다. 2022년 명량대첩축제는 2022년 9월 30일(금)~10월 2일(일) 3일간 진도군 녹진관광지, 해남군 우수영관광지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대한민국 해군과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고 있다.⁶⁾

통영한산대첩축제의 경우 2019년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축제만이 아닌 각종 문화사업 등을 연계 수행하고 있다.⁷⁾ 2022년 통영한산대첩축제는 61회를 맞이하고 있다.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로 알려진 노량대첩의 경우 남해군 등지에서 2001년 4월 28일 이충무공 탄신일에 맞춰 노량해전승첩제가 개최되어오다 2004년부터는 이순신이 전사한 11월 19일(음력) 전후로 개최하였다. 노량해전승첩제의 핵심은 2010년부터 시행된 이충무공 윤구행렬 재현 행사로,⁸⁾ 진혼제와 발인제에 이은 대규모 윤구 행렬에는 주민들이 참가하여 함께

6) <http://mldc.nrinfo.co.kr/web/> 참조함.

7) <http://www.hansanf.org/> 참조함.

8) 412년 만에 고증을 고쳐 윤구행렬을 재현해오고 있다.

하여 상여를 매고 오방기를 들며 풍악을 울리며 걷는 행사이다. 2017년부터는 이순신 순국 공원 준공과 더불어 이 일원에서 이순신 순국제전으로 치러지고 있다.⁹⁾ 이 행사는 마지막 승리의 공간적 배경이 된 남해와 노량바다 이순신의 신념을 기리는 남해바래길(이순신 호국길)을 역사적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있다. 노량해전은 창작합창교향곡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이순신 광장은 이순신 장군이 작전을 세우고 군령을 내린 진남관 등 주변 유적지와 연계한 역사문화 관광벨트를 비롯하여 매년 5월에는 호국문화축제인 ‘거북선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¹⁰⁾ 여수 거북선 축제는 2022년 전라남도 대표 축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올해가 56회에 이른다. 여수는 광양을 잇는 국내 최초의 현수교 이름을 이순신대교로 붙이기도 하였다. 이순신 광장 3대 간식도 생기면서 왜변과 관련된 스토리텔링은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왜변과 관련된 역사문화자원화는 축제, 교향곡, 시, 소설, 먹거리 등 여러 형상들을 통하여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청주를 비롯하여 광주, 순천 등 임진왜란을 지역사회의 전략 속에서 역사문화자원화 하려는 전략들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청주의 경우, 임진왜란 초기 일어났던 청주성 전투를 조명한 것으로 호서 지방의 의병과 승병이 관군과 함께 작전을 펼쳐 청주성을 탈환과 국난극복의 중요 계기를 조명하면서 청주읍성 전시관을 비롯하여 청주문화재야행, 청주읍성 큰 잔치 등의 역사문화자원화를 확대하고 있다.¹¹⁾

광주의 경우 임진왜란 때의 충신 양응정, 양산숙 일가의 순절과 의병활동에 주목하여 양씨 삼강문을 비롯하여 충효열 벽화골목 사업, 창조마을만들기 사업, 기념관 조성 사업, 의병심

9) <https://www.namhae.go.kr/tour/main>, web참조. 이 축제에는 학생문예사생대회, 학술강연, 소년 이순신 병정 놀이, 수군병영순찰과 교대의식, 수군병영생활재현, 승첩제 기념공연, 공중 불꽃쇼, 조명연합수군 위령제와 총통 발사시범, 이충무공 운구행렬재현, 이순신 동상놀이, 조선수군과 왜군과의 전투 재현, 노량해전승첩 축하 한마당, 노량해전 재현행사 등이 이루어진다. 특히 노량해전 재현행사에는 거북선과 조선수군, 왜선 등으로 꾸민 선박 100여척이 남해대교를 배경으로 전투 장면을 연출한다. 이외 해군함정과 거북선 관람, 해양경찰청 해상방제 시연, 활쏘기 체험 및 무기 전시, 태극기 타뉘주기, 어린이를 위한 페이스페인팅, 거북선 조립체험, 향토음식 및 남해 특산물 판매행사도 이루어진다(<https://news.v.daum.net/v/20071116105910820?f=o> 참조).

10) https://www.yeosu.go.kr/tour/culture_festa/geobukseon/introduce 참조

11) 청주문화재야행 공식 홈페이지에서 2021년 7월 5일 배포한 안내자료

(https://cjculturenight.org/sub.php?code=01_abou03)를 참조하여 정리함.

포지엄 등을 통하여 역사문화자원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순천시의 경우 정유재란 당시 순천왜성을 쌓아 주둔한 왜군에 맞서 육해 상에서 격전을 펼친 조·명연합군과 의병 및 민중들이 남긴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순천왜성을 비롯하여 왜란 전적지를 연구·정비하고 관광자원화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임진왜란과 역사문화자원화에서 보여주는 양식은 공간과 인물에 대한 집중이다. 왜란의 격전지를 복원하거나 자원화하는 방안과 영웅들의 일대기와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추진 주체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방문화원, 비영리민간단체, 시민모임, 별도의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지역의 또다른 역사문화자원과 연계시키려는 전략이 드러나면서 지역 자긍심 및 지역활성화 정책과 연결되고 있다.

4. 영암 을묘왜변과 역사문화자원화

앞서 해남, 진도, 통영, 남해, 여수 등이 국가적 차원의 임진왜란과 관련된 역사문화자원화에 집중한다면, 지역적 차원에서 벌어졌던 크고 작은 규모의 왜변과 그에 대한 전투를 역사문화자원화 하는 경향들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을묘왜변과 영암이다. 역사기록에 의하면 1510년 삼포왜란 이후 1555년(명종 10년) 5월 왜구들이 배 70여척을 타고 전라남도 영암의 달량포와 이포에 상륙해 노략질을 하였다. 이때 활약한 인물이 양달사이다. 양달사에 대한 공적은 1757년부터 1765년까지 영조의 지시로 편찬한 여지도서(輿地圖書)와 1799년 고경명의 7대손 고정현이 편집한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 1895년 고종 때 편찬한 호남읍지 등에 남아있다. 해방 후에는 영암군 향토사와 영암군 향토지, 제주양씨주부공파세보, 영암의 전설, 영암군지 등에 남아있다(양달사현창사업회, 2021).

이들 기록을 토대로 보면 양달사는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해남 현감을 지내다 그의 모친이 세상을 떠나자 관직을 그만두고 시묘살이를 위해 고향에 돌아왔다. 영암에서 을묘왜변이 일어나자 영암읍 근처 봉호정에 귀향해 있던 양달사가 형제들과 함께 창의하고 영암읍으로

향하여 격전을 벌였다. 이후 양달사는 고향에 돌아가 3년 시모를 마친 뒤 왜변에서 입은 부상으로 41세 나이에 죽었는데, 후에 통문과 향사 등에 활약상이 기록되어 있어 100년 뒤인 현종 13년(1672)에 전라도 유림들의 요구로 좌승지로 추증되고 충신으로 정려되었다. 현재 관련 유적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¹²⁾

영암에서의 을묘왜변과 관련된 역사문화자원화는 영암읍성 및 양달사 일대기 스토리텔링과 관련되어 있다. 영암읍성은 약 2,000m(토성 1,500m, 석성 500m)로 조선 초기 경 축조되었으나 한국 전쟁 시기에 대부분 파괴되고 현재는 일부 구간만 남아있으며, 일부에서는 민가 담장이나 축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영암군, 2021). 2001년 영암도서관 뒤편 석성 부분 35m를 복원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최근 영암읍성을 중심으로 달맞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원 조성 구간에 포함되는 구간을 발굴조사 하였고, 조사 결과 성벽의 보존 상태가 매우 잘 남아 있어 보존과 활용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영암군, 2021).

양달사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장독샘과 시묘공원 등이 있다. 양달사와 관련한 역사문화자원화의 주체는 양달사현창사업회이다. 양달사현창사업회는 2019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설립되었는데, 2020년 영암대첩 제465주년을 기념하여 처음으로 「조선 최초의 의병장 양달사 현창사업회 창립 1주년 기념회보 '영암성」을 발간하기 시작하였으며, 거기에는 양달사와 관련된 대국민 홍보활동을 비롯하여 장독샘 정비, 시묘공원 공사, 양달사 의병장 표준 영정 및 동상 제작 건립, 양달사 의병장 동화발간 및 글짓기 홍보, 양달사 장군배 전국 궁도대회 개최, 영암성대첩 기념일 지정 및 기념사업 추진, 영암읍성 보존운동 전개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적시되어 있다. 2020년에는 독천氣예무단이 '장독샘-장군의 붉은 깃발'이라는 연극을 공연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영암지역의 을묘왜변과 양달사 의병과 관련된 문화콘텐츠화는 확산되고 있다. 또한 여기에는 조선 최초의 의병장과 의병활동의 기원이 영암에서 비롯된다는 맥락을 가지고 있다.

12) 영암군청 홈페이지 '문화유산-양달사와 장독골샘

(http://www.yeongam.go.kr/home/tour/enjoy/enjoy_06_01/enjoy_06_01_02/yeongam.go)'참조.

5. 제주을묘왜변의 역사문화자원화

역사문화를 자원화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다. 하나는 문화원형에 대한 자원화이고, 다른 하나는 활용을 염두에 둔 문화콘텐츠로 확산시키는 일일 것이다. 또한 문화콘텐츠에서 핵심은 스토리텔링 콘텐츠이다. 스토리텔링콘텐츠는 창의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기반 사회에서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제주을묘왜변 역사문화자원들은 다음과 같다.

〈표 1〉 제주을묘왜변의 역사문화자원

구분	1차	2차~3차
기록/ 문헌	명종실록(명종 10년, 1555) 6월28일 기사 명종실록(명종 10년, 1555) 7월 6일 기사 명종실록(명종 10년, 1555) 7월 7일 기사 명종실록(명종 10년, 1555) 8월 10일 기사 명종실록(명종 10년, 1555) 10월 21일 기사 등	황우현, 『윤주당기문』 이원진, 『탐라지(1653)』 이원조, 『탐라지초본(1842)』 담수계, 『증보탐라지(1953)』 김석익, 『탐라기년(영주서관, 1918)』 제주도, 『제주선현지(1988)』 제주도, 『제주도지 제1권(1993)』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http://jeju.grandculture.net/jeju) 담수계, 『증보탐라지, 제주문화원(2004)』 이영권, 『새로 쓰는 제주사(휴머니스트, 2005)』 심재 김석익, 『심재집_탐라인물고(제주대탐라문화연구소(2011).』 사) 제주관광학회, 『문화자원활용 스토리텔링 조사사업(2013)』 김찬흠, 『제주인물대사전(금성문화사, 2016)』 김석익, 『역주탐라기년, 제주문화원, (2017)』 제주도·제주연, 『숨겨진 역사유랑_치마돌격대(2021)』 제주도·제주연,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콘텐츠 발굴사업(2021)』
장소	화북수전소 남수구터 제주성지 제주목관아지 망경루 엄장	제주성지(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1호, 1971) 제주목관아(대한민국 사적 제380호, 1993)

구분	1차	2차~3차
인물	김수문 김직손 김성조 이희준 문시봉 김몽근	나주김씨제주도종친회, 『김성조 건공장군 일생(1982)』 건공장군현양추진위원회, 나주김씨인총공파총친회, 『건공장군 김성조 자료집(2021)』 박재형, 『을미왜변의 영웅, 김성조 장군(2021)』
비석	건공장군 김공성조 지묘비(1933) 건공장군 배위 정부인 경주김씨지묘비(1933) 입도6세 건공장군(김성조)과 배위의 묘비(2012)	건공장군 김공성조 지묘비(1933) 건공장군 배위 정부인 경주김씨지묘비(1933) 입도6세 건공장군(김성조)과 배위의 묘비(2012)
족보	건공장군공 행장(나주김씨인총공파세보(1946)	건공장군공 행장(나주김씨인총공파세보(1946)
노래/시		나주김씨인총공파 회가(會歌) 김순택, 『(한시) 詠史 何處安表石 / 東韻(제주일보, 2021.05.12.)』 김경국, 『(한시) 獻贊 建功將軍金成祖 / 灰韻(제주일보, 2021.06.16.)』

이 자원들을 통하여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드러나는 핵심인물과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을묘왜변의 시공간적 콘텐츠 발굴 기반을 정리하면, 시간적으로는 명종 10년 을묘년이며, 공간적으로는 제주에서 전투가 발생하였던 주요 장소, 사건은 전라도 지역을 침입하였던 왜구가 패배하여 후퇴하는 과정에서 제주로 침입하여 제주읍성을 포위하고 전투가 발생, 그 과정에서 제주목사를 비롯한 제주 주둔 군사와 도민들이 합세하여 왜구를 물리친 것이며, 인물은 이 왜변을 승리로 이끈 제주목사, 4인의 치마돌격대, 70인의 군사 등으로 볼 수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제주을묘왜변과 스토리텔링 콘텐츠 발굴 기반

시간 1555년 왜구와 제주민의 대치	공간 을묘왜변과 치마돌격대의 격전지 (화북포, 남수구, 제주동성 등)
사건 을묘왜변과 치마돌격대의 활약	인물 치마돌격대 김직손, 김성조, 이희준, 문시봉 등

스토리텔링과 관련해서 사건 중심으로 제주을묘왜변의 핵심적 요소를 분석할 수 있는데, 김석윤(2021)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2〉 제주을묘왜변의 핵심 요소

사건의 전개	핵심 요소	현재적 의미
왜구 70여척 달랑포에서 퇴각	국가적 위기	국가적 위기
왜선 40여척 제주 앞바다 정박 왜구 천여명 상륙, 동성 공격	제주 공동체 위협	생존 위협
날랜 군사 70인 돌격, 30보 대치 제주군사공격, 왜인 다수 부상	효과적인 전술 구사	위협에 대한 적극적 대처
4인 치마돌격대	공동체 수호를 위한 헌신	희생과 협력
적군 퇴병, 왜장 사살, 추격하여 참획	왜구 격퇴, 공동체 수호	미래 재난에 대한 준비
선로사 파견, 논공	위로, 공동체 안정	안정적인 삶 유지

※ 제주도·제주연구원,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콘텐츠 발굴사업] 44쪽 참조

장소와 관련해서는 을묘왜변과 관련된 장소 자원과 주변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데, 을묘왜변과 주변 자원의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런 장소들은 사건 및 인물의 서사구조를 완성시키는 공간으로서 활약한다.

〈표 3〉 을묘왜변 관련 자원 및 주변 자원

을묘왜변 관련 장소 자원	주변자원	핵심 요소와 의미
화북포구, 수전소, 방호소	화북진성, 별도연대, 해신사, 환해장성	상륙
사라봉 봉수	일제진지동굴	통신
왜구 진 구축	-	주둔
제주읍 동성	김정 적거지, 판서정	왜구공격
남수구	제이각, 가락곶물, 오현단	치마돌격대
제주목관아	망경루	기념

※ 제주도·제주연구원,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콘텐츠 발굴사업] 45쪽 참조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은 경계해야 할 요소가 있지만 충분한 사료조사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원형을 자원화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콘텐츠를 발굴한다면 현재적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본다. 현재 전쟁과 관련된 인물은 탄생에 있어 특별한 기원, 유아시절 영웅이 될 징조, 영웅의 활약, 큰 별의 죽음과 사회 변동 등으로 콘텐츠화 되는데, 건국장군 김성조 스토리텔링에도 녹아있다. 한편으로 김성조의 경우, 충암 김정과 교유해 진사시 과거에 급제하여 제주향교 교수를 지내고 향약당을 세운 김양필의 사위임이 강조되고, 문시봉의 경우 현마공신 김만일의 장인으로 목마기술을 김만일에게 전수한 과정이 부각됨으로써, 그들이 을묘왜변의 영웅이 될 사회적 관계를 부연하기도 한다.

향후 을묘왜변과 관련된 스토리텔링 콘텐츠 방식과 매체 등을 생각해본다면 다음 <표 4>처럼 수많은 콘텐츠 발굴이 가능하다.

<표 4> 제주을묘왜변관련 콘텐츠 발굴

분야	내용
문자	을묘왜변 관련 기사 을묘왜변 및 치마돌격대 관련 책자(교양서, 문학서, 시나리오 등) 출판 을묘왜변 및 치마돌격대 관련 상징 기호 생산 등
사진/영상	을묘왜변 및 치마돌격대 관련 다큐멘터리
인터넷/스마트폰(SNS)	을묘왜변 및 치마돌격대 관련 게임 을묘왜변 및 치마돌격대 관련 밈
놀이/축제	을묘왜변 및 치마돌격 관련 승전 기념 축제 을묘왜변 및 치마돌격대 관련 놀이 및 행사(예: 승마대회 등)
음악	을묘왜변 승전 관련 음악 창작 및 공연 등
미술	을묘왜변 관련 회화·조각, 글씨, 공예 제작 및 전시 등
연극/무용	을묘왜변 및 치마돌격대 관련 연극 및 오페라 제작과 공연 등
공간	을묘왜변 및 치마돌격대 승전 관련 전시관 설치
실감형	을묘왜변 및 치마돌격대 관련 실감형 애니메이션 제작 을묘왜변 및 치마돌격대 디지털 전시관 및 플랫폼 등

※ 제주도·제주연구원,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콘텐츠 발굴사업] 47쪽 참조

최근에는 제주을묘왜변과 관련된 신문기고 및 기사들이 활발하게 생성되고 있다.

〈표 5〉 제주을묘왜변 관련 신문기사 및 기고

신문	일자	제목
제주일보	2011.08.04	향토수호의 상징물을 제대로 세우자.
제주일보	2015.07.13.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
제주일보	2021.07.20	아찔한 절벽 위 돌무더기...왜구 침입 알리던 곳
제주일보	2021.10.17	제주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
한라일보	2021.05.04	500년 전 제주에는 무슨 일이?
제주일보	2022.03.10	숨겨진 역사 유랑, 제주을묘왜변과 치마돌격대
한라일보	2022.07.07	오수정의 목요담론_을묘왜변과 제주의 관심
한라일보	2022.08.02	제주 을묘왜변 재조명 움직임 관심
한라일보	2022.08.02	제주 유일의 승전 역사 을묘왜변 현장을 가다 1_을묘왜변의 재조명과 역사적 의미(상)
한라일보	2022.08.09	제주 유일의 승전 역사 을묘왜변 현장을 가다 2_을묘왜변의 재조명과 역사적 의미(하)
한라일보	2022.08.23	제주 유일의 승전 역사 을묘왜변 현장을 가다 3_조선전기 왜구와 제주의 방어체계
한라일보	2022.08.30	제주 유일의 승전 역사 을묘왜변 현장을 가다 4_역사인물의 지역적 재해석, 을묘왜변과 역사인물
한라일보	2022.09.06	제주 유일의 승전 역사 을묘왜변 현장을 가다 5_문화기억으로 전승하는 제주을묘왜변 승전이야기 (상)
미디어제주	2022.07.27	6천명에 달하는 왜구에 속수무책이던 조선
미디어제주	2022.08.10	군사도 없고, 군량도 없고, 왜구에 대한 정보도 없었다.
미디어제주	2022.08.18	왜구에 맞서 제대로 싸우려는 장수는 왜 없는가?
미디어제주	2022.08.30	을묘왜변 승리 이면엔 의병의 역할 있었다.
미디어제주	2022.09.02	의병은 살기 위한 민초들의 움직임이었다.

※ 제주연구원,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콘텐츠 발굴사업] 47쪽 참조

문제는 산재해 있거나 아직 발굴되지 못한 역사문화자원과 콘텐츠를 관리할 주체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제주 유일의 승전사를 기념하는 ‘제주을묘왜변 승전기념사업회’조성을 제안한다. 제주을묘왜변에 대한 원형발굴과 콘텐츠 개발은 〈표 6〉처럼 염두에 두어볼 수 있다.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주체가 필요하고, 이런 체계에 따라서 지속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표 6〉 역사문화자원의 원형 발굴 주체와 콘텐츠 발굴 주체

구분		담당
역사문화자원 원형	원형 발굴	학계 및 향토 사학계
	원형 관리	대학, 박물관, 자료관, 전시관 등
문화콘텐츠	콘텐츠 개발	작가, 예술가, 기업, 관련 기관
	콘텐츠 유통, 활용	개인, 기업, 학교, 관련 기관

6. 나오며

전쟁과 관련된 역사문화자원의 세계적인 사례들은 많다. 전쟁은 종전 후 승전을 기념하거나 피해를 기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서 국내·외 정치와 통치에 관여하여 왔다. 또한 이를 위하여 전쟁문화의 자원화와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졌다. 전쟁에 대한 기념사업의 수행과 기억의 반복은 국가의 여론을 통일하고 전쟁에 참여한 국민들의 지속적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 내는 한 방법이다.

한편으로 전쟁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기억과 기념사업의 수행은 국가가 보호해주지 못한 위치에서 겪어야 했던 엄청난 피해와 공동체를 위한 협력으로 나타난다. 을미왜변만 놓고 보더라도, 당시 왜구는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견고한 전함을 만들어 사용하고 총통 제작 기술 및 사용법을 익혀서 전력이 강화되어 있었다. 반면 조선에서는 지방 수군과 정병에 대한 방군수포(放軍收布)가 공공연히 행하여지고 있었고, 실제 군무는 가난한 농민들이었다. 진관체제의 기능이 약화되고 적 침입에 제대로 대비가 안 되어 왜란 전에 왜구 침입을 탐지했으면 서도 고스란히 국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그 피해는 지역공동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주었다. 그럼에도 지역민들의 공동체를 위한 협력의 정신을 발휘하여 국란을 극복하고 지역공동체를 살리어 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신적 가치임에도, 피해의 역사만 남고, 협력의 역사는 사라져 버렸다.

지역사회에서 승리의 역사를 기억하는 일은 지역공동체의 협력 정신의 궤적을 살펴보는 것이자, 지역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한 개인들과 공동체 구성원들이 얼마나 큰 이타정신과 노력을 보여 왔는지 그 가치를 찾고 해석하여 오늘날의 지역공동체에 자긍심 형성과 미래

발전에 기여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역 정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다음(daum) 국어사전에 을묘왜변은 ‘조선시대, 1555년에 전라남도 해남군의 달랑포에 왜구가 쳐들어온 사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제주 사건은 제외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은 문화적 기억에 기대어 역사적 사실을 기억한다. 그런 점에서 제주을묘왜변에 대한 문화적 기억을 위해 역사문화자원화와 콘텐츠 개발이 중요한 것이다.

참고문헌

- 강상규(2007),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환과 제국 일본』, 논형
- 공자원(2011), 「도시관광활성화를 위한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 잠재력 개발 평가지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준혁(2016),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활용한 수원의 정체성 정립과 도시재생」, 역사문화학회, 『지방사와 지방문화』.
- 박미선(2018),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유형화와 활용방안: 화순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문화학회, 『지역과 문화』제5권 4호.
- 박상섭(1996), 『근대국가와 전쟁: 근대국가의 군사적 기초, 1500-1900』, 나남.
- 양달사현창사업회(2020), 『조선최초의 의병장 양달사현창사업회 창립 1주년 기념회보 : 영암성』.
- 양달사현창사업회(2021), 『조선최초의 의병장 양달사현창사업회 창립 2주년 기념회보 : 영암성』, 오세경 역사
- 영암군(2021), 『영암읍성 보존 및 활용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
- 오세경(2002), 「공주시 역사문화환경조성을 위한 계획과정에 관한 제언」, 대한건설환경학회, 건설환경연구, 제1권 4호.
- 오세경·조홍석·김정동(2001), 공주시 역사문화환경의 보전 유형 분석, 국토계획 35권 5호.
- 이광표(2019), 「명작의 비밀 : 세종로 이순신 장군 동상의 정치학」, 『신동아』.
- 이승연(2012),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민북마을 환경계획: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마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은진(2015),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계획지표 연구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잔프랑코 쫓지, 박상섭 옮김(1995), 『근대국가의 발전』, 민음사.
- 제주도·제주연구원(2021), 『숨겨진 역사유량 치마돌격대』.
- 제주도·제주연구원(2021),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콘텐츠 발굴사업 최종 보고서』.
- 조광호(2017), 『도시재생에서 역사문화콘텐츠 활용의 쟁점 및 정책자원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조지프 알 스트레이어, 박은구 옮김(1982), 『근대국가의 기원』, 탐구당.
- 크리스토퍼 피어슨, 박형신 옮김(1997), 『근대국가의 이해』, 일신사.

「영암읍성의 원형 추정과 문화유산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문

송태갑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관장

을묘왜변과 지역사회의 대응, 역사문화자원화 세미나에 초청해 주신 제주연구원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암군 학예연구사로 문화재 업무를 보면서 읍성에 대한 군청내외의 민원을 처리 하였는데 이렇게 토론장에 설 줄을 몰랐습니다.

영암읍성은 성대철 선생님의 발표대로 영암읍내에 있고 문헌도 잘 남아 있으며 성벽의 보존상태도 양호합니다. 그것은 최근 발굴조사로도 밝혀 졌습니다. 영암읍성 발굴조사는 쇠락해가는 읍에 활력을 넣고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 실시 되었고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영암읍성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성선생님의 발표를 중심으로 우리군 사업을 말씀드리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영암읍성의 활용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번째는 성대철 선생님의 발표대로 문화재로 지정하고 복원하여 전시하는 문화재 자체로 활용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즉 성돌 찾기 운동, 지역의 역사문화축제 개최등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암읍성 자체를 공원화하여 도심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화재 지정로 관리하는 것은 문헌이나 유적이 잘 남아 있어 어려움이 없습니다. 단, 도심 중심부에 있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규제로부터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어 찬반의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활용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 사회단체등

과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이것은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계획이 필요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도심공원화 사업은 현재 진행 중으로 다음 조감도를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화 사업은 현재 각종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 하고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주요한 시설을 말씀드리면 1번 경관 보도교는 영암읍 도심이 확장하면서 훼손된 읍성을 다리로 연결하여 복원하는 의미가 고데 가운데에 있는 둥근 원은 영암의 상징인 둥근달을 형상화 했습니다. 3번째 유물전시관은 그동안 4번에 걸친 영암읍성 발굴조사에서 나온 각종 유물과 자료 등을 전시하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복원 모습도 보여줄 계획입니다. 4번째 영암읍성 승전 기념광장은 앞서 발표해주신 성선생님의 여러 가지 지도를 참고해주시면 더 이해 쉽습니다. 또한 주제 2의 선생님들의 발표와 토론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노기욱 소장님께서 발표하신 영암지역 양달사 장군과 창우대의 의병활동에서 처럼 영암읍성은 양달사와 을묘왜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전투를 기념하기 위한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외 공원에 맞게 달조형물을 형상화하여 회랑과 같이 설치하고, 진입계단, 바닥분수 등을 설치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영암읍성의 활용 방향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암읍성내 달맞이 공원 조성사업의 시작은 도심공동화 따른 관람 및 관광객 유치, 주민들의 주거 여건 향상등의 이유에서 시작하였지만 이 사업이 역사적인 사건과 유적이 보태져서 훨씬 의미 있는 사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 많은 부분은 해당 부서의 노력과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제주을묘왜변의 역사문화자원화」에 대한 토론문

김형훈

미디어제주 편집국장

을묘왜변을 통해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보자

21세기에 들어와서 문화의 힘은 더 강해지고 있다. 그야말로 매력적이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그걸 확인하게 만든다. 미국 방송계 최고의 상으로 불리는 ‘에미상’ 시상식 장면은 우리에게 문화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놓고 이야기한다.

지금은 문화의 다양성 시대이다. 문화원형을 통해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그게 세계인들에게 먹힌다. 예전엔 상상하지 못할 일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문화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비롯, 딱지치기와 구슬치기 등은 우리 어른들의 기억에만 있던 ‘낡은 추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음을 에미상은 말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즐기던 놀이가 세계인의 놀이가 될 줄을 상상한 이들은 없다.

‘킬러 콘텐츠’라는 말이 있다. 다른 콘텐츠로 대체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거나 막강한 콘텐츠일 때 ‘킬러 콘텐츠’라고 쓰곤 한다. 대표적인 킬러 콘텐츠로 조안 롤링이 쓴 《해리포터》를 들 수 있다. 《해리포터》는 영화나 캐릭터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됐다. 《해리포터》는 하나의 소스로 다양한 걸 만들어내는, 즉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s)’의 대표적인 콘텐츠 중 하나이다. 《해리포터》를 보면 잘 만든 콘텐츠가 영화는 물론,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팬시 제품 등 다양하게 활용되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게 됨을 읽게 된다.

제주도는 다양한 이야기를 지닌 섬이다. 그렇지만 다양한 이야기가 아닌, 특정 이야기만

해온 느낌이 적지 않다.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무척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다. 전쟁이라는 특이한 상황, 무장이 잘 된 왜구의 집단적인 침략… 만일 1555년 제주도라는 땅에 살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발표문에도 제시가 되었지만, 왜구 천여명이 제주에 상륙한 일은 보통은 아니다. 제주을묘왜변은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을 뚫고 승리로 만드는 ‘기적’을 일궜다. 여기엔 공동체 수호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있었다.

발표자가 ‘제주을묘왜변 승전기념사업회’ 조성을 제안했는데, 매우 공감한다. 그러려면 역사문화자원의 원형을 제대로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원형’은 독자적인 개성을 말한다. 아주 작은 단위의 마을이 지닌 독자적인 개성일 수도 있고, 마을보다 좀 더 큰 단위를 일컫는 ‘지역’이 다른 지역과 다르게 보일 때도 ‘독자적인 개성’으로서 원형을 이야기하게 된다. 혹은 의도하지 않는, ‘무의식적인 행위’나 ‘집합적인 무의식’도 거기에 포함된다.

발표자는 ‘개인 인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심스레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발표자 역시 개인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은 경계해야 할 요소가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자원을 발굴해 활용할 필요성도 있음을 말하고 있다.

물론 개인 인물을 부각시켜서 제주을묘왜변을 더욱 상징성 있는 문화콘텐츠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엔 너무 많은 위험부담이 있다. 역사는 사실을 기초로 원형을 찾아내고, 그 원형을 토대로 콘텐츠가 만들어지게 마련인데, 지금까지 드러난 제주을묘왜변과 관련된 인물의 이야기는 너무 빈약하다. 그러기에 발표문에 나온 인물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제주도민을 부각시키는 게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앞서 원형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제주 사람들의 몸에 알게 모르게 각인된 문화원형은 ‘공동체’에 있다. 제주을묘왜변의 승리 배경엔 몇몇 사람들의 헌신은 물론, 천여명의 왜구를 물리치려는 ‘공동체의 힘’이 있었다. 그게 제주을묘왜변을 통해 찾아낼 문화원형의 하나라고 본다. 그래서 이왕이면 개인 인물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1555년 당대를 살았던 민초들에게 주안점을 뒀으면 한다.

거듭 발표자가 제안한 ‘제주을묘왜변 승전기념사업회’ 구성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이왕이면 ‘제주을묘왜변 승전기념사업회’라는 이름이 아니라, ‘제주대첩 기념사업회’로 만들면 어떨지, 역제안을 해본다.

《조선왕조실록》에 을묘왜변 이야기가 몇차례 등장하는데, 제주에서 일어난 승리에 대해 당시 임금인 명종은 ‘대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1555년 당시를 살던 명종이 ‘대첩’으로 불렀

다면, 지금을 사는 우리는 더 당당하게 '제주대첩'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발표자의 제안대로 기념사업사업회가 가동된다면 역사문화원형을 찾는 일은 물론, 이를 콘텐츠로 만드는 등 다양한 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콘텐츠가 만들어질지 예상할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킬러 콘텐츠'를 겨냥하며 진행을 해보자.

또 한가지. 오는 2025년이면 왜구의 입장에서 을묘왜변이 일으킨지 470주년이 된다. 하지만 제주 공동체라는 틀에서 살고 있는 제주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주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승리를 거둔 '제주대첩 470주년'이 된다. 얼마 남지 않았다. 제주 공동체가 함께하는 470주년을 은근히 기대해본다.

학술세미나
**을묘왜변과 지역사회의 대응,
역사문화자원화**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대표전화:064-120
www.jeu.go.kr

제주연구원
631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이동)
Tel. (064)729-0527 Fax. (064)751-2168
www.jri.re.kr

발행일 2022년 9월 22일
제작처 한그루 www.onetreebook.com
출판등록 제651-2008-000003호